

2023.8.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2023.8.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





## 제 출 문

###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균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정혜은
		선임연구위원	이용갑
		연구위원	최태림
		부연구위원	김유정
		초빙연구원	박수빈
외부기관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연구위원	박태호

## chapter 1

### 연구개요 00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03
- 2. 연구의 범위 004
- 3. 연구의 방법 005
- 4. 연구 수행체계 005

## chapter 2

### 장사시설 관련 정책 검토 007

- 1. 장사시설 관련 정책 추진 배경 009
- 2.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015
- 3.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정책 024

## chapter 3

### 장사시설 현황 검토 031

- 1. 전국의 장사시설 현황 033
- 2. 인천시 장사시설 현황 041
- 3. 인천시 기타 장사시설 현황 061

## chapter 4

###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시민의식 조사 071

- 1. 조사개요 073
- 2.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조사 074
- 3.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조사 123
- 4. 요약 및 시사점 127

## chapter 5

###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전망 129

- 1. 분석 개요 131
- 2. 장사시설 수요 추계를 위한 기초 통계 추정 132
- 3.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분석 136

## chapter 6

### 인천시 공영장례 기본계획 145

- 1. 추진 배경 147
- 2. 인천시 추진 현황 149
- 3. 타 시도 사례 154
- 4. 인천시 공영장례 발전 방안 171

## chapter 7

### 인천시 장사시설 발전 방안 175

- 1. 비전 및 정책 목표 177
- 2. 인천시 장사정책 과제 178
- 3. 인천시 장사시설 발전을 위한 제언 219
- 4. 인천시 주요 장사정책 로드맵 221

### 참고문헌 223

### 부록 227

- 1.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지 229
-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지 239

[표 2-1] 장사시설 관련 법률 변천 과정 .....	16
[표 2-2] 장사정책 주요 추진계획 .....	19
[표 2-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정책과제 .....	23
[표 2-4] 인천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	24
[표 2-5]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25
[표 2-6]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	26
[표 2-7] 인천가족공원 조성묘 관리료 .....	27
[표 3-1] 전국 공설묘지 현황(2021년 기준) .....	33
[표 3-2] 전국 법인묘지 현황(2021년 기준) .....	34
[표 3-3]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2021년 기준) .....	35
[표 3-4] 전국 화장률 현황(2021년 기준) .....	36
[표 3-5] 인천시 군·구별 화장률 및 화장 건수 추이(2019-2021) .....	38
[표 3-6]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2023년 기준) .....	41
[표 3-7] 인천가족공원 일반시설물 현황(2023년 기준) .....	43
[표 3-8]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	45
[표 3-9]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현황(2023년 기준) .....	45
[표 3-10]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진내용 .....	47
[표 3-11]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추진내용 .....	48
[표 3-12] 인천가족공원 3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 .....	49
[표 3-13]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이용 추세(2017-2022): 사망자 거주지별 .....	50
[표 3-14] 인천시 전체 묘지 현황(2023년 기준) .....	51
[표 3-15] 인천시 공설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	52
[표 3-16] 인천시 법인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	53
[표 3-17] 인천시 개인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	53
[표 3-18] 인천시 가족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	53
[표 3-19] 인천시 종중·문중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	54
[표 3-20] 인천시 종교 및 단체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	54
[표 3-21] 인천시 봉안시설 현황 종합(2023년 기준) .....	55
[표 3-22] 인천시 공설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	56
[표 3-23] 인천시 법인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	56
[표 3-24] 인천시 종교단체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	57
[표 3-25] 인천시 기타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	57
[표 3-26] 인천시 공설 자연장지 현황(2023년 기준) .....	58

[표 3-27] 인천시 사설 자연장지 현황(2017년 기준) .....	59
[표 3-28] 인천시 장례식장 현황 .....	59
[표 3-29] 인천시 장례식장 운영형태별 현황 .....	59
[표 3-30] 인천시 장례식장 시설별 현황(2023년 기준) .....	60
[표 3-31]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토지 소유 현황(2023년 1월 기준) .....	63
[표 3-32] 검단묘지공원 추진 경위 .....	64
[표 3-33] 영종메모리얼파크 추진 경위 .....	67
[표 4-1]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 조사 개요 .....	73
[표 4-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개요 .....	74
[표 4-3] 응답자 특성 .....	75
[표 4-4] 응답특성별 비교(죽음/장례 준비 교육 경험) .....	77
[표 4-5] 응답특성별 비교(죽음/장례 준비 교육을 받은 곳) .....	79
[표 4-6] 응답특성별 비교(죽음 준비 교육 필요성) .....	81
[표 4-7] 응답특성별 비교(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 .....	82
[표 4-8] 응답특성별 비교(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필요성 인식) .....	84
[표 4-9] 응답특성별 비교(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관련 인식) .....	87
[표 4-10] 응답특성별 비교(적정 장례 비용에 대한 인식) .....	89
[표 4-11] 응답특성별 비교(희망하는 장례 장소) .....	91
[표 4-12] 응답특성별 비교(희망하는 장사 방법) .....	92
[표 4-13] 응답특성별 비교(매장 희망 이유) .....	94
[표 4-14] 응답특성별 비교(희망하는 묘지 유형) .....	96
[표 4-15] 응답특성별 비교(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	100
[표 4-16] 응답특성별 비교(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 .....	101
[표 4-17] 응답특성별 비교(선호하는 자연장 형태) .....	103
[표 4-18] 응답특성별 비교(산분장 선택자 대상 선호하는 산분 장소) .....	105
[표 4-19] 응답특성별 비교(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 .....	107
[표 4-20] 응답특성별 비교 표(산분장 정책 찬성자 대상 선호하는 산분 장소) .....	109
[표 4-21] 응답특성별 비교(지역 내 산분장 설치에 대한 의견) .....	111
[표 4-22] 응답특성별 비교(가정 내 유골 안치에 대한 의견) .....	113
[표 4-23] 응답특성별 비교(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 .....	116
[표 4-24] 응답특성별 비교(봉안당 최대 안치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 .....	118
[표 4-25]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필요 정책(1순위, 2순위) .....	120

[표 5-1] 인천시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 추계 기준 .....	132
[표 5-2] 인천시 화장률 추이(2012-2021) .....	133
[표 5-3] 인천시 화장률 예측값(2022-2027) .....	135
[표 5-4] 인천시 관내 화장수요 추계(2023-2043) .....	136
[표 5-5] 인천시 총 화장수요 추계(2023-2043) .....	137
[표 5-6] 인천시 화장로 수급전망(2023-2043) .....	138
[표 5-7]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이용 비율(2018-2023) .....	139
[표 5-8] 화장 후 안치 유형 수요 추계(2023-2043): 대안 1(이용실태) .....	140
[표 5-9] 화장 후 안치 유형 수요 추계(2023-2043): 대안 2(설문조사 결과) .....	141
[표 5-10]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공급 전망 .....	142
[표 5-11] 화장 후 안치 유형별 누적 봉안 건수(2023-2043) .....	143
[표 6-1]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항목 .....	149
[표 6-2] 인천시 공영장례 추진 절차 .....	150
[표 6-3] 공영장례 장례의식 절차 .....	151
[표 6-4] 인천시 공영장례 실적(2021-2023) .....	152
[표 6-5] 공영장례 군·구 담당자 의견 .....	154
[표 6-6]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155
[표 6-7]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의 지원대상 .....	156
[표 6-8]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의 지원방법 .....	158
[표 6-9]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의 지원내용 .....	159
[표 6-10]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	166
[표 7-1] 인천시 산분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	185
[표 7-2] 화장로 방식 비교 .....	188
[표 7-3] 화장장 주변지역 설정 방안 대안 비교 .....	190
[표 7-4] 인천시 화장로 증설을 위한 5개년 계획 .....	193
[표 7-5] 묘지 실태조사 서식 .....	195
[표 7-6] 서울시 및 경기도 개장화장 장려금 내용 .....	196
[표 7-7] 인천시 묘지 재정비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	199
[표 7-8]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현황 .....	200
[표 7-9]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현황 .....	201
[표 7-10]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순환 사용을 위한 5개년 계획 .....	202
[표 7-11]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현황 .....	203
[표 7-12]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 효율화를 위한 5개년 계획 .....	206

[표 7-13] 인천가족공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 .....	208
[표 7-14] 인천시 공영장례 운영 개선 및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	211
[표 7-15] 인천시 장례식장 안치냉장고 현황(2022년 12월 기준) .....	214
[표 7-16] 인천시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 .....	214
[표 7-17]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 연령대별 .....	215
[표 7-18] 인천시 죽음 준비 교육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	216
[표 7-19] 인천시 사전장례의향서 확산을 위한 5개년 계획 .....	217
[표 7-20] 해외 유골 안치 방식 .....	217
[표 7-21] 인천시 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 확산을 위한 5개년 계획 .....	218
[표 7-22] 인천시 주요 장사정책 추진 로드맵(2023-2028) .....	222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	5
[그림 2-1] 인천시 사망자 수 추계(2020-2040) .....	9
[그림 2-2] 인천시 1인가구 추이(2020-2050) .....	10
[그림 2-3] 인천시 65세 이상 1인가구 추이(2020-2050) .....	11
[그림 2-4]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2013-2021) .....	12
[그림 2-5] 전국 화장률 추이(2005-2022) .....	13
[그림 2-6] 1일 화장능력 및 3일차 화장률 추이(2022년 2~4월) .....	14
[그림 2-7] 장사정책 기본방향 .....	18
[그림 3-1] 전국 및 수도권 화장률 추이(2018-2021) .....	37
[그림 3-2] 인천시 군·구별 화장 건수 및 화장률 현황(2021) .....	38
[그림 3-3] 전국 자연장지 현황(2023년 기준) .....	39
[그림 3-4] 전국 장례식장 현황(2023년 기준) .....	40
[그림 3-5] 인천가족공원 현황도(2023년 기준) .....	42
[그림 3-6]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	46
[그림 3-7] 인천가족공원 합동분묘 .....	46
[그림 3-8]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단계별 구역도 .....	50
[그림 3-9]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이용 추세(2017-2022): 사망자 거주지별 .....	51
[그림 3-10]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	62
[그림 3-11]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 현황도 .....	63
[그림 3-12] 영종메모리얼파크 설치 위치도 .....	65
[그림 3-13] 서구 왕길묘지 현황 .....	68
[그림 4-1] 죽음/장례 준비 교육 경험 .....	76
[그림 4-2] 죽음/장례 준비 교육을 받은 곳 .....	78
[그림 4-3] 죽음 준비 교육 필요성 .....	80
[그림 4-4]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 .....	82
[그림 4-5] 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필요성 인식 .....	84
[그림 4-6] 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필요성 인식(인천-전국 비교) .....	86
[그림 4-7]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관련 인식(인천-전국 비교) .....	86
[그림 4-8] 적정한 장례비용에 대한 인식 .....	88
[그림 4-9] 희망하는 장례 장소(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90
[그림 4-10] 희망하는 장사 방법(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92
[그림 4-11] 화장 희망률(전국-인천) .....	92
[그림 4-12] 매장 희망 이유(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93

[그림 4-13] 희망하는 묘지 유형(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95
[그림 4-14] 화장 희망 이유(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97
[그림 4-15] 화장 희망 이유(인천-전국 비교) .....	98
[그림 4-16] 화장 후 유골 희망 안치 방법(인천-전국 비교) .....	98
[그림 4-17] 화장 후 유골 희망 안치 방법(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99
[그림 4-18] 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 .....	101
[그림 4-19] 선호하는 자연장 유형(인천-전국 비교) .....	102
[그림 4-20] 선호하는 산분 장소(산분장 선택자 대상) .....	104
[그림 4-21] 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 .....	106
[그림 4-22] 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전국-인천 비교) .....	107
[그림 4-23] 선호하는 산분 장소(산분장 정책 찬성자 대상) .....	108
[그림 4-24] 선호하는 산분 장소(인천-전국 비교) .....	109
[그림 4-25] 지역 내 산분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 .....	110
[그림 4-26] 가정 내 안치에 대한 의견 .....	112
[그림 4-27] 승화원 이용 경험 .....	114
[그림 4-28] 승화원 이용 시 불편한 점 .....	114
[그림 4-29] 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 .....	115
[그림 4-30] 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연도별 비교) .....	115
[그림 4-31] 봉안당 최대 안치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 .....	117
[그림 4-32] 봉안당 최대 안치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 (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	118
[그림 4-33]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 .....	119
[그림 4-34] 인천시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 시 바람직한 해결 방안 .....	122
[그림 4-35] 화장 유형 .....	123
[그림 4-36] 고인 거주지별 이용 현황 .....	123
[그림 4-37] 관외 주민의 승화원 이용 사유 .....	124
[그림 4-38] 관외 주민의 승화원 이용 사유(고인 거주지별) .....	124
[그림 4-39]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	125
[그림 4-40]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고인 거주지별) .....	126
[그림 4-41] 산분장 선택하지 않는 이유 .....	126
[그림 5-1] 예측 모형 산식 .....	134
[그림 6-1] 전국 및 인천시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2012-2021) .....	147
[그림 6-2] 공영장례 개념 .....	148

[그림 6-3]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인원수(2021-2023) .....	152
[그림 6-4] 인천시 공영장례 장소 비중(2021-2023) .....	153
[그림 6-5] 시신 발생 시 업무흐름도 .....	160
[그림 6-6]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처리절차 .....	162
[그림 6-7] 별빛버스 외부 및 내부모습 .....	164
[그림 6-8]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수행 흐름도 .....	167
[그림 6-9]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과 장제급여와의 연계 .....	167
[그림 6-10]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기관별 업무흐름도 .....	168
[그림 6-11]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 전경 및 공영장례 모습 .....	169
[그림 6-12] 부산광역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수행 흐름도 .....	170
[그림 7-1] 인천시 장사정책 비전 및 목표(2023-2027) .....	177
[그림 7-2]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활용한 산분섹터 조성(안) .....	180
[그림 7-3] 산분장 매몰 방식 사례: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비아스 묘지 화장장 .....	181
[그림 7-4] 스웨덴 미네스룬드 산골장소 사례 .....	182
[그림 7-5] 홍콩 해양장 페리 .....	184
[그림 7-6] 울산하늘공원 유족대기실 .....	188
[그림 7-7]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기도문 .....	189
[그림 7-8]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게시판 .....	189
[그림 7-9] 화장장 주변지역 명절 교통 혼잡 지역: 만월산터널 입·출구 .....	191
[그림 7-10] 도키노모리 시설 평면도 .....	192
[그림 7-11] 서울시립 자연장지 .....	204
[그림 7-12] 일본 요코하마 메모리얼그린 수목형 합장식 .....	205
[그림 7-13]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비상운영체계(안) .....	213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 수행체계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고령화 현상의 심화 및 가족구조 변화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장사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사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인천시 사망자 수는 2020년 1만 6천 명에서 2040년 2만 8천명(2020년 대비 1.8배)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인천시 장사시설의 중·장기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함
  - 인천시 1인가구는 2020년 기준 주된 가구 유형(전체 가구 중 31.2%)이며, 2050년에는 51만 가구로 2020년 대비 1.6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더 높아서 2050년에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53.5%) 고령자 1인 가구로 예측됨
  -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했던 문화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화장률이 91.6%에 이르는 등(2022년 추계 결과)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변화하였으며, 화장과 함께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보건복지부, 2023)
  - 이러한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응하여 화장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인천시민의 수요에 맞는 장사시설이 유형별로 마련이 되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는 화장로 수급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함
  -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 이는 지역에서의 화장시설 수급에 대한 점검과 국가재난상황 대응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장사시설 현황 분석, 인천시의 장사시설 수요 및 공급 추이 분석, 인천시 시민의식분석 등을 통해 인천시 장사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과 수급 전망을 검토하고,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연도: 2022년(최근 자료 활용)
- 계획목표연도: 2023년~2027년까지(5년)
- 수급계획연도: 2023년부터 2043년까지(20년)

### 내용적 범위

- 전국 및 인천시 장사시설 현황 및 정책 조사
- 선진국, 타 시도 장사시설의 현황 및 정책
-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전망 및 대책
- 공설묘지의 현황 및 무연분묘 처리 방안
- 인천시 장사시설 이용실태 및 장사문화에 관한 시민 의식 조사
- 인천시 장사시설, 장사정책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
-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개선 방안

### 3. 연구의 방법

#### ◆ 문헌조사

- 관련 법률 및 조례, 연구보고서, 논문, 단행본, 통계자료, 행정자료, 언론기사 등

#### ◆ 설문조사

- 인천시민 및 승화원 이용객 대상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 ◆ 사례조사

- 국내외 장사시설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인천시 시사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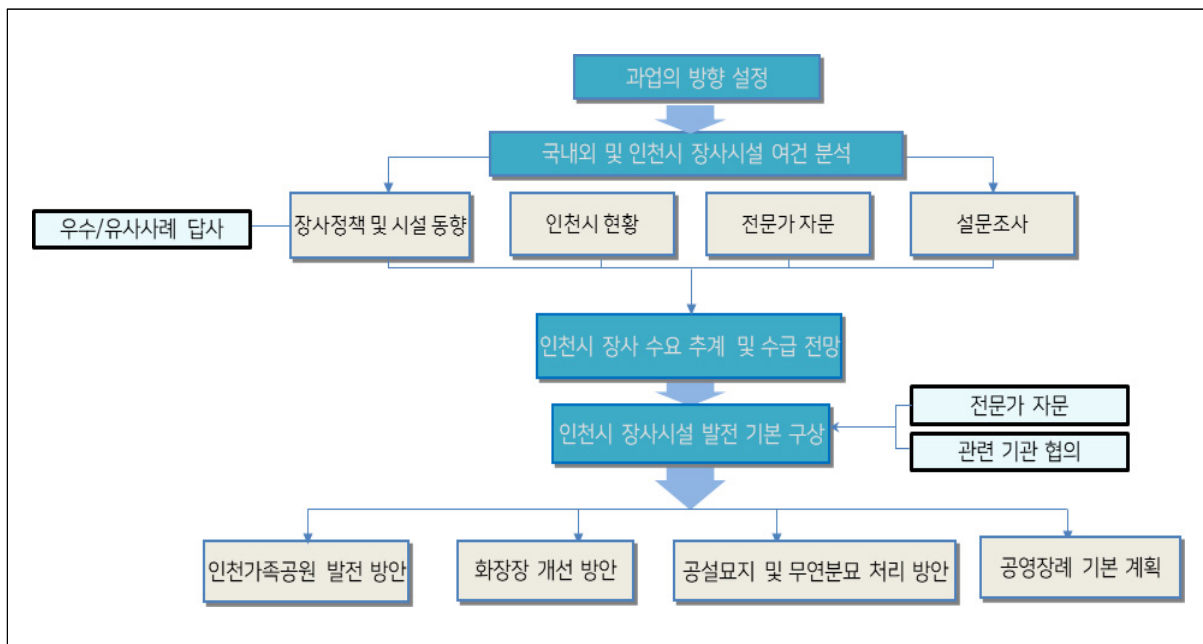
#### ◆ 자문회의

- 장사시설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인천시 장사시설 문제점 진단 및 향후 발전 방안 의견 수렴

### 4. 연구 수행체계

- 본 연구의 과업은 다음과 같이 방향 설정, 여건 분석, 수급 전망, 기본 구상의 순서로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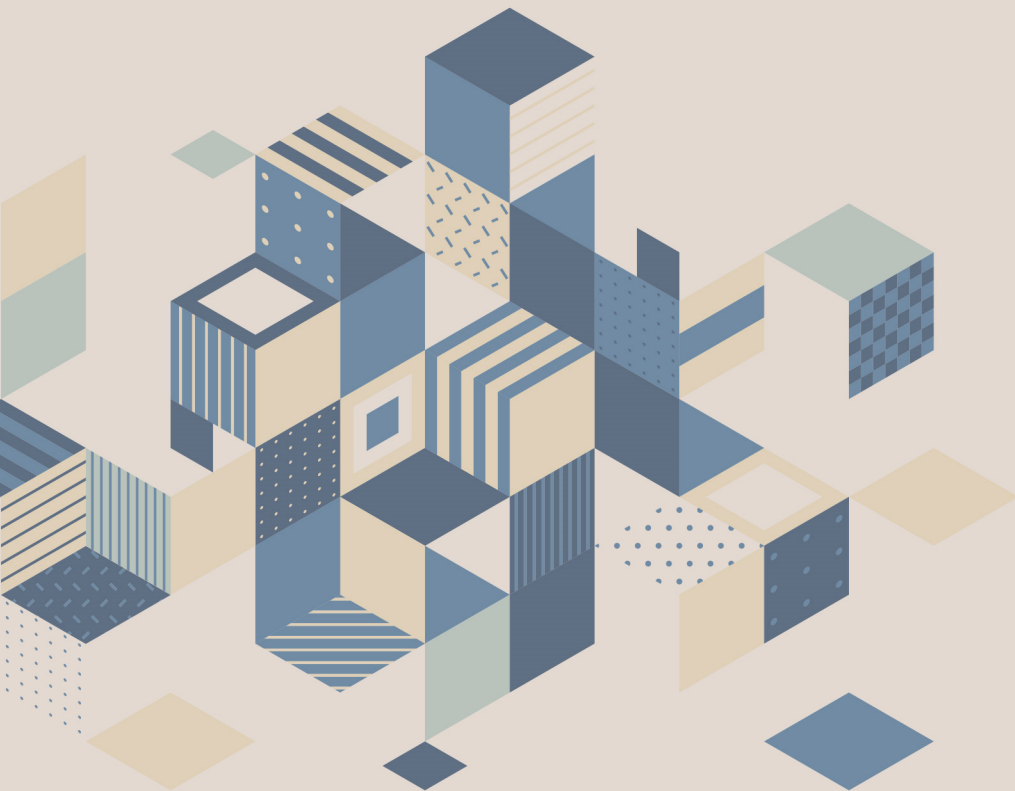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 제2장 장사시설 관련 정책 검토

1. 장사시설 관련 정책 추진 배경
2.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3.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정책





## 제2장 장사시설 관련 정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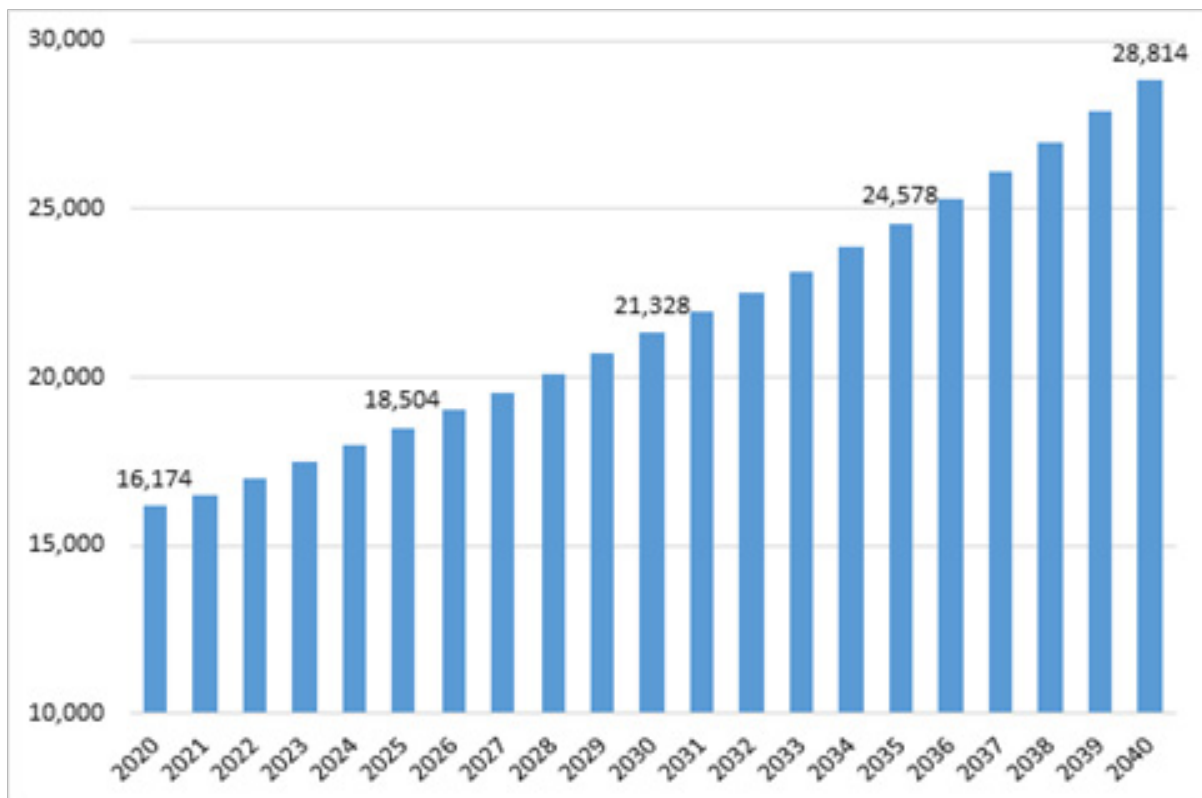
### 1. 장사시설 관련 정책 추진 배경

- 고령화 현상 및 노인 1인가구 증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장사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장사정책 마련이 필요함

#### 1)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

- 전국의 노인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 이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 사망자 수는 2020년 1만 6천 명에서 2040년 2만 8천명(2020년 대비 1.8배)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인천시 장사시설의 중·장기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함

[그림 2-1] 인천시 사망자 수 추계(2020-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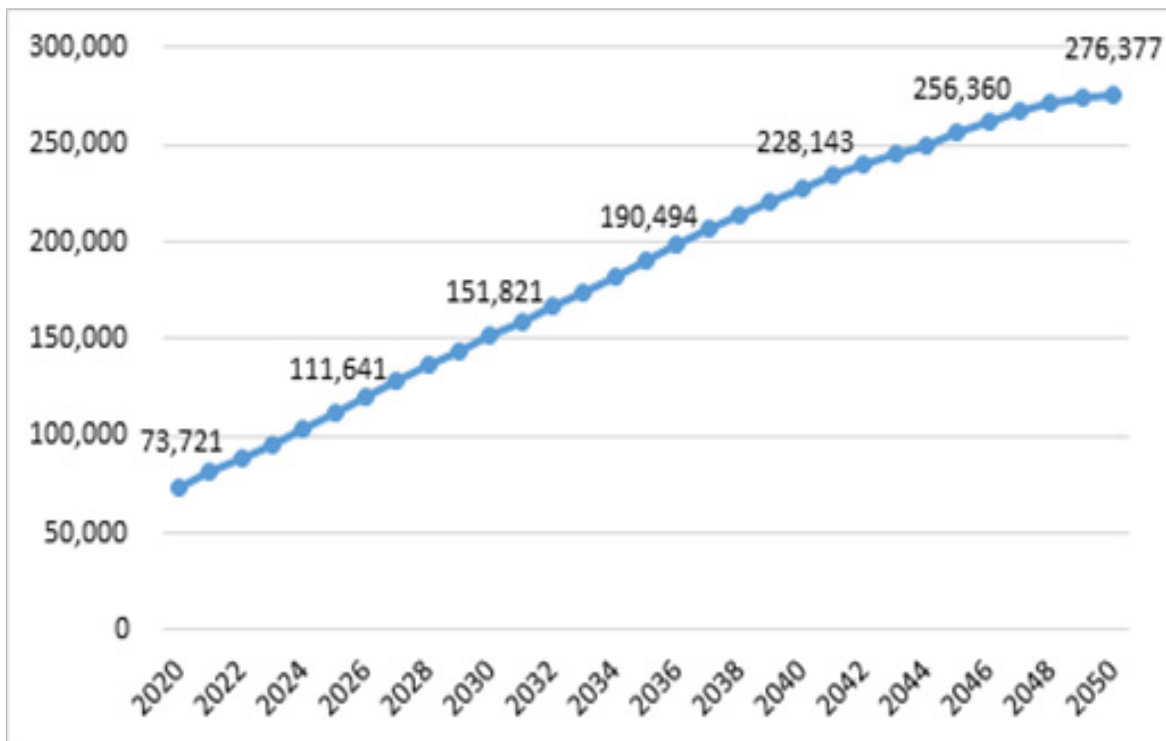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인천광역시 군구별장래인구추계

## 2) 가구 유형의 변화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

### (1) 1인가구 수 증가

- 전국의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시의 2020년 기준 주된 가구 유형은 1인가구이며, 2050년에는 51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2020년 대비 1.63배 증가한 수치)

[그림 2-2] 인천시 1인가구 추이(202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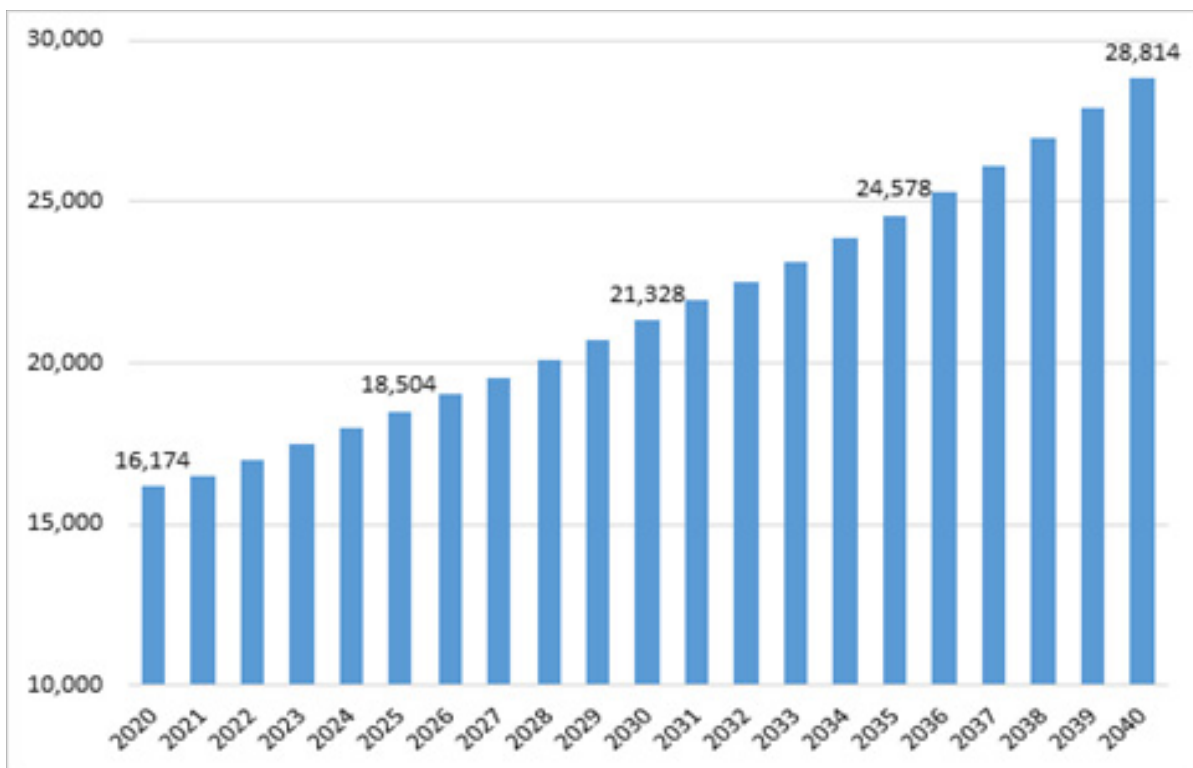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2) 노인 1인가구 증가

-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증가할 전망되며, 가구주의 연령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전국의 1인가구 중 39세 이하 비중이 36.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60세 이상(33.7%), 40~59세(29.6%) 순으로 높았으나, 2050년에는 1인가구 중 60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인천시의 60세 이상 1인가구 비중도 2020년 33.1%에서 2050년 61.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1인가구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 27만 명으로 예상됨

[그림 2-3] 인천시 65세 이상 1인가구 추이(2020-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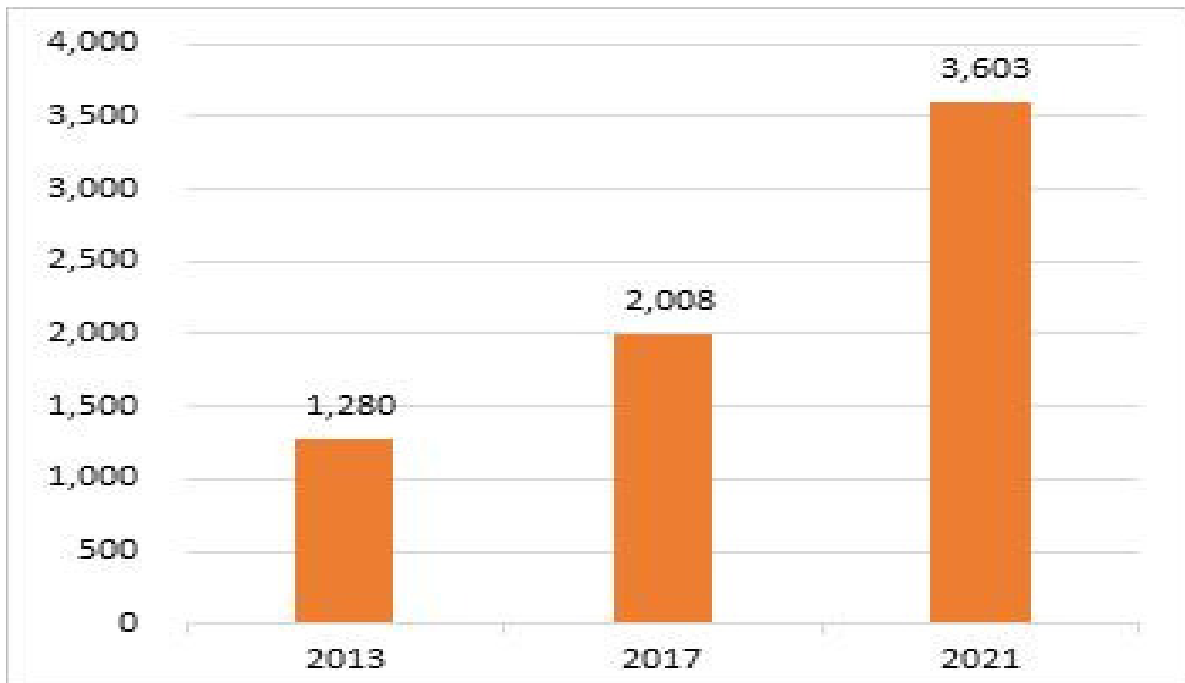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3)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

-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2021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3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3a), 이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잔여재산 처리 등의 문제가 부각됨

[그림 2-4]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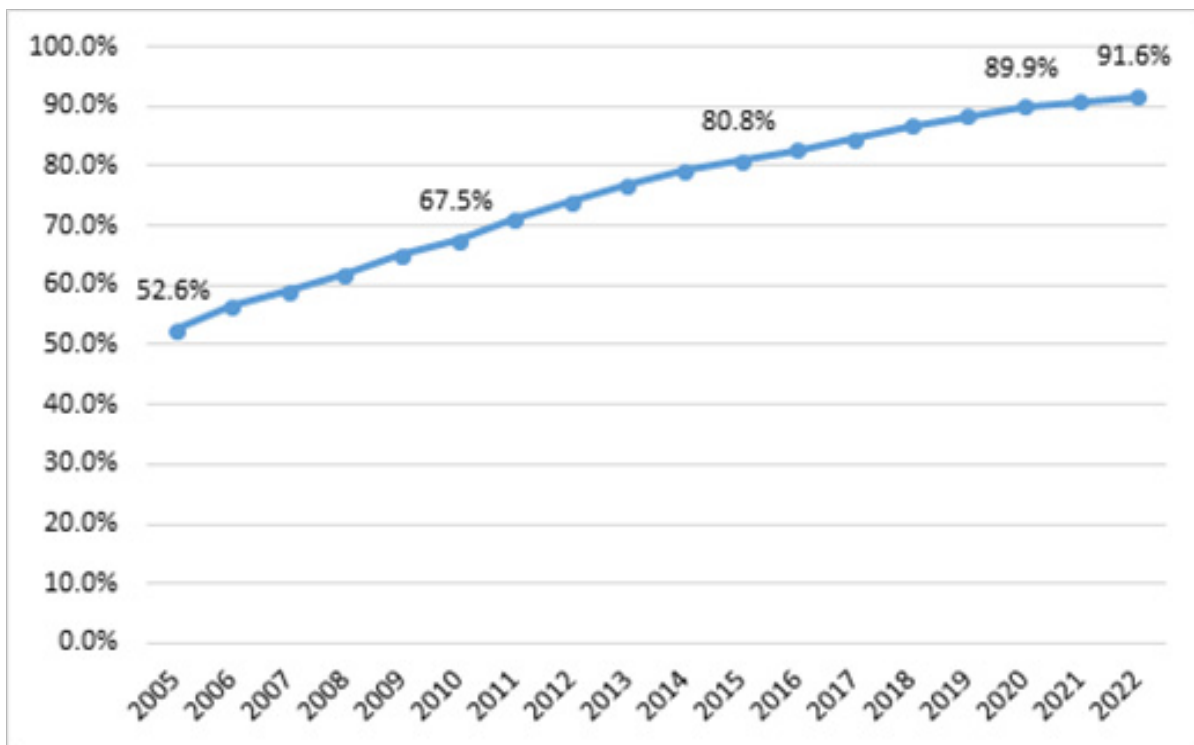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3)

### 3)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수요 대응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했던 문화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화장률이 91.6%에 이르는 등(2022년 추계 결과) 화장중심의 장례문화로 변화하였으며, 화장과 함께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보건복지부, 2023)
  - 2005년 화장률 52.6%에서 2022년에는 91.6%까지 증가함
- 이러한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응하여 화장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인천시민의 수요에 맞는 장사시설이 유형별로 마련이 되어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 전국 화장률 추이(200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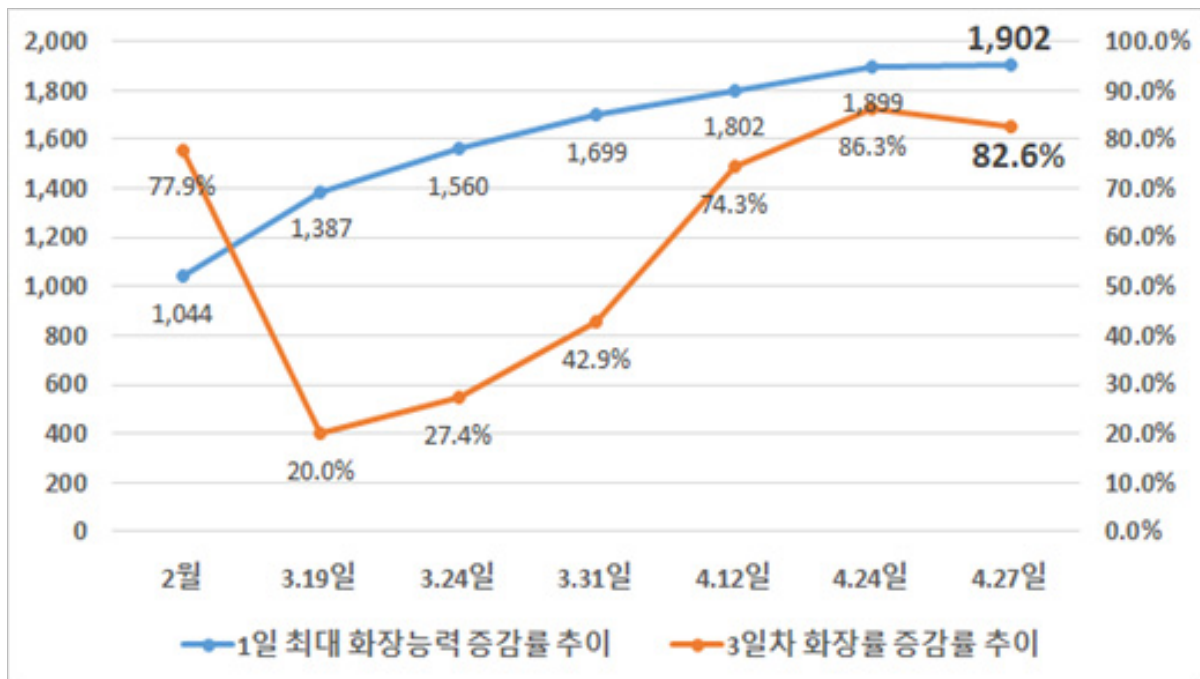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23)

#### 4)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화장로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음
- 이는 지역에서의 화장시설 수급에 대한 점검과 국가재난 상황에서의 비상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2-6] 1일 화장능력 및 3일차 화장률 추이(2022년 2~4월)



자료: 보건복지부(2023)

## 2.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

### 1) 장사시설 관련 법률 변천 과정

- 1961년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됨
  - 1961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법률은 시신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공설묘지· 화장장·봉안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사시설 구축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맞춤
  - 2000년 이후의 법률은 장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확충 및 장사시설 설치·운영기준 보완에 대한 사항을 다룸. 또한 한시적 매장제와 자연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토훼손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춤(김승희·이원학, 2014)
- 현재는 2000년에 마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여 장사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관리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 관련 개념의 정의부터 매장·화장·개장·자연장의 방법 및 설치까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2018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등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강화함
  - 이는 장사시설별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산정기준이 다양하고 미사용용품을 포함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공정·불법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에 대해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임
- 2019년에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 유도를 유도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관한 내용과 복지에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함
  -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개인묘지 설치 신고,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개인자연장지 등의 조성 신고, 사설묘지 등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장례식장영업 신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질병의 감염·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되,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되,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에는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021년에는 장례식장영업자의 가격표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함
-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하고,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임

[표 2-1] 장사시설 관련 법률 변천 과정

연도	법률명	구분	주요 내용
1961	매장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화장은 사망한 때로부터 24시간 후 시행하도록 규정</li> <li>매장·화장·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li> <li>시·군이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당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li> <li>묘지설치 장소, 묘지면적, 묘지시설물, 분묘의 형태 등 규정</li> <li>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허가제 도입</li> </ul>
1968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명칭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li> <li>매장·화장 및 개장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시</li> <li>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li> <li>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금지 지역을 명문화</li> </ul>
197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기당 점유면적 제한(개인 20㎡이하, 합장 25㎡이하)</li> <li>묘적부제도 법제화, 무연고 분묘정리를 위해 분묘의 일제신고제 도입</li> <li>분묘 및 유골함의 형태,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시 규정 제시</li> </ul>
198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골묘 도입</li> <li>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 규정</li> <li>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관리비, 사용료 규정</li> </ul>
2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기당 분묘면적의 제한(집단묘지 10㎡, 개인묘지 30㎡)</li> <li>한시적 매장제 도입(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 15년씩 3회까지 연장)</li> </ul>
20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규정</li> <li>장례식장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li> </ul>

연도	법률명	구분	주요 내용
20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li> <li>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 신설</li> <li>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li> <li>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규정</li> </ul>
20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검증 제도 도입</li> </ul>
20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가족자연장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중 일부 지역내 조성 허용</li> <li>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li> <li>지방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li> <li>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2015년 1월부터 시행)</li> </ul>
20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시적 매장제의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li> <li>지방자치단체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li> <li>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li> </ul>
20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장례식장 임대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li> <li>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li> </ul>
20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리가 필요한 신고 유형들을 명시</li> <li>질병의 감염·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신 약품처리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 부과</li> <li>무연고 시신 처리 시 유류금품의 처분 기준 신설</li> <li>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li> <li>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화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법인묘지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보고하는 요건을 구체화함</li> </ul>
20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 마련</li> </ul>
20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함</li> <li>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거래명세서 발급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li> <li>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가능</li> <li>장사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수정 및 구체화</li> </ul>

자료: 김윤영 외(2018)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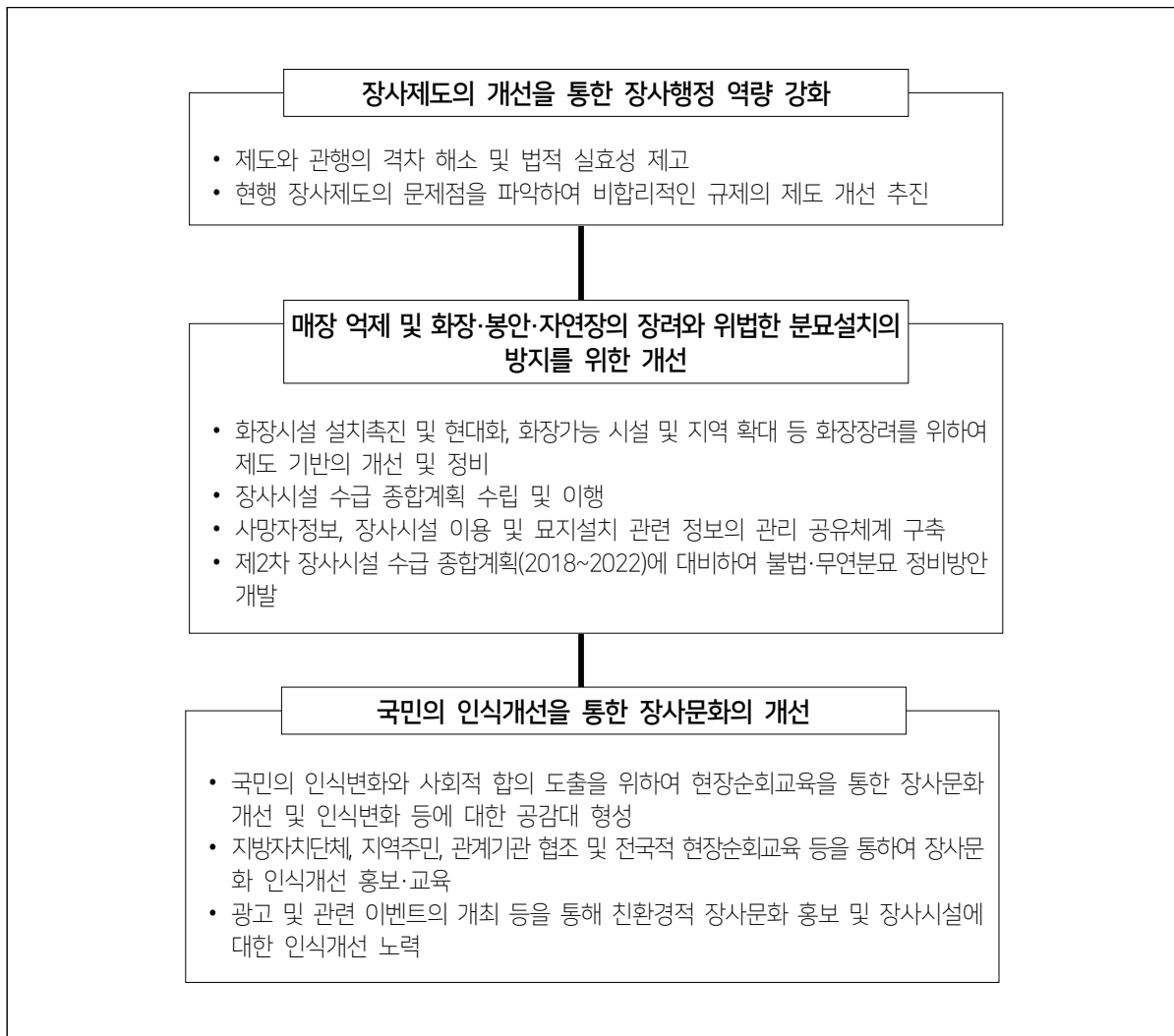
## 2) 중앙정부 장사시설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사업무 안내」를 통해 중앙정부의 장사시설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1)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

-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1)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 역량 강화, 2)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개선, 3)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장사문화의 개선 세 가지를 제시함
- 기본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 2-6]과 같음

[그림 2-7] 장사정책 기본방향



자료: 보건복지부(2022a)

## (2) 추진계획

- 장사정책 기본 방향 추진을 위해 장사시설 확충부터 장사문화 개선까지 다섯 가지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2-2]와 같음

[표 2-2] 장사정책 주요 추진계획

주요 추진계획	주요내용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간 공동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간 장사업무 협력 체계 구축</li> <li>•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성·접근성 증대</li> <li>• 노후 화장로를 신형 화장로로 교체하여 화장서비스 편의성 제고</li> <li>• 공설봉안당 지원 축소 검토</li> <li>• 공설묘지 재개발</li> </ul>
화장장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시설의 관내·관외 요금 격차 해소 (관내·관외 요금 격차는 원가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li> <li>•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간 공동으로 화장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서비스 증대</li> </ul>
장례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관리기준 마련</li> <li>•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제고를 위한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실시</li> <li>•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민관 합동으로 친자연적인 장례 홍보·캠페인 실시</li> </ul>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li> <li>•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li> <li>•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li> <li>•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li> <li>•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시설 신축 시 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통한 시설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li> <li>• 호화·사치 장례 근절 및 검소하고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 추진</li> </ul>

자료: 보건복지부(2022a)

### (3) 추진 방법

- 장사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국가는 330만 m<sup>2</sup>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시에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조성에 대한 사항을, 990만 m<sup>2</sup>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시에는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장사시설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거나 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 ◆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종합계획에 따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 처리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계획 수립,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묘지(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매장 혹은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 가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
-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등을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비용의 보조

- 국가는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 조성,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3) 보건복지부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는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제시함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에 대한 성과 및 평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비전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성과

- 화장률은 90.8%로 목표달성하여 보편적 장사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자연장지 이용률은 30% 목표치에 미달함
- 공설 자연장지 및 봉안당 시설 수를 계획보다 초과 수급 달성함

## ◆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한계

- 자연장지 안치율이 봉안시설 안치율에 비해 저조한 상태이며, 화장시설이 신규 및 확충되고 있지만 서울, 부산, 경기도는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사망자 증가 추이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망자 일시 증가상황에 대비하여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대책이 필요함
- 기존 장사방법 외에 산분 등 다양한 장사방법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며, 국민 선호와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등 전문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함
- 재난 상황 발생 시 사망자 급증에 따른 대응이 미흡했으므로 장사 분야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위기단계별 대응전략 수립·추진 필요
- 지역별 장례지원 편차가 존재하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한 근거 마련되었으므로 점차 지역별 차이를 좁혀가야 함
-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부족함

##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방향

- 제2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한계를 바탕으로 제3차 장사시설 종합계획의 비전을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와 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두 개의 목표를 제시하며 세부적으로는 [표 2-3]과 같이 총 16개의 과제를 제안함

[표 2-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정책과제

비전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li><li>재난 대응 등 국가 책임 강화</li><li>부족 화장률 확충(2027년 52로 추가),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이용률 제고(2027년 30%),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2027년 70%)</li></ul>

분야	과제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li><li>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관리</li><li>집단묘지 재개발 및 지역 내 분묘관리 강화</li><li>장사시설관리 내실화</li></ul>
장사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장사정책 협력 네트워크 강화</li><li>장사 제도 개선 지속 추진</li><li>장례지도사 등 자격관리 및 위상강화</li><li>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등 교육 개선</li></ul>
국가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li><li>장례 전반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li><li>사회적 취약계층 장례복지 확대</li><li>장사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강화</li></ul>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환경 변화에 발맞춘 장사정보시스템 고도화</li><li>대국민 장사서비스 신뢰 확보</li><li>‘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li><li>장례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li></ul>

자료: 보건복지부(2023)

### 3.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정책

####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 조례”로 표기)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인천시 조례 시행규칙”으로 표기) 제정하여 인천시의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장사시설의 명칭, 위치,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부터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함
- 장사시설 규정 및 묘지수급계획의 법적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인천시 조례』 제1조)
  - 장사시설을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로 규정함(『인천시 조례』 제2조)
  - 시장은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후 여건이 변동될 경우 관할 군수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함(『인천시 조례』 제4조)
  -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수립한 묘지 등의 중장기수급계획에 맞추어 자체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인천시 조례』 제4조)

#### (1)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 『인천시 조례』 제5조, 별표1에 다음과 같이 인천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명시되어 있음

[표 2-4] 인천시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

종류	명칭		위치
공설묘지	비조성 묘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설묘지외 17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외 17개
	조성 묘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조성묘지 • 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화장시설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금마총,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만월당, 가족봉안묘, 평온당, 봉안당, 가족봉안당, 호국봉안당		
자연장지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유택동산	•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부속시설	• 장사문화홍보관		

자료: 『인천시 조례』

## (2) 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료

- 『인천시 조례』 제8조,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장사시설 유형별 사용료 및 관리료는 다음과 같음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은 화장시설 사용 시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관외주민이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혹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30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로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6조 제1항 제1호 사목)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단 사망 당시 관내주민이던 자 중 관외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20조의2 제1항 제3호)는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 쌍을 1기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주민인 경우(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 자연장지 이용할 시 관내주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2-5]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분				기 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화장시설	만15세 이상			1구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이상)					50,000원	300,000원	
	시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자					-	600,000원	
봉안시설	봉안단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950,000원	2,0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900,000원	2,8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봉안담	1인용	사용료	1기	30년	550,000원	1,600,000원	
			관리료			300,000원	600,000원	
		부부용	사용료	1기	30년	1,100,000원		
			관리료			300,000원		

구분			기 준	단위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고
	가족봉안묘 (16위)	사용료	1기	90년	8,800,000원		설치비 실비
		관리료			4,500,000원		
	계단식가족 봉안묘(8위)	사용료	1기	90년	4,400,000원		설치비 실비
		관리료			2,700,000원		
	무연고	사용료	1기	10년	150,000원	-	
자연장지	수목장림 및 자연장	사용료	1기	30년	6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정원식 수목장	사용료	1기	30년	1,000,000원	-	
		관리료			300,000원	-	
	가족 정원장(6위)	사용료	1기	90년	7,200,000원		
		관리료			2,160,000원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	1기		10,000원	50,000원	

자료: 『인천시 조례』

#### 비조성묘지·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 비조성묘지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설묘지를 의미함(『인천시 조례』 제2조)
- 중구 영종공설묘지, 미추홀구(남구) 주안공설묘지, 연수구 옥련공설묘지 등이 비조성묘지에 해당하며, 기본 사용료는 3,600원, 기본 관리료는 17,800원임

[표 2-6]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본금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자료: 『인천시 조례』

- 한편 조성묘지는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된 공설묘지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사용하고 있는 묘지를 의미함(『인천시 조례』 제2조)
-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서구 왕길조성묘지가 조성묘지에 해당하며, 관리료는 연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10년 단위로 징수함

[표 2-7] 인천가족공원 조성묘 관리료

구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자료: 『인천시 조례』

### (3)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 ◆ 장사시설의 관리자(『인천시 조례』 제10조)

- 시장: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서구 왕길조성묘지
- 관할 군수·구청장: 나머지 기타 공설묘지

#### ◆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

-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해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수목장의 수목 1그루에 안장하는 골분의 수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4기 이상 8기 이내로 매몰되도록 함
- 사용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봉안시설의 안치단 규격 범위에서 위패 및 사진(10cm×15cm이하)에 한정하여 함께 봉안할 수 있음
-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에 대한 분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되, 시장의 조성묘지 관리범위는 별초 및 축대관리에 해당함

#### ◆ 장사시설의 재정 지원 및 민간자본유치

- 시비 보조: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효율적인 묘지수급계획을 통해 장사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시비로 보조 가능함(『인천시 조례』 제23조)
- 민간자본 유치: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함(『인천시 조례』 제24조)

#### ◆ 공설묘지 내 분묘, 비석, 좌반의 규격(『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분묘: 봉분식 또는 봉분이 없는 평장식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함

- 비석: 비석은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하되, 봉분식 비석은 가로 30cm, 세로 70cm, 두께 12cm, 평장식 비석은 가로 60cm, 세로 40cm, 두께 12cm로 함. 비석 높이는 좌반면에서 최고부분까지이며, 비석에는 사망자의 성명, 일련번호 및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함
- 좌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하되, 가로 45cm, 세로 60cm, 두께 12cm로 함

#### ◆ 자연장지 내의 표지 설치(『인천시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2)

- 자연장지 내에서의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로 함
- 개별표지는 사용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단, 수목장림 내에는 개별표지를 설치할 수 없음
- 개별표지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포함하여야 함

#### ◆ 가족장사시설의 안치대상

-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 사용권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함(『인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3)

#### ◆ 신규 가족단위 시설 명칭

- 가족 단위를 중시하는 장묘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에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담’ 신설 및 명칭(『인천시 조례』 제9조, 별표1, 별표 2)
- 봉안에만 국한된 가족단위 명칭을 가족봉안시설에서 가족장사시설로 변경(『인천시 조례』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0조의3)

#### ◆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 ‘호국봉안담’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의미함(『인천시 조례』 제2조제11항)
-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자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인천시 조례』 제6조, 별표1, 별표3)

## 2)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1) 추진 배경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2020년 3월 30일 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됨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인천시 공영 조례 시행규칙”로 표기)을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여,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비용청구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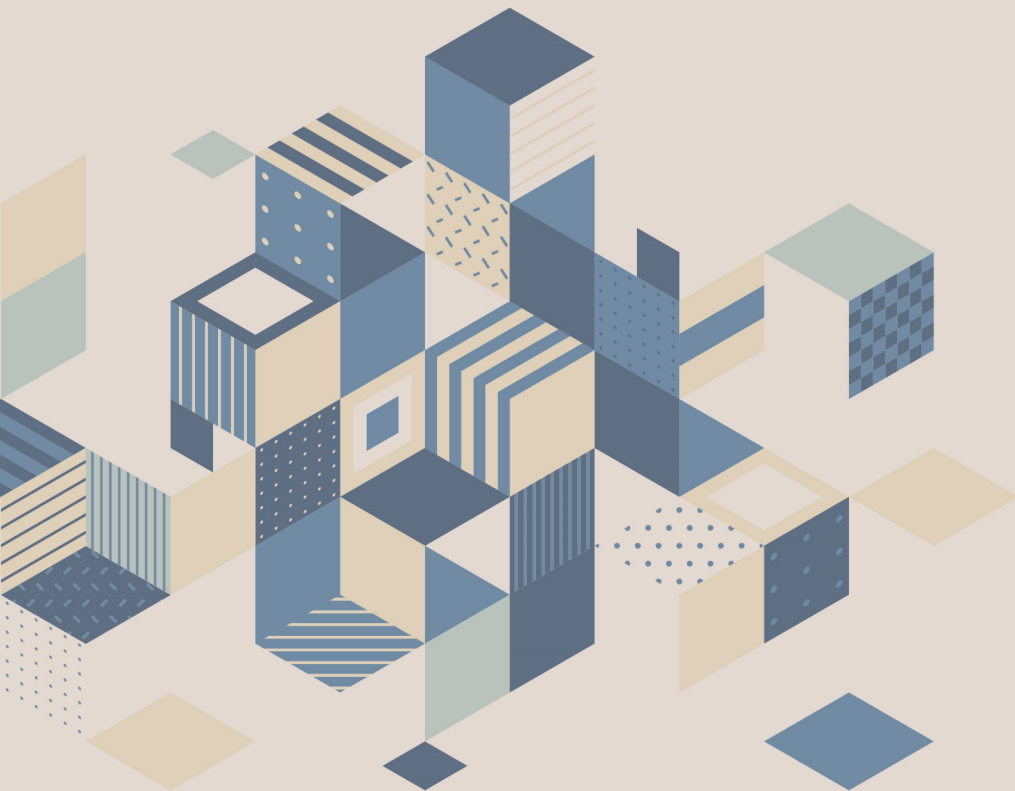
### (2) 주요 내용

-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인천시 공영 조례”로 표기) 제3조)
- 시장은 매 5년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인천시 공영 조례』 제4조)
  - 기본계획에는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공영장례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방안, 재원조달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함
-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규정(『인천시 공영 조례』 제5조, 제6조)
  -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나,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임 가능함(『인천시 공영 조례』 제7조)
- 공영장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인천시 공영 조례』 제8조)
  -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인천시 공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의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인천시 공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인천시 공영 조례』 제8조, 『인천시 공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제3장 장사시설 현황 검토

1. 전국의 장사시설 현황
2. 인천시 장사시설 현황
3. 인천시 기타 장사시설 현황





# 제3장 장사시설 현황 검토

## 1. 전국의 장사시설 현황

### 1) 공설 및 법인묘지 현황

#### (1) 공설묘지 현황

- 전국 공설묘지(공동묘지 제외)는 2021년 기준 총 33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전체 면적은 총 27,762,980m<sup>2</sup>이며, 분묘설치기수는 478,123기임
  - 분묘 설치 예정 기수는 673,607기이며, 향후 분묘설치 가능기수는 195,484기임
- 인천시는 2021년 기준 총 81개소의 공설묘지를 가지고 있음
  - 인천시는 경기도 다음으로 공설묘지 수가 많고, 묘지면적 또한 2,907,473m<sup>2</sup>로 서울 다음으로 넓음
  - 향후 분묘 설치 가능 기수는 2021년 기준 86,269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표 3-1] 전국 공설묘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m<sup>2</sup>, 기)

구분	개소 수	묘지면적(m <sup>2</sup> )	분묘 설치 예정 기수(기)	분묘 설치 기수(기)	향후 분묘 설치 가능 기수(기)
전 국	332	27,762,980	673,607	478,123	195,484
서 울	5	7,143,300	54,382	53,926	456
부 산	1	770,543	29,021	26,199	2,822
대 구	4	1,926,481	12,482	12,482	0
인 천	81	2,907,473	139,475	53,206	86,269
광 주	2	1,625,618	56,021	56,021	0
대 전	1	500,616	5,860	5,860	0
울 산	0	0	0	0	0
세 종	1	114,479	2,669	2,543	126
경 기	116	2,328,653	81,220	77,008	4,212
강 원	16	2,125,826	30,399	17,492	12,907
충 북	6	2,243,657	27,048	24,283	2,765
충 남	9	837,717	32,049	18,333	13,716
전 북	16	535,491	35,951	25,891	10,060
전 남	37	2,840,969	88,025	67,299	20,726
경 북	6	203,458	7,453	7,206	247
경 남	16	660,507	23,603	16,981	6,622
제 주	15	998,192	47,949	13,393	34,556

주: 인천은 공동묘지가 공설묘지에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22b)

## (2) 법인묘지 현황

- 전국 법인묘지는 2021년 기준 총 16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전체 면적은 총 40,416,320m<sup>2</sup>이며, 분묘 설치 기수는 955,540기임
  - 분묘 설치 예정기수는 1,588,244기이며, 향후 분묘 설치 가능 기수는 632,704기임
- 인천시 법인묘지는 7개소이며, 묘지면적은 233,935m<sup>2</sup>임
  - 분묘 설치 예정기수는 33,934기, 분묘 설치 기수는 21,355기이며, 향후 분묘 설치 가능기수는 12,579기임

[표 3-2] 전국 법인묘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m<sup>2</sup>, 기)

구분	개소 수	묘지면적(m <sup>2</sup> )	분묘 설치 예정 기수(기)	분묘 설치 기수(기)	향후 분묘 설치 가능 기수(기)
전 국	168	40,416,320	1,588,244	955,540	632,704
서 울	-	-	-	-	-
부 산	5	1,007,770	47,840	38,672	9,168
대 구	7	423,515	11,203	7,267	3,936
<b>인 천</b>	<b>7</b>	<b>233,935</b>	<b>33,934</b>	<b>21,355</b>	<b>12,579</b>
광 주	1	25,589	1,162	657	505
대 전	1	66,000	4,300	4,300	0
울 산	2	535,403	33,839	28,155	5,684
세 종	1	357,797	26,500	9,750	16,750
경 기	63	15,549,970	447,157	303,009	144,148
강 원	8	2,051,608	82,269	46,023	36,246
충 북	7	2,142,517	78,159	51,872	26,287
충 남	7	2,622,236	125,115	59,310	65,805
전 북	8	1,310,657	66,699	19,721	46,978
전 남	7	1,045,320	34,475	22,919	11,556
경 북	22	7,072,927	267,527	158,483	109,044
경 남	14	5,852,768	324,089	180,518	143,571
제 주	8	118,308	3,976	3,529	447

자료: 보건복지부(2022b)

##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 (1)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 전국 화장시설은 2021년 기준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장시설은 전국에서 경북이 12개소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경남 10개소, 강원 8개소 순임
  - 전국적으로 2021년 기준 한 해 363,035건의 화장이 이루어짐
  - 전국 봉안시설(봉안당 기준)은 총 576개소로 6,199,232구를 봉안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2,168,682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음
- 인천시 화장시설은 2021년 기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인천시의 화장 건수는 25,208건으로 전국 화장 건수의 약 6.9%를 차지함
  - 인천시의 봉안시설은 18개소이며, 봉안능력은 281,736구로 전국의 약 4.5%를 차지하며, 2021년 기준 140,311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음

[표 3-3] 전국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건, 구)

구 분	화장장		봉안당		
	개소 수	화장 건수(건)	개소 수	봉안능력(구)	봉안수(구) (현재)
전 국	62	363,035	576	6,199,232	2,168,682
서 울	2	55,689	26	149,350	100,476
부 산	1	22,540	9	242,761	195,373
대 구	1	15,313	12	73,644	42,712
<b>인 천</b>	<b>1</b>	<b>25,208</b>	<b>18</b>	<b>281,736</b>	<b>140,311</b>
광 주	1	13,481	5	75,488	57,023
대 전	1	9,753	5	80,509	51,579
울 산	1	7,637	3	26,686	12,621
세 종	1	8,766	7	28,503	11,214
경 기	4	46,048	148	2,453,081	638,140
강 원	8	17,410	34	147,869	62,617
충 북	3	12,795	43	348,408	100,457
충 남	3	18,485	44	721,748	217,881
전 북	5	17,727	26	234,219	124,228
전 남	7	32,062	43	389,827	91,236
경 북	12	22,457	64	391,856	109,305
경 남	10	28,346	66	444,180	159,387
제 주	1	9,318	23	109,367	54,122

주 : 화장 건수는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미상을 포함함. 봉안당 개소 수는 공설 봉안당, 법인 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현황을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22b)

## (2) 화장률 현황

### 🔹 전국 현황

-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 미상을 화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기준 전국 화장 건수는 288,566건임
  - 전국의 화장률은 90.8%로 사망자 중 대다수가 화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80% 이상의 화장률임
- 인천시의 화장 건수는 개장유골, 죽은 태아 등의 화장을 제외하고 15,700건임
  - 인천시의 화장률은 95.2%로 나타남
  - 이는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부산(95.7%)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음

[표 3-4] 전국 화장률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명, 건, %)

구분(명)	사망자 수(명)	화장 건수(건)	화장률(%)
전 국	317,680	288,566	90.8
서 울	48,798	45,209	92.6
부 산	23,531	22,512	95.7
대 구	14,560	13,249	91.0
<b>인 천</b>	<b>16,493</b>	<b>15,700</b>	<b>95.2</b>
광 주	7,981	7,392	92.6
대 전	7,889	7,250	91.9
울 산	5,493	5,199	94.6
세 종	1,354	1,194	88.2
경 기	67,399	62,843	93.2
강 원	12,749	11,064	86.8
충 북	11,941	10,128	84.8
충 남	16,326	13,323	81.6
전 북	15,049	13,318	88.5
전 남	17,568	15,291	87.0
경 북	22,928	19,378	84.5
경 남	23,392	22,140	94.6
제 주	4,229	3,364	79.5
지역미상	-	12	-

주: 화장 건수는 개장유골, 죽은 태아, 외국인 및 국적미상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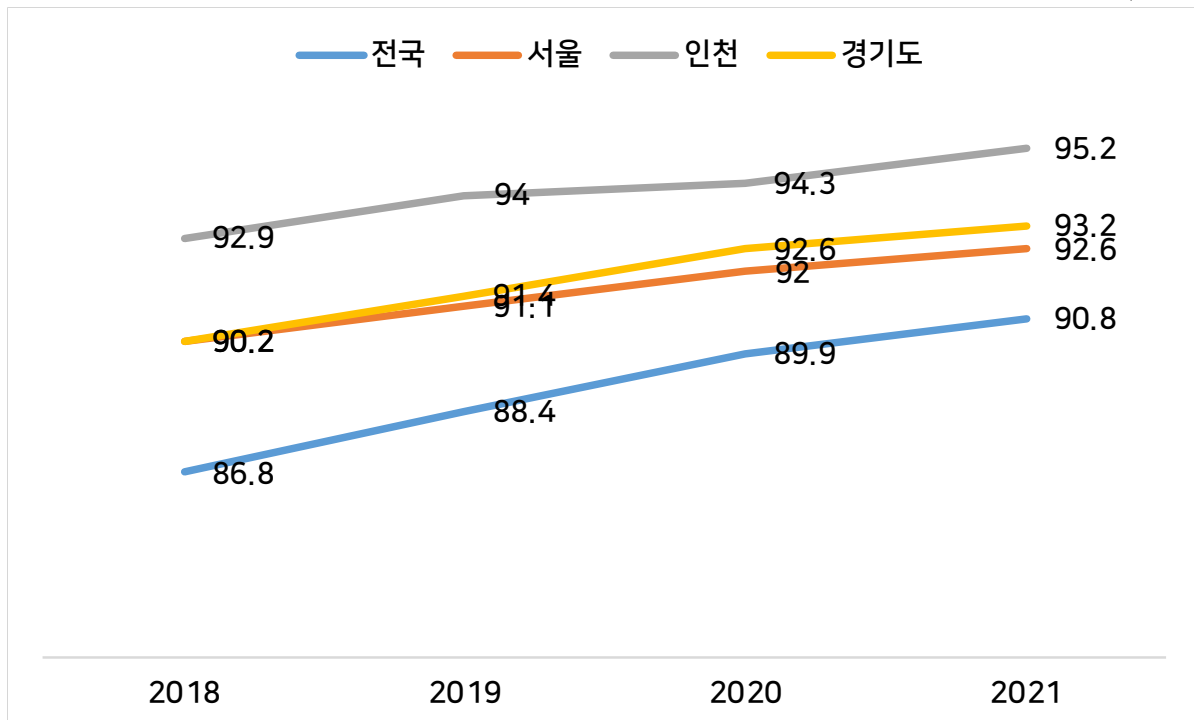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2b)

### ❖ 화장률 추이(2018-2022년)

- 전국 및 수도권의 화장률 추이를 4개년도에 걸쳐서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수도권 3개 지역은 전국수준보다 높았고, 특히 인천시의 화장률이 가장 높아 2021년에 95.2%에 달함

[그림 3-1] 전국 및 수도권 화장률 추이(2018-2021)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 ❖ 인천시 군·구별 화장 현황

- 인천시 군·구별 화장 건수 및 화장률을 살펴보면 [표 3-5]와 [그림 3-2]와 같음
- 화장률은 3년간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군·구에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에, 옹진군은 화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2019년 대비 2021년 화장률은 감소하여 82%로 나타남
- 화장 건수를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서구에 화장 건수가 많음

[표 3-5] 인천시 군·구별 화장률 및 화장 건수 추이(201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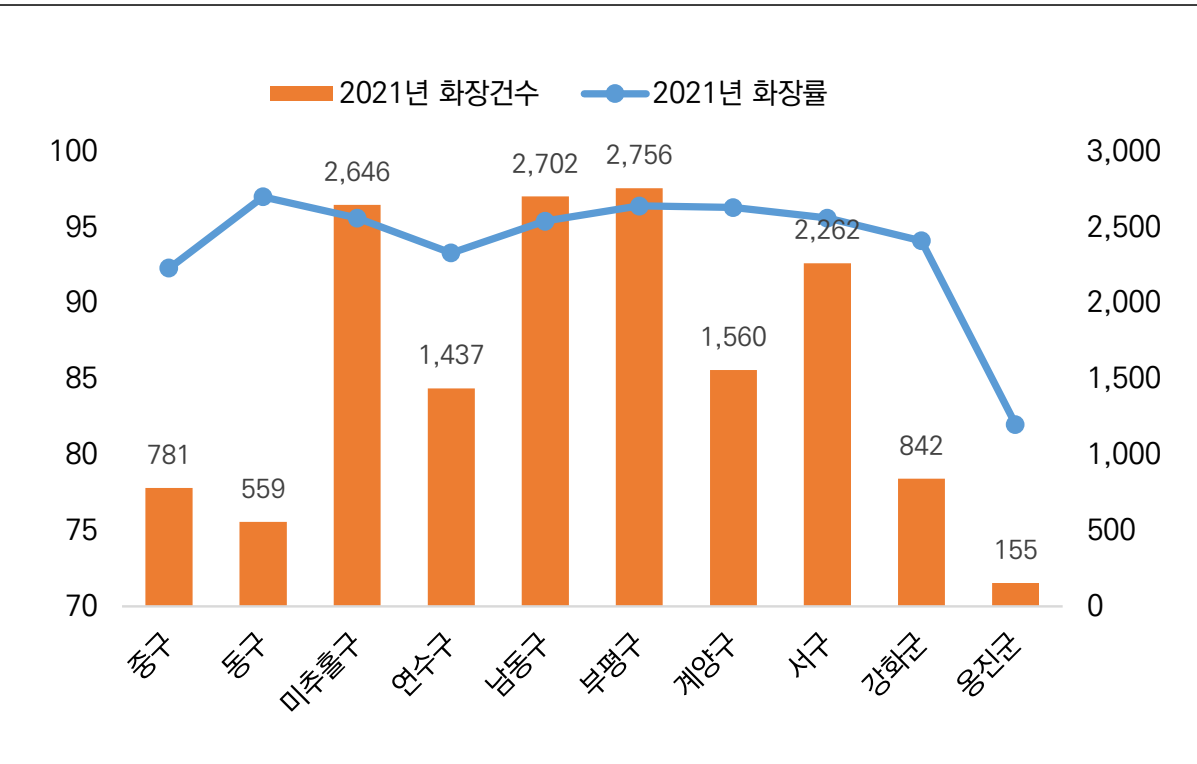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19	화장률	94	89.7	94.5	94.6	93.6	95.6	94.5	94	94.5	91.3	84.1
	화장 건수	14,229	650	467	2,379	1,226	2,501	2,633	1,448	2,061	711	153
2020	화장률	94.3	91.6	94.2	95.2	93.4	95.2	94.4	95.4	94.6	92.5	85.6
	화장 건수	14,802	683	500	2,389	1,330	2,596	2,667	1,482	2,152	836	167
2021	화장률	95.2	92.3	97	95.6	93.3	95.4	96.4	96.3	95.6	94.1	82
	화장 건수	15,700	781	559	2,646	1,437	2,702	2,756	1,560	2,262	842	155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그림 3-2] 인천시 군·구별 화장 건수 및 화장률 현황(202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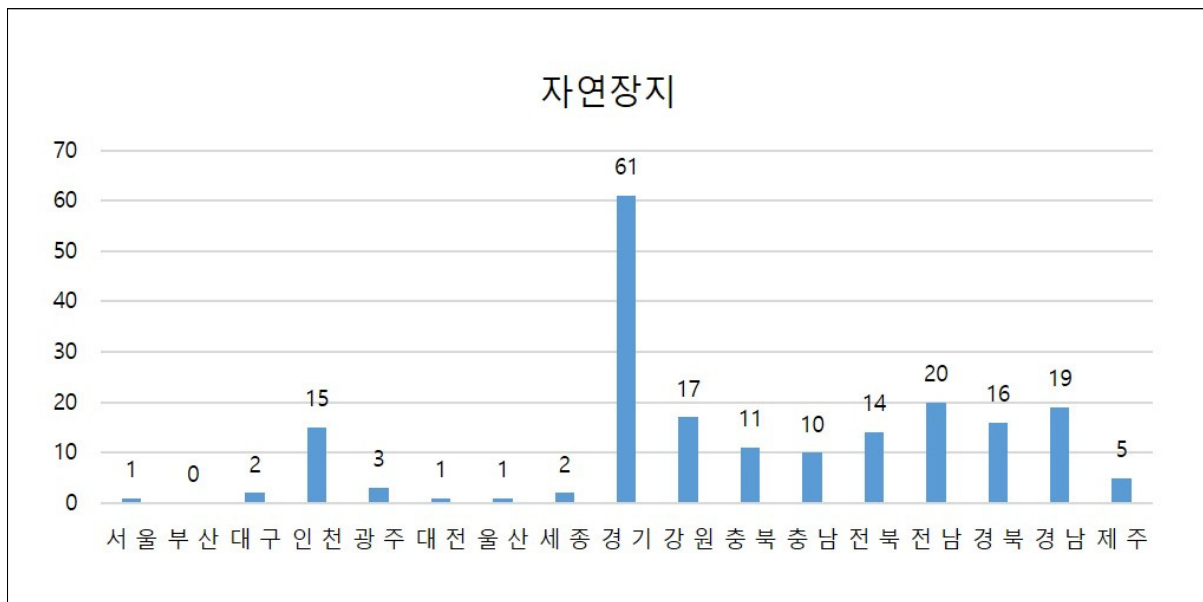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 3) 자연장지 현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연장이 도입됨
  - 자연장의 도입 이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장례관련 단체, 시민사회 등에 의한 자연장 홍보, 국민들의 장례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비율보다는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율이 현재까지는 높은 상황임
- 자연장에는 수목장림,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이 있으며, 2023년 현재 전국적으로 190개소의 자연장지가 있음
  - 인천시는 15개소의 자연장지를 갖추고 있어,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자연장지를 보유하고 있음
  - 도별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61개소로 가장 많은 자연장지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3-3] 전국 자연장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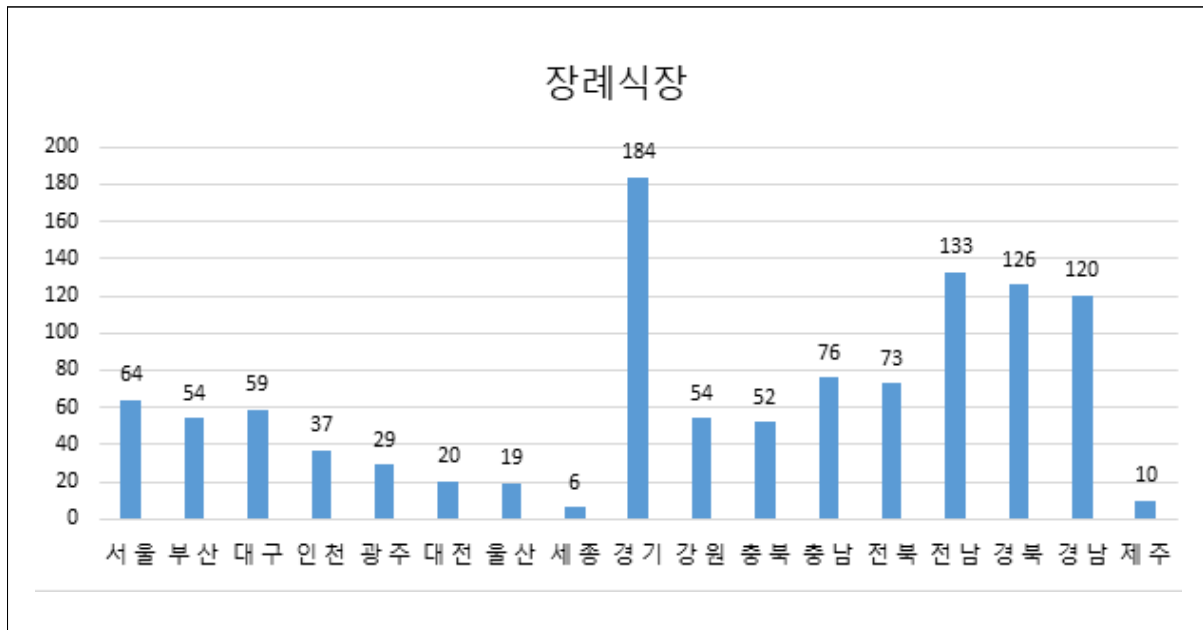
자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

#### 4) 장례식장 현황

- 병원장례식장은 1995년 의료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장례식장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장례식장의 설치가 증가함
- 장례식장은 기존에 자유업으로 설치 자격에 크게 제한이 없었으나, 2015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설기준, 장례용품 가격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116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37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3-4] 전국 장례식장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자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  
인천광역시(2023a)

## 2. 인천시 장사시설 현황

### 1) 인천가족공원 현황

#### (1) 인천가족공원 개요

- 묘지, 화장장, 봉안당, 봉안담 및 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된 인천가족공원은 인천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설 종합장사시설임. 인천광역시 도심인 부평구 부평2동 일대 1,553,036 m<sup>2</sup>(약 47만 평)에 위치함
- 인천가족공원 시설별로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화장장 및 봉안당: 1936년 남구(현 미추홀구)에 시립화장장을 설립한 후 1977년에 현재 위치인 부평구로 이전함. 화장로는 2011년 승화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면서 현재와 같은 20기를 갖추게 됨. 2003년 추모의 집을 시작으로 2007년 금마총, 2010년 만월당, 2015년 평온당, 2019년 별빛당까지 꾸준히 봉안당과 봉안담을 늘려가고 있음
  - 묘지 : 1934년에 공동묘지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던 묘지를 묘지공원 형태로 하여 관리·운영함. 2006년에 부평묘지공원에서 인천가족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2006년 부평묘지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생태를 복원하고 시민공원화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친화 장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함. 그 결과, 현재는 체육, 문화, 공원, 생활시설을 갖춘 시민친화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 (2)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 인천가족공원은 약 155만m<sup>2</sup>의 대지면적에 묘지관련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 용도로 하여 설립됨.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에 위치하여 외곽지역에 설립된 다른 시·도의 장사시설들과 달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음

[표 3-6]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2023년 기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건축물명칭	인천가족공원
대지면적	1,553,036 (m <sup>2</sup> )	연면적	27,905.65 (m <sup>2</sup> )	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	-
건축면적	14,733.95 (m <sup>2</sup>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5,133.91 (m <sup>2</sup> )	건축물수	20동	주용도	묘지관련시설, 제2종근린 생활시설
건폐율	0.95%	용적률	1.62%	총호수	세대/호/가구	총주차대수	651면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a)

- [그림 3-5]와 같이 인천가족공원은 산지로 둘러싼 지형 내에 설립되어 있으며, 입구 부근에는 썸지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5] 인천가족공원 현황도(2023년 기준)



자료: 인천시설공단(<http://www.insiseol.or.kr/>)

-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인천가족공원은 총 24개소의 일반시설물을 갖추고 있음
  - 일반시설물에는 묘지, 봉안당을 비롯하여 화장실, 약수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포함됨
  - 묘지면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진 시설물은 화장장인 승화원임
  - 준공일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시설물은 봉안당 중 하나인 금마총이며, 별빛당은 준공일이 2019년 8월로 비교적 최근에 설립됨

[표 3-7] 인천가족공원 일반시설물 현황(2023년 기준)

시설명		연면적(m <sup>2</sup> )	규모	준공일
부평 공원묘지		1,688,729	-	-
왕길동 조성묘지		12,099.00	-	-
왕길동 사무실		37.38	지상1층	2010. 06. 30.
화장장	승화원	5,608.22	지하1층 지상2층	2010. 04. 15.
봉안당	추모의 집	2,248.31	지하1층 지상3층	2003. 01. 04.
	금마총	818.97	지하1층 지상1층	2007. 05. 04.
	만월당	3,701.29	지하1층 지상3층	2010. 10. 18.
	평온당	5,425.08	지하1층 지상3층	2016. 05. 15.
	별빛당	5,451.97	지하1층 지상3층	2019. 08. 12.
봉안담	회랑형봉안담	472.16	지상1층	2016. 05. 15.
	외국인묘역	-	-	2016. 05. 15.
	부부봉안담	-	-	2016. 05. 15.
	가족봉안담	-	-	2016. 05. 15.
	호국봉안담	478.88	지상1층	2016. 05. 15.
자연장	수목장림	23,500	1,366기	2008. 07. 11.
	늘푸른 잔디장	712	1,321기	2012. 06. 30.
	하늘정원 잔디장	2,475	2,604기	2013. 07. 12.
	별마루 잔디장	1,514	2,063기	2016. 05. 15.
	별하원 어린이잔디장	2,000	720기	2016. 05. 15.
	바람정원 잔디장	3,030	2,600기	2016. 05. 15.
	솔향기 정원수목장	1,669	557기	2012. 06. 16.
	바람정원 수목장	5,339	1,896기	2016. 05. 15.
	가족정원장	920	336기	2018. 07. 31.
옥외 화장실	승화원화장실	58.78	지상1층	2010. 04. 15.
	금마총화장실	48.00	지상1층	2001. 05. 04.
	주차장화장실	73.53	지상1층	2010. 10. 18.
	쌈지공원	85.84	지상1층	2016. 05. 15.
	부령약수터	55.06	지상1층	2016. 05. 15.
	칠성약수터	85.84	지상1층	2016. 05. 15.
관리사무소 및 홍보관		1,915.98	지하1층 지상2층	2010. 10. 18.
상 가		689.95	지하1층 지상2층	2010. 10. 18.
휴게음식점(카페)		232.27	지상1층	2019. 08. 12.
경비실		16.59	지상1층	2010. 10. 18.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a)

### (3) 인천가족공원 시설별 세부현황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및 인천가족공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인천가족공원 시설별 세부현황을 검토함

#### ◆ 묘지

- 면적: 1,681,139m<sup>2</sup>
- 구분: 일반묘, 조성묘
- 안치규모: 38,411기(2022. 08. 31. 기준)
  - 일반묘: 30,449기
  - 조성묘: 7,152기

#### ◆ 화장시설(승화원)

- 면적: 5,628.46m<sup>2</sup>
- 층별시설: 지하1층(통합사무실), 지상1층(유족대기실, 화장로, 관망실, 접수실, 감시실, 수골실 등), 지상2층(식당, 카페, 편의점)
- 화장로: 20기(1회차당 9기(예비 1기) 운영, 1일 처리능력 72기)
- 화장시간: 오전 7시에 1회차를 시작으로 1시간 간격으로 오후 3시 30분까지 9회차로 화장을 실시하며, 사망자 화장은 1회차부터 8회차에, 개장유골은 9회차에 화장함
- 화장 건수: 2021년에는 25,172건으로 1일 평균 68.9건이었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 17,168건, 1일 평균 70.7건으로 나타남

#### ◆ 봉안시설

- 봉안당은 인천가족공원 내에 추모의 집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별빛당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기준 4개소의 봉안당이 만장됨
- 봉안당은 총 5개소로 회랑형 봉안당, 외국인 묘역, 부부용 봉안당(봉안당Ⅰ), 가족 봉안당(봉안당Ⅱ), 호국 봉안당(봉안당Ⅲ)이 있음
- 봉안당의 경우 가장 최근에 준공되어 2020년 안치를 시작한 별빛당 또한 2025년 초 만장 예정으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에서 2만기 건립 예정임

[표 3-8]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단위: m, 기)

구분		면적 (m)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실적 (기)	봉안가능기수 (기)	만장일
계		27,901	157,239	126,973	30,226	
봉 안 당	추모의 집	2,248	19,320	19,320	0	2007. 12. 29.
	금마총	819	16,675	16,675	0	2010. 05. 23.
	만월당	3,701	29,184	29,184	0	2015. 02. 24.
	평온당	5,425	36,656	36,656	0	2020. 07. 15.
	별빛당	5,451	35,104	22,097	13,007	2025년 초 만장예정
봉 안 담	회랑형 봉안담	883	3,990	2,036	1,954	
	외국인 묘역	1,145.03	9,330	293	9,037	
	부부봉안담	3,517	1,140	160	980	
	가족봉안담	3,803	1,696	126	1,570	
	호국봉안담	909	4,144	426	3,718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a, 2023b)  
인천가족공원(<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

 자연장

- 인천가족공원 내 자연장은 총 9개소로, 수목장림, 늘푸른 잔디장, 솔향기 수목장, 하늘정원 잔디장, 별마루 잔디장, 바람정원 잔디장, 바람정원 수목장, 별하원(어린이전용 봉안시설), 가족정원장으로 구성됨
- 자연장의 경우 전부 만장 예정되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에서 1만기 건립 예정임

[표 3-9]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현황(2023년 기준)

(단위: m, 기, %)

구분	면적 (m)	안치능력 (기)	안치실적 (기)	가능기수 (기)	안치율 (%)	비 고
계	41,219	13,463	12,045	1,418		
수목장림	23,500	1,366	1,366	0	100	2012. 06. 29. 만장
늘푸른 잔디장	712	1,321	1,321	0	100	2015. 02. 01. 만장
솔향기 수목장	1,669	557	557	0	100	2017. 04. 26. 만장
하늘정원 잔디장	2,475	2,604	2,604	0	100	2018. 11. 15. 만장
별마루 잔디장	1,514	2,063	2,063	0	100	2020. 08. 31. 만장
바람정원 잔디장	3,030	2,600	2,505	95	96.3	2020. 09. 01. 안치시작 2023. 6월 초 만장예정
바람정원 수목장	5,399	1,896	1,580	316	83.3	2020. 09. 01. 안치시작 2023. 6월 중 만장예정
별하원(어린이전용 봉안시설)	2,000	720	21	699	2.9	
가족정원장	920	336	28	308	8.3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a)  
인천가족공원(<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

## 유택동산

- 유택동산은 화장을 마친 후 고인의 유골을 봉안함에 수습한 후 봉안당에 모시지 않고 유골을 뿌리는 장소임
- 유택동산의 안치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봉안함 내 유골의 양을 파악하여 일정한 양에 도달하면 유택동산에 안치되었던 유골을 사전에 정해진 합동분묘로 이장함

[그림 3-6] 인천가족공원 유택동산



[그림 3-7] 인천가족공원 합동분묘





## (4)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 인천가족공원은 3단계에 걸친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장사수요에 맞추어 만장된 인천가족공원의 시설을 재개발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인천가족공원을 통해 도심 속의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단계별 조성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조성사업 추진내용

- 추진 기간: 2005~2016년
- 사업면적: 199,741m<sup>2</sup>
- 1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봉안당(만월당) 신축, 진입로 정비, 생태하천 복원, 상가공급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0]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1단계 추진내용

구분	규모	시설	사진
봉안당(만월당) 건립	지하1/지상3 연면적 3,701㎡ 안치규모 30,06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리사무실 및 홍보관 (지하1/지상2, 연면적 1,883㎡)</li><li>상가 편의시설(지상 2층 674.92㎡), 주차장(349대), 화장실(지상1층 74㎡)</li></ul>	
진입로 정비	연장 434m, 폭 2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반시설: 상수관 1,345m, 하수관 1,246m, 도로포장 8,897㎡</li><li>조경시설: 광장, 파고라, 휴게소, 장미원, 식재 4,856㎡</li></ul>	
생태하천 복원	연장 1.3km, 폭 5~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연못4개소, 자연석 호안 384m, 식생호안 1,731m</li><li>호안블럭 224m, 자연학습원, 목교, 수변공간 7개소 설치</li></ul>	
상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식당(주민대책위원회 14명)</li><li>상가(꽃집연대 12실, 석재연대 3실, 기타1실)</li></ul>	

자료: 인천광역시(2023b)  
인천가족공원(<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

## 2단계 조성사업 추진내용

- 추진 기간: 2011~2017년
- 사업면적: 180,148㎡
- 2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봉안당(평온당) 건립, 봉안담, 외국인특화묘역, 자연장, 썸지공원, 도로 및 주차장 확충 등이 있으며 시설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1]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추진내용

구분	규모		사진
봉안당(평온당) 건립	연면적: 5,425㎡(지하1층, 지상3층) 안치 규모: 36,000기		
외국인특화묘역	시설 면적: 21,588㎡ 안치규모: 9,117기		
봉안담	시설 면적: 40,652㎡	안치 규모: 10,970기	
자연장1,2,3		안치 규모: 5,004기	
썸지공원	시설 면적: 6,320㎡		

자료 : 인천광역시(2023b)  
인천가족공원(<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

### 3단계 조성사업 추진내용

- 추진 기간: 2015~2040년
  - 5구역으로 나누어 사업 추진 중이며, 각 세부 단계별 추진 내용 및 계획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음
- 3-1단계(2015~2022년)의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별빛당 건립 및 자연장 6,400기 조성, 산골장 2만기, 산림복원 등이 있음.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이지만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 공고가 됨. 1~2단계와 약 12필지 사업 구역이 중복되면서 정확한 지적 확정 측량 실시로 인해 준공 시기가 늦춰짐(전민영, 2022)
- 3-2단계(2020~2025년): 2023년 5월 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봉안당 2만기, 자연장지 1만기, 산림복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함. 3-2단계 사업 역시 2025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하여 지연되어 2026년 12월 말에 준공될 예정임
- 이후에 3-3단계(2025~2030년), 3-4단계(2030~2035년), 3-5단계(2035~2040년)로 204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표 3-12] 인천가족공원 3단계 조성사업 주요 내용

단 계	계획 기간	주요 내용	비고
3-1	2015-2020년 (2023년 상반기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면적: 201,718㎡</li> <li>별빛당 건립(지상 3층, 35,104기, 5,451.97㎡)</li> <li>자연장 6,400기 조성</li> <li>산림복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구역 중복으로 인한 측량 실시 등 행정처리로 인한 지연</li> </ul>
3-2	2020~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면적: 195,000㎡</li> <li>봉안당 2만기</li> <li>자연장지 1만기</li> <li>산림복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절차 추진(산지전용 인·허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인한 지연되어 2026년 말 준공 예정</li> </ul>
3-3	2025~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면적: 230,000㎡</li> <li>총사업비: 49,118백만원</li> <li>보상대상: 분묘 8,500기(유연 6,800, 무연 1,700)</li> <li>사업내용: 자연장지(3만기), 산림복원 등</li> </ul>	
3-4	2030~20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면적: 140,000㎡</li> <li>총사업비: 25,390백만원</li> <li>보상대상: 분묘 4,000기(유연 3,200, 무연 800)</li> <li>사업내용: 자연장지(1만8천기), 산림복원 등</li> </ul>	
3-5	2035~204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면적: 550,250㎡</li> <li>총사업비: 61,073백만원</li> <li>보상대상: 분묘 9,000기(유연 7,200, 무연 1,800)</li> <li>사업내용: 자연장지(1만 4천기), 산림복원 등</li> </ul>	

자료: 인천광역시(2023b)

[그림 3-8]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단계별 구역도



자료: 인천광역시(2023b)

## (5) 인천가족공원 이용 현황

-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이용 추세를 최근 6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3-13] 및 [그림 3-9]와 같음
- 전체 화장 건수 대비 고인 거주지별 화장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시민의 화장 비율이 2021년 63.9%에서 2022년 7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2021년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화장장이 건립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임
  - 실제로 경기도민의 화장 비율이 2021년 25.9%에서 2022년 17.5%로 대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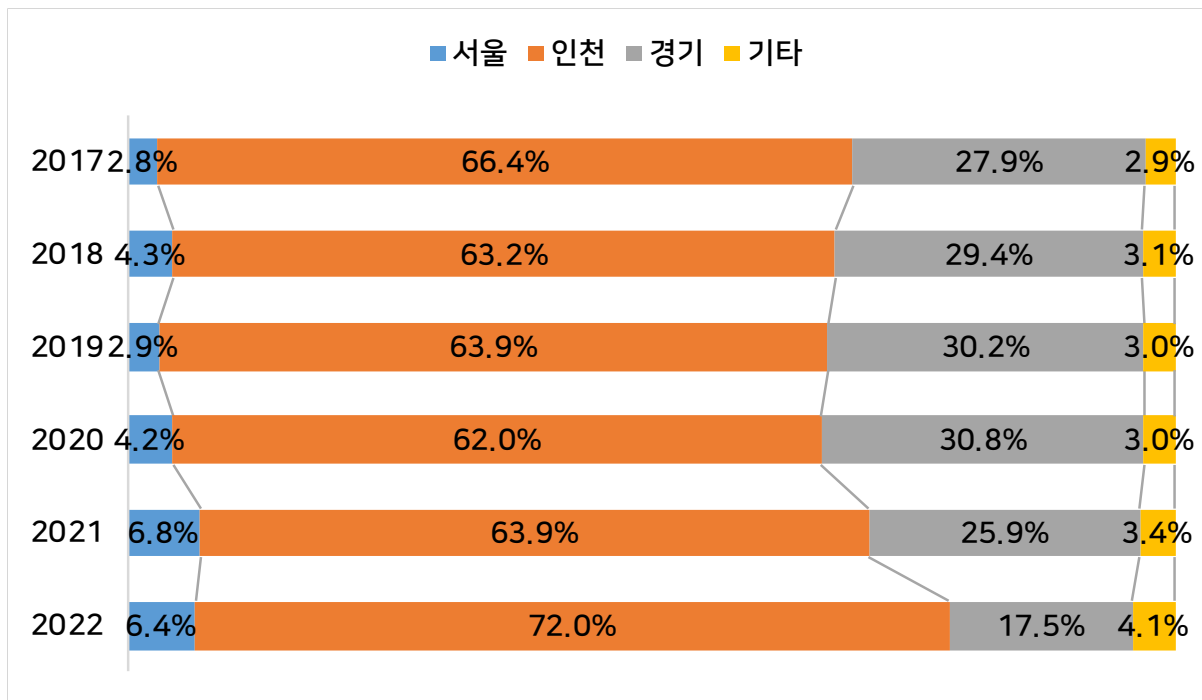
[표 3-13]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이용 추세(2017-2022): 사망자 거주지별

(단위: 건 %)

연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화장 건수	비중	화장 건수	비중	화장 건수	비중	화장 건수	비중
2017	534	2.8%	12,592	66.4%	5,303	27.9%	548	2.9%
2018	919	4.3%	13,508	63.2%	6,296	29.4%	664	3.1%
2019	623	2.9%	13,570	63.9%	6,407	30.2%	641	3.0%
2020	955	4.2%	14,107	62.0%	7,005	30.8%	674	3.0%
2021	1,600	6.8%	14,955	63.9%	6,062	25.9%	788	3.4%
2022	1,577	6.4%	17,733	72.0%	4,318	17.5%	1,011	4.1%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그림 3-9] 인천가족공원 화장장 이용 추세(2017-2022): 사망자 거주지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 2) 인천시 묘지 현황

### (1) 인천시 전체 묘지 현황

- 2023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묘지는 385개소로 111,650기의 분묘 설치 가능함
  - 이 중 81개소는 공설묘지로 향후 77,192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304개소는 사설묘지로 34,458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음

[표 3-14] 인천시 전체 묘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m<sup>2</sup>, 기)

군·구·별	전체			공설묘지			사설묘지		
	개소	총면적(m <sup>2</sup> )	향후 매장 가능(기)	개소	총면적(m <sup>2</sup> )	향후 매장 가능(기)	개소	총면적(m <sup>2</sup> )	향후 매장 가능(기)
계	385	3,475,637	111,650	81	2,603,683	77,192	304	1,289,680	34,458
중구	3	48,164	98	1	47,223	94	2	961	4
남동구	4	2,110	-	4	2,110	-	-	-	-
부평구	1	1,553,036	-	1	1,553,036	-	-	-	-
서구	123	894,233	34,491	3	28,342	37	120	892,745	34,454
강화군	217	957,410	75,920	61	952,463	75,920	156	4,947	-
옹진군	37	20,684	1,141	11	20,509	1,141	26	391,027	-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2) 공설묘지 현황

- 공설묘지의 묘역면적은 2,603,683㎡이며, 2023년 1월 기준 총매장가능기수는 129,665기, 기매장기수는 52,473기임
- 공설묘지 중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과 서구에 위치한 왕길공설묘지는 인천광역시가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관리하며, 이 외에 79개소는 군·구가 관리함
  - 인천시(인천시설공단)가 직접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총 묘역면적은 1,564,916㎡임
    - 인천가족공원의 묘역면적은 1,553,036㎡이며, 기매장기수는 37,752기임
    - 왕길공설묘지의 묘역면적은 11,880㎡이며, 기매장기수는 810기임
  - 군·구가 관리하는 79개소 공설묘지의 묘역면적은 1,038,767㎡이며, 기매장기수는 13,911기임

[표 3-15] 인천시 공설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 기)

군·구별	개소	묘역면적 (㎡)	총매장가능기수 (기)	매장기수 (기)	비고
합 계	81	2,603,683	129,665	52,473	
강 화 군	61	952,463	85,832	9,912	
남 동 구	4	2,110	913	913	
부 평 구	1	1,553,036	37,752	37,752	인천가족공원
서 구	3	28,342	1,641	1,604	
웅 진 군	11	20,509	1,314	173	
중 구	1	47,223	2,213	2,119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3) 사설묘지 현황

- 사설묘지는 법인묘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기타(종교, 단체)묘지로 구분됨
  - 사설묘지는 대부분 서구, 강화, 옹진 등에 분포되어 있음
- 인천시의 법인묘지는 2023년 기준 6개소이며, 허가면적은 243,785㎡임
  - 인천시의 법인묘지 6개소는 모두 서구에 있음
  - 총매장가능기수는 33,534기이며, 2023년 1월 기준 기매장기수는 21,204기,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12,330기임

[표 3-16] 인천시 법인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년, m<sup>2</sup>, 기)

군·구별	묘지명	관리주체	묘지설치현황				
			설치 연도 (년)	묘역 면적 (㎡)	총매장 가능기수 (기)	기매장 기수 (기)	향후매장 가능기수 (기)
전 체			-	243,785	33,534	21,204	12,330
서 구	하늘의 문	(재)천주교인천교구	1969	29,898	3,200	2,327	873
서 구	하늘의 문	(재)천주교인천교구	1973	132,987	20,000	11,347	8,653
서 구	홍해도민 묘지	인천지구 홍해도민회	1967	41,431	4,859	3,054	1,805
서 구	호남 향우회	재인 호남향우회	1973	11,900	1,322	999	323
서 구	양우회	양우회	1975	19,834	1,253	591	662
서 구	기독교장로회	장로교회	1974	7,735	2,900	2,886	14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인천시의 개인묘지는 2023년 1월 기준 신고(허가)면적이 1,650m<sup>2</sup>임
  - 개인묘지는 강화군에 147개소, 옹진군에 6개소로 총 153개소가 있음

[표 3-17] 인천시 개인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m<sup>2</sup>, 기)

군·구별	신고(허가) 개소 수	신고(허가)면적 (m <sup>2</sup> )	기매장기수 (기)
전 체	153	1,650	153
강화군	147	1,470	147
옹진군	6	180	6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인천시 가족묘지는 총 18개소로 신고(허가) 면적은 4,866m<sup>2</sup>이며, 총매장가능기수는 2,453기임
  -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기매장기수는 811기이며, 향후 1,646구의 매장이 가능함
  - 가족묘지는 중구에 2개소, 서구에 10개소, 강화군에 4개소, 옹진군에 2개소가 있음

[표 3-18] 인천시 가족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m<sup>2</sup>, 기)

군·구별	신고(허가) 개소 수	신고(허가)면적 (m <sup>2</sup> )	총매장가능기수 (기)	기매장기수 (기)	향후매장가능기수 (기)
전 체	18	4,866	2,453	811	1,646
중 구	2	961	-	4	-
서 구	10	3,340	2,444	798	1,646
강화군	4	396	4	4	-
옹진군	2	169	5	5	-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인천시 종중·문중묘지는 106개소로, 총 621,847㎡의 면적에 조성됨
- 종중·문중묘지는 서구에 101개소, 강화군에 5개소로 총 106개소가 있음

[표 3-19] 인천시 종중·문중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 기)

군·구별	신고(허가) 개소 수	신고(허가)면적 (㎡)	총매장가능기수 (기)	기매장기수 (기)	향후매장가능기수 (기)
전 체	106	621,847	27,008	6,779	20,229
서 구	101	618,766	27,003	6,774	20,229
강화군	5	3,081	5	5	-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인천시 종교 및 단체묘지는 3개소이며, 26,854㎡의 면적에 조성됨
- 종교 및 단체묘지는 모두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교묘지 1개소, 단체묘지 2개소임

[표 3-20] 인천시 종교 및 단체묘지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 기)

군·구별	신고(허가) 개소 수	신고(허가)면적 (㎡)	총매장가능기수 (기)	기매장기수 (기)	향후매장가능기수 (기)
전 체	3	26,854	770	521	249
서 구	3	26,854	770	521	249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3) 인천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현황

#### (1) 화장시설 현황

- 인천시의 화장장은 부평구 부평2동 산 57-1번지에 있는 공설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1개소이며, 화장장의 화장로는 20기임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경우 1994년 6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에서 출발하여, 1995년 8기, 2002년 11기, 2004년 15기, 2010년 20기의 화로를 갖춘 대형 화장장으로 확대됨

#### (2) 봉안시설 현황

- 봉안시설은 봉안당을 포함하여,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을 모두 포함함
- 봉안시설은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공설 봉안시설과 사설 봉안시설로 크게 구분하고, 사설 봉안시설은 다시 법인·종교단체·기타 봉안시설로 구분함

- 인천시의 봉안시설은 2023년 1월 기준 33개소이며, 전체 봉안시설의 총 봉안능력은 313,297기임
  - 2023년 1월 기준 인천시 내에서 공설 봉안시설 11개소와 사설 봉안시설(법인 봉안시설, 종교단체 봉안시설, 기타 봉안시설) 22개소가 운영 중임
- 봉안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설부문이 현재까지 주로 기능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음. 공설 봉안시설의 총 봉안능력은 157,239기로 전체 봉안능력의 약 50%를 차지함
  - 그러나 공설부문의 향후 봉안능력은 33,679기로 전체의 약 20%에 그침. 즉, 나머지 법인, 종교 및 기타 봉안시설들과 같은 사설 봉안시설이 80%의 여력을 갖고 있어 향후에는 사설 봉안시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표 3-21] 인천시 봉안시설 현황 종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기)

구분	개소	총봉안능력 (기)	누계 봉안기수 (기)	향후 봉안가능기수 (기)
합계	33	313,297	147,276	166,001
공설	11	157,239	123,560	33,679
법인	2	79,897	14,379	65,518
종교	9	74,897	8,961	65,936
기타	11	1,264	376	868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공설 봉안시설

- 인천시의 공설 봉안당은 인천가족공원에 소재한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 평온당, 별빛당으로 총 5개소이며, 인천가족공원 내에 마련된 봉안담까지 포함하면 총 11개소의 공설 봉안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 공설 봉안당 5개소의 총봉안능력은 136,939기이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123,932기가 봉안되어 있음
  - 2003년에 설치된 추모의 집 및 2007년에 설치된 금마총, 2010년에 설치된 만월당, 2016년 평온당의 경우 이미 만장된 상태이며, 2019년에 준공된 별빛당은 2025년 초 만장 예정임
  -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담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3,044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향후 17,256기를 봉안할 수 있음

[표 3-22] 인천시 공설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년, 기)

봉안시설 명칭		설치연도 (년)	봉안현황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봉안가능기수 (기)
전 체		-	157,239	126,976	33,679
봉안당	추모의 집	2003	19,320	19,320	-
	금마총	2007	16,675	16,675	-
	만월당	2010	29,184	29,184	-
	평온당	2016	36,656	36,656	-
	별빛당	2019	35,104	22,097	13,007
봉안당 소계			136,939	123,932	
봉안담			20,300	3,044	17,256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사설 봉안시설

-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은 법인 봉안시설, 종교단체 봉안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종중·문중 봉안당과 개인·가족 봉안당 및 봉안묘·담·탑 등은 기타 봉안시설로 구분될 수 있음
  - 2023년 1월 기준 인천시의 법인 봉안시설은 강화군에 있는 강화 파라다이스추모원과 천주교 인천교구의 하늘의 문이 있음
-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 중 법인 봉안당은 전체 봉안당 안치능력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법인 봉안당의 총봉안기수는 79,897기이며, 향후봉안가능기수는 65,518기임

[표 3-23] 인천시 법인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년, 기)

군·구별	봉안시설 명칭	관리 주체	설치 연도 (년)	봉안현황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봉안가능기수 (기)
전 체			-	79,897	14,379	65,518
강화군	강화 파라다이스추모원	법인	2004	76,300	11,351	64,949
서구	하늘의 문 (천주교 인천교구)	법인	2002	3,597	3,028	569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다음으로 종교단체 봉안당은 총봉안능력 74,897기로, 전체 봉안당 안치능력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종교단체 봉안시설의 기봉안기수는 총봉안가능기수의 11.9%인 8,961기이며, 향후 65,936기를 봉안할 수 있음

[표 3-24] 인천시 종교단체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년, 기)

군·구별	봉안시설 명칭	관리주체	설치 연도 (년)	봉안현황		
				총 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 봉안가능기수 (기)
전 체			-	74,897	8,961	65,936
미추홀구	석암산 수도사	석암산 수도사	2010	5,000	2,050	2,950
연수구	흥륜사 정토원	흥륜사 정토원	2008	13,000	3,897	9,103
남동구	약사사지장천 추모관	대한불교 화엄종 약사사	2006	5,000	2,000	3,000
남동구	고잔성당 몽은당 (재)인천교구	인천교구 천주교회	2012	906	271	635
서 구	송월교회 내 봉안묘	대한예수교 장로회	2003	480	20	460
서 구	송월교회 내 봉안탑	대한예수교 장로회	2003	180	9	171
강화군	민들레 추모원	민들레 추모원	2010	30,000	460	29,540
강화군	예수사랑제일교회	예수사랑제일교회	2010	15,334	154	15,180
강화군	갑곶순교성지	갑곶순교성지	2020	4,997	100	4,897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사설 봉안시설 중 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당 등과 같은 기타 봉안시설은 1,264기로, 전체 봉안시설 안치능력의 0.4%를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기봉안기수는 총봉안가능기수의 약 30%인 376기임

[표 3-25] 인천시 기타 봉안시설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기)

군·구별	운영 주체	봉안시설 구분	총봉안능력 (기)	기봉안기수 (기)	향후 봉안 가능기수 (기)	비고
전 체			1,264	376	888	-
계양구	종중	봉안당	516	300	216	전주이씨희령군파김포문중
서구	종중	봉안묘	448	32	416	이○○, 정○○
서구	가족	봉안묘	218	34	184	남○○, 최○○, 강○○, 명○○, 신○○
강화군	가족	봉안묘	24	8	16	권○○ 가족봉안묘
강화군	가족	봉안탑	24	1	23	가족봉안탑
강화군	가족	봉안묘	34	1	33	가족봉안묘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4) 인천시 자연장지 현황

- 인천시의 자연장지는 총 64개소로, 공설 자연장지 15개소, 사설 자연장지 49개소(개인 자연장지 11개소, 가족 자연장지 28개소, 종중·문중 자연장지 10개소)가 있음
- 인천가족공원이 조성한 23,500㎡의 수목장림과 솔향기정원 수목장, 늘푸른 잔디장, 하늘정원 잔디장, 별마루 잔디장은 2023년 기준으로 만장됨
-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지 중 바람정원 잔디장과 바람정원 수목장은 각각 2023년 6월 초반, 중반에 만장될 예정임
-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지는 향후 6,691기의 자연장이 가능하며,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자연장지는 향후 268기의 자연장이 가능함

[표 3-26] 인천시 공설 자연장지 현황(2023년 기준)

(단위: m, 기)

군·구별	자연장지 명칭	조성 면적 (㎡)	자연장 현황		
			총자연장능력 (기)	기자연장기수 (기)	향후자연장 가능기수(기)
전 체	15개소	111,881	20,977	12,508	8,377
본청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23,500	1,366	1,366	-
본청	솔향기정원 수목장	1,669	557	557	-
본청	늘푸른 잔디장	712	1,321	1,321	-
본청	하늘정원 잔디장	2,475	2,604	2,604	-
본청	별마루 잔디장	1,514	2,063	2,063	-
본청	별하원어린이잔디장	2,000	720	21	699
본청	바람정원 잔디장	3,030	2,600	2,505	95
본청	바람정원 수목장	5,339	1,896	1,580	316
본청	가족정원장	920	336	28	308
강화군	월곶공설자연장지	3,000	1,284	158	1,126
강화군	해누리공원	65,872	5,828	263	5,565
옹진군	장봉리 공설묘지 (자연장지)	650	78	7	71
옹진군	연평리 공설묘지 (자연장지)	300	104	13	91
옹진군	이작리 공설묘지 (자연장지)	500	92	-	-
옹진군	선재리 공설묘지 (자연장지)	400	128	22	106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a)  
인천광역시(2023a)

- 인천시의 사설 자연장지는 현재 조성면적 16,881㎡로 총 자연장 능력은 1,579기이며, 향후 자연장 가능 기수는 1,522기임

[표 3-27] 인천시 사설 자연장지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 기)

구분	개소 수	조성 면적 (㎡)	자연장 현황		
			총자연장능력 (기)	기자연장기수 (기)	향후 자연장가능기수 (기)
전체	49	16,881	1,579	157	1,522
개인·가족	38	2,826	275	46	229
종중·문중	11	14,055	1,304	111	1,293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5) 인천시 장례식장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장례식장은 총 37개소임
  - 지역별로는 서구 6개소,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5개소, 중구, 남동구 4개소, 부평구, 동구 3개소, 연수구 2개소로 분포되어 있음. 본청의 공설 장례식장으로는 동구에 위치한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음
  - 2017년도와 비교하여 5개소가 증가함

[표 3-28] 인천시 장례식장 현황

(단위: 년, 개소)

연도 (년)	전체 (개소)	본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2022	37	1	4	2	5	2	4	3	5	6	5
2017	32	1	4	2	4	2	2	3	4	7	3
2013	26	0	2	3	4	2	2	2	3	6	2

자료: 인천광역시(2023c)

- 37개소의 장례식장 중 직영은 20개소이고, 17개소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빈소수는 219개소로 총 422구를 안치할 수 있음

[표 3-29] 인천시 장례식장 운영형태별 현황

(단위: 년, 개소, 구)

연도(년)	직영(개소)	임대(개소)	빈소수(개소)	안치능력(구)
2022	20	17	219	422
2017	17	15	185	321
2013	11	15	148	249

자료: 인천광역시(2023c)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23b)

○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37개소의 장례식장 시설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빈소 수가 가장 많은 장례식장은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으로 15개소의 빈소를 갖추고 있음. 빈소 수가 가장 적은 장례식장은 서구의 인천연세병원 장례식장과 온누리 장례식장, 성민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수가 2개소에 그침
- 안치능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안치능력이 가장 많은 장례식장은 남동구의 남동스카이 장례식장(28구)이며, 다음으로는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26구),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22구), 길병원 장례식장(18구) 순으로 나타남. 안치능력이 가장 적은 장례식장은 서구의 온누리 장례식장(4구)과 강화군의 참사랑 장례식장(4구)으로 나타남

[표 3-30] 인천시 장례식장 시설별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소, 구)

연번	군·구	장례식장 명칭	운영형태	빈소 수 (개소)	안치능력 (구)
1	본 청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8	16
2	중 구 (4)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직영	8	17
3		예지요양병원 장례식장	임대	4	8
4		삼성 장례문화원	직영	3	6
5		인천기독병원 장례식장	임대	3	6
6	동 구 (2)	인천백병원 장례식장	임대	4	8
7		청기와 장례식장	직영	10	14
8	미추홀구 (5)	성인천병원 장례식장	직영	6	14
9		금강 장례식장	직영	6	10
10		시민 장례식장	직영	4	10
11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	직영	4	8
12		송도하나 장례문화원	직영	4	18
13	연 수 구 (2)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임대	9	12
14		연수송도장례식장	직영	6	8
15	남 동 구 (4)	길병원 장례식장	직영	11	18
16		인천힘찬종합병원 장례식장	임대	5	10
17		인천가족공원 장례식장	직영	3	6
18		남동스카이 장례식장	직영	10	28
19	부 평 구 (2)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	3	6
20		(주)평화누리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직영	11	22
21		부평세림병원 장례식장	임대	7	12
22	계 양 구 (5)	새천년 장례식장	직영	7	10
23		계양 장례식장	직영	9	12
24		실낙원인천 장례식장	직영	11	13
25		한림병원 장례식장	임대	8	12
26		세종병원 장례식장	임대	7	18

연번	군·구	장례식장 명칭	운영형태	빈소 수 (개소)	안치능력 (구)
27	서 구 (6)	온누리 장례식장	임대	2	4
28		검단탑병원 장례식장	임대	4	10
29		성민병원 장례식장	임대	2	6
30		보람인천 장례식장	직영	5	10
31		인천연세병원 장례식장	임대	2	6
32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임대	15	26
33	강 화 군 (5)	강화병원 장례식장	임대	3	8
34		강화 장례식장	직영	4	8
35		참사랑 장례식장	직영	3	4
36		서해 장례문화원	직영	3	10
37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직영	5	8

자료: 인천광역시(2023c)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23b)

### 3. 인천시 기타 장사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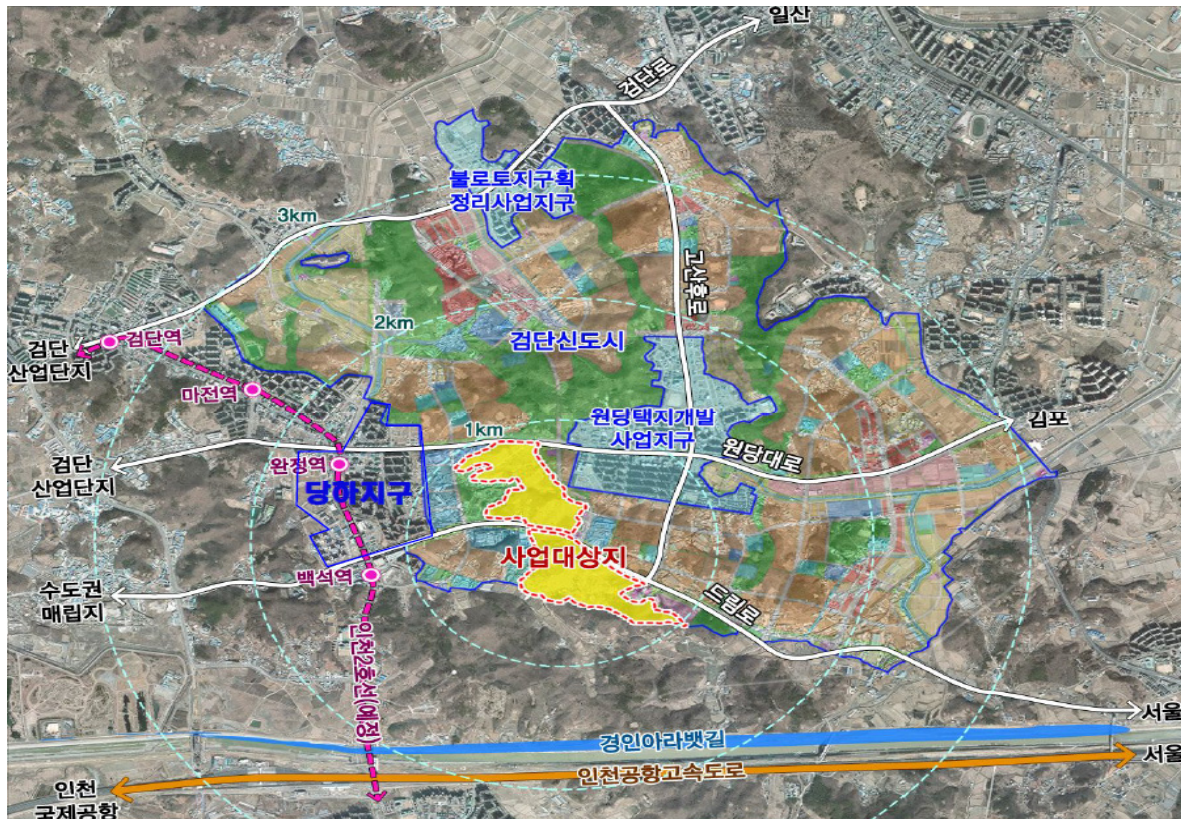
- 인천시 장사시설 중에서 설립이 추진 중인 검단묘지공원, 영종메모리얼파크, 서구왕길묘지 현황과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자 함

#### 1) 검단묘지공원

##### (1) 위치

- 검단묘지공원의 사업대상지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산 178-1번지이며 627,000m<sup>2</sup> 면적임 ([그림 3-10] 참조)
  - 검단묘지공원의 남측은 개발제한구역, 동측·서측·북측은 검단신도시 택지사업 지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왕복 4차로의 드림로가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어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는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는 형태임
  - 드림로 북측의 면적은 297,000m<sup>2</sup>, 드림로 남측의 면적은 330,000m<sup>2</sup>임
  - 드림로 북측이자 검단묘지공원 조성부지 동측은 원당지구의 원당신안실크밸리아파트와 250m 떨어져 있음
  - 드림로 북측이자 검단묘지공원 조성부지 서측은 당하지구의 대우푸르지오아파트와 300m 떨어져 있음

[그림 3-10]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자료: 인천광역시(2023a)

## (2) 토지 소유 및 이용 현황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기존 묘지는 7개의 단체(양우회 포함)와 5개 문중 등이 소유하여 운영하며, 묘지와 봉안시설로 구분됨
- 묘지는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기준으로 총 매장 가능 규모는 11,827기로 조사됨. 봉안시설은 (재)천주교인천교구에서 설치한 봉안담이 있으며 569기만 안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공유지 27,102㎡는 전체 면적의 약 4.3%를 차지하며, 나머지 95.7%는 단체, 법인, 일반개인 등의 토지임. 단체 및 양우회, 문중토지는 357,310㎡로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며, 천주교회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137,717㎡로 가장 큼. 일반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242,588㎡로 전체 면적의 38.7%를 차지함
  - 종교단체, 문중, 향우회, 양우회, 일반개인 등이 소유한 집단묘지가 군락으로 형성되어 있어 복잡한 소유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그림 3-1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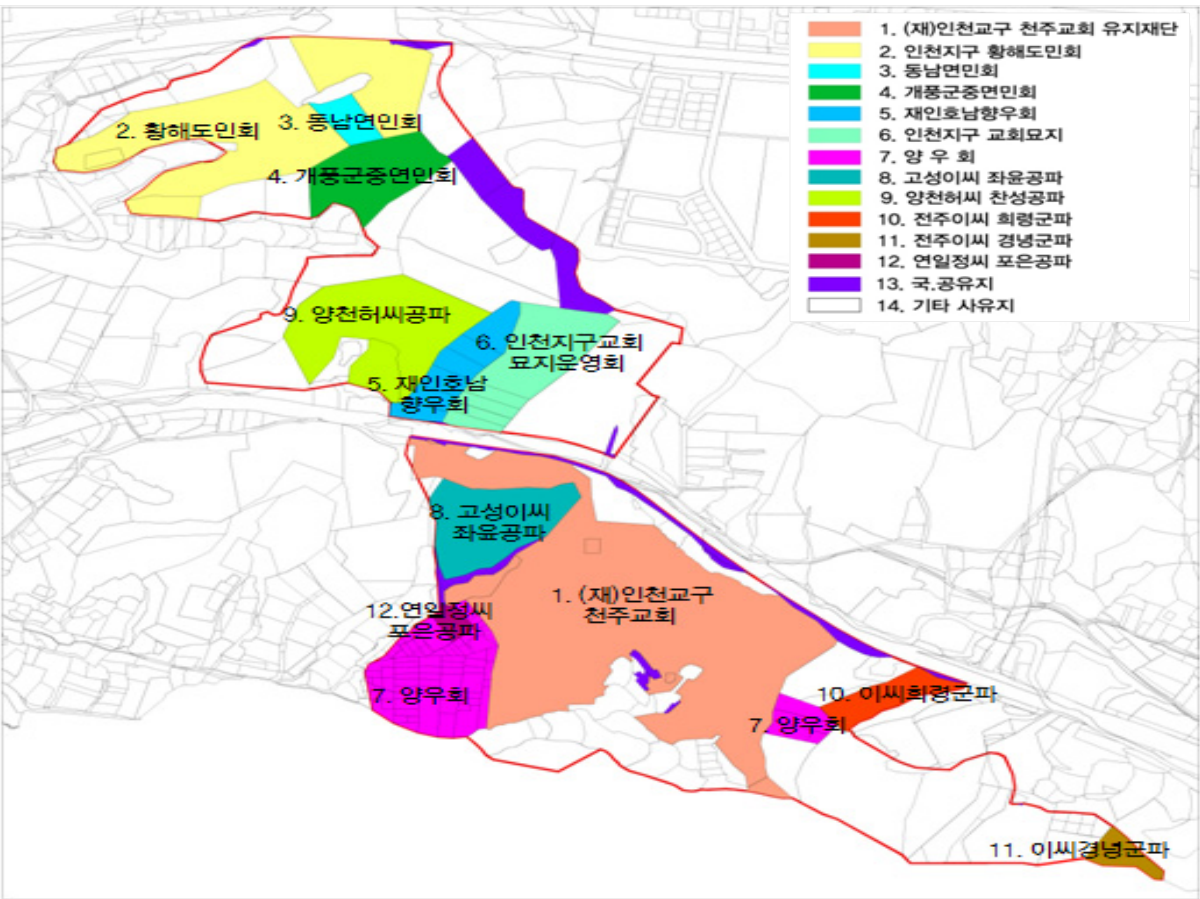
[표 3-31]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내 토지 소유 현황(2023년 1월 기준)

(단위: m<sup>2</sup>, %, 기)

구분 및 설치주체			면적(m <sup>2</sup> )	비율(%)	이용 현황(기)	
					매장(안치) 기수	향후 매장(안치) 가능 기수
전체			627,000	100.0	22,275	12,396
묘지	묘지 전체		357,310	57.0	19,247	11,827
	단체	소계(6개)	255,200	40.8	18,656	11,165
		(재)천주교인천교구	137,717	22.0	11,347	8,653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59,377	9.5	3,054	1,805
		동남연민회	4,364	0.7	120	120
		개풍군 중면민회	17,489	2.8	250	250
		장로교회	23,010	3.7	2,886	14
		재인호남향우회	13,243	2.1	999	323
	양우회(79인, 80필지)		32,484	5.2	591	662
	문중묘역(5개 문중)		69,626	11.0	-	-
	기타	사유지	242,588	38.7	-	-
		국,공유지	27,102	4.3	-	-
봉안 시설	봉안시설 전체		-	-	3,028	569
	(재)천주교인천교구		-	-	3,028	569

자료: 인천광역시(2023a)

[그림 3-11]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 현황도



자료: 인천광역시(2021a)

### (3) 검단묘지공원 추진 현황

- 검단지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1998년 6월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조성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표 3-32] 참조)
- 인천시는 2009년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통해 검단묘지공원을 2017년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함(인천광역시, 2009)
  - 이에 따라 2002년 「검단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 2013년 「검단묘지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이 수립됨
  -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기존 수립계획으로는 검단묘지공원 조성 및 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새로 발주하고 2014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준공함
  - 연구 결과로 환지방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인천도시공사에서 2014년 4월 토지주 사전참여 의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개 단체의 반대로 동의 여건을 미충족하였으며 2016년에는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검토함
- 202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이 해제됨
  - 인천가족공원 조성으로 장사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으므로 재장사업 투입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이 불가하므로 해제함[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6호]

[표 3-32] 검단묘지공원 추진 경위

기간	내 용
1998.6	•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결정
2002. 02	• 검단묘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도입시설 : 묘역, 납골당, 장례식장, 주차장 등
2004. 10	• 검단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 납골당, 장례식장 ⇒ 녹지로 변경
2010. 08.~2013. 03	• 검단묘지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인천도시공사) - 묘지공원 ⇒ 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변경
2013. 06.~2014. 04	• 검단묘지공원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인천발전연구원) • 환지방식 도출. 단, 환지방식 시행 시 토지주 동의 필요
2014. 4	• 토지주 사전참여 의향조사(인천도시공사) → 동의여건 미충족 - 반대(천주교, 장로교, 황해도민회), 찬성(양우회), 미정(호남향우회)
2016. 11.~2017. 01.	• 도시관리계획 해제 검토 - 토지소유주(천주교회) 반대로 사업추진 불가
2020. 03	•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실효)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96호] -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지방의회 해제권고에 따른 해제절차 이행 - 인천지역의 묘지공원조성계획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으로 장사시설 수급에 지장이 없으므로 재정사업 투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불가하여 해제
2020.6	•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검단묘지 편입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가함

자료: 인천광역시(2021a)

## 2) 영종메모리얼파크

### (1) 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의 시립 영종 봉안당 건립 협약(2008년 9월)에 따라 영종하늘도시 내 봉안당(영종메모리얼파크) 건립을 추진함
  - 협약 내용: 묘지공원(100,000㎡) 조성과 봉안시설(2만위), 부대시설 설치
- 위치는 중구 운서동 산 167번지 일원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영종하늘도시 3단계 지역 묘지공원과 공원 내 봉안당을 설치하는 계획임
  - 봉안당은 100,000㎡ 규모의 영종하늘도시 묘지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봉안당 부지는 4,000㎡를 활용하여 연면적 약 3,000㎡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2만기 안치가 가능한 규모로 건립될 예정임
  -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봉안당 80억, 묘지공원 40억 원임

[그림 3-12] 영종메모리얼파크 설치 위치도





자료: 인천광역시(2021b)

## (2) 추진 경위

- 영종메모리얼파크 내 봉안당 건립은 2008년 협약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건립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건립 예정 부지 내의 인천화약 저장고 이전 문제 및 주민 반대로 추진이 지연됨
  - 2009년에 봉안당 건립 예정 부지 내의 인천 화약저장고 이전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됨
  - 2011년 6월 사업자인 메모리얼파크가 협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천시는 2011년 6월 메모리얼파크 협약 건립 이행을 요청함
  - 2015년에 인천화약 저장고를 강화도로 이전하면서 봉안당 건립 예정 부지를 확보함
- 2016년 관계기관 회의 후 2018년 11월에 봉안당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한 후 2020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 2021년 5월에는 당초 건립 예정 지역은 거주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며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LH에서 원안(협약)대로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임

[표 3-33] 영종메모리얼파크 추진 경위

기간	내 용
2008년 9월	• 시립 영종봉안당 건립 협약서 체결(LH, 인천도시공사)
2009년 10월	• 건축허가
2016년 3월	• 봉안당 관련 관계기관 회의 - (인천시) 봉안당 건립 장기지연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조기 착공 필요 - (LH공사) 3단계부지 투자유치 미확정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움으로 연내 착공 불가
2018년 11월	• 봉안당 건립 변경(안) 협의(인천시→LH, 중구) - 봉안당 건립위치 변경(안), LH사업비 부담(100억원~120억원), 사업시행 주체 등
2020년 10월-11월	• 관계기관 회의 실시(시, 중구청, LH) - 영종공설묘지 개발사업(안)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LH), 장소 제공 및 주민 홍보 협조(중구청)
2021년 5월	• 관계기관 회의 실시(시, 중구청, LH) - LH에서 원안(협약)대로 건립 추진 결정 ⇨ 영종하늘도시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자료: 인천광역시(2021b)

### 3) 서구 왕길묘지

#### (1) 기본 현황<sup>1)</sup>

- 왕길 도시개발구역은 왕길동 산136번지 일대 4만 2,896㎡를 사업비 약 605억 9,800여만 원을 투입해 670세대 공동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업임
  - 구역명: 왕길 구역
  - 위치: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면적: 42,896㎡
  - 사업 시행자: (주)더시온
  - 사업방식: 수용
  - 추진 상태: 관계기관 협의 중

#### (2) 추진 현황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 소유해 1971년부터 운영한 묘지는 2005년 허가 면적을 초과 운영한 사실을 구가 적발하고 시설 이전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7년 폐쇄됨(장호영, 2021)
- 하지만 묘지 1,450여 기 중 280~300여 기가 이용자들과 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존치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훼손된 채 방치돼있어 인근 주민들이 서구에 정비라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장호영, 2021)

1) 인천광역시(2023). 도시개발 사업현황(<https://www.incheon.go.kr/build/BU040201>)을 참고하여 작성함

- 왕길동 산136번지에 위치한 공동묘지구역은 묘지가 파헤쳐지거나 비석이 버려지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음

[그림 3-13] 서구 왕길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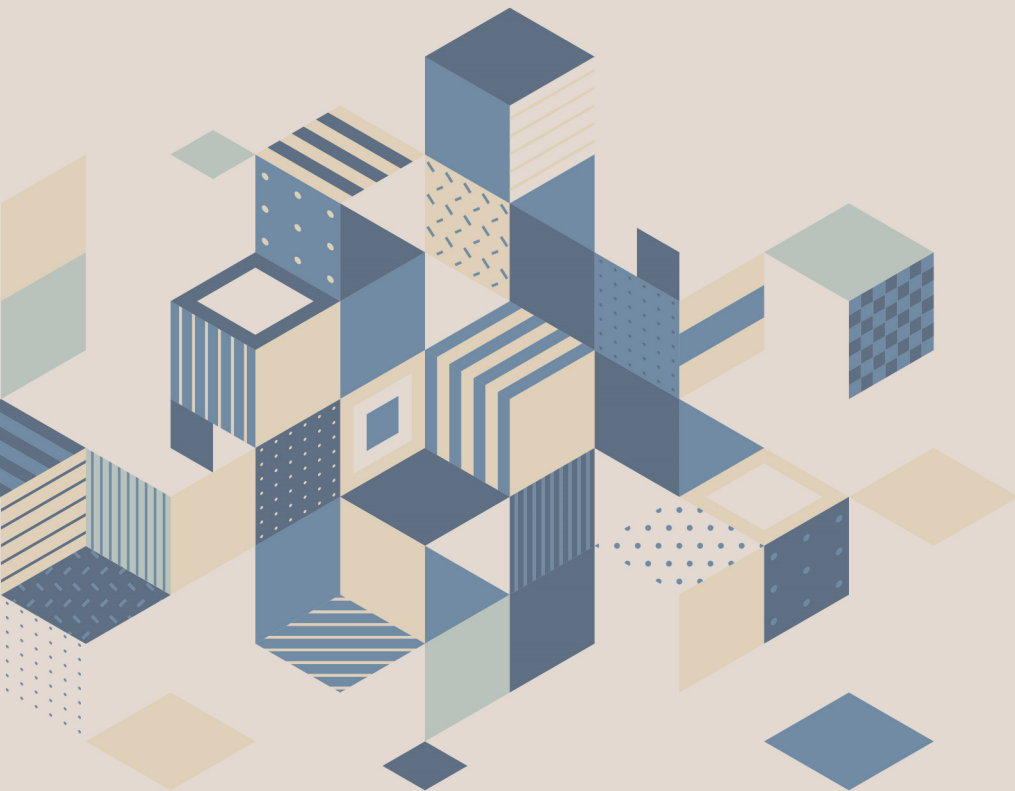
자료: 경인일보(2019)

-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부지가 묘지만 1,450기에 달하던 공동묘지구역으로 조속한 장사시설 이전 요구가 많았던 만큼 사업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함
- 2023년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서 전체 묘지 중 1,383기가 이장을 완료하였고, 사업 시행자는 현재 남은 67기에 대한 이장 협의를 진행 중임
- 2023년 6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심의에서 보류됨(박해운, 2023)
  - 당초 개발계획안에 있는 670세대 아파트 건립이 면적 대비 고밀도로 판단이 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려가 있었음



## 제4장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시민의식 조사

1. 조사개요
2.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조사
3.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조사
4. 요약 및 시사점





## 제4장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시민의식 조사

### 1. 조사개요

-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시민의식 조사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민 대상 의식조사와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 1)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 조사

##### ◆ 조사목적 및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시민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장사 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표본은 강화군, 옹진군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임

##### ◆ 조사내용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1:1 웹/모바일 조사로 진행함
-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죽음 및 장례 준비에 관한 의식, 산분장 및 가정 내 안치 관련 의식, 희망 장사방법, 인천가족공원 및 인천시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으로 구성됨(설문조사지는 부록 첨부)

[표 4-1]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표본 수	800명
표본 할당	인천시 군·구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2023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시기	2023년 5월 22일 ~ 6월 2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조사

### 🔹 조사목적 및 대상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관내·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장사정책의 기본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이용객 장사문화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인천가족공원의 승화원(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610명임

### 🔹 조사내용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면접조사방법으로 진행함. 조사 교육을 수료한 전문조사원을 통하여 대면조사로 진행함
- 조사표본은 편의추출방식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함
-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화장 유형, 생전 거주지, 승화원 이용 사유,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산분장 선택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구성됨(설문조사지는 부록 첨부)

[표 4-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승화원 이용객
표본 수	610명
조사 방법	조사원을 통한 대면조사(종이설문지 기입)
조사 시기	2023년 6월 2일 ~ 2023년 6월 11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 2.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조사

###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인천시민 장사문화 의식조사에 응답한 총 800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와 같음
  - 성별은 ‘남성’ 50.0%, ‘여성’ 50.0%임
  -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9.1%로 가장 많고, ‘50대’ 20.0%, ‘40대’ 18.9% 등의 순임
  - 거주지역은 ‘서구’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8.9%로 가장 많고, ‘부평구’ 16.9%, ‘남동구’ 16.8% 등의 순임

- 최종학력은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이 66.6%이며, '고졸 이하'가 33.4%로 나타남
- 종교는 '무교(종교 없음)'라고 응답한 비율이 54.1%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기독교)' 24.1%, '천주교' 12.8%, '불교' 8.6% 등의 순임
- 거주기간은 인천에 거주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 30년 미만' 24.4%, '10년 이상 ~ 20년 미만' 18.0% 등의 순임
-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30.8%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4.9%, '700만원 이상' 22.5%, '300만원 미만' 21.9% 순임

[표 4-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전체	사례 수	비율
합계	(800)	100.0
성별		
남	(400)	50.0
여	(400)	50.0
연령대		
19-29세	(127)	15.9
30대	(129)	16.1
40대	(151)	18.9
50대	(160)	20.0
60대 이상	(233)	29.1
거주지역(군·구)		
중구	(41)	5.1
동구	(17)	2.1
미추홀구	(110)	13.8
연수구	(100)	12.5
남동구	(134)	16.8
부평구	(135)	16.9
계양구	(79)	9.9
서구	(151)	18.9
강화군	(21)	2.6
옹진군	(12)	1.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33.4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533)	66.6
종교		
불교	(69)	8.6
개신교(기독교)	(193)	24.1
천주교	(102)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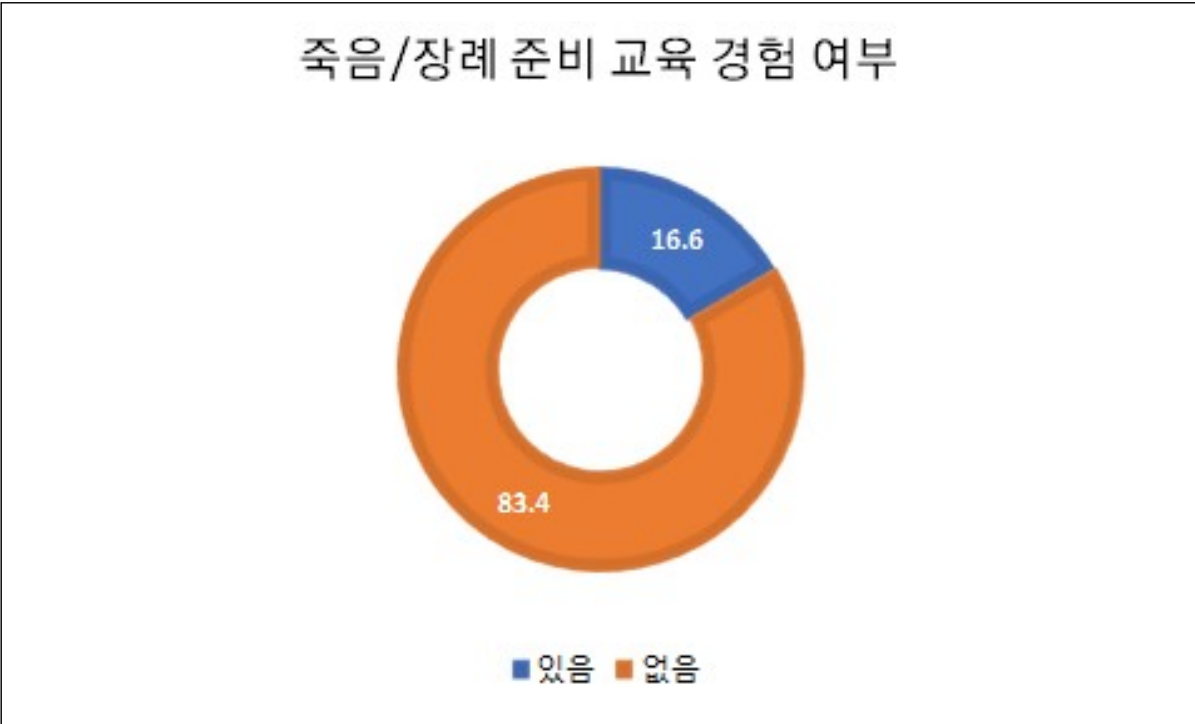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비율
무교(종교 없음)	(433)	45.1
기타	(3)	0.4
거주기간		
5년 미만	(51)	6.4
5년 이상 ~ 10년 미만	(80)	10.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44)	18.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95)	24.4
30년 이상	(330)	41.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21.9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30.8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24.9
700만원 이상	(180)	22.5

## 2) 죽음 및 장례 준비에 관한 인식

### (1) 죽음 준비 교육 경험

- 죽음/장례 교육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6%로 약 6명 중 1명만이 죽음 및 장례와 관련한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죽음/장례 준비 교육 경험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대에서 나타남

- 남성은 18.0%가 죽음 및 장례 준비 교육을 받아 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여성은 15.3%로 남성의 경험률이 다소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19~29세가 27.6%로 죽음 및 장례 준비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10.6%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응답특성별 비교(죽음/장례 준비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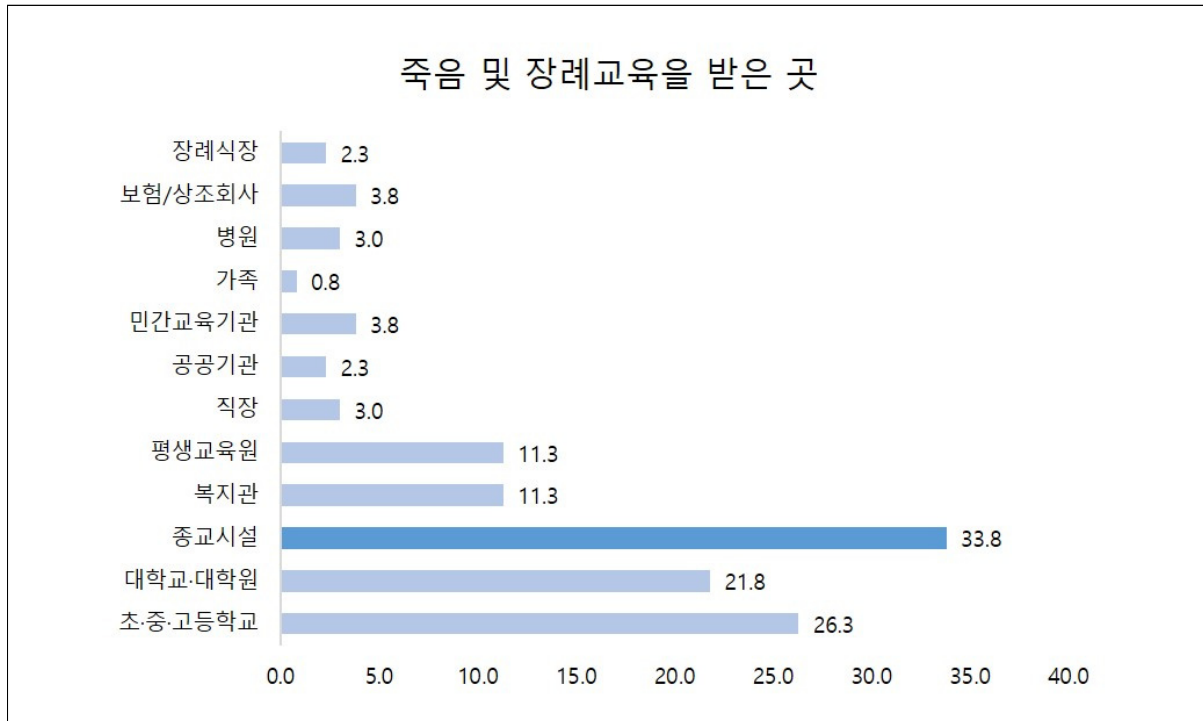
(단위: %)

전체	사례 수	있음	없음	계
합계	(800)	16.6	83.4	100.0
성별				
남	(400)	18.0	82.0	100.0
여	(400)	15.3	84.8	100.0
연령대				
19-29세	(127)	27.6	72.4	100.0
30대	(129)	17.1	82.9	100.0
40대	(151)	10.6	89.4	100.0
50대	(160)	13.1	86.9	100.0
60대 이상	(233)	16.7	83.3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16.9	83.1	100.0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533)	16.5	83.5	100.0
종교				
불교	(69)	11.6	88.4	100.0
개신교(기독교)	(193)	20.7	79.3	100.0
천주교	(102)	18.6	81.4	100.0
무교(종교 없음)	(433)	15.2	84.8	100.0
기타	(3)	0.0	10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18.3	81.7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16.3	83.7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13.1	86.9	100.0
700만원 이상	(180)	19.4	80.6	100.0

- 죽음/장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3명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종교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로 가장 높음
- 그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26.3%, ‘대학교·대학원’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죽음/장례 준비 교육을 받은 곳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와 종교에서 나타남
- 연령대가 19~29세인 경우, 죽음 및 장례교육을 받은 곳으로 초·중·고등학교가 6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30대의 경우 대학교·대학원이 59.1%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 60대 이상까지는 종교시설이 각각 56.3%, 47.6%,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종교시설에서 죽음 및 장례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5] 응답특성별 비교(죽음/장례 준비 교육을 받은 곳)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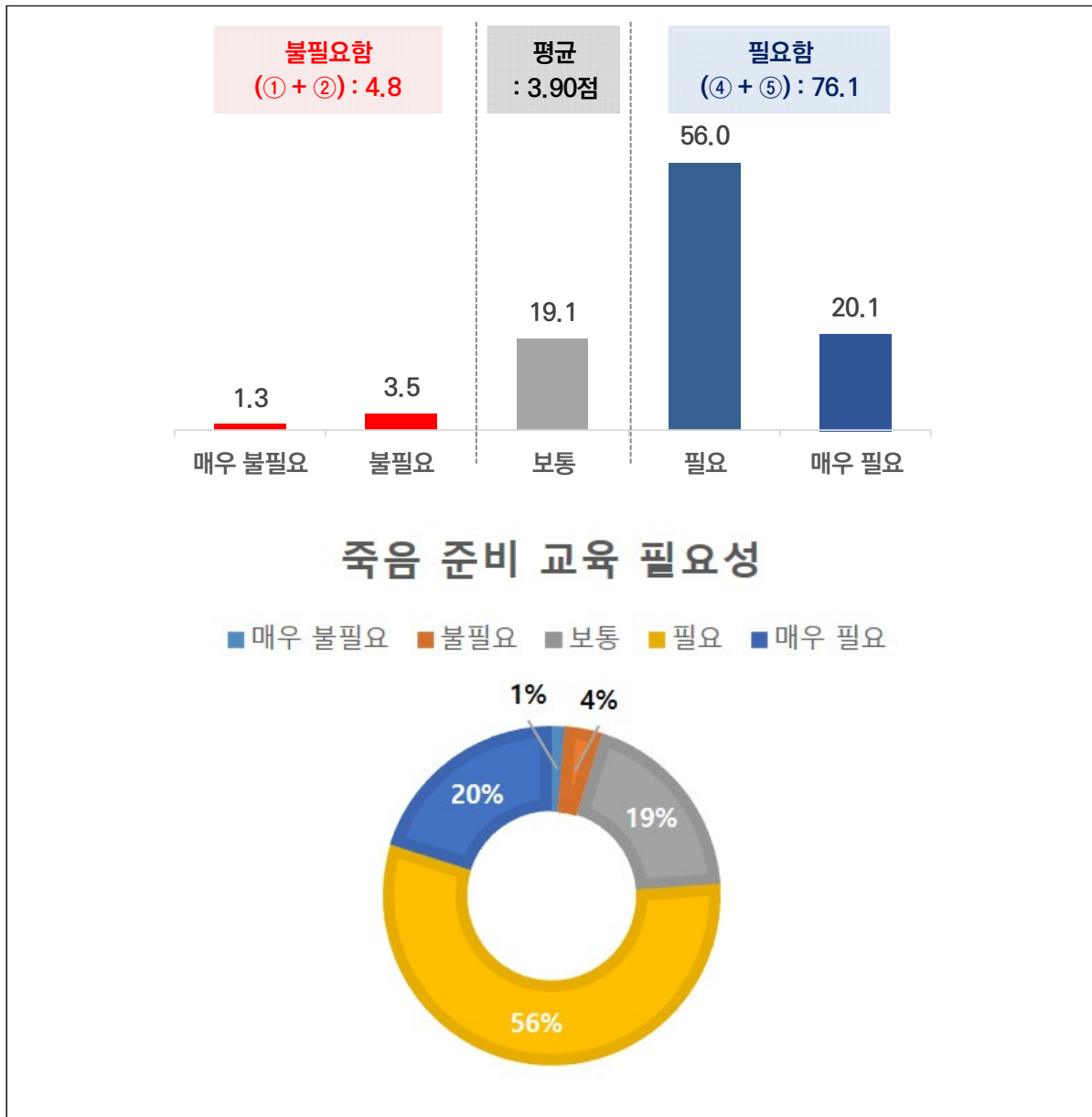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종교 시설	복지관	평생교육원	직장	공공기관	민간교육기관	가족	병원	보험/상조회사	장례식장
합계	(133)	26.3	21.8	33.8	11.3	11.3	3.0	2.3	3.8	0.8	3.0	3.8	2.3
성별													
남	(72)	26.4	26.4	41.7	13.9	11.1	2.8	0.0	2.8	1.4	1.4	0.0	2.8
여	(61)	26.2	16.4	24.6	8.2	11.5	3.3	4.9	4.9	0.0	4.9	8.2	1.6
연령대													
19-29세	(35)	65.7	28.6	14.3	2.9	0.0	0.0	0.0	0.0	2.9	0.0	0.0	5.7
30대	(22)	31.8	59.1	22.7	9.1	13.6	4.5	0.0	0.0	0.0	4.5	0.0	4.5
40대	(16)	12.5	25.0	56.3	12.5	12.5	0.0	0.0	0.0	0.0	0.0	0.0	0.0
50대	(21)	4.8	4.8	47.6	28.6	14.3	4.8	0.0	9.5	0.0	0.0	14.3	0.0
60대 이상	(39)	5.1	2.6	41.0	10.3	17.9	5.1	7.7	7.7	0.0	7.7	5.1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45)	46.7	11.1	31.1	4.4	4.4	2.2	2.2	4.4	2.2	2.2	4.4	2.2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88)	15.9	27.3	35.2	14.8	14.8	3.4	2.3	3.4	0.0	3.4	3.4	2.3
종교													
불교	(8)	25.0	12.5	37.5	12.5	25.0	0.0	0.0	0.0	0.0	12.5	12.5	0.0
개신교(기독교)	(40)	12.5	20.0	62.5	12.5	10.0	0.0	2.5	5.0	0.0	0.0	5.0	0.0
천주교	(19)	15.8	15.0	47.4	5.3	10.5	5.3	5.3	5.3	5.3	0.0	5.3	0.0
무교(종교 없음)	(66)	25.8	25.0	12.1	12.1	10.6	4.5	1.5	3.0	0.0	4.5	1.5	4.5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2)	28.1	18.8	40.6	12.5	9.4	3.1	0.0	6.3	0.0	0.0	3.1	3.1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0)	32.5	22.5	30.0	0.0	7.5	2.5	2.5	7.5	0.0	7.5	5.0	2.5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6)	15.4	23.1	26.9	11.5	23.1	0.0	3.8	0.0	3.8	3.9	3.8	3.8
700만원 이상	(35)	25.7	22.9	37.1	22.9	8.6	5.7	2.9	0.0	0.0	0.0	2.9	0.0

## (2) 죽음 준비 교육 필요성

- 죽음 준비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불필요’가 1점, ‘매우 필요’가 5점일 때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필요도는 평균 3.90점임
-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 ‘불필요하다(매우 불필요+불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4.8%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림 4-3] 죽음 준비 교육 필요성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설문 결과는 [표 4-6]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최종학력, 종교에서 나타남

- 여성의 죽음 준비 교육 필요도 평균이 3.97점으로 남성 평균 3.83점보다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인 경우 죽음 준비 필요도가 평균 3.94점으로 고졸 이하 평균 3.82점보다 높게 나타남
- 종교가 불교인 경우 죽음 준비 필요도가 평균 4.13점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6] 응답특성별 비교(죽음 준비 교육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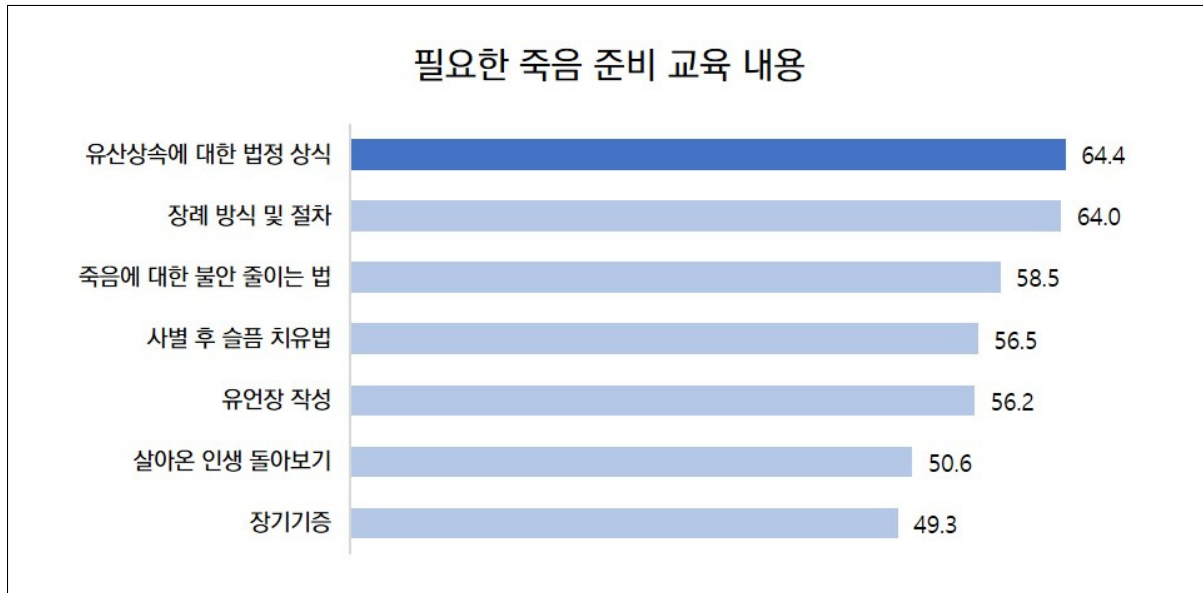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사례 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함 (1+2)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함 (4+5)	계	평균
합계	(800)	1.3	3.5	4.8	19.1	56.0	20.1	76.1	100.0	3.90
성별										
남	(400)	1.8	5.0	6.8	20.3	54.3	18.8	73.0	100.0	3.83
여	(400)	0.8	2.0	2.8	18.0	57.8	21.5	79.3	100.0	3.97
연령대										
19-29세	(127)	3.1	3.9	7.1	15.0	58.3	19.7	78.0	100.0	3.87
30대	(129)	0.0	3.1	3.1	22.5	58.9	15.5	74.4	100.0	3.87
40대	(151)	0.7	2.0	2.6	25.2	52.3	19.9	72.2	100.0	3.89
50대	(160)	1.3	3.8	5.0	20.0	53.1	21.9	75.0	100.0	3.91
60대 이상	(233)	1.3	4.3	5.6	15.0	57.5	21.9	79.4	100.0	3.9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1.5	3.7	5.2	21.3	58.1	15.4	73.4	100.0	3.82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1.1	3.4	4.5	18.0	55.0	22.5	77.5	100.0	3.94
종교										
불교	(69)	0.0	0.0	0.0	14.5	58.0	27.5	85.5	100.0	4.13
개신교(기독교)	(193)	1.6	3.1	4.7	17.6	49.7	28.0	77.7	100.0	3.99
천주교	(102)	0.0	2.9	2.9	19.6	60.8	16.7	77.4	100.0	3.91
무교(종교 없음)	(433)	1.6	4.4	6.0	20.1	57.5	16.4	73.9	100.0	3.83
기타	(3)	0.0	0.0	0.0	75.0	25.0	0.0	25.0	100.0	3.3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1.1	3.4	4.6	18.3	57.7	19.4	77.1	100.0	3.91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0.4	3.7	4.1	16.3	61.0	18.7	79.7	100.0	3.94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2.5	3.5	6.0	22.1	53.8	17.1	71.9	100.0	3.81
700만원 이상	(180)	1.1	3.3	4.4	20.6	50.0	25.0	75.0	100.0	3.94

-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09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에 대해 설문한 결과, ‘유산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최종학력에서 나타남
  -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의 경우,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으로 ‘유산상속에 대한 법정상식’이 7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7] 응답특성별 비교(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

(단위: %)

전체	사례 수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장례 방식 및 절차	죽음에 대한 불안 줄이는 법	사별 후 슬픔 치유법	유언장 작성	살아온 인생 돌아 보기	장기 기증	연명 치료
합계	(609)	64.4	64.0	58.5	56.5	56.2	50.6	49.3	35.3
성별									
남	(292)	62.0	63.0	56.2	54.8	54.8	51.4	45.9	32.5
여	(317)	66.6	65.0	60.6	58.0	57.4	49.8	52.4	37.9
연령대									
19-29세	(99)	65.7	75.8	37.4	63.6	52.5	40.4	39.4	22.2
30대	(96)	71.9	81.3	52.1	57.3	59.4	43.8	50.0	36.5
40대	(109)	68.8	69.7	55.0	56.0	51.4	51.4	41.3	26.6
50대	(120)	64.2	60.0	75.8	58.3	53.3	56.7	48.3	42.5
60대 이상	(185)	57.3	48.1	63.8	51.4	61.1	55.1	59.5	42.2

전체	사례 수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장례 방식 및 절차	죽음에 대한 불안 줄이는 법	사별 후 슬픔 치유법	유언장 작성	살아온 인생 돌아 보기	장기 기증	연명 치료
자치구/군									
중구	(33)	81.8	69.7	57.6	60.6	63.6	42.4	45.5	36.4
동구	(13)	69.2	53.8	69.2	46.2	61.5	46.2	61.5	53.8
미추홀구	(85)	63.5	56.5	54.1	52.9	62.4	52.9	50.6	34.1
연수구	(82)	57.3	62.2	59.8	57.3	51.2	54.9	53.7	31.7
남동구	(108)	67.6	66.7	60.2	50.9	54.6	54.6	48.1	35.2
부평구	(98)	58.2	62.2	56.1	63.3	58.2	51.0	51.0	39.8
계양구	(56)	60.7	66.1	55.4	62.5	53.6	51.8	48.2	30.4
서구	(112)	67.9	67.9	60.7	54.5	52.7	43.8	41.1	33.9
강화군	(14)	64.3	64.3	64.3	71.4	57.1	57.1	57.1	28.6
옹진군	(8)	75.0	75.0	62.5	37.5	62.5	37.5	87.5	62.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96)	51.0	61.2	60.2	57.7	54.1	46.4	45.4	31.6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413)	70.7	65.4	57.6	55.9	57.1	52.5	51.1	37.0
종교									
불교	(59)	50.8	59.3	57.6	61.0	55.9	50.8	50.8	49.2
개신교(기독교)	(150)	62.7	65.3	57.3	53.3	56.0	54.0	54.0	32.7
천주교	(79)	69.6	54.4	69.6	54.4	67.1	63.3	62.0	39.2
무교(종교 없음)	(320)	66.3	66.6	56.3	57.8	53.4	45.6	43.4	33.1
기타(원불교)	(1)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0.0
거주기간									
5년 미만	(43)	72.1	74.4	69.8	67.4	53.5	41.9	55.8	53.5
5년 이상 ~ 10년 미만	(63)	58.7	71.4	61.9	55.6	52.4	60.3	54.0	31.7
10년 이상 ~ 20년 미만	(106)	65.1	74.5	43.4	63.2	56.6	48.1	45.3	26.4
20년 이상 ~ 30년 미만	(142)	63.4	67.6	55.6	57.0	57.0	42.3	47.2	35.9
30년 이상	(255)	64.7	54.1	63.5	51.8	56.9	55.3	49.8	36.5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5)	54.8	63.7	54.8	57.8	50.4	49.6	48.1	36.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96)	64.3	66.8	63.3	58.2	52.6	49.0	49.5	36.2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43)	62.9	63.6	53.8	53.8	54.5	46.2	47.6	29.4
700만원 이상	(135)	75.6	60.7	60.0	55.6	68.9	58.5	51.9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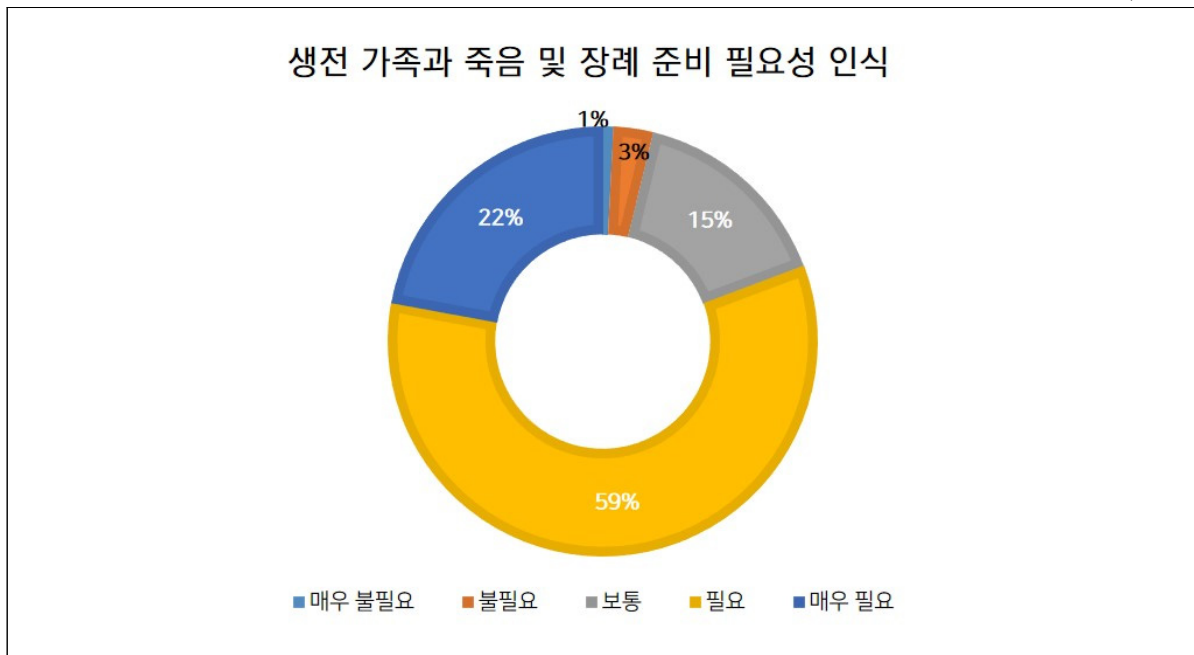
### (3) 사전 장례 준비 및 장례비용에 대한 인식

#### ① 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 생전에 가족들과 죽음 및 장례 준비에 대해 의견 나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매우 불필요’가 1점, ‘매우 필요’가 5점일 때 생전 죽음 및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필요도는 평균 3.98점임
- 생전 죽음 및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필요+매우 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80.8%, ‘불필요하다(매우 불필요+불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나타남

[그림 4-5] 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필요성 인식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표는 다음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에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생전 죽음 및 장례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필요도가 평균 4.09점으로 남성 평균 3.88점보다 높게 나타남

[표 4-8] 응답특성별 비교(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필요성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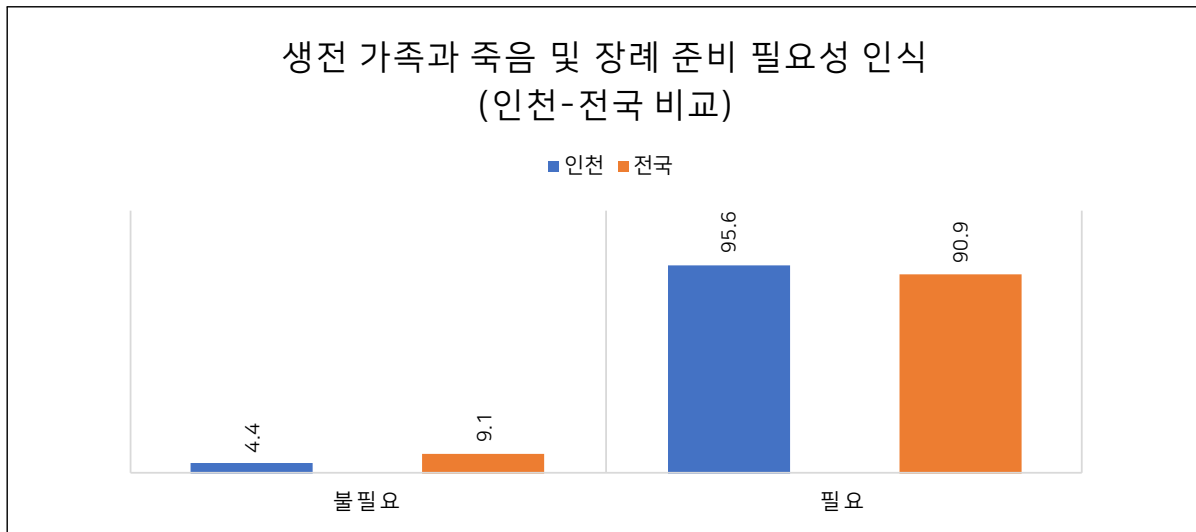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함 (1+2)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함 (4+5)	계	평균
합계	(800)	0.8	3.0	3.8	15.5	58.6	22.1	80.8	100.0	3.98
성별										
남	(400)	1.0	5.0	6.0	18.5	55.8	19.8	75.5	100.0	3.88
여	(400)	0.5	1.0	1.5	12.5	61.5	24.5	86.0	100.0	4.09

전체	사례 수	매우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함 (1+2)	보통	필요	매우 필요	필요함 (4+5)	계	평균
연령대										
19-29세	(127)	0.8	4.7	5.5	11.0	56.7	26.8	83.5	100.0	4.04
30대	(129)	0.0	2.3	2.3	20.9	55.0	21.7	76.7	100.0	3.96
40대	(151)	0.7	0.7	1.3	19.2	57.6	21.9	79.5	100.0	3.99
50대	(160)	1.3	3.1	4.4	15.0	48.1	22.5	80.6	100.0	3.98
60대 이상	(233)	0.9	3.9	4.7	12.9	62.7	19.7	82.4	100.0	3.97
자치구/군										
중구	(41)	0.0	2.4	2.4	17.1	61.0	19.5	80.5	100.0	3.98
동구	(17)	5.9	5.9	11.8	5.9	58.8	23.5	82.4	100.0	3.08
미추홀구	(110)	0.9	4.5	5.5	17.3	52.7	24.5	77.3	100.0	3.95
연수구	(100)	1.0	4.0	5.0	9.0	67.0	19.0	86.0	100.0	3.99
남동구	(134)	0.7	2.2	3.0	11.2	60.4	25.4	85.8	100.0	4.07
부평구	(135)	1.5	1.5	3.0	19.3	56.3	21.5	77.8	100.0	3.95
계양구	(79)	0.0	2.5	2.5	12.7	60.8	24.1	84.8	100.0	4.06
서구	(151)	0.0	3.3	3.3	19.9	57.0	19.9	76.8	100.0	3.93
강화군	(21)	0.0	0.0	0.0	28.6	38.1	33.3	71.4	100.0	4.05
옹진군	(12)	0.0	8.3	8.3	8.3	83.3	0.0	83.3	100.0	3.75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1.1	2.2	3.4	18.4	58.8	19.5	78.3	100.0	3.93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0.6	3.4	3.9	14.1	58.5	23.5	82.0	100.0	4.01
종교										
불교	(69)	0.0	0.0	0.0	15.9	55.1	29.0	84.1	100.0	4.13
개신교(기독교)	(193)	1.0	3.6	4.7	12.4	59.6	23.3	82.9	100.0	4.01
천주교	(102)	0.0	2.0	2.0	20.6	57.8	19.6	77.5	100.0	3.95
무교(종교 없음)	(433)	0.9	3.5	4.4	15.7	58.7	21.2	79.9	100.0	3.96
기타	(3)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4.00
거주기간										
5년 미만	(51)	0.0	5.9	5.9	13.7	54.9	25.5	80.4	100.0	4.00
5년 이상 ~ 10년 미만	(80)	0.0	1.3	1.3	17.5	55.0	26.3	81.3	100.0	4.06
10년 이상 ~ 20년 미만	(144)	1.4	3.5	4.9	13.9	57.6	23.6	81.3	100.0	3.99
20년 이상 ~ 30년 미만	(195)	1.0	3.1	4.1	15.9	58.5	21.5	80.0	100.0	3.96
30년 이상	(330)	0.6	2.7	3.3	15.8	60.6	20.3	80.9	100.0	3.97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0.6	3.4	4.0	20.0	52.6	23.4	76.0	100.0	3.9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0.4	2.0	2.4	13.0	66.3	18.3	84.6	100.0	4.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2.0	3.5	5.5	16.1	56.8	21.6	78.4	100.0	3.92
700만원 이상	(180)	0.0	3.3	3.3	13.9	56.1	26.7	82.8	100.0	4.06

- 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필요+매우 필요)’는 응답률이 인천은 95.6%이고 전국이 90.9%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민의 생전 죽음 및 장례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4-6] 생전 가족과 죽음 및 장례 준비 필요성 인식(인천-전국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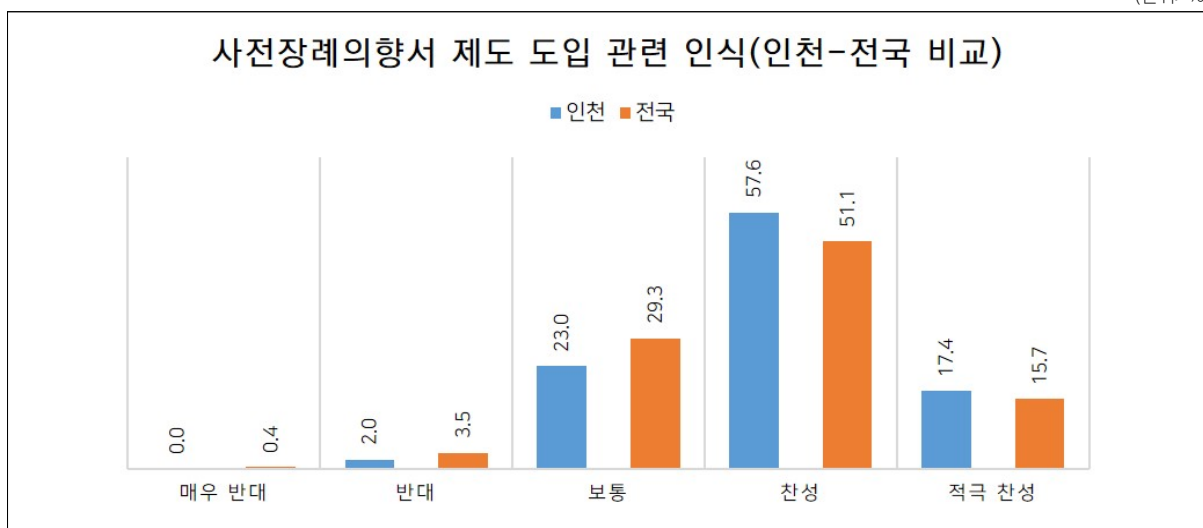
주: '보통' 응답을 제외한 응답

## ②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음
- 전국과 비교하면 찬성(찬성+적극 찬성)의 비율이 인천시는 75%로 전국(66.8%)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4-7]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관련 인식(인천-전국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설문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최종학력에서 나타남

-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관련 의견으로 여성이 평균 3.97점으로 남성 평균 3.84점보다 찬성도가 높게 나타남
-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인 경우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찬성도가 평균 3.95점으로 고졸 이하 평균 3.82점보다 높게 나타남

[표 4-9] 응답특성별 비교(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관련 인식)

(단위: %, 점)

전체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반대함 (1+2)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함 (4+5)	계	평균
합계	(800)	0.0	2.0	2.0	23.0	57.6	17.4	75.0	100.0	3.90
성별										
남	(400)	0.0	3.8	3.8	24.5	56.0	15.8	71.8	100.0	3.84
여	(400)	0.0	0.3	0.3	21.5	59.3	19.0	78.3	100.0	3.97
연령대										
19-29세	(127)	0.0	3.1	3.1	22.8	52.8	21.3	74.0	100.0	3.92
30대	(129)	0.0	0.8	0.8	24.0	57.4	17.8	75.2	100.0	3.92
40대	(151)	0.0	0.7	0.7	25.2	53.6	20.5	74.2	100.0	3.94
50대	(160)	0.0	2.5	2.5	19.4	63.8	14.4	78.1	100.0	3.90
60대 이상	(233)	0.0	2.6	2.6	23.6	58.8	15.0	73.8	100.0	3.86
자치구/군										
중구	(41)	0.0	4.9	4.9	19.5	53.7	22.0	75.6	100.0	3.93
동구	(17)	0.0	17.6	17.6	11.8	47.1	23.5	70.6	100.0	3.76
미추홀구	(110)	0.0	0.9	0.9	27.3	50.0	21.8	71.8	100.0	3.93
연수구	(100)	0.0	2.0	2.0	23.0	65.0	10.0	75.0	100.0	3.83
남동구	(134)	0.0	0.0	0.0	21.6	59.7	18.7	78.4	100.0	3.97
부평구	(135)	0.0	3.0	3.0	21.5	60.7	14.8	75.6	100.0	3.87
계양구	(79)	0.0	1.3	1.3	20.3	59.5	19.0	78.5	100.0	3.96
서구	(151)	0.0	1.3	1.3	25.8	56.3	16.6	72.8	100.0	3.88
강화군	(21)	0.0	4.8	4.8	14.3	47.6	33.3	81.0	100.0	4.10
옹진군	(12)	0.0	0.0	0.0	41.7	58.3	0.0	58.3	100.0	3.58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0.0	2.2	2.2	27.7	56.2	13.9	70.0	100.0	3.82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0.0	1.9	1.9	20.6	58.3	91.1	77.5	100.0	3.95
종교										
불교	(69)	0.0	2.9	2.9	23.2	52.2	21.7	73.9	100.0	3.93
개신교(기독교)	(193)	0.0	1.0	1.0	22.3	56.0	20.7	76.7	100.0	3.96
천주교	(102)	0.0	1.0	1.0	28.4	57.8	12.7	70.6	100.0	3.82
무교(종교 없음)	(433)	0.0	2.5	2.5	21.9	59.1	16.4	75.5	100.0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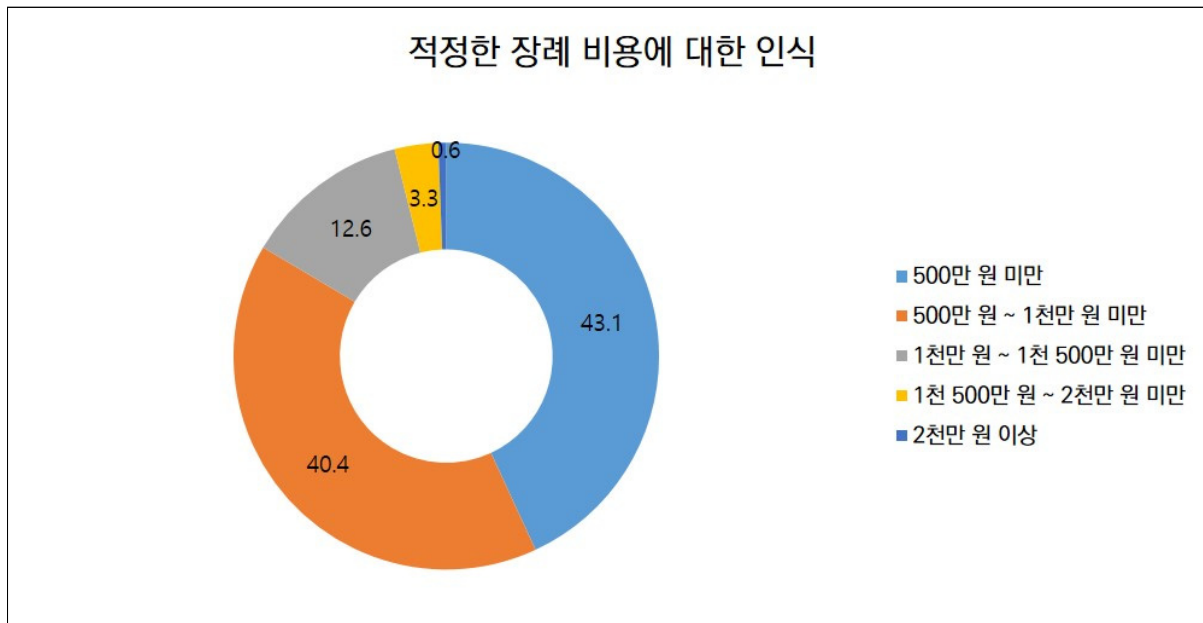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반대함 (1+2)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함 (4+5)	계	평균
기타	(3)	0.0	0.0	0.0	25.0	75.0	0.0	75.0	100.0	3.67
거주기간										
5년 미만	(51)	0.0	0.0	0.0	15.7	62.7	21.6	84.3	100.0	4.06
5년 이상 ~ 10년 미만	(80)	0.0	1.3	1.3	22.5	51.3	25.0	76.3	100.0	4.0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44)	0.0	0.7	0.7	20.8	58.3	20.1	78.5	100.0	3.98
20년 이상 ~ 30년 미만	(195)	0.0	3.1	3.1	22.6	60.0	14.4	74.4	100.0	3.86
30년 이상	(330)	0.0	2.4	2.4	25.5	56.7	15.5	72.1	100.0	3.85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0.0	1.7	1.7	22.3	56.6	19.4	76.0	100.0	3.94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0.0	1.6	1.6	24.8	56.9	16.7	73.6	100.0	3.89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0.0	4.0	4.0	20.6	57.8	17.6	75.4	100.0	3.89
700만원 이상	(180)	0.0	0.6	0.6	23.9	59.4	16.1	75.6	100.0	3.91

### ③ 적정 장례 비용에 대한 인식

- 적정한 장례 비용<sup>2)</sup>에 대해서 5개 금액대 중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한 결과, ‘5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8] 적정한 장례비용에 대한 인식

(단위: %)



### 2) 장례식장, 화장 및 봉안 관련 비용 등

○ 응답자 특성에 따른 표는 다음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나타남

- 남성은 적정 장례비용으로 '500만 원~1천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3%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500만 원 미만'의 응답 비율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1천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0] 응답특성별 비교(적정 장례 비용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전체	사례 수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 1천 500만 원 미만	1천 500만 원 ~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계
합계	(800)	43.1	40.4	12.6	3.3	0.6	100.0
성별							
남	(400)	36.5	47.3	11.8	3.5	1.0	100.0
여	(400)	49.8	33.5	13.5	3.0	0.3	100.0
연령대							
19-29세	(127)	37.0	43.3	15.0	4.7	0.0	100.0
30대	(129)	48.1	37.2	12.4	1.6	0.8	100.0
40대	(151)	50.3	39.7	7.9	0.7	1.3	100.0
50대	(160)	43.8	41.9	11.3	2.5	0.6	100.0
60대 이상	(233)	38.6	39.9	15.5	5.6	0.4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47.6	37.8	11.2	3.0	0.4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40.9	41.7	13.3	3.4	0.8	100.0
종교							
불교	(69)	40.6	46.4	11.6	1.4	0.0	100.0
개신교(기독교)	(193)	37.8	40.4	16.6	5.2	0.0	100.0
천주교	(102)	45.1	43.1	10.8	1.0	0.0	100.0
무교(종교 없음)	(433)	45.3	38.8	11.5	3.2	1.2	100.0
기타	(3)	75.0	25.0	0.0	0.0	0.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52.6	36.6	7.4	2.9	0.5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44.7	39.0	12.6	3.7	0.0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41.7	42.7	12.6	2.5	0.5	100.0
700만원 이상	(180)	33.3	43.3	17.8	3.9	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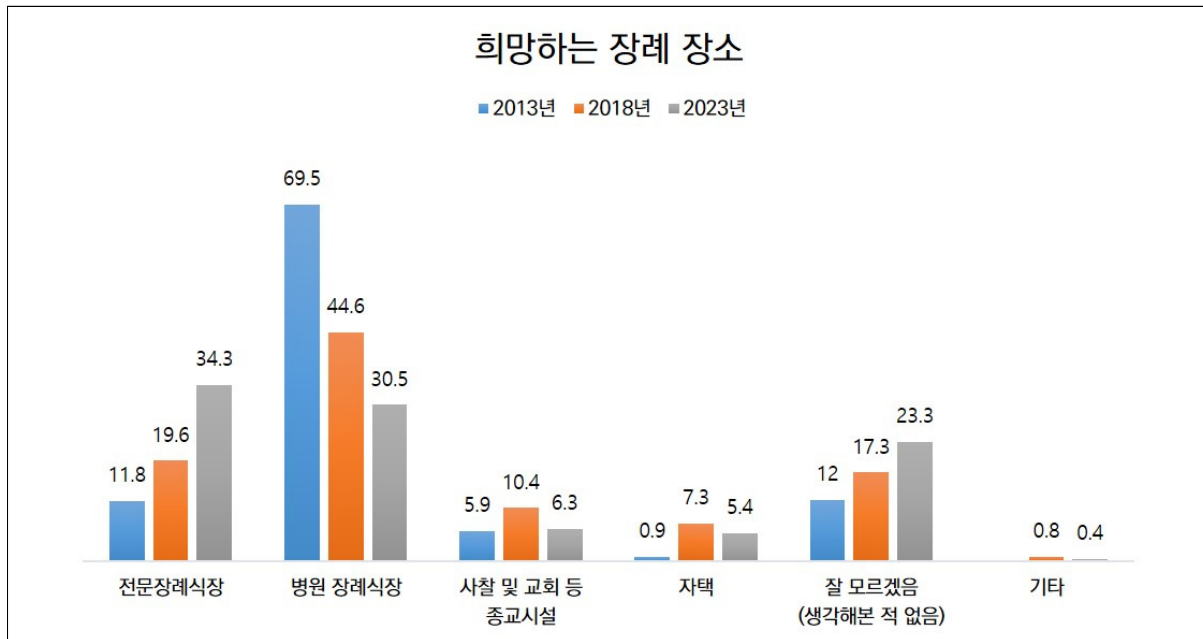
### 3) 희망 장사 방법

#### (1) 희망하는 장례 장소

- 2023년 희망하는 장례 장소는 ‘전문장례식장’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개년도(2013, 2018, 2023)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전문장례식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11.8%, 2018년 1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희망하는 장례 장소가 ‘병원 장례식장’인 경우는 2013년 69.5%에서 2018년 44.6%, 2023년 30.5%로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4-9] 희망하는 장례 장소(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응답분포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대, 종교에서 나타남
  - ‘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39.0%로, 여성(29.5%)보다 높게 나타남
  - 3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희망하는 장례 장소로 ‘병원장례식장’ 응답 비율이 각각 34.9%, 3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사찰 및 교회 등 종교시설’로 희망하는 장례 장소를 응답한 비율이 25.5%로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1] 응답특성별 비교(희망하는 장례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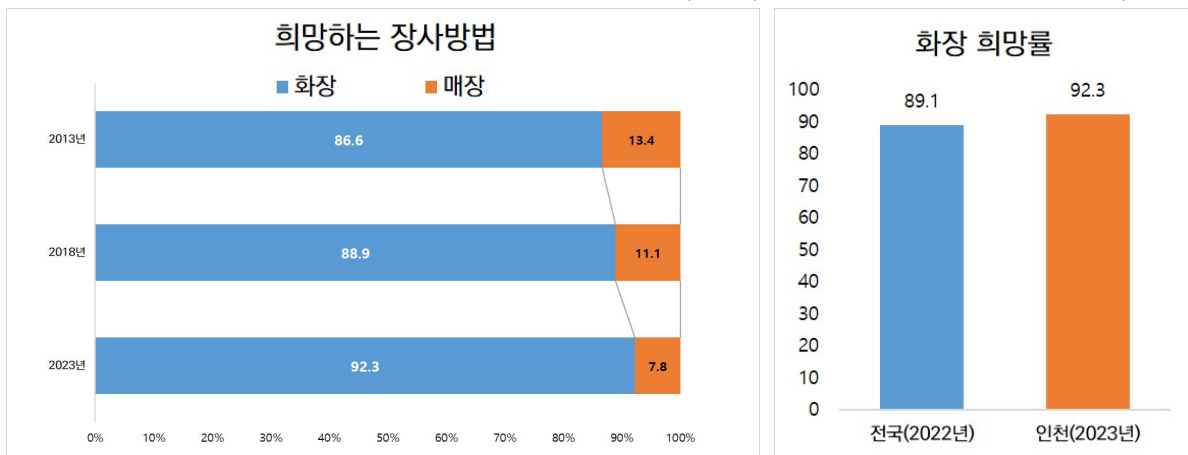
(단위: %, 점)

전체	사례 수	전문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	사찰 및 교회 등 종교시설	자택	기타	잘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	계
합계	(800)	34.3	30.5	6.3	5.4	0.4	23.3	100.0
성별								
남	(400)	39.0	30.5	6.8	5.0	0.3	18.5	100.0
여	(400)	29.5	30.5	5.8	5.8	0.5	28.0	100.0
연령대								
19-29세	(127)	33.1	23.6	2.4	3.1	0.8	37.0	100.0
30대	(129)	35.7	34.9	3.1	4.7	0.8	20.9	100.0
40대	(151)	38.4	25.8	3.3	2.6	0.0	29.8	100.0
50대	(160)	36.3	27.5	8.8	9.4	0.6	17.5	100.0
60대 이상	(233)	30.0	36.9	10.3	6.0	0.0	16.7	100.0
자치구/군								
중구	(41)	41.5	29.3	4.9	2.4	2.4	19.5	100.0
동구	(17)	35.3	29.4	0.0	5.9	0.0	29.4	100.0
미추홀구	(110)	33.6	26.4	4.5	4.5	0.0	30.9	100.0
연수구	(100)	38.0	28.0	9.0	3.0	1.0	21.0	100.0
남동구	(134)	33.6	22.4	11.9	7.5	0.7	23.9	100.0
부평구	(135)	34.8	34.1	3.7	4.4	0.0	23.0	100.0
계양구	(79)	32.9	36.7	2.5	7.6	0.0	20.3	100.0
서구	(151)	31.1	33.8	6.6	5.3	0.0	23.2	100.0
강화군	(21)	33.3	47.6	0.0	9.5	0.0	9.5	100.0
옹진군	(12)	33.3	33.3	8.3	8.3	0.0	16.7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34.1	25.1	7.1	6.7	0.4	26.6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34.3	33.2	5.8	4.7	0.4	21.6	100.0
종교								
불교	(69)	30.4	33.3	10.1	2.9	1.4	21.7	100.0
개신교(기독교)	(193)	36.8	31.1	8.3	5.2	0.5	18.1	100.0
천주교	(102)	23.5	29.4	25.5	6.9	0.0	14.7	100.0
무교(종교 없음)	(433)	36.3	29.8	0.2	5.5	0.2	27.9	100.0
기타	(3)	25.0	75.0	0.0	0.0	0.0	0.0	100.0
거주기간								
5년 미만	(51)	29.4	31.4	0.0	9.8	2.0	27.5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80)	28.8	37.5	6.3	2.5	0.0	25.0	100.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44)	35.4	26.4	2.8	7.6	0.7	27.1	100.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95)	37.4	27.7	5.1	3.6	0.5	25.6	100.0
30년 이상	(330)	33.9	32.1	9.4	5.5	0.0	19.1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28.0	34.9	7.4	6.9	0.6	22.3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35.0	31.7	4.5	4.9	0.0	24.0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39.7	23.1	7.0	4.0	0.5	25.6	100.0
700만원 이상	(180)	33.3	32.8	6.7	6.1	0.6	20.6	100.0

## (2) 희망하는 장례 방법

- 희망하는 장사방법과 관련하여 화장 희망률은 92.3%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장은 7.8%로 나타남
- 화장희망률이 2013년에는 86.6%, 2018년에는 88.9%였고 매장이 2013년에는 13.4%, 2018년에는 11.1%로 나타나 화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매장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23년 전국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천지역 시민은 화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전국수준(89.1%)에 비해 높고 매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전국수준(10.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희망하는 장사 방법(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그림 4-11] 화장 희망률(전국-인천)  
(단위: %)



주: 2018년 설문결과에서 '잘 모르겠음' 항목은 제외하고 분석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12] 응답특성별 비교(희망하는 장사 방법)

(단위: %)

전체	사례 수	매장	화장	계
합계	(800)	7.8	92.3	100.0
성별				
남	(400)	8.8	91.3	100.0
여	(400)	6.8	93.3	100.0
연령대				
19-29세	(127)	10.2	89.9	100.0
30대	(129)	10.9	89.1	100.0
40대	(151)	7.3	92.7	100.0
50대	(160)	6.9	93.1	100.0
60대 이상	(233)	5.6	94.4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8.6	91.4	100.0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533)	7.3	92.7	100.0

전체	사례 수	매장	화장	계
종교				
불교	(69)	5.8	94.2	100.0
개신교(기독교)	(193)	8.8	91.2	100.0
천주교	(102)	6.9	93.1	100.0
무교(종교 없음)	(433)	7.9	92.1	100.0
기타	(3)	0.0	10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9.1	90.9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6.5	93.5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6.0	94.0	100.0
700만원 이상	(180)	10.0	9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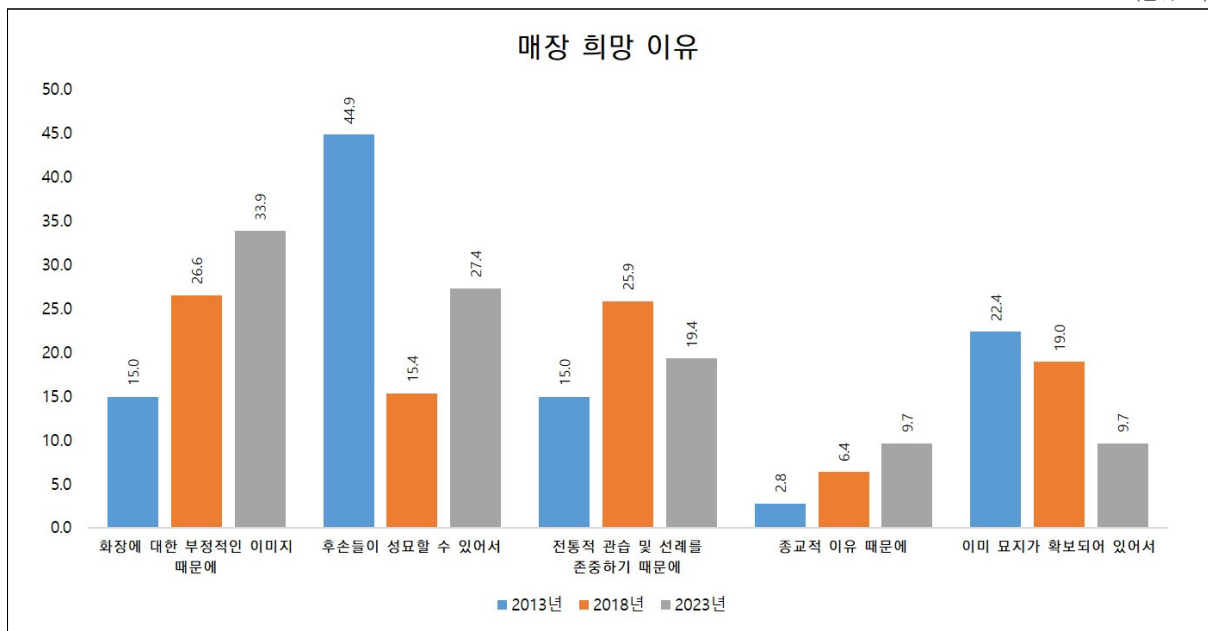
### (3) 매장

#### ① 매장 희망하는 이유

- 매장을 희망하는 이유를 3개년도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라는 응답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라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미 묘지가 확보되어 있어서’라는 응답은 감소하는 추세임
- ‘후손들이 성묘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2] 매장 희망 이유(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단위: %)



주: 희망 장례 방법으로 '매장'을 선택한 사람만 대상으로 설문함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최종학력에서 나타남
-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의 경우,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매장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의 경우 ‘후손들이 성묘할 수 있어서’ 매장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3] 응답특성별 비교(매장 희망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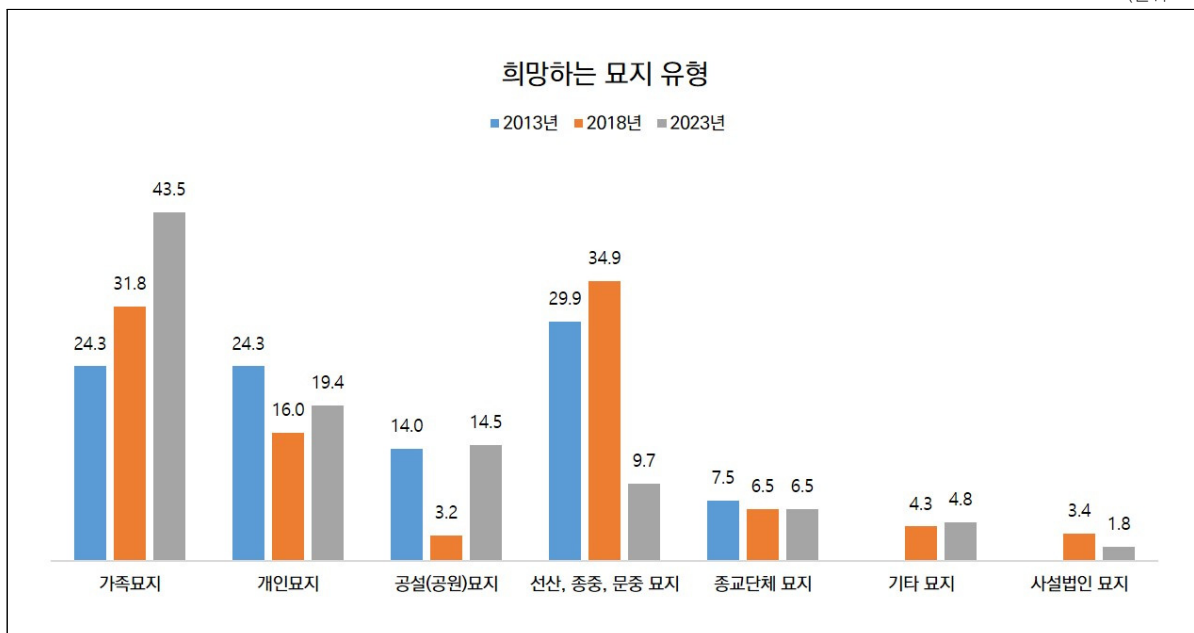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후손들이 성묘할 수 있어서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미 묘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계
합계	(62)	33.9	27.4	19.4	9.7	9.7	100.0
성별							
남	(35)	28.6	25.7	22.9	8.6	14.3	100.0
여	(27)	40.7	29.6	14.8	11.1	3.7	100.0
연령대							
19-29세	(13)	23.1	30.8	23.1	7.7	15.4	100.0
30대	(14)	35.7	35.7	7.1	14.3	7.1	100.0
40대	(11)	36.4	45.5	9.1	0.0	9.1	100.0
50대	(11)	36.4	9.1	36.4	9.1	9.1	100.0
60대 이상	(13)	38.5	15.4	23.1	15.4	7.7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	17.4	43.5	13.0	21.7	4.3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39)	43.6	17.9	23.1	2.6	12.8	100.0
종교							
불교	(4)	0.0	50.0	25.0	0.0	25.0	100.0
개신교(기독교)	(17)	35.3	35.3	17.6	11.8	0.0	100.0
천주교	(7)	28.6	14.3	14.3	42.9	0.0	100.0
무교(종교 없음)	(34)	38.2	23.5	20.6	2.9	14.7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18.8	25.0	31.3	25.0	0.0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6)	62.5	12.5	12.5	6.3	6.3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2)	16.7	41.7	16.7	8.3	16.7	100.0
700만원 이상	(18)	33.3	33.3	16.7	0.0	16.7	100.0

## ② 희망하는 묘지 유형

- 희망하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을 선택한 62명에게 희망하는 묘지 유형을 조사함. 본인이 희망하는 묘지 유형으로 ‘가족묘지’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묘지(19.4%), 공설(공원)묘지(14.5%), 선산, 종중, 문중 묘지(9.7%), 종교단체 묘지(6.5%), 기타 묘지(4.8%), 사설법인 묘지(1.8%) 순으로 나타남
- 3개년도 응답률을 비교하면 희망하는 장사 방법으로 가족묘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선산, 종중, 문중 묘지는 2013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추세를 보임
- 개인묘지와 공설묘지는 2013년 대비 2018년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그림 4-13] 희망하는 묘지 유형(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과 연령대에서 나타남
  - 희망하는 묘지 유형으로 ‘가족 묘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5.6%, 남성이 34.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 묘지’로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7.4%, 남성이 28.6%로 남성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대체로 희망하는 묘지 유형으로 ‘가족 묘지’가 많았으나, 30대에서는 ‘개인 묘지’가 5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4] 응답특성별 비교(희망하는 묘지 유형)

(단위: %)

전체	사례 수	가족 묘지	개인 묘지	공설 (공원) 묘지	선산, 종중, 문중 묘지	종교단체 묘지	기타 묘지	사설법인 묘지	계
합계	(62)	43.5	19.4	14.5	9.7	6.5	4.8	1.6	100.0
성별									
남	(35)	34.3	28.6	11.4	17.1	5.7	2.9	0.0	100.0
여	(27)	55.6	7.4	18.5	0.0	7.4	7.4	3.7	100.0
연령대									
19-29세	(13)	69.2	15.4	7.7	0.0	7.7	0.0	0.0	100.0
30대	(14)	28.6	50.0	7.1	7.1	0.0	7.1	0.0	100.0
40대	(11)	54.5	9.1	27.3	9.1	0.0	0.0	0.0	100.0
50대	(11)	36.4	18.2	9.1	18.2	9.1	0.0	9.1	100.0
60대 이상	(13)	30.8	0.0	23.1	15.4	15.4	15.4	0.0	100.0
자치구/군									
중구	(2)	0.0	50.0	0.0	50.0	0.0	0.0	0.0	100.0
동구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미추홀구	(8)	37.5	37.5	25.0	0.0	0.0	0.0	0.0	100.0
연수구	(6)	83.3	0.0	0.0	0.0	16.7	0.0	0.0	100.0
남동구	(9)	33.3	22.2	22.2	0.0	11.1	0.0	11.1	100.0
부평구	(7)	71.4	0.0	14.3	14.3	0.0	0.0	0.0	100.0
계양구	(5)	60.0	0.0	0.0	0.0	0.0	40.0	0.0	100.0
서구	(17)	29.4	29.4	11.8	17.6	11.8	0.0	0.0	100.0
강화군	(4)	50.0	25.0	0.0	0.0	0.0	25.0	0.0	100.0
옹진군	(3)	33.3	0.0	33.3	33.3	0.0	0.0	0.0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	34.8	30.4	8.7	8.7	13.0	4.3	0.0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39)	48.7	12.8	17.9	10.3	2.6	5.1	2.6	100.0
종교									
불교	(4)	75.0	25.0	0.0	0.0	0.0	0.0	0.0	100.0
개신교(기독교)	(17)	47.1	11.8	11.8	0.0	11.8	17.6	0.0	100.0
천주교	(7)	0.0	14.3	14.3	28.6	28.6	0.0	14.3	100.0
무교(종교 없음)	(34)	47.1	23.5	17.6	11.8	0.0	0.0	0.0	100.0
거주기간									
5년 미만	(7)	14.3	42.9	42.9	0.0	0.0	0.0	0.0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8)	37.5	37.5	0.0	12.5	12.5	0.0	0.0	100.0
10년 이상 ~ 20년 미만	(13)	38.5	7.7	23.1	7.7	15.4	7.7	0.0	100.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3)	61.5	7.7	7.7	23.1	0.0	0.0	0.0	100.0
30년 이상	(21)	47.6	19.0	9.5	4.8	4.8	9.5	4.8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6)	37.5	31.3	6.3	0.0	12.5	12.5	0.0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6)	43.8	12.5	12.5	18.8	0.0	6.3	6.3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2)	33.3	16.7	25.0	8.3	16.7	0.0	0.0	100.0
700만원 이상	(18)	55.6	16.7	16.7	11.1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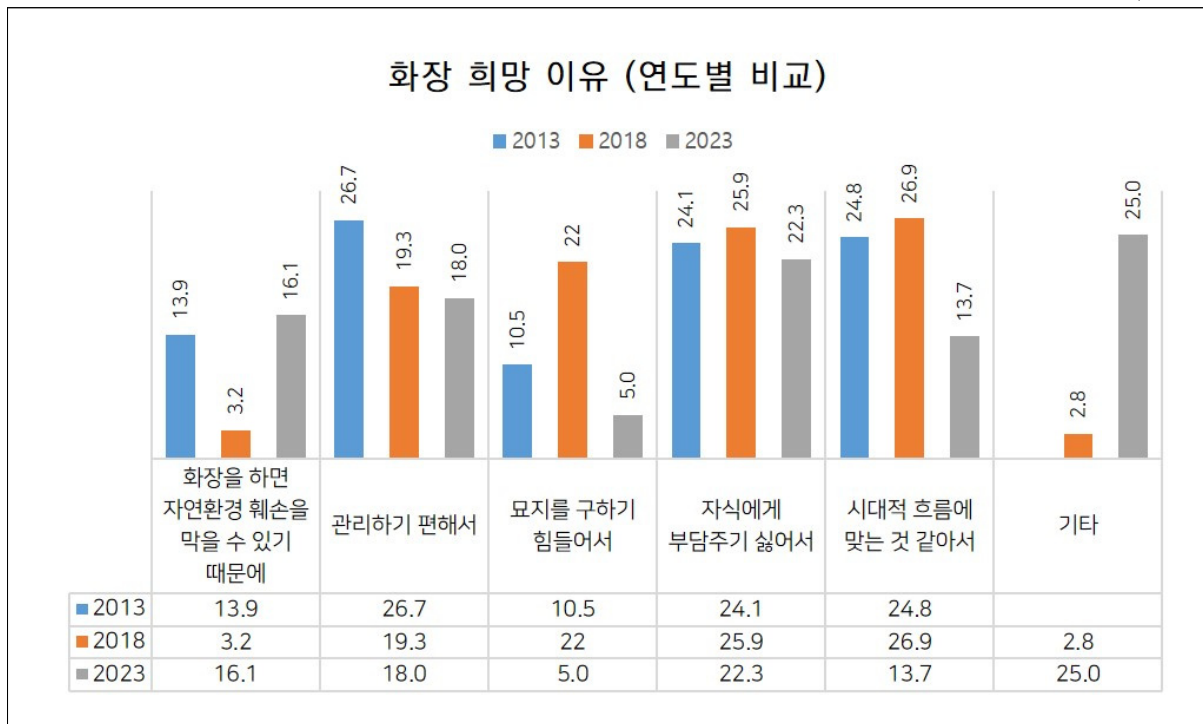
#### (4) 화장

##### ①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

- 화장 희망자 대상으로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함. 3개년도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2023년에는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가 22.3%로 가장 많았지만 2018년 25.9%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2018년에 비해 ‘관리하기 편해서’, ‘묘지를 구하기 힘들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감소하였고, ‘화장을 하면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은 증가함

[그림 4-14] 화장 희망 이유(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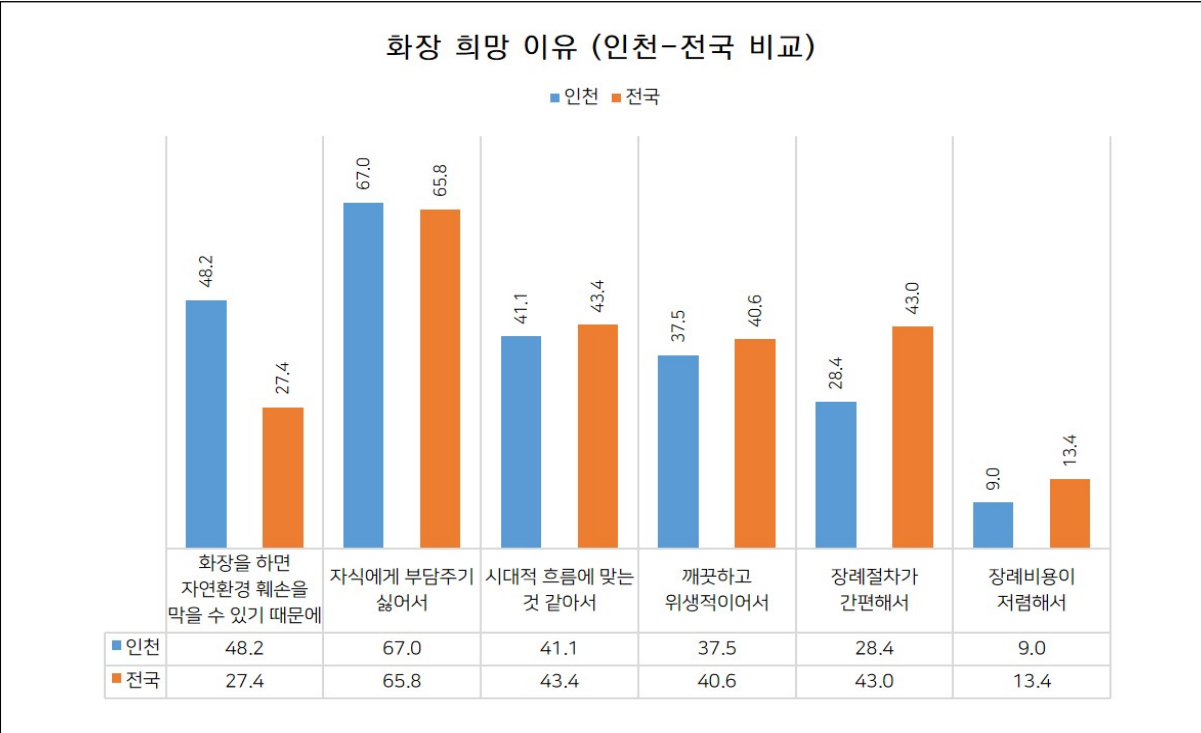
(단위: %)



- 전국 설문결과와 비교한 결과, 인천과 전국 모두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가 화장을 희망하는 이유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 같아서’, ‘깨끗하고 위생적이어서’, ‘장례절차가 간편해서’라는 응답이 인천과 전국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화장을 하면 자연환경 훼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은 인천이 48.2%로 전국 27.4%보다 높았고, ‘장례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인천이 9.0%로 전국 13.4%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4-15] 화장 희망 이유(인천-전국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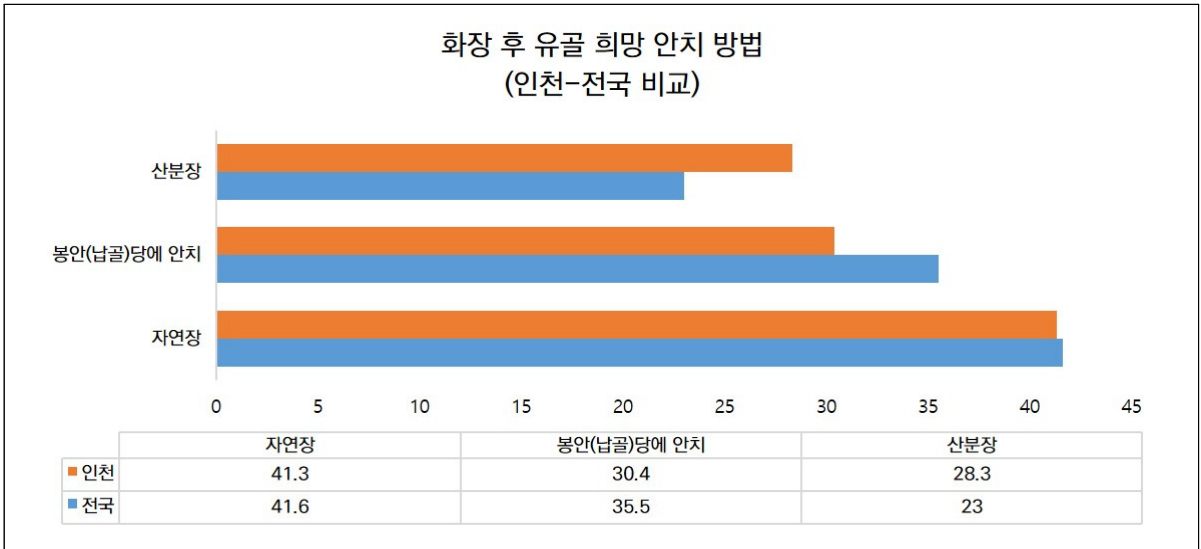


② 화장 후 유골 희망 안치 방법

- 화장 후 유골 희망 안치 방법으로는 ‘자연장’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봉안’ 30.4%, ‘산분장’ 28.3% 순으로 나타났음
- ‘자연장’ 선호는 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봉안’은 전국 대비 인천이 낮았고 ‘산분장’은 전국 대비 인천이 높게 나타남

[그림 4-16] 화장 후 유골 희망 안치 방법(인천-전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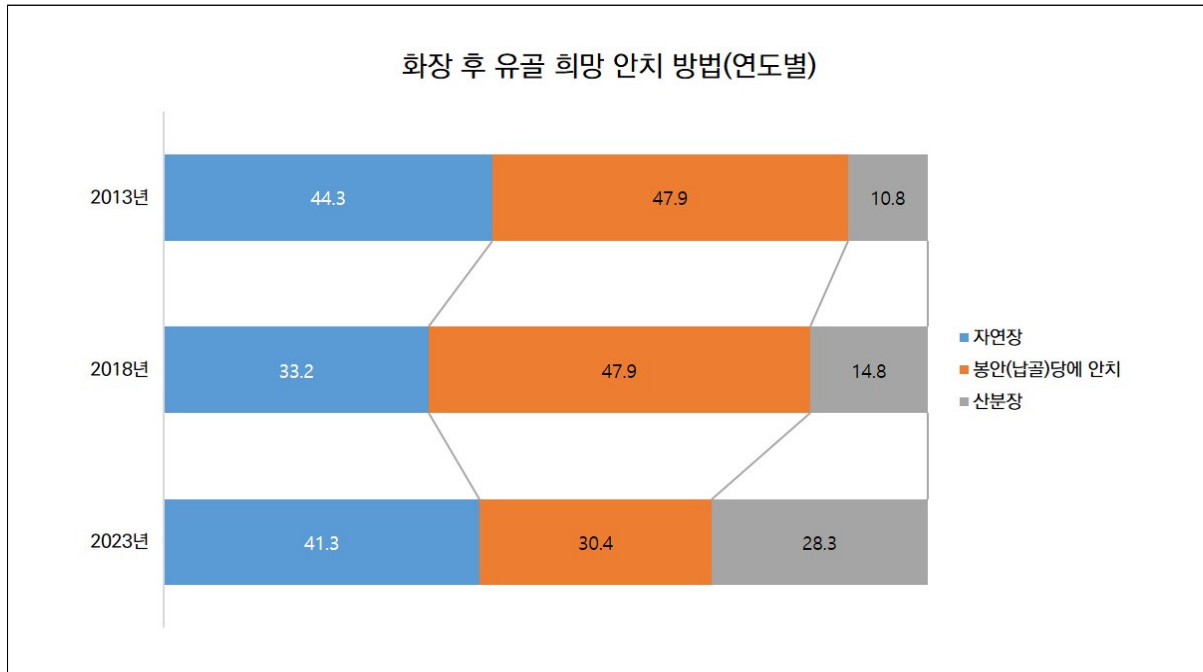
(단위: %)



- 3개년도 응답 결과를 비교한 결과, ‘자연장’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봉안당’은 2013년과 2018년은 같은 수준(47.9%)으로 유지되었으나 2023년에는 30.4%로 감소함. 산분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4-17] 화장 후 유골 희망 안치 방법(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종교, 월평균 가구소득 모두에서 나타남
  - 여성의 ‘자연장’ 희망 비율이 45.6%로 남성(35.9%)보다 높게 나타남
  - 19~29세, 30대에서 ‘산, 강, 바다에 뿌림(산분장)’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6%, 3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졸이하의 경우 ‘산, 강, 바다에 뿌림(산분장)’으로 응답한 비율이 33.6%로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의 25.3%보다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 강, 바다에 뿌림(산분장)’으로 응답한 비율이 3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5] 응답특성별 비교(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단위: %)

전체	사례 수	자연장	봉안(납골)당에 안치	산, 강, 바다에 뿌림 (산분장)	가정 내 안치	계
합계	(301)	40.8	30.1	28.0	1.1	100.0
성별						
남	(131)	35.9	32.3	30.1	1.6	100.0
여	(170)	45.6	27.9	26.0	0.5	100.0
연령대						
19-29세	(34)	28.8	36.8	31.6	1.8	100.0
30대	(37)	32.2	33.9	31.3	2.6	100.0
40대	(61)	43.6	29.3	26.4	0.7	100.0
50대	(63)	46.3	25.5	27.5	0.7	100.0
60대 이상	(100)	45.5	28.2	25.9	0.5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44)	36.5	28.7	33.6	1.2	100.0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494)	42.9	30.8	25.3	1.0	100.0
종교						
불교	(65)	38.5	26.2	33.8	1.5	100.0
개신교(기독교)	(176)	46.6	30.7	22.2	0.6	100.0
천주교	(95)	47.4	31.6	21.1	0.0	100.0
무교(종교 없음)	(339)	37.1	30.3	31.1	1.5	100.0
기타	(3)	25.0	0.0	75.0	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59)	35.2	27.0	36.5	1.3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30)	39.1	30.4	29.1	1.3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87)	41.2	28.3	29.9	0.5	100.0
700만원 이상	(162)	48.1	34.6	16.0	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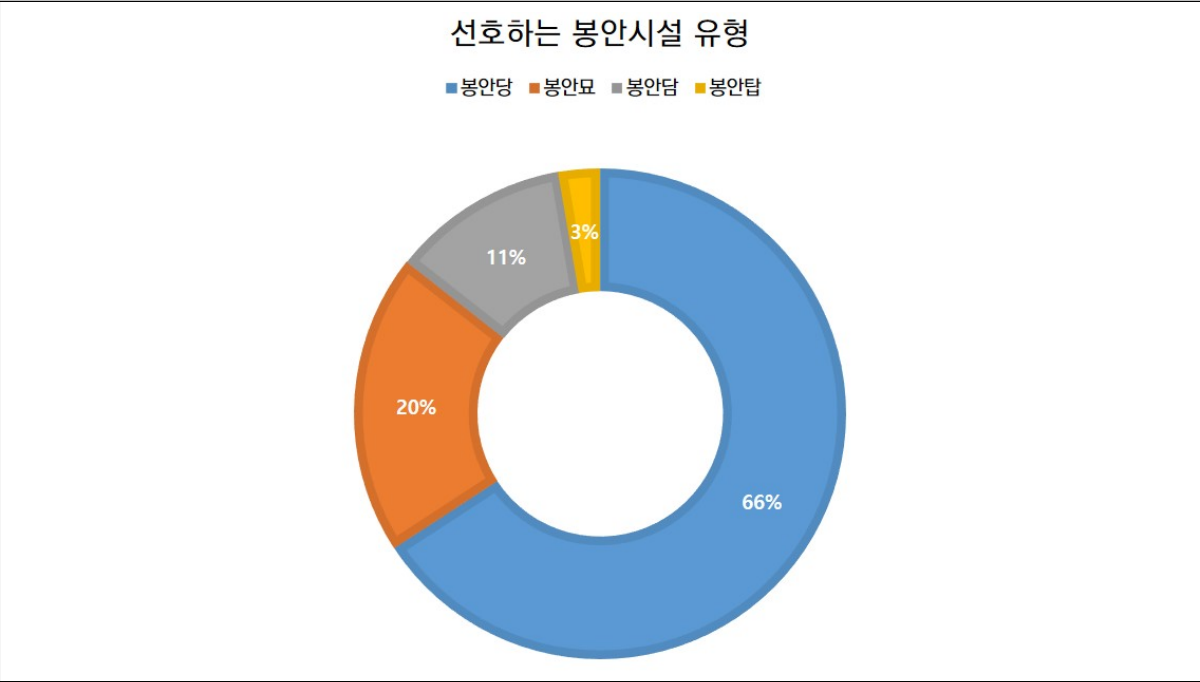
(5) 선호하는 봉안시설, 자연장, 산분장 유형

① 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

- 화장후 봉안시설을 선호하는 222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에 대해 설문한 결과, ‘봉안당’(65.8%)이 가장 많았으며, ‘봉안묘’(19.8%), ‘봉안담’(11.7%), ‘봉안탑’(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8] 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16] 응답특성별 비교(선호하는 봉안시설 유형)

(단위: %)

전체	사례 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계
합계	(222)	65.8	19.8	11.7	2.7	100.0
성별						
남	(118)	65.3	20.3	11.9	2.5	100.0
여	(104)	66.3	19.2	11.5	2.9	100.0
연령대						
19-29세	(42)	66.7	21.4	11.9	0.0	100.0
30대	(39)	69.2	7.7	15.4	7.7	100.0
40대	(41)	78.0	9.8	9.8	2.4	100.0
50대	(38)	60.5	26.3	10.5	2.6	100.0
60대 이상	(62)	58.1	29.0	11.3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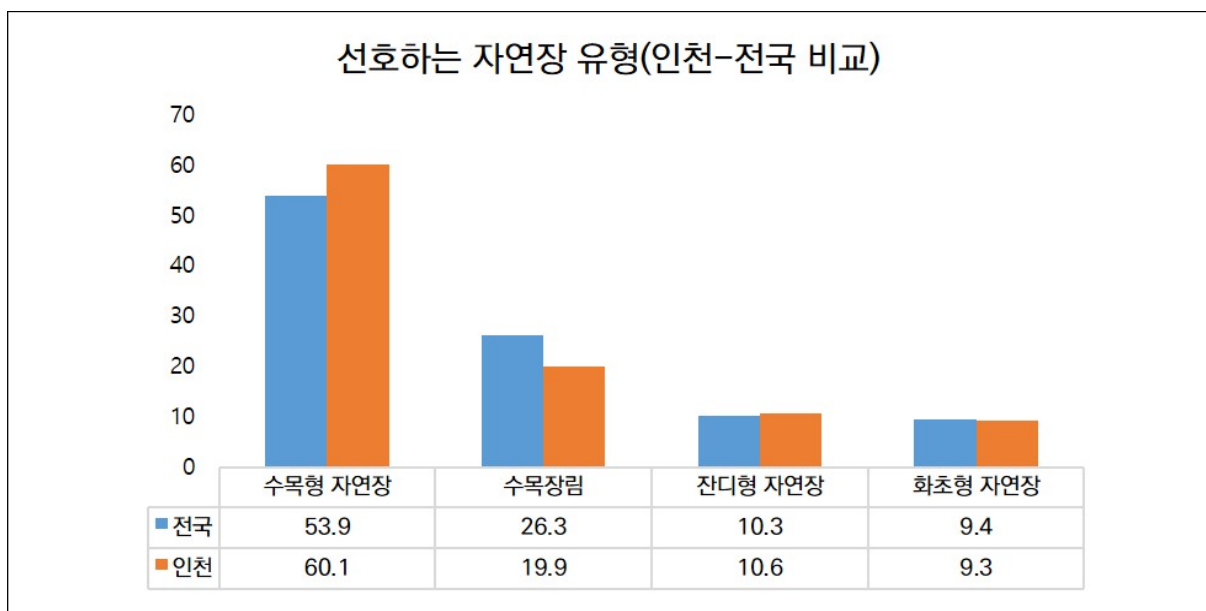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계
최종학력						
고졸 이하	(70)	67.1	18.6	11.4	2.9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152)	65.1	20.4	11.8	2.6	100.0
종교						
불교	(17)	64.7	29.4	5.9	0.0	100.0
개신교(기독교)	(54)	74.1	16.7	9.3	0.0	100.0
천주교	(30)	66.7	16.7	6.7	10.0	100.0
무교(종교 없음)	(121)	62.0	20.7	14.9	2.5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3)	60.5	23.3	16.3	0.0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0)	65.7	21.4	10.0	2.9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3)	69.8	17.0	11.3	1.9	100.0
700만원 이상	(56)	66.1	17.9	10.7	5.4	100.0

## ② 선호하는 자연장 유형

-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자연장 유형으로는 ‘수목형 자연장’(60.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수목장림’(19.9%), ‘잔디형’(10.6%), ‘화초형’(9.3%) 순으로 나타났음
- 전국의 선호도와 비교하면, 수목형 자연장 선호도가 인천시민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목장림은 인천시민 선호도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19] 선호하는 자연장 유형(인천-전국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에서 나타남
- 선호하는 자연장으로 ‘수목형 자연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은 64.1%, 남성은 55.0%로 여성이 높게 나타남

[표 4-17] 응답특성별 비교(선호하는 자연장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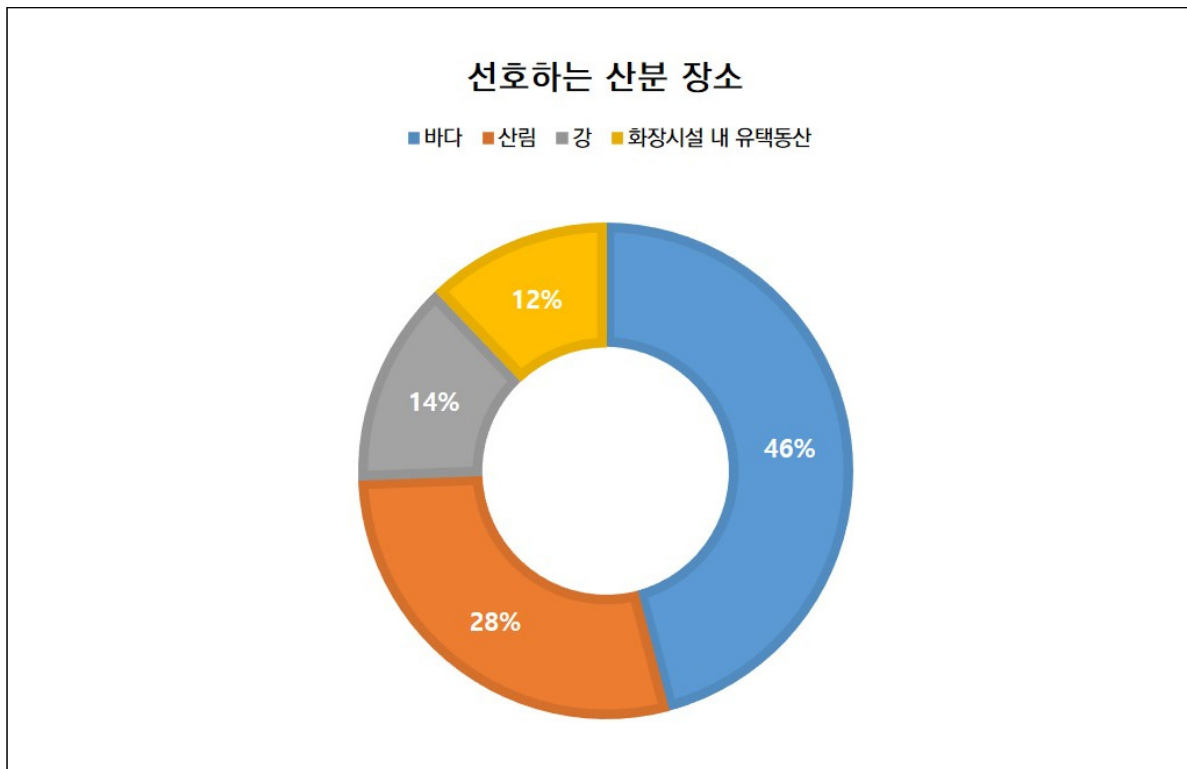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수목형 자연장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수목장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잔디형 자연장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계
합계	(301)	60.1	19.9	10.6	9.3	100.0
성별						
남	(131)	55.0	24.4	13.0	7.6	100.0
여	(170)	64.1	16.5	8.8	10.6	100.0
연령대						
19-29세	(34)	52.9	17.6	20.6	8.8	100.0
30대	(37)	64.9	16.2	8.1	10.8	100.0
40대	(61)	59.0	24.6	6.6	9.8	100.0
50대	(69)	62.3	17.4	10.1	10.1	100.0
60대 이상	(100)	60.0	21.0	11.0	8.0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89)	58.4	16.9	12.4	12.4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212)	60.8	21.2	9.9	8.0	100.0
종교						
불교	(25)	60.0	20.0	12.0	8.0	100.0
개신교(기독교)	(82)	52.4	26.8	8.5	12.2	100.0
천주교	(45)	68.9	20.0	6.7	4.4	100.0
무교(종교 없음)	(148)	61.5	16.2	12.8	3.5	100.0
기타(여호와의 증인)	(1)	100.0	0.0	0.0	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6)	57.1	21.4	12.5	8.9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0)	58.9	18.9	13.3	8.9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77)	62.3	19.5	5.2	13.0	100.0
700만원 이상	(78)	61.5	20.5	11.5	6.4	100.0

### ③ 선호하는 산분 장소

- 산분장을 희망 장사방법으로 선택한 207명 대상으로 선호하는 산분 장소에 대해 설문한 결과, ‘바다’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28.5%), ‘강’(13.5%),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12.2%)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0] 선호하는 산분 장소(산분장 선택자 대상)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에서 나타남
- 19~29세의 경우 선호하는 산분 장소로 ‘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8] 응답특성별 비교(산분장 선택자 대상 선호하는 산분 장소)

(단위: %)

전체	사례 수	바다	산림	강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	계
합계	(207)	45.9	28.5	13.5	12.1	100.0
성별						
남	(110)	41.8	27.3	19.1	11.8	100.0
여	(97)	50.5	29.9	7.2	12.4	100.0
연령대						
19~29세	(36)	66.7	8.3	13.9	11.1	100.0
30대	(36)	47.2	16.7	16.7	19.4	100.0
40대	(37)	35.1	37.8	10.8	16.2	100.0
50대	(41)	41.5	41.5	12.2	4.9	100.0
60대 이상	(57)	42.1	33.3	14.0	10.5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82)	53.7	19.5	14.6	12.2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125)	40.8	34.4	12.8	12.0	100.0
종교						
불교	(22)	40.9	36.4	13.6	9.1	100.0
개신교(기독교)	(39)	43.6	35.9	10.3	10.3	100.0
천주교	(20)	55.0	20.0	20.0	5.0	100.0
무교(종교 없음)	(124)	46.0	26.6	13.7	13.7	100.0
기타	(2)	50.0	0.0	0.0	5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8)	51.7	22.4	17.2	8.6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7)	44.8	29.9	11.9	13.4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56)	41.1	32.1	14.3	12.5	100.0
700만원 이상	(26)	46.2	30.8	7.7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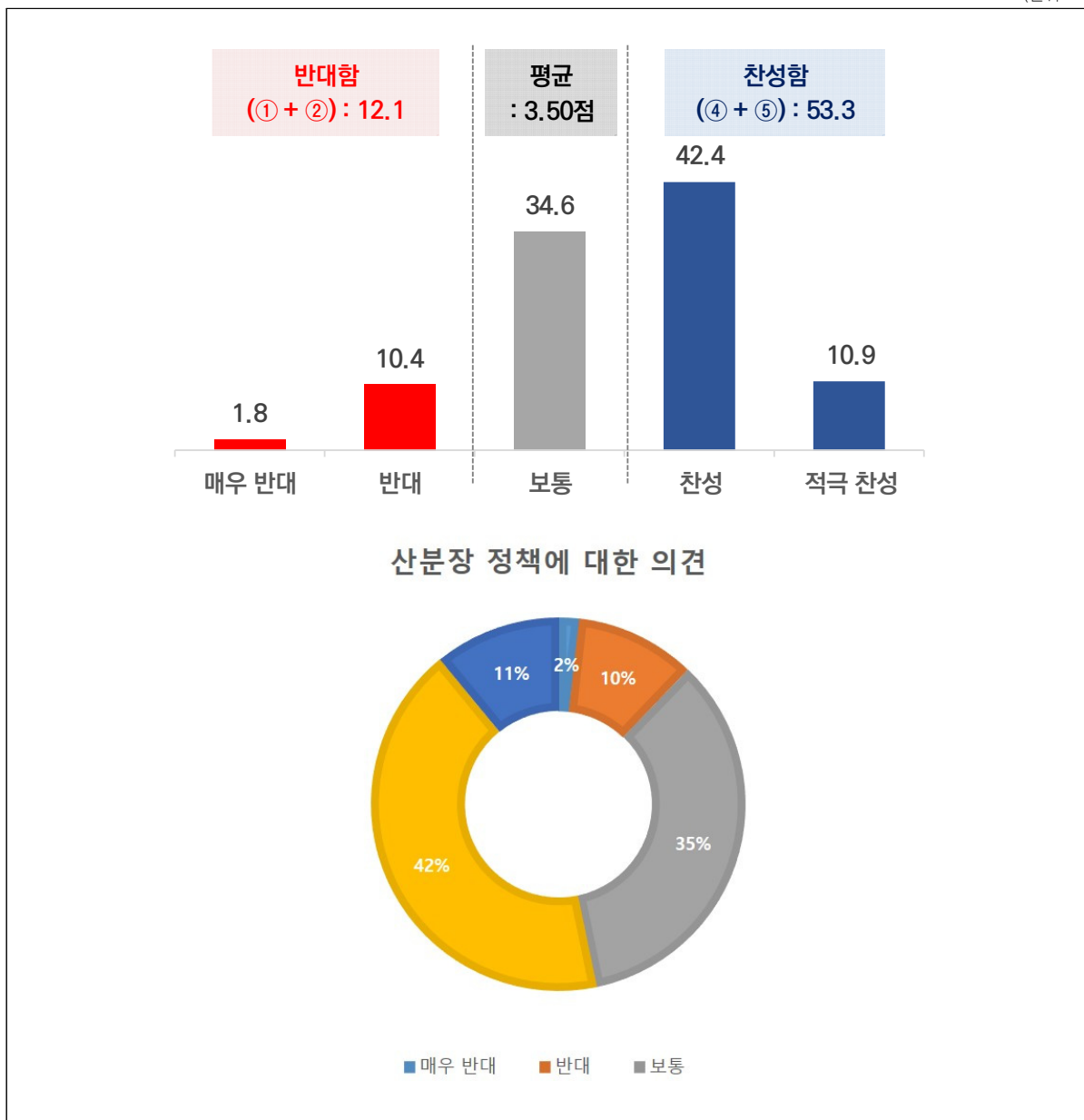
#### 4) 산분장 및 가정 내 안치 관련 의식

##### (1) 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

- 인천시민의 산분장 정책은 ‘찬성’이 42.4%, ‘적극 찬성’이 10.9%로 나타나 ‘반대’ 10.4%, ‘매우 반대’ 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 전국 자료를 살펴보면, 산분장 정책에 대해 찬성(찬성+적극 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8%, 반대(매우 반대+반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찬성’ 비율이 인천시민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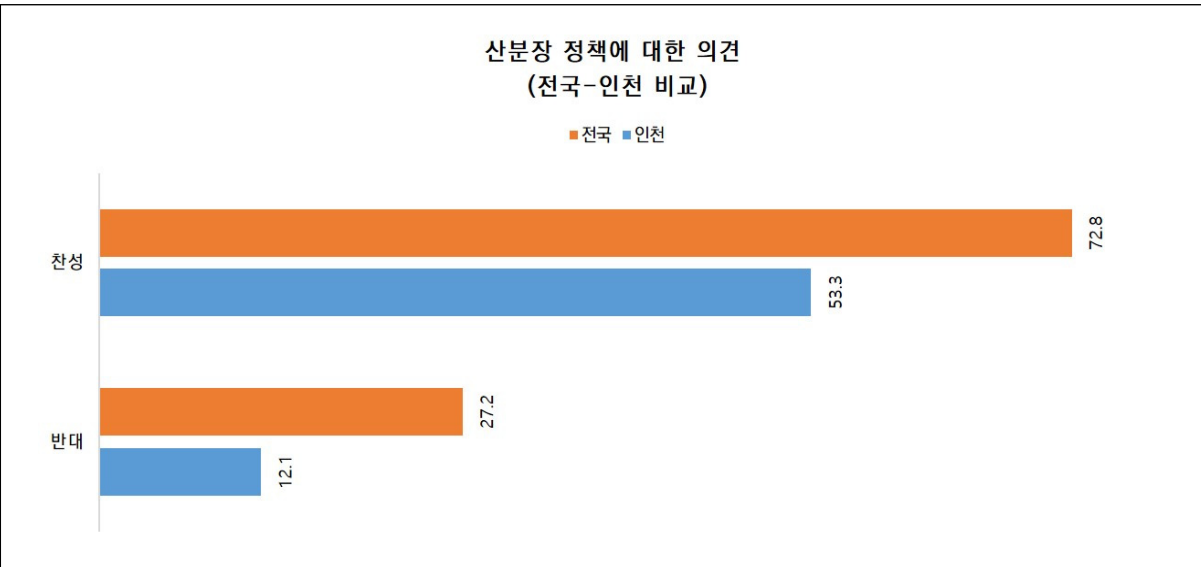
[그림 4-21] 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그림 4-22] 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전국-인천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에서 나타남
  - 산분장 정책에 대한 찬성도로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평균 3.63점, 3.59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9] 응답특성별 비교(산분장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전체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반대함 (1+2)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함 (4+5)	계	평균
합계	(800)	1.8	10.4	12.1	34.6	42.4	10.9	53.3	100.0	3.50
성별										
남	(400)	1.0	11.5	12.5	33.8	43.5	10.3	53.8	100.0	3.51
여	(400)	2.5	9.3	11.8	35.5	41.3	11.5	52.8	100.0	3.50
연령대										
19-29세	(127)	0.8	18.1	18.9	32.3	38.6	10.2	48.8	100.0	3.39
30대	(129)	3.9	10.9	14.7	37.2	39.5	8.5	48.1	100.0	3.38
40대	(151)	3.3	11.3	14.6	39.1	32.5	13.9	46.4	100.0	3.42
50대	(160)	0.6	6.9	7.5	31.9	50.0	10.6	60.6	100.0	3.63
60대 이상	(233)	0.9	7.7	8.6	33.5	47.2	10.7	57.9	100.0	3.59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1.5	9.0	10.5	36.0	43.4	10.1	53.6	100.0	3.52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1.9	11.1	12.9	34.0	41.8	11.3	53.1	100.0	3.50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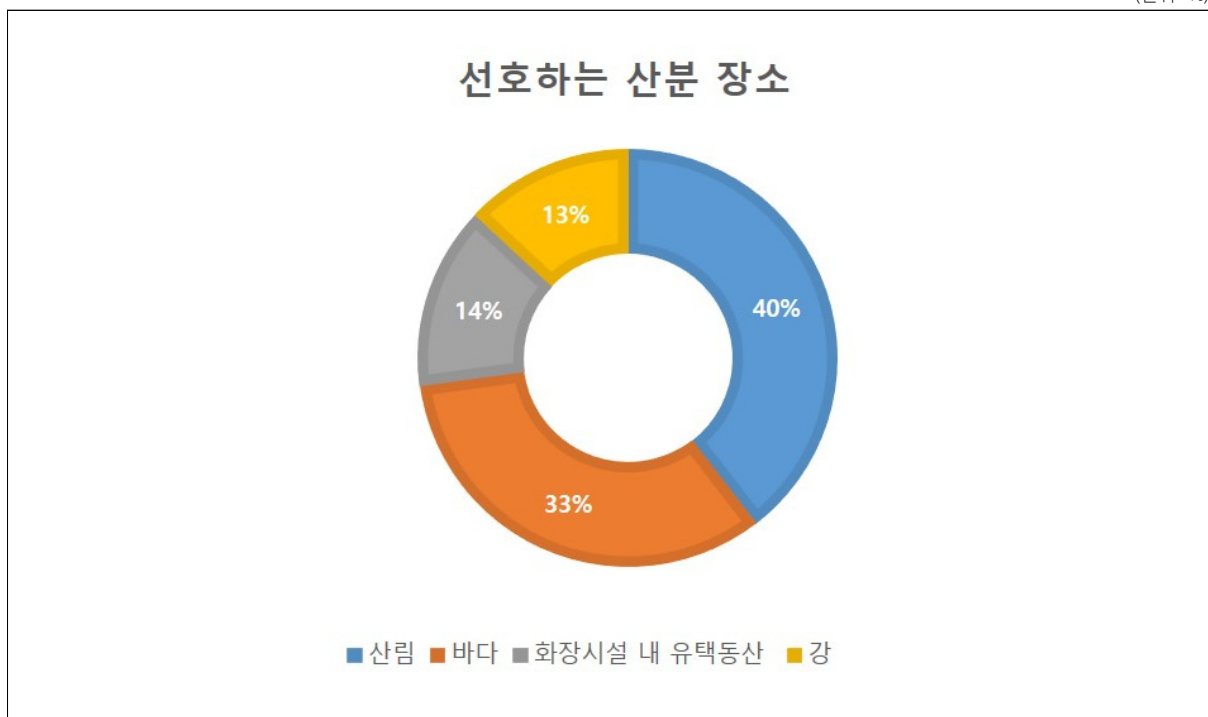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반대함 (1+2)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함 (4+5)	계	평균
불교	(69)	4.3	7.2	11.6	30.4	47.8	10.1	58.0	100.0	3.52
개신교(기독교)	(193)	1.0	9.3	10.4	40.9	37.3	11.4	48.7	100.0	3.49
천주교	(102)	2.9	10.8	13.7	31.4	45.1	9.8	54.9	100.0	3.48
무교(종교 없음)	(433)	1.4	11.3	12.7	33.0	43.2	11.1	54.3	100.0	3.51
기타	(3)	0.0	0.0	0.0	75.0	25.0	0.0	25.0	100.0	3.33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0.6	8.0	8.6	31.4	46.9	13.1	60.0	100.0	3.64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1.2	10.6	11.8	37.8	40.7	9.8	50.4	100.0	3.47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1.5	9.0	10.6	37.7	40.7	11.1	51.8	100.0	3.51
700만원 이상	(180)	3.9	13.9	17.8	30.0	42.2	10.0	52.2	100.0	3.41

## (2) 선호하는 산분 장소

- 산분장 정책에 찬성하는 42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산분 장소에 대해 설문한 결과, ‘산림’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바다’(33.1%),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14.1%), ‘강’(1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3] 선호하는 산분 장소(산분장 정책 찬성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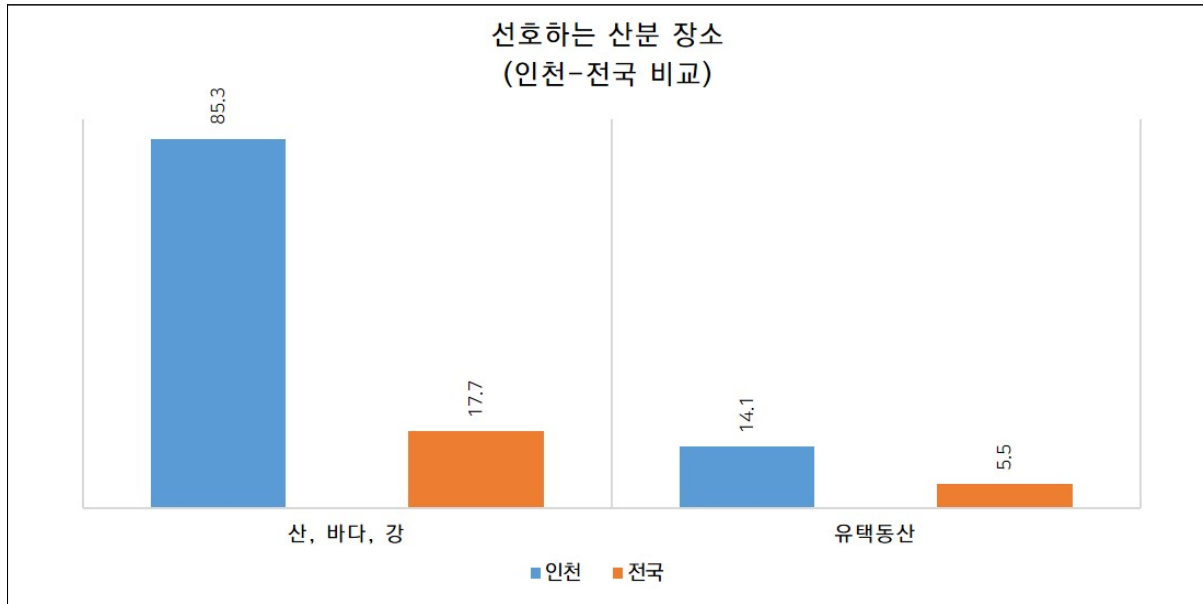
(단위: %)



- 선호하는 산분 장소를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천시민의 ‘산, 바다, 강’ 선호도가 전국 응답 비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24] 선호하는 산분 장소(인천-전국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표는 다음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와 최종학력에서 나타남
  - 선호하는 산분 장소로 ‘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29세가 48.4%, 30대가 43.5%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전문대졸 포함)인 경우 선호하는 산분 장소로 ‘산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고졸이하 3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0] 응답특성별 비교 표(산분장 정책 찬성자 대상 선호하는 산분 장소)

(단위: %)

전체	사례 수	산림	바다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치르는 장소)	강	계
합계	(426)	39.3	33.1	14.1	12.9	100.0
성별						
남	(215)	39.5	31.2	15.8	13.5	100.0
여	(211)	40.3	35.1	12.3	12.3	100.0
연령대						
19-29세	(62)	21.0	48.4	16.1	14.5	100.0
30대	(62)	32.3	43.5	12.9	11.3	100.0
40대	(70)	38.6	37.1	14.3	10.0	100.0
50대	(97)	51.5	21.6	14.4	12.4	100.0
60대 이상	(135)	44.4	27.4	13.3	1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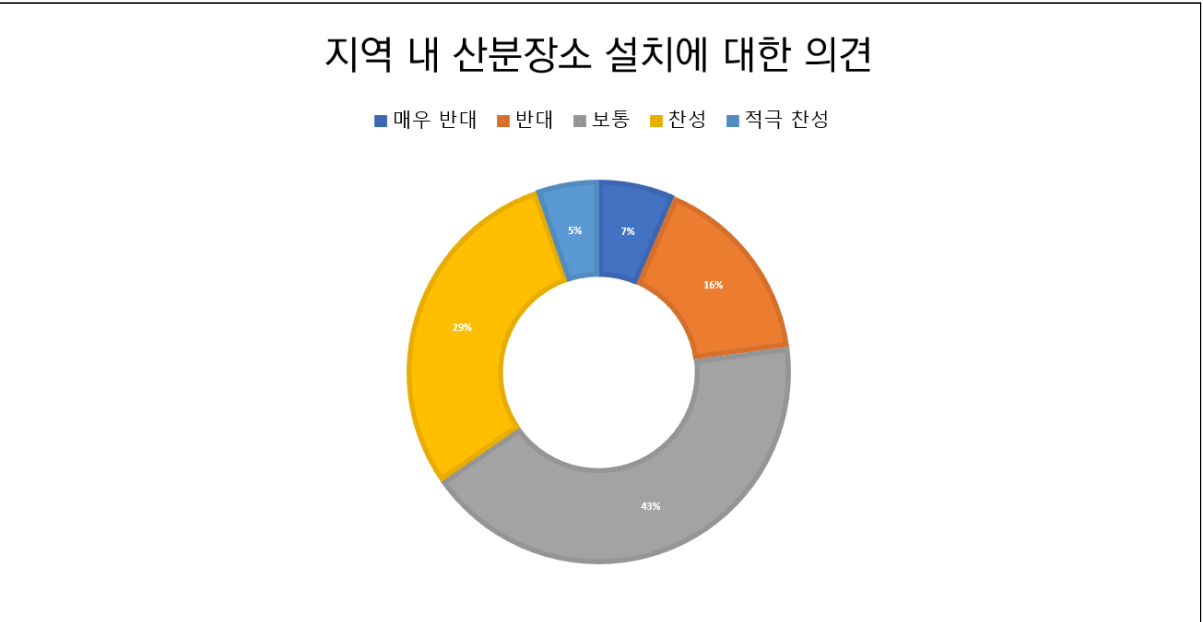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산림	바다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 (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치르는 장소)	강	계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3)	35.7	37.1	9.8	17.5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283)	42.0	31.1	16.3	10.6	100.0
종교						
불교	(40)	42.5	32.5	7.5	17.5	100.0
개신교(기독교)	(94)	41.5	25.5	21.3	11.7	100.0
천주교	(56)	39.3	33.9	14.3	12.5	100.0
무교(종교 없음)	(235)	39.1	35.7	12.3	12.8	100.0
기타(원불교)	(1)	0.0	100.0	0.0	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05)	35.2	40.0	7.6	16.2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24)	40.3	27.4	16.9	15.3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03)	37.9	35.9	16.5	9.7	100.0
700만원 이상	(94)	45.7	29.8	14.9	9.6	100.0

### (3) 지역 내 산분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

○ 지역 내 산분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찬성+적극 찬성)’이 34.6%로 ‘반대(반대+매우 반대)’ 2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5] 지역 내 산분장소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와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나타남

- 연령대가 40대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산분장 설치에 대한 찬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9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산분장 설치에 대한 찬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1] 응답특성별 비교(지역 내 산분장 설치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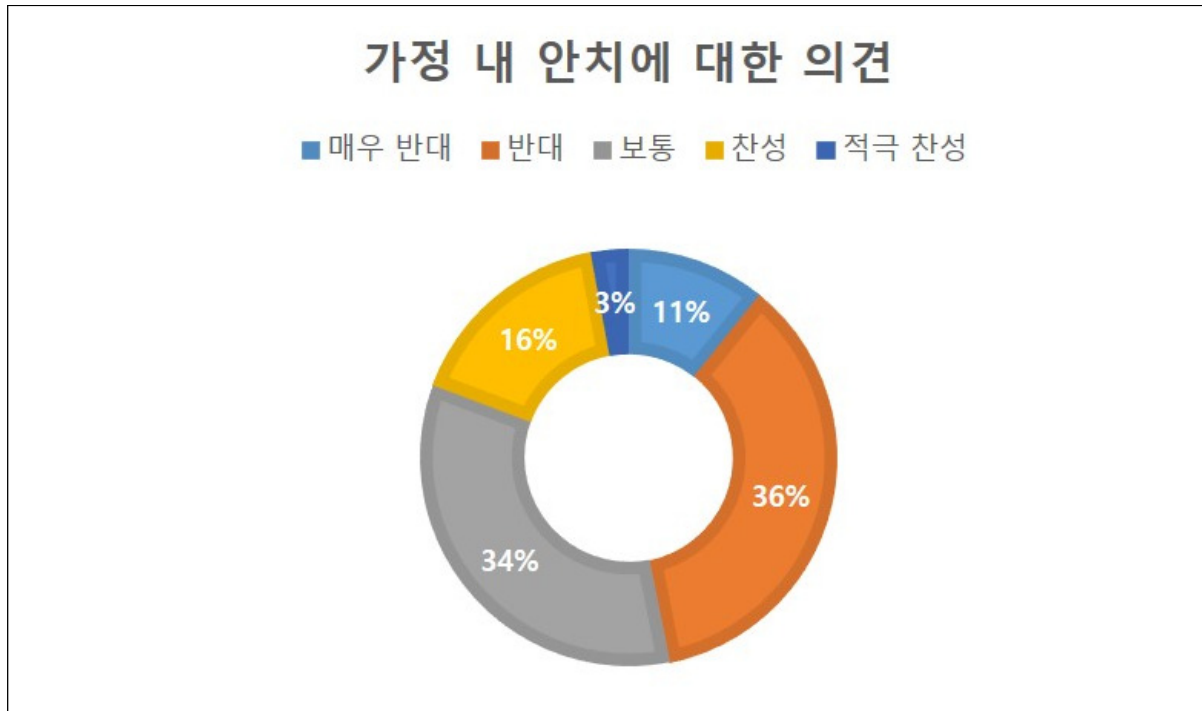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반대함 (1+2)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함 (4+5)	계	평균
합계	(800)	6.5	16.4	22.9	42.5	29.4	5.3	34.6	100.0	3.11
성별										
남	(400)	6.3	14.5	20.8	41.5	31.5	6.3	37.8	100.0	3.17
여	(400)	6.8	18.3	25.0	43.5	27.3	4.3	31.5	100.0	3.04
연령대										
19-29세	(127)	10.2	18.9	29.1	37.8	26.8	6.3	33.1	100.0	3.00
30대	(129)	7.8	14.0	21.7	42.6	32.6	3.1	35.7	100.0	3.09
40대	(151)	9.9	17.9	27.8	47.0	19.9	5.3	25.2	100.0	2.93
50대	(160)	3.1	17.5	20.6	41.3	33.1	5.0	38.1	100.0	3.19
60대 이상	(233)	3.9	14.6	18.5	42.9	32.6	6.0	38.6	100.0	3.2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4.1	14.2	18.4	46.1	30.0	5.6	35.6	100.0	3.19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7.7	17.4	25.1	40.7	29.1	5.1	34.1	100.0	3.06
종교										
불교	(69)	8.7	17.4	26.1	36.2	33.3	4.3	37.7	100.0	3.07
개신교(기독교)	(193)	6.2	16.6	22.8	44.0	24.9	8.3	33.2	100.0	3.12
천주교	(102)	4.9	16.7	21.6	45.1	28.4	4.9	33.3	100.0	3.12
무교(종교 없음)	(433)	6.7	16.2	22.9	42.3	30.7	4.2	34.9	100.0	3.09
기타	(3)	0.0	0.0	0.0	25.0	75.0	0.0	75.0	100.0	3.67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4.6	13.7	18.3	40.0	34.3	7.4	41.7	100.0	3.26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6.9	16.7	23.6	45.9	26.0	4.5	30.5	100.0	3.04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5.5	16.1	21.6	47.2	26.6	4.5	31.2	100.0	3.09
700만원 이상	(180)	8.9	18.9	27.8	35.0	32.2	5.0	37.2	100.0	3.06

#### (4) 가정 내 안치에 대한 의견

- 가정 내 안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찬성(찬성+적극 찬성)’이 19.3%로 ‘반대(반대+매우 반대)’ 46.9%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4-26] 가정 내 안치에 대한 의견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성별, 연령대, 종교에서 나타남
  - 가정 내 유골 안치에 대한 찬성 의견은 5점 만점에 남성 평균 2.73점, 여성 평균 2.57점으로 남성의 찬성도가 높게 나타남
  - 19~29세의 찬성도는 평균 3.07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의 찬성도는 평균 2.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 종교별로는 무교인 사람의 찬성도가 평균 2.76점으로 가장 높고, 천주교인 사람은 평균 2.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22] 응답특성별 비교(가정 내 유골 안치에 대한 의견)

(단위: %, 점)

전체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반대함 (1+2)	보통	찬성	적극 찬성	찬성함 (4+5)	계	평균
합계	(800)	10.8	36.1	46.9	33.9	16.4	2.9	19.3	100.0	2.65
성별										
남	(400)	9.0	33.8	42.8	37.0	16.3	4.0	20.3	100.0	2.73
여	(400)	12.5	38.5	51.0	30.8	16.5	1.8	18.3	100.0	2.57
연령대										
19-29세	(127)	5.5	19.7	25.2	40.9	29.9	3.9	33.9	100.0	3.07
30대	(129)	6.2	22.5	28.7	45.0	24.0	2.3	26.4	100.0	2.94
40대	(151)	9.9	40.4	50.3	33.1	11.3	5.3	16.6	100.0	2.62
50대	(160)	10.0	44.4	54.4	27.5	15.0	3.1	18.1	100.0	2.57
60대 이상	(233)	17.2	44.2	61.4	28.8	9.0	0.9	9.9	100.0	2.32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12.0	33.3	45.3	32.2	20.6	1.3	22.5	100.0	2.67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10.1	37.5	47.7	34.7	14.3	3.4	17.6	100.0	2.63
종교										
불교	(69)	13.0	49.6	53.6	30.4	14.5	1.4	15.9	100.0	2.51
개신교(기독교)	(193)	15.0	35.8	50.8	29.0	17.1	3.1	20.2	100.0	2.58
천주교	(102)	12.7	47.1	59.8	29.4	7.8	2.9	10.8	100.0	2.41
무교(종교 없음)	(433)	7.9	33.0	40.9	37.6	18.5	3.0	21.5	100.0	2.76
기타	(3)	33.3	33.3	66.6	33.3	0.0	0.0	0.0	100.0	2.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6.9	35.4	42.3	38.3	16.6	2.9	19.4	100.0	2.7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10.2	35.8	45.9	35.0	15.9	3.3	19.1	100.0	2.66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11.6	39.2	50.8	31.2	15.1	3.0	18.1	100.0	2.59
700만원 이상	(180)	14.4	33.9	48.3	31.1	18.3	2.2	20.6	100.0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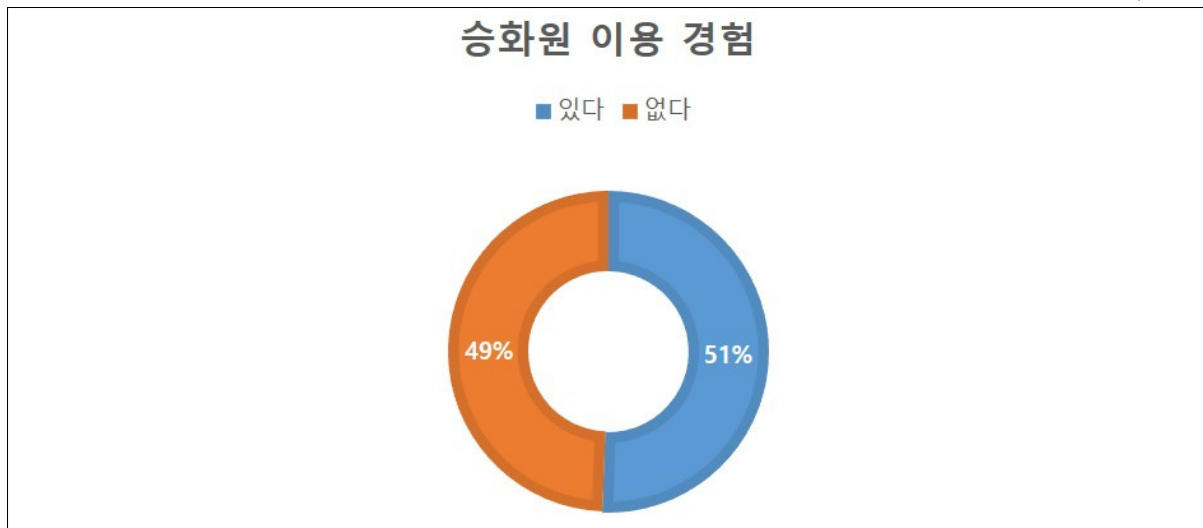
## 5) 인천가족공원 관련 인식

### (1) 승화원 이용 경험

○ 승화원 이용 경험은 ‘있다’ 49.4%, ‘없다’ 50.6%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27] 승화원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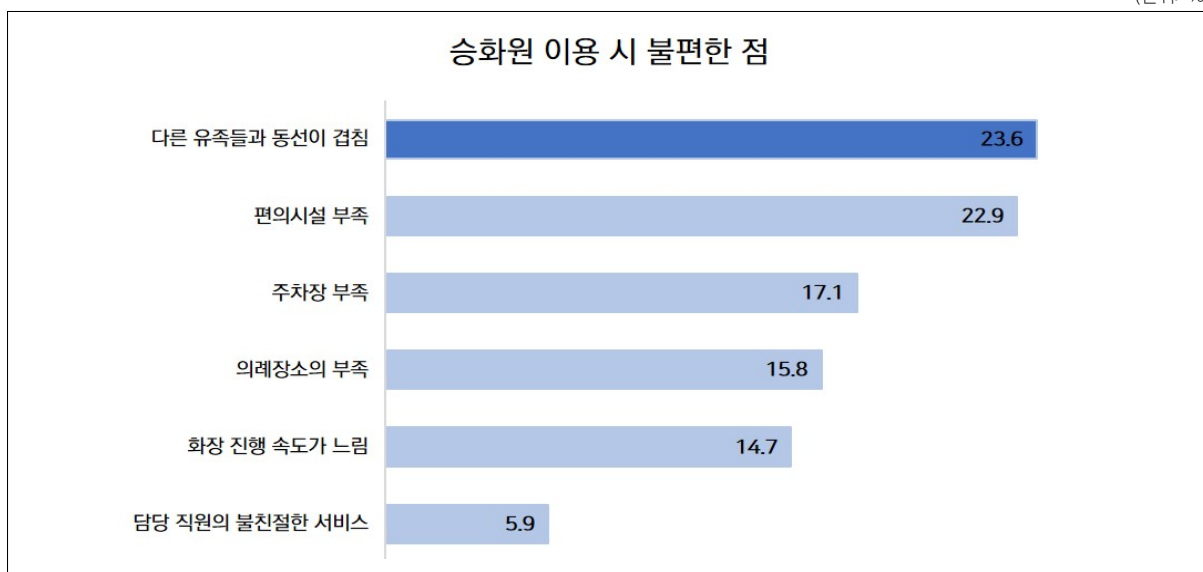
(단위: %)



○ 승화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던 405명을 대상으로 승화원 이용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여 설문함. ‘특별히 불편한 점 없었음’을 제외하고 다중응답 분석 결과, ‘다른 유족들과 동선이 겹침’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시설 부족’(22.9%), ‘주차장 부족’(17.1%), ‘의례장소의 부족’(15.8%), ‘화장 진행 속도가 느림’(14.7%), ‘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서비스’(5.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8] 승화원 이용 시 불편한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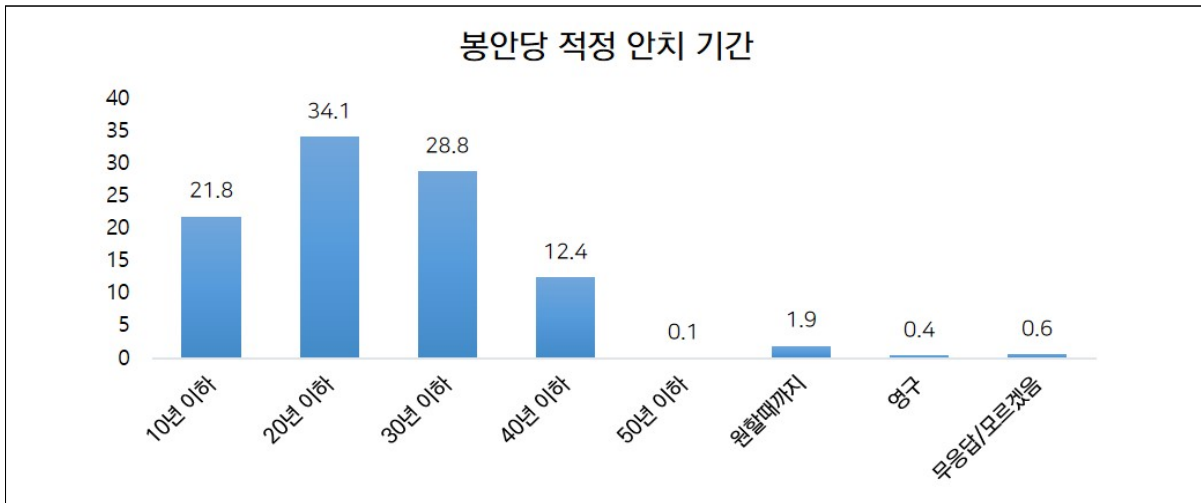


## (2) 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

- 봉안당 안치 적정 기간은 ‘20년 이하’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30년 이하’ (28.8%), ‘10년 이하’ (21.8%), ‘40년 이하’ (12.4%), ‘원할 때까지’ (1.9%), ‘50년 이하’ (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9] 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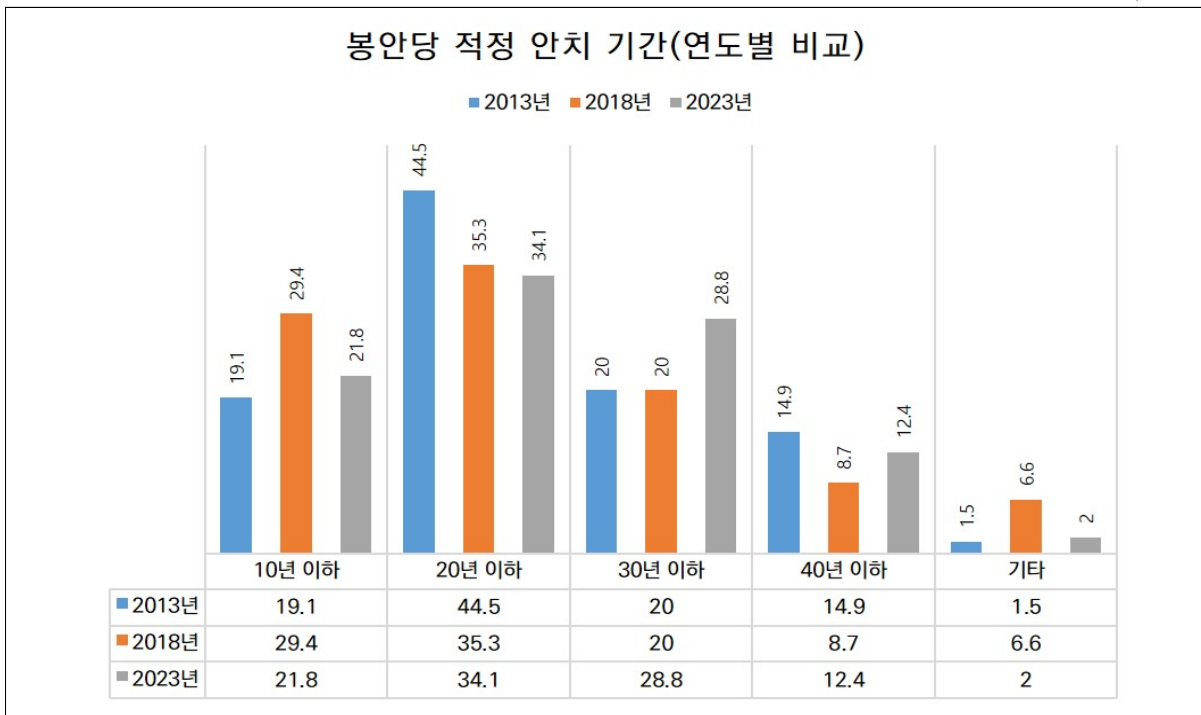
(단위: %)



- 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 응답 결과를 3개년도 비교한 결과, ‘20년 이하’는 2013년에 비해 감소하여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30년 이하’는 201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0] 봉안당 적정 안치 기간(연도별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표는 다음과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나타남

- 불안당의 적정한 안치 기간에 대한 응답으로 최종학력 고졸이하에서는 ‘10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인 경우 ‘30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30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3] 응답특성별 비교(불안당 적정 안치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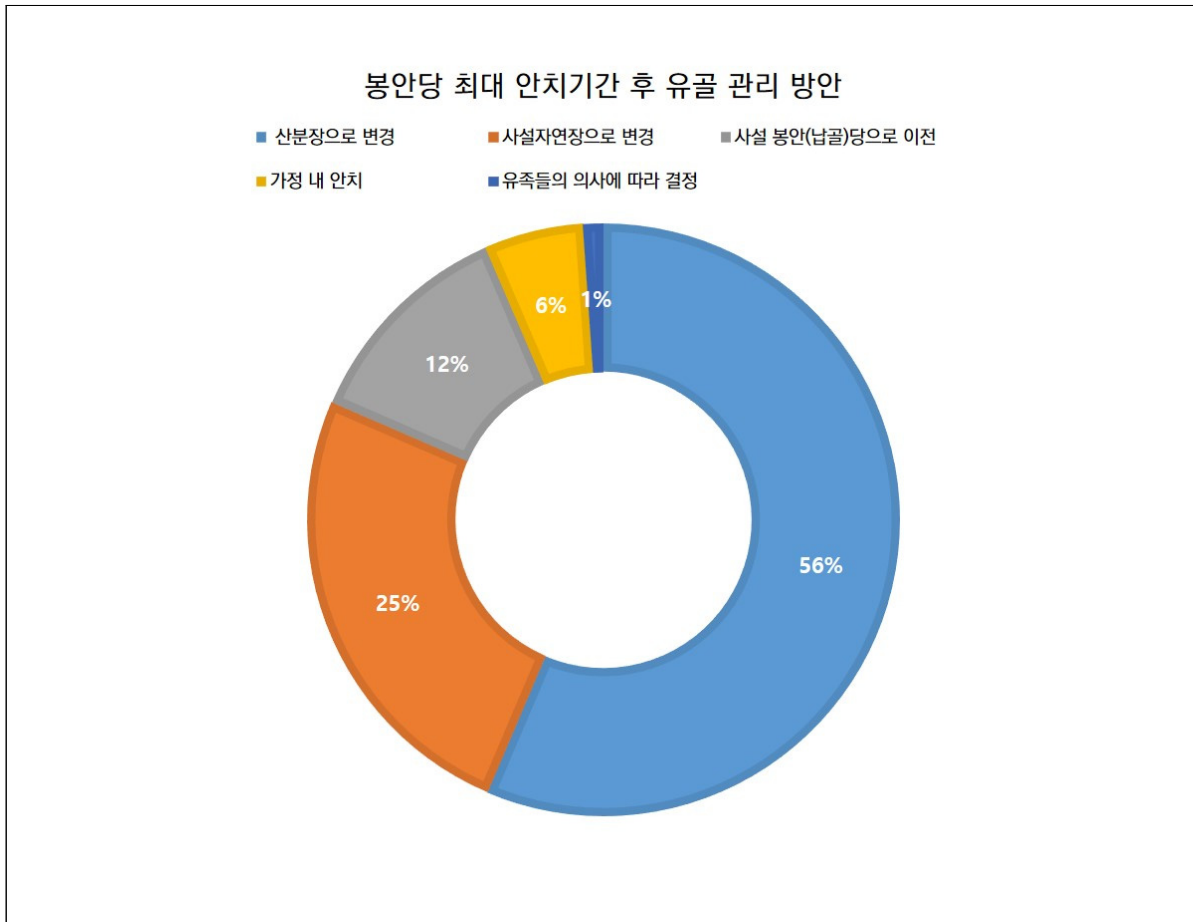
전체	사례 수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40년 이하	50년 이하	원할때 까지	영구	무응답 /모르겠음	계
합계	(800)	21.8	34.1	28.8	12.4	0.1	1.9	0.4	0.6	100.0
성별										
남	(400)	20.3	37.0	27.3	13.0	0.0	1.5	0.5	0.5	100.0
여	(400)	23.3	31.3	30.3	11.8	0.3	2.3	0.3	0.8	100.0
연령대										
19-29세	(127)	16.5	44.1	23.6	13.4	0.0	2.4	0.0	0.0	100.0
30대	(129)	15.5	33.3	28.7	18.6	0.8	3.1	0.0	0.0	100.0
40대	(151)	23.2	29.1	29.8	13.2	0.0	2.6	0.7	1.3	100.0
50대	(160)	23.8	31.3	33.1	9.4	0.0	1.9	0.6	0.0	100.0
60대 이상	(233)	25.8	34.3	27.9	9.9	0.0	0.4	0.4	1.3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26.2	37.1	23.2	10.1	0.0	3.0	0.4	0.0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19.4	32.6	31.5	13.5	0.2	1.3	0.4	0.9	100.0
종교										
불교	(69)	17.4	32.6	23.2	20.3	0.0	1.4	1.4	0.0	100.0
개신교(기독교)	(193)	24.4	31.1	33.2	9.3	0.5	1.0	0.0	0.5	100.0
천주교	(102)	19.6	38.2	31.4	9.8	0.0	1.0	0.0	0.0	100.0
무교(종교 없음)	(433)	21.5	34.4	27.0	13.2	0.0	2.5	0.5	0.9	100.0
기타	(3)	75.0	0.0	25.0	0.0	0.0	0.0	0.0	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22.3	40.0	22.9	9.1	0.0	2.9	0.6	0.6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19.5	39.4	26.0	13.4	0.0	0.8	0.8	0.8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26.1	27.6	30.7	12.1	0.0	3.0	0.0	0.0	100.0
700만원 이상	(180)	19.4	28.3	36.1	14.1	0.6	1.1	0.0	0.0	100.0

### (3) 봉안당 최대 안치 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

- 봉안당 최대 안치 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으로는 ‘산분장으로 변경’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사설 자연장으로 변경’이 25.1%, ‘사설 봉안(납골)당으로 이전’이 12.0%, ‘가정 내 안치’ 5.4%,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1.1%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1] 봉안당 최대 안치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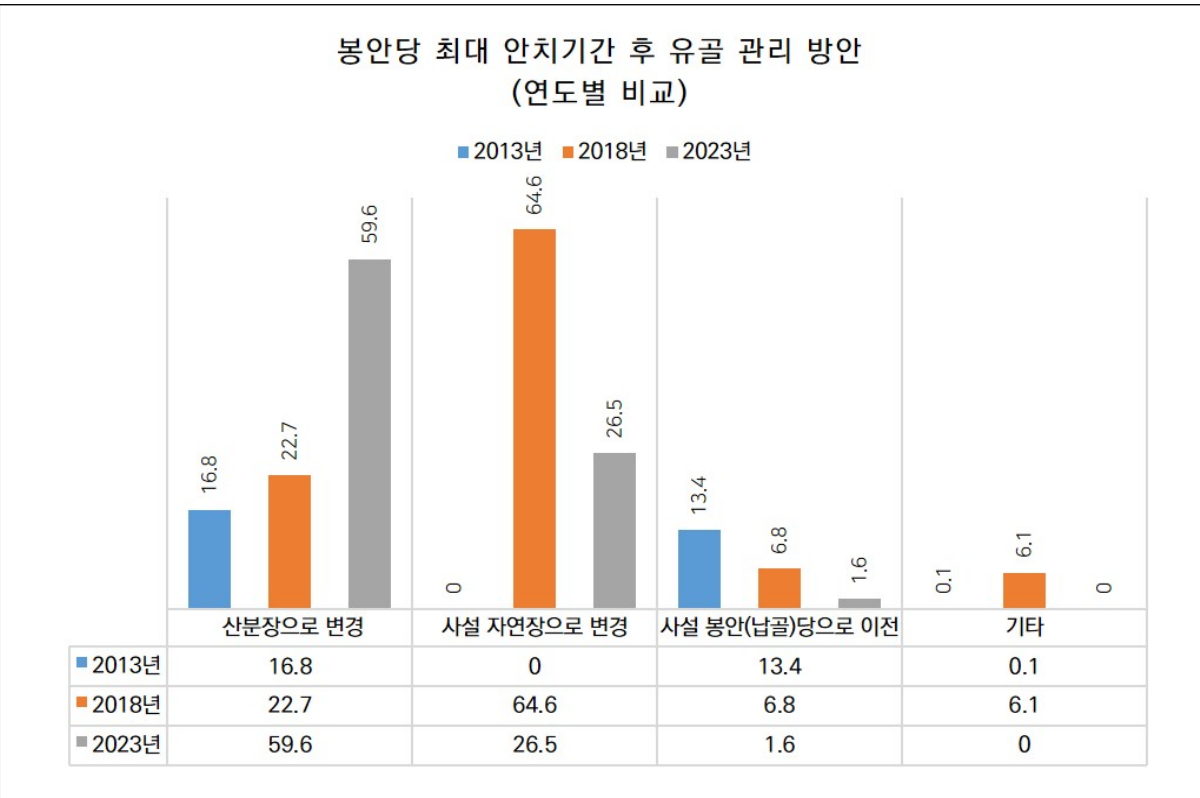
(단위: %)



- 인천시 2013년, 2018년 자료와 비교하여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산분장으로 변경’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설 자연장으로 변경’ 및 ‘사설 봉안(납골)당으로 이전’은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4-32] 봉안당 최대 안치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2013년, 2018년, 2023년 비교)

(단위: %)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설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연령대에서 나타남
- 연령대가 60대 이상인 경우 ‘사설(민간) 자연장으로 변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 내 안치’에 대한 응답에서 19~29세의 응답 비율이 18.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4] 응답특성별 비교(봉안당 최대 안치기간 후 유골 관리 방안)

(단위: %)

전체	사례 수	산, 강에 뿌리는 산분장으로 변경	사설(민간) 자연장으로 변경	사설(민간) 봉안(납골)당으로 이전	가정 내 안치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	계
합계	(800)	56.4	25.1	12.0	5.4	1.1	100.0
성별							
남	(400)	55.0	21.3	15.8	7.3	0.8	100.0
여	(400)	57.8	29.0	8.3	3.5	1.5	100.0
연령대							
19-29세	(127)	46.5	15.7	18.9	18.1	0.8	100.0
30대	(129)	49.6	23.3	19.4	6.2	1.6	100.0
40대	(151)	53.6	27.8	14.6	3.3	0.7	100.0
50대	(160)	64.4	23.8	7.5	1.9	2.5	100.0
60대 이상	(233)	61.8	30.5	5.6	1.7	0.4	100.0

전체	사례 수	산, 강에 뿌리는 산분장으로 변경	사설(민간) 자연장으로 변경	사설(민간) 봉안(납골)당으로 이전	가정 내 안치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	계
최종학력							
고졸 이하	(267)	59.6	22.8	11.2	5.6	0.7	100.0
대졸 이상 (전문대졸 포함)	(533)	54.8	26.3	12.4	5.3	1.3	100.0
종교							
불교	(69)	58.0	23.2	15.9	1.4	1.4	100.0
개신교(기독교)	(193)	56.5	30.6	7.8	4.7	0.5	100.0
천주교	(102)	57.8	24.5	11.8	4.9	1.0	100.0
무교(종교 없음)	(433)	55.7	23.1	13.4	6.5	1.4	100.0
기타	(3)	75.0	25.0	0.0	0.0	0.0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75)	60.0	22.9	10.3	6.3	0.6	1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46)	58.1	22.8	12.6	5.7	0.8	100.0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199)	56.3	27.6	11.6	4.0	0.5	100.0
700만원 이상	(180)	50.6	27.8	13.3	5.6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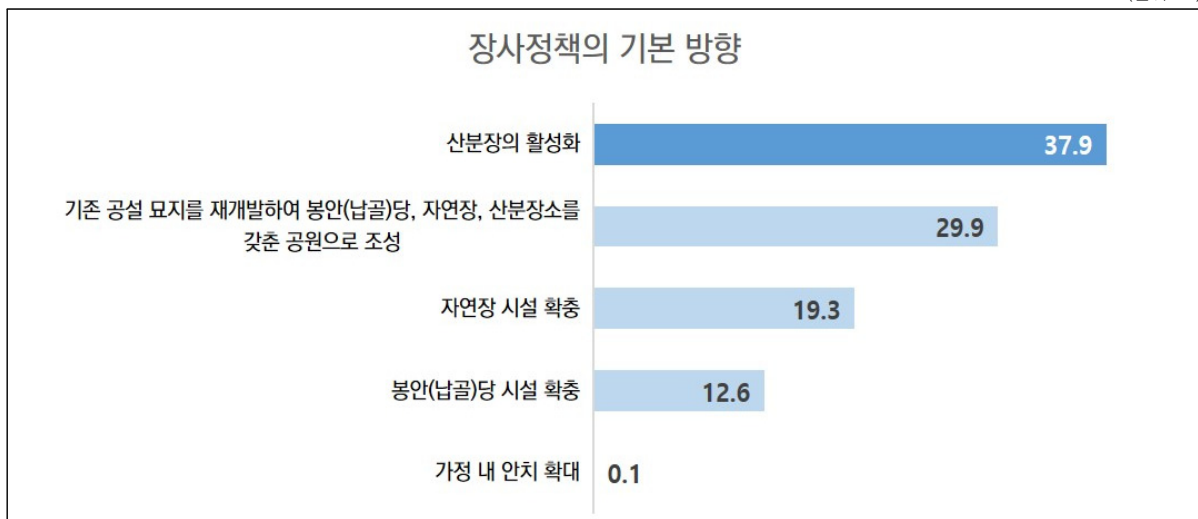
## 6) 인천시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

### (1) 인천시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

-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산분장의 활성화’가 37.9%로 가장 많았고, ‘기존 공설 묘지를 재개발하여 봉안(납골)당, 자연장, 산분 장소를 갖춘 공원으로 조성’(29.9%), ‘자연장 시설 확충’(19.3%), ‘봉안(납골)당 시설 확충’(12.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33]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

(단위: %)



## (2)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필요 정책

- 인천시 장사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우선순위(1순위, 2순위)를 매겨서 선택하도록 함. 분석 결과 1순위는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확대(28.3%)’, 2순위는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17.4%)’으로 나타남
- 우선순위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 2점, 2순위 1점)하여 점수화하여 분석한 결과, 산분장 확대가 5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349점), 웰다잉 교육 등 미리 준비하는 장례 교육(289점)순이었음

[표 4-25]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 필요 정책(1순위, 2순위)

(단위: 명, %, 점)

항목		1순위	2순위	가중치적용		
				1순위	2순위	전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대응 체계 마련	n	85	29	170	29	199
	(%)	(10.6)	(3.6)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확대	n	226	129	452	129	581
	(%)	(28.3)	(16.1)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 지원	n	98	87	196	87	283
	(%)	(12.3)	(10.9)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	n	29	38	58	38	96
	(%)	(3.6)	(4.8)			
웰다잉 교육 등 미리 준비하는 장례교육 제공	n	88	113	176	113	289
	(%)	(11.0)	(14.1)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n	105	139	210	139	349
	(%)	(13.1)	(17.4)			
장사시설의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n	40	91	80	91	171
	(%)	(5.0)	(11.4)			
화장로 증설	n	46	55	92	55	147
	(%)	(5.8)	(6.9)			
버려진 묘지 관리 체계화	n	83	119	166	119	285
	(%)	(10.4)	(14.9)			
1순위 (단위: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대응 체계 마련	<div><div></div></div> 10.6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확대	<div><div></div></div> 28.3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 지원	<div><div></div></div> 12.3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	<div><div></div></div> 3.6				
	웰다잉 교육 등 미리 준비하는 장례교육 제공	<div><div></div></div> 11.0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div><div></div></div> 13.1				
	장사시설의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div><div></div></div> 5.0				
	화장로 증설	<div><div></div></div> 5.8				
	버려진 묘지 관리 체계화	<div><div></div></div>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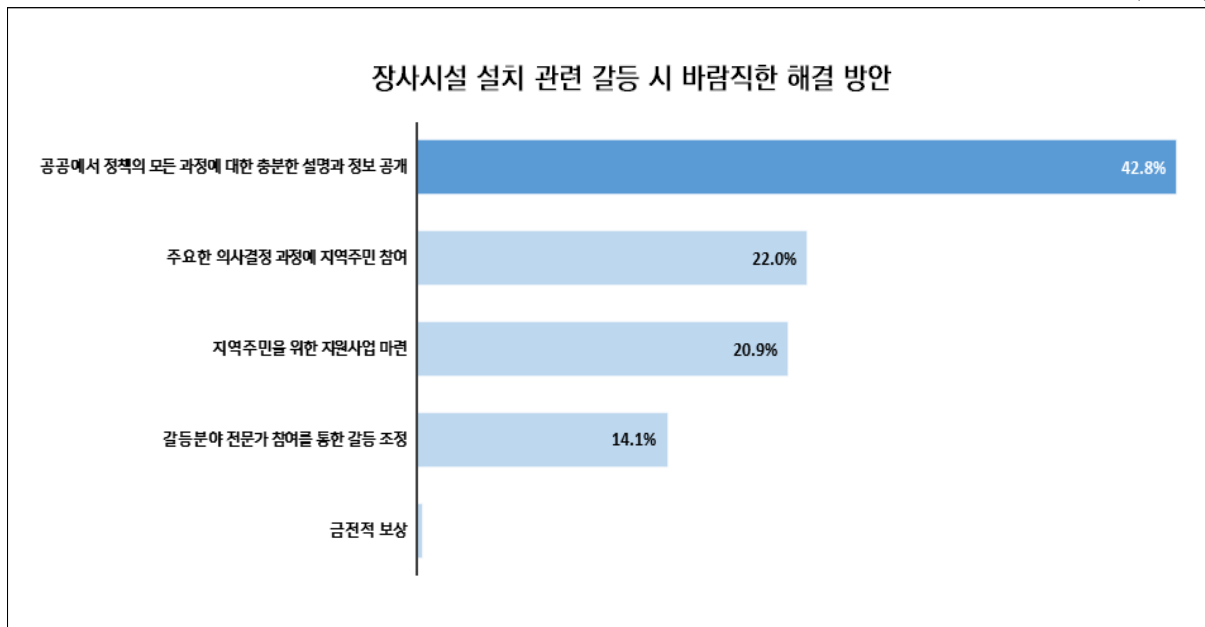
항목		1순위	2순위	가중치적용		
				1순위	2순위	전체
2순위 (단위: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대응 체계 마련	3.6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확대	16.1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 지원	10.9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	4.8				
	웹다잉 교육 등 미리 준비하는 장례교육 제공	14.1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17.4				
	장사시설의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11.4				
	화장로 증설	6.9				
	버려진 묘지 관리 체계화	14.9				
전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대응 체계 마련	199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확대	581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 지원	283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	96				
	웹다잉 교육 등 미리 준비하는 장례교육 제공	289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349				
	장사시설의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171				
	화장로 증설	147				
	버려진 묘지 관리 체계화	285				

### (3) 인천시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 시 바람직한 해결 방안

-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 시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정책의 모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42.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22.0%),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20.9%), ‘갈등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갈등 조정’(14.1%), ‘금전적 보상’(0.3%)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34] 인천시 장사시설 설치 관련 갈등 시 바람직한 해결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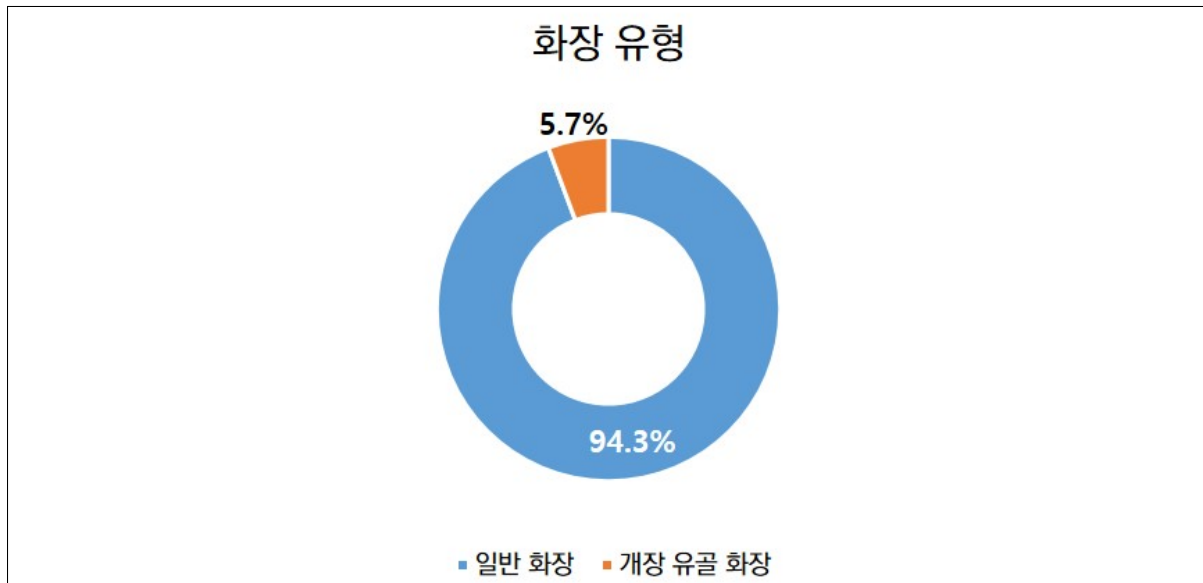
### 3.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조사

#### 1) 화장 유형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결과, 화장 유형으로는 ‘일반 화장(시신 화장)’이 94.3%, 개장유골 화장이 5.7%였음

[그림 4-35] 화장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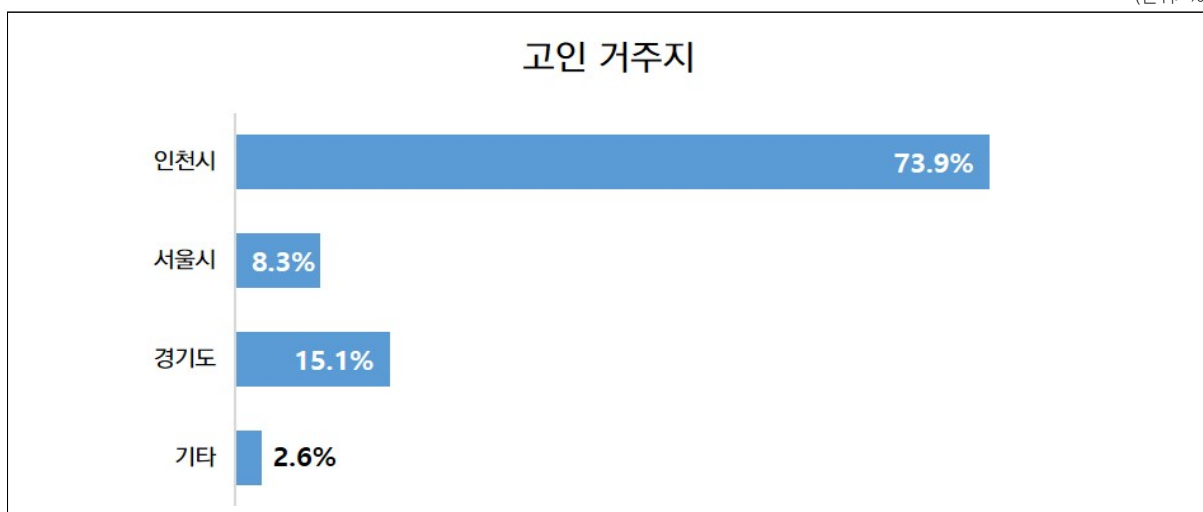


#### 2) 고인 거주지

- 일반화장 575명의 고인 거주지를 살펴본 결과, ‘인천시’가 73.9%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15.1%), ‘서울시’(8.3%), ‘기타’(2.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6] 고인 거주지별 이용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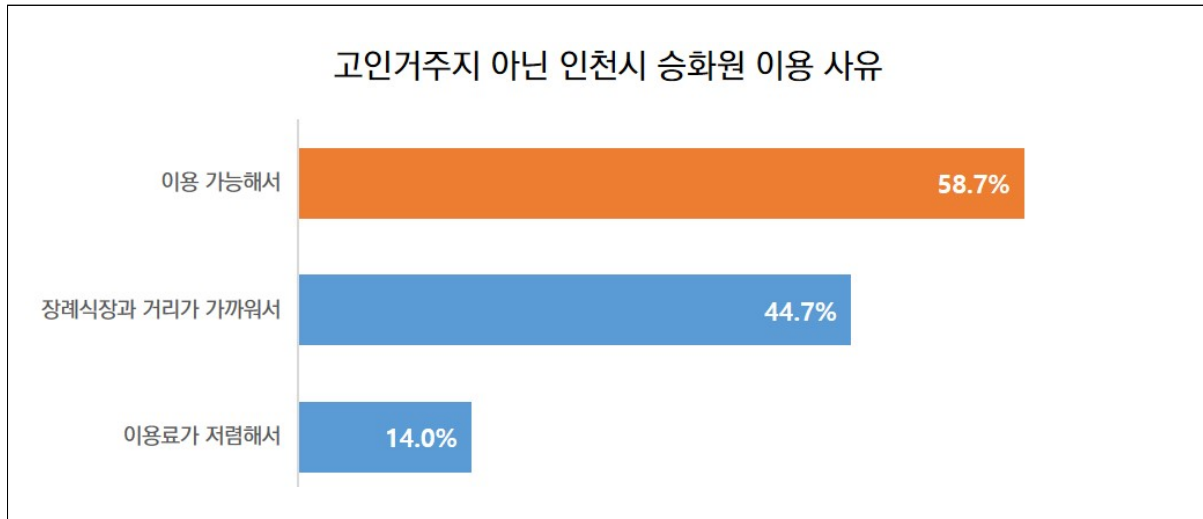


### 3) 승화원 이용 사유

- 고인의 거주지가 인천이 아닌 15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승화원을 이용한 사유에 대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설문한 결과, ‘이용 가능해서’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장례식장과 거리가 가까워서’(44.7%), ‘이용료가 저렴해서’(14.0%)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37] 관외 주민의 승화원 이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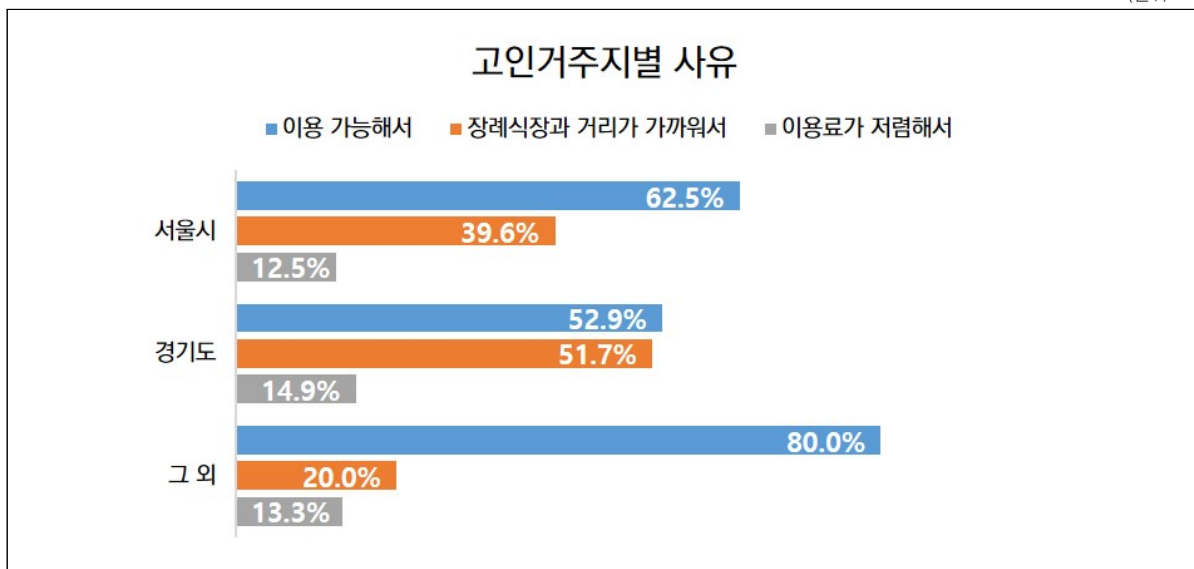
(단위: %)



- 고인의 거주지별로 이용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이용 가능해서’는 서울·경기 이외 거주자가 80.0%로 가장 높았고, ‘장례식장과 거리가 가까워서’는 경기도 거주자가 51.7%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료가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서울시, 경기도, 그 외 지역이 12.5%~14.9% 사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림 4-38] 관외 주민의 승화원 이용 사유(고인 거주지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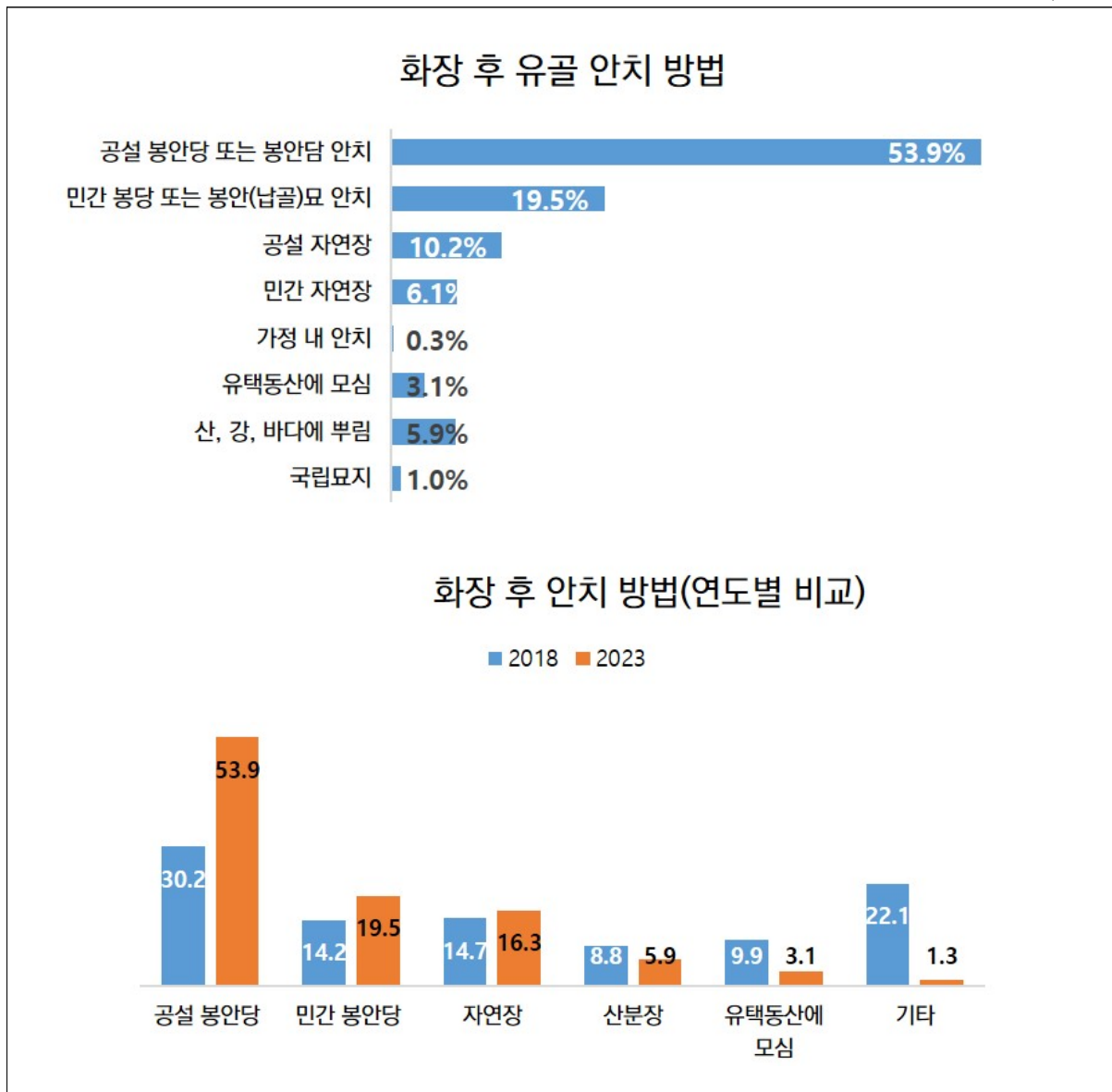


#### 4)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으로는 ‘공설 봉안(납골)당 또는 봉안담 안치’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 봉안(납골)당 또는 봉안(납골)묘 안치’가 19.5%, ‘공설 자연장’이 10.2%, ‘민간 자연장’이 6.1%, ‘산분장’이 5.9%, ‘유택동산에 모심’이 3.1%, ‘가정 내 안치’ 0.3%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공설 봉안당’을 선택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민간 봉안당’과 ‘자연장’도 증가하였음. 반면에 ‘산분장’과 ‘유택동산에 모심’, ‘기타’는 2018년에 비해 감소한 추세임

[그림 4-39]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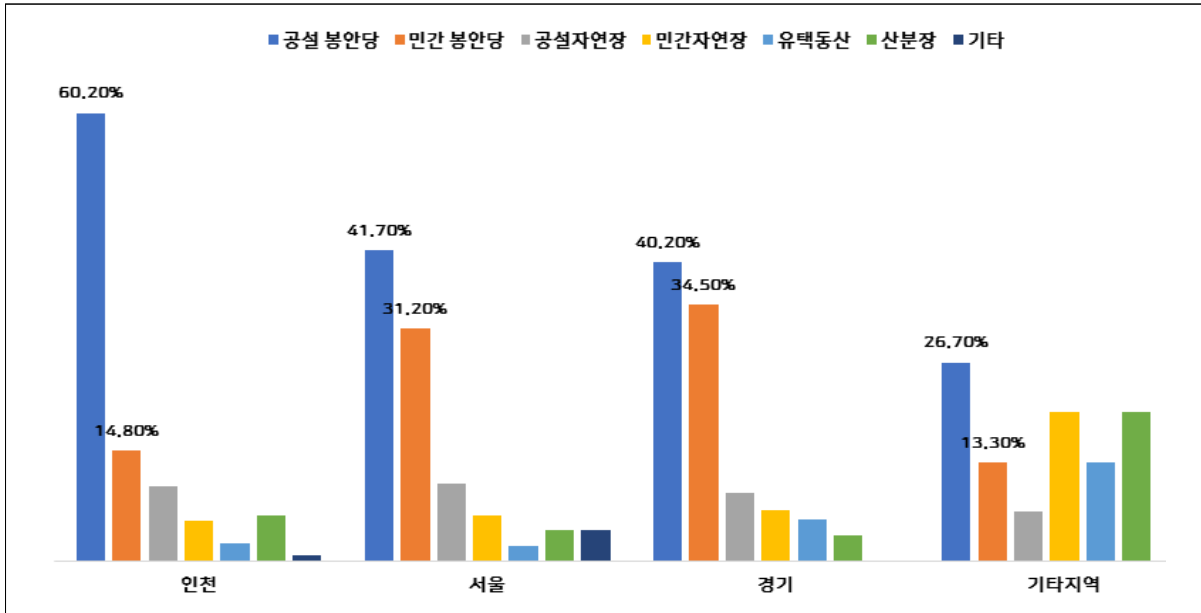
(단위: %)



- 고인의 거주지별로 안치 방법을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공설 봉안당 안치 비율이 60.2%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며, 민간 봉안당의 안치 비율은 14.8%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4-40]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고인 거주지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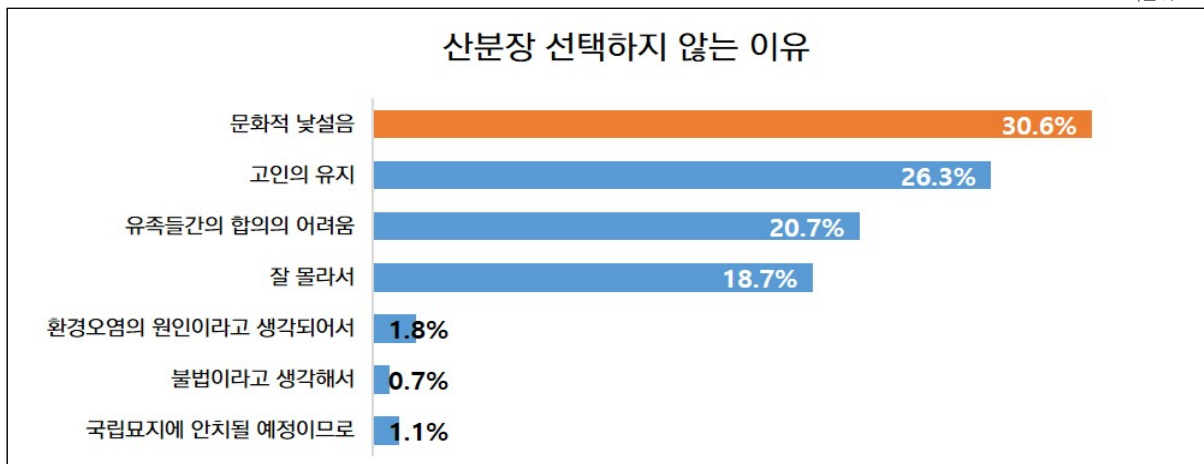


## 5) 산분장 선택하지 않는 이유

- 유골 후 안치 방법이 산분장이 아닌 응답자만을 대상(n=555)으로 산분장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함
- 응답 결과 ‘문화적 낯설음’이 30.6% 가장 높았으며, ‘고인의 유지’ (26.3%), ‘유족들간의 합의의 어려움’(20.7%), ‘잘 몰라서’(18.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1] 산분장 선택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4. 요약 및 시사점

### 1) 화장 희망률 증가에 대한 대응

- 인천시민의 화장 희망률이 3개년도 비교 결과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92.3%로 전국(89.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여 화장로 및 화장 후 안치 방법에 따른 공급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봉안당 수요 대응

-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으로 봉안당에 대한 선호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봉안시설 중 봉안당에 대한 선호가 66%로 가장 높았음
- 따라서 봉안당에 대한 수급 전망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봉안당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봉안당 수요 조절 및 기존 봉안당 활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3) 산분장 정책 추진

- 인천시민의 산분장에 대한 선호가 3개년도 비교 결과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국 대상 선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 또한, 인천시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산분장의 활성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분장 정책을 인천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승화원 조사 결과 산분장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문화적 낯설음’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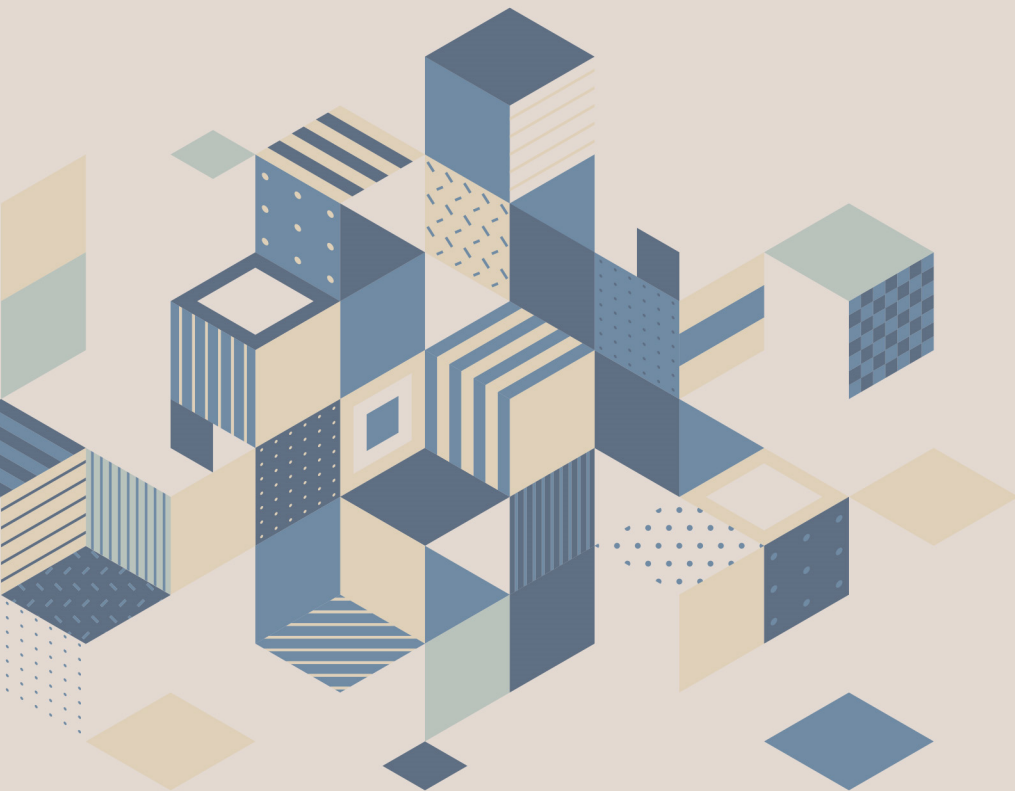
### 4) 장사 교육 및 문화 선도 필요

- 인천시민의 6명 중 1명만이 죽음 및 장례준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장년층(40대·50대)의 경험률이 낮아서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사전장례 준비 및 사전장례의향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높아서 웰다잉과 관련한 시민 교육과 장례 준비를 사전 계획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인천시민의 적정장례 비용으로 ‘5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실제 장례 비용과의 차이가 큼. 따라서 공공에서의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제5장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전망

1. 분석 개요
2. 장사시설 수요 추계를 위한 기초 통계 추정
3.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분석





### 1. 분석 개요

#### 1) 분석 방법

-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전망을 위해서 ① 인천시 사망자 수를 추계하고 ② 화장 수요를 추계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③ 화장 후 봉안시설 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을 거침

#### 2) 분석 범위 및 내용

- 2023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향후 20년 이후인 2043년까지 장례 추계를 실시함
- 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행하고 화장률 및 화장 후 처리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변하기 때문에 기준 년도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 현재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화장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을 시행하였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부문 시설 수급을 중심으로 분석함

#### 3) 분석 활용 자료

- 사망자 수의 추계의 기준자료가 되는 장래인구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자료를 검토하여 보수적인 추계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음
- 화장에 대한 수요추정에 기초가 되는 화장 선호도 자료는 본 과제에서 수행한 인천시민의식 조사결과를 적용하였음
- 화장시설 수요는 인천시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요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발생하는 수요도 함께 고려함. 이는 인천가족공원 이용객의 상당수가 인천시 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수요에 이러한 실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 화장 후 안치 방식에 대한 수요는 인천가족공원의 시설별 안치 건수와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였음

## 2. 장사시설 수요 추계를 위한 기초 통계 추정

### 1) 사망자 추계

#### 📊 자료

- 사망자 추계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장래 추계인구가 있음
  -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구가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다추정의 위험이 발생함
  - 반면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국내이동을 고려한 추계 방식으로 정확도가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중위 추계 시나리오를 활용함

#### 📊 추계 결과

- 인천시의 2043년까지의 인구수 및 사망자 수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인천시 인구는 2023년 2,959,571명에서 2034년에 2,967,064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사망자 수는 2023년 17,757명에서 2043년 33,003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 인천시 인구수 및 사망자 수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 중위 추계 기준

(단위: 명)

연도	인구수			사망자 수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23	2,959,571	1,482,623	1,476,948	17,757	8,896	8,862
2024	2,959,097	1,481,977	1,477,120	18,346	9,188	9,158
2025	2,959,375	1,481,737	1,477,638	18,940	9,483	9,457
2026	2,960,111	1,481,714	1,478,397	19,537	9,779	9,757
2027	2,961,141	1,481,831	1,479,310	20,136	10,076	10,059
2028	2,962,397	1,482,026	1,480,371	20,737	10,374	10,363
2029	2,963,661	1,482,189	1,481,472	21,635	10,820	10,815
2030	2,964,832	1,482,252	1,482,580	22,236	11,117	11,119
2031	2,965,779	1,482,150	1,483,629	22,836	11,413	11,424
2032	2,966,509	1,481,922	1,484,587	23,435	11,707	11,728
2033	2,966,983	1,481,561	1,485,422	24,329	12,149	12,180
2034	2,967,064	1,480,959	1,486,105	24,923	12,440	12,483
2035	2,966,631	1,480,029	1,486,602	25,810	12,876	12,933
2036	2,965,308	1,478,622	1,486,686	26,688	13,308	13,380

연도	인구수			사망자 수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37	2,962,720	1,476,575	1,486,145	27,257	13,584	13,673
2038	2,958,835	1,473,858	1,484,977	28,405	14,149	14,256
2039	2,953,665	1,470,461	1,483,204	29,241	14,558	14,684
2040	2,947,288	1,466,466	1,480,822	30,062	14,958	15,104
2041	2,939,673	1,461,859	1,477,814	31,161	15,496	15,665
2042	2,930,778	1,456,624	1,474,154	32,239	16,023	16,216
2043	2,920,648	1,450,827	1,469,821	33,003	16,394	16,609

자료: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2) 화장률 추정

### (1) 추정 방법

- 화장률을 연도별로 파악할 때는 추세변화나 계절적 변동이 크지 않고 상당한 추세적 성향을 보임. 선행연구(이재호, 2022)에서 Holt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평활 모형에 장사시설 수요에 대한 추세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인천시도 지난 10년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여([표 5-2] 참조), 본 연구에서는 Holt의 지수평활추세법을 적용하여 2043년까지의 화장률을 전망함

[표 5-2] 인천시 화장률 추이(2012-2021)

(단위: %)

연도	화장률
2012	85.8
2013	87.8
2014	89.4
2015	90.2
2016	91.2
2017	92.4
2018	92.9
2019	94
2020	94.3
2021	95.2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화장통계

## (2) 예측 모형

- 화장률 변화에 대하여 추세 변동을 고려한 Holt의 지수 평활에 의한 방법은 기간  $t$ 에서 관측치  $y_t$ 를 관측한 후, 다음과 같은 수식에 따라 화장률에 따른 화장시설 수요에 대한 수준치  $L_t$ 와 기간별 화장시설 수요에 대한 추세치  $T_t$ 를 추정한 후 미래의 화장시설 예측치  $\hat{y}_{t+k}$ 를 구함
  - 기간  $t$ 에 대한 화장률 수준 예측치  $L_t$ 는  $y_t$ 와  $(L_{t-1} + T_{t-1})$ 와의 가중평균으로 구하고, 화장률 추세 예측치  $T_t$ 는  $(L_t - L_{t-1})$ 과  $T_{t-1}$ 과의 가중평균으로 구함
- 예측 미래의 기간  $t+k(k \geq 1)$ 에 대한 예측치  $\hat{y}_{t+k}$ 는 현재까지 산출된 화장률 및 화장시설 선호도에 대한 수준 예측치  $L_t$ 와 추세 변동분  $kT_t$ 를 합해서 화장률 및 화장시설 수요에 대한 예측치로 계산하게 되고 Holt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준 평활상수  $\alpha$ 와 추세 평활상수  $\beta$ 의 값을 선택해야 하는데 관측된 자료에 적정한  $\alpha$ 와  $\beta$  값을 찾기 위해서는 두 평활상수값들의 여러 조합에 대해 각 MAE를 구한 후, 그중 가장 작은 MAE에 해당하는 평활상수값을 선택함

[그림 5-1] 예측 모형 산식

$$\begin{aligned}\hat{X}_{t+1} &= L_t + T_t \\ L_t &= \alpha X_t + (1 - \alpha)(L_{t-1} + T_{t-1}), & 0 \leq \alpha \leq 1 \\ T_t &= \beta (L_t - L_{t-1}) + (1 - \beta)T_{t-1}, & 0 \leq \beta \leq 1\end{aligned}$$

$L_t$  : 기간  $t$ 의 시계열 데이터의 수준 (level)

$T_t$  : 기간  $t$ 의 추세(trend)

$$\hat{X}_{t+k} = L_t + kT_t, \quad k = 1, 2, \dots$$

### (3) 예측 결과

- 인천시 화장률을 Holt 지수평활추세법으로 예측한 결과, 인천시 화장률은 계속 증가하다가 2027년경 99%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99.7%에서 증가 추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함

[표 5-3] 인천시 화장률 예측값(2022-2027)

(단위: %)

연도	화장률	수준값(Lt)	추세값(Tt)	예측값
2012	85.8			
2013	87.8	87.8	2.0	
2014	89.4	89.4	1.9	89.8
2015	90.2	90.2	1.4	91.3
2016	91.2	91.2	1.1	91.6
2017	92.4	92.4	0.8	92.3
2018	92.9	92.9	0.6	93.2
2019	94	94.0	0.5	93.5
2020	94.3	94.3	0.4	94.5
2021	95.2	95.2	0.3	94.7
2022				95.5
2023				95.8
2024				96.3
2025				97.2
2026				98.3
2027				99.7

3.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 분석

1) 화장시설 수급 분석

(1) 화장 수요 추계

관내 화장자 수 전망

- 위에서 분석한 화장률 추계 결과를 활용하여 관내 화장자 수를 산출함
- 관내 화장자 수 산출 방법: 인천시 사망자 수 × 화장률

[표 5-4] 인천시 관내 화장수요 추계(2023-2043)

(단위: %, 건)

연도	화장률	사망자 수	화장자 수
2023	95.8	17,757	17,005
2024	96.3	18,346	17,672
2025	97.2	18,940	18,404
2026	98.3	19,537	19,204
2027	99.7	20,136	20,076
2028	99.7	20,737	20,675
2029	99.7	21,635	21,571
2030	99.7	22,236	22,170
2031	99.7	22,836	22,769
2032	99.7	23,435	23,366
2033	99.7	24,329	24,257
2034	99.7	24,923	24,849
2035	99.7	25,810	25,733
2036	99.7	26,688	26,609
2037	99.7	27,257	27,176
2038	99.7	28,405	28,321
2039	99.7	29,241	29,155
2040	99.7	30,062	29,973
2041	99.7	31,161	31,068
2042	99.7	32,239	32,143
2043	99.7	33,003	32,906

## 관외 및 개장유골 화장수요 전망

- 관외 화장 수요 추정: 지난 3년간의 관외 수요 비중(32.9%)을 적용함
  - 2021년 경기도 화성시의 화장장 설치 등으로 인해서 최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3년의 평균적인 관외 화장 비중을 적용함
- 개장유골 화장 수요 추정: 지난 5년간의 개장유골 화장 비중(9.7%)을 적용하였으며, 화장문화의 확산으로 향후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2043년에 5%로 축소할 것으로 가정함

## 총화장 수요 추계

- 관내, 관외, 개장유골 화장 수요를 모두 고려한 총화장 수요 추계 결과는 [표 5-5]와 같음

[표 5-5] 인천시 총 화장수요 추계(2023-2043)

(단위: 건)

연도	총 화장 수요	관내	관외	개장
2023	27,819	17,005	8,352	2,462
2024	28,852	17,672	8,680	2,499
2025	29,985	18,404	9,040	2,541
2026	31,224	19,204	9,432	2,587
2027	32,575	20,076	9,861	2,638
2028	33,478	20,675	10,155	2,647
2029	34,856	21,571	10,595	2,690
2030	35,751	22,170	10,890	2,691
2031	36,639	22,769	11,183	2,687
2032	37,522	23,366	11,477	2,680
2033	38,872	24,257	11,915	2,701
2034	39,738	24,849	12,205	2,683
2035	41,066	25,733	12,640	2,693
2036	42,374	26,609	13,070	2,696
2037	43,187	27,176	13,348	2,662
2038	44,911	28,321	13,910	2,680
2039	46,136	29,155	14,320	2,661
2040	47,331	29,973	14,722	2,636
2041	48,956	31,068	15,260	2,628
2042	50,542	32,143	15,788	2,611
2043	51,521	32,906	16,162	2,453

## (2) 화장로 수급 전망

### 화장 능력

-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은 현재 20로가 있으며, 화장로의 적정운영은 1일 3~4회 운영으로 알려져 있음
- 인천가족공원은 1일 8회 그리고 1회 9기의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음(화장로 1기는 예비시설임). 따라서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1일 처리 능력은 72기임
  - 연간 가동 일수를 360일로 적용할 때 연간 운영 가능한 사망자 화장구 수는 약 25,920구로 추정됨
  - 개장 유골에 대해서는 1일 2회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1일 처리 능력은 18기/일임. 개장 유골에 관한 연간 운영 가능한 화장구 수는 6,480구로 추정됨
  - 사망자 화장과 개장 유골 화장을 합치면 총 연간 화장능력은 32,400구임

### 화장시설 수급 진단

- 인천가족공원은 사망자 화장(1~8회차)과 개장유골 화장(9~10회차)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수요를 구분하여 분석함. 분석 결과, 사망자 화장은 2024년에 화장능력이 초과(20.3로)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은 현 시설 규모 내에서 수용 가능함
- 총합으로 살펴보면, 연간 화장능력이 32,400건이므로 2027년에 총 화장 수요가 32,575건으로 화장로 증설이 필요한 시기로 예측됨

[표 5-6] 인천시 화장로 수급전망(2023-2043)

(단위: 건)

연도	총 화장수요	사망자		개장	
		화장 수요	필요 화장로	화장 수요	필요 화장로
2023	27,819	25,357	19.6	2,462	7.6
2024	28,852	26,353	20.3	2,499	7.7
2025	29,985	27,444	21.2	2,541	7.8
2026	31,224	28,636	22.1	2,587	8.0
2027	32,575	29,937	23.1	2,638	8.1
2028	33,478	30,831	23.8	2,647	8.2
2029	34,856	32,166	24.8	2,690	8.3
2030	35,751	33,060	25.5	2,691	8.3
2031	36,639	33,952	26.2	2,687	8.3
2032	37,522	34,843	26.9	2,680	8.3

연도	총 화장수요	사망자		개장	
		화장 수요	필요 화장로	화장 수요	필요 화장로
2033	38,872	36,172	27.9	2,701	8.3
2034	39,738	37,055	28.6	2,683	8.3
2035	41,066	38,373	29.6	2,693	8.3
2036	42,374	39,678	30.6	2,696	8.3
2037	43,187	40,525	31.3	2,662	8.2
2038	44,911	42,231	32.6	2,680	8.3
2039	46,136	43,475	33.5	2,661	8.2
2040	47,331	44,695	34.5	2,636	8.1
2041	48,956	46,328	35.7	2,628	8.1
2042	50,542	47,931	37.0	2,611	8.1
2043	51,521	49,068	37.9	2,453	7.6

## 2) 화장 후 유형별 안치방식 추계 및 수급전망

### (1) 화장 후 안치 유형 수요 추정 방식

#### ◆ 대안 1: 인천가족공원 이용실태 활용

- 인천가족공원 총 화장 건수 대비 공설 봉안당 및 공설 자연장 이용자 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으며, 5년 평균 이용률인 30.3%와 5.1%를 활용함
- 그 외 민간 봉안당 및 자연장, 가정 내 안치, 유택동산, 산분 관련 이용률은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함

[표 5-7]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이용 비율(2018-2023)

(단위: 건, %)

연도	전체 화장 건수	봉안당		자연장	
		이용자 수	이용률	이용자 수	이용률
2023. 05. 말	11,990	3,344	27.8	11,990	699
2022	25,978	8,586	33.1	25,978	1,530
2021	25,172	7,781	30.9	25,172	1,471
2020	26,592	7,902	29.7	26,592	1,198
2019	24,551	7,030	28.6	24,551	1,135
2018	25,281	7,379	29.2	25,281	1,218
5년 평균		30.3		5.1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b)

## 대안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의 설문조사 결과 활용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치 방식의 장래 수요를 추정함
  - 고인이 인천시민인 경우, 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으로 공설 봉안당 60.2%, 공설 자연장 10.1%를 차지함

## (2) 화장 후 안치 유형 수요 추계

### 대안1: 인천가족공원 이용 실태 활용

- 지난 5년간 인천가족공원 이용 실태 및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화장 후 안치 유형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8] 화장 후 안치 유형 수요 추계(2023-2043): 대안 1(이용실태)

(단위: 건)

연도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장	민간 봉안당	민간 자연장	가정 내 안치	유택동산	산분
2023	5,153	867	5,565	2,032	88	883	2,297
2024	5,355	901	5,783	2,111	92	918	2,387
2025	5,576	939	6,023	2,199	96	956	2,486
2026	5,819	979	6,285	2,294	100	998	2,594
2027	6,083	1,024	6,570	2,399	104	1,043	2,711
2028	6,265	1,054	6,766	2,470	107	1,074	2,792
2029	6,536	1,100	7,059	2,577	112	1,121	2,913
2030	6,718	1,131	7,256	2,649	115	1,152	2,994
2031	6,899	1,161	7,451	2,720	118	1,183	3,075
2032	7,080	1,192	7,647	2,792	121	1,214	3,156
2033	7,350	1,237	7,938	2,898	126	1,260	3,276
2034	7,529	1,267	8,132	2,969	129	1,291	3,356
2035	7,797	1,312	8,422	3,075	134	1,337	3,476
2036	8,062	1,357	8,708	3,179	138	1,382	3,594
2037	8,234	1,386	8,894	3,247	141	1,412	3,670
2038	8,581	1,444	9,268	3,384	147	1,471	3,825
2039	8,834	1,487	9,541	3,483	151	1,514	3,938
2040	9,082	1,529	9,809	3,581	156	1,557	4,048
2041	9,414	1,584	10,167	3,712	161	1,614	4,196
2042	9,739	1,639	10,519	3,840	167	1,670	4,341
2043	9,970	1,678	10,769	3,931	171	1,709	4,444

## 대안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활용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중 인천시민의 화장 후 안치 유형 실태를 바탕으로 수요를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9] 화장 후 안치 유형 수요 추계(2023-2043): 대안 2(설문조사 결과)

(단위: 건)

연도	공설 봉안당	공설 자연장	민간 봉안당	민간 자연장	가정 내 안치	유택동산	산분
2023	10,243	1,721	2,521	920	40	400	1,040
2024	10,645	1,788	2,620	956	42	416	1,081
2025	11,086	1,862	2,728	996	43	433	1,126
2026	11,568	1,943	2,847	1,039	45	452	1,175
2027	12,093	2,031	2,976	1,086	47	472	1,228
2028	12,454	2,092	3,065	1,119	49	486	1,265
2029	12,993	2,182	3,198	1,167	51	508	1,320
2030	13,354	2,243	3,286	1,200	52	522	1,356
2031	13,715	2,304	3,375	1,232	54	536	1,393
2032	14,075	2,364	3,464	1,265	55	550	1,429
2033	14,611	2,454	3,596	1,313	57	571	1,484
2034	14,968	2,514	3,684	1,345	58	585	1,520
2035	15,500	2,604	3,815	1,393	61	605	1,574
2036	16,028	2,692	3,944	1,440	63	626	1,628
2037	16,370	2,750	4,028	1,471	64	639	1,663
2038	17,059	2,865	4,198	1,533	67	666	1,733
2039	17,561	2,950	4,322	1,578	69	686	1,784
2040	18,054	3,033	4,443	1,622	71	705	1,834
2041	18,714	3,143	4,605	1,681	73	731	1,901
2042	19,361	3,252	4,765	1,740	76	756	1,966
2043	19,821	3,329	4,878	1,781	77	774	2,013

### (3) 봉안 규모 전망

- 화장이후 유형별 봉안시설의 수급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의 가용 봉안 규모를 검토함
  - 현재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의 봉안가능기수는 30,263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20,000구 규모의 봉안시설이 건설 중임. 따라서 2026년 이후의 가용 봉안 시설 규모는 50,263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장지의 경우 봉안가능 기수는 7,818구임

[표 5-10]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공급 전망

(단위: 구)

구분	계	봉안시설	자연장지
총봉안능력	177,102	157,239	19,863
기봉안실적	139,021	126,976	12,045
봉안가능기수	38,081	30,263	7,818
2026년 이후 신규시설	20,000	20,000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a)

#### (4)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진단

- 공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누적 안치 건수를 [표 5-11]과 같이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과 비교하여 시설 포화 시기를 대안별로 검토함

##### ◆ 대안 1: 인천가족공원 이용실태 활용

- 봉안시설의 안치 누적 건수는 2023년 5,153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1년에 54,403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을 근거로 2026년 이후 인천가족공원의 가용 봉안 규모가 50,263구임을 고려할 때, 2031년경에 봉안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함
- 자연장지의 안치 누적 건수는 867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7,996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26년 이후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봉안 가능 규모가 7,818구임을 고려하면 2030년경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함

##### ◆ 대안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의 설문조사 결과 활용

- 봉안시설의 안치 누적 건수는 2023년 10,243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 55,634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인천가족공원 봉안규모 전망을 근거로 2026년 이후 인천가족공원의 가용 봉안 규모가 50,263구임을 고려할 때, 2027년경에 봉안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함
- 자연장지의 안치 누적 건수는 1,721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7년에 9,345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26년 이후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봉안 가능 규모가 7,818구임을 고려하면 2027년경에 자연장지 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상함

[표 5-11] 화장 후 안치 유형별 누적 봉안 건수(2023-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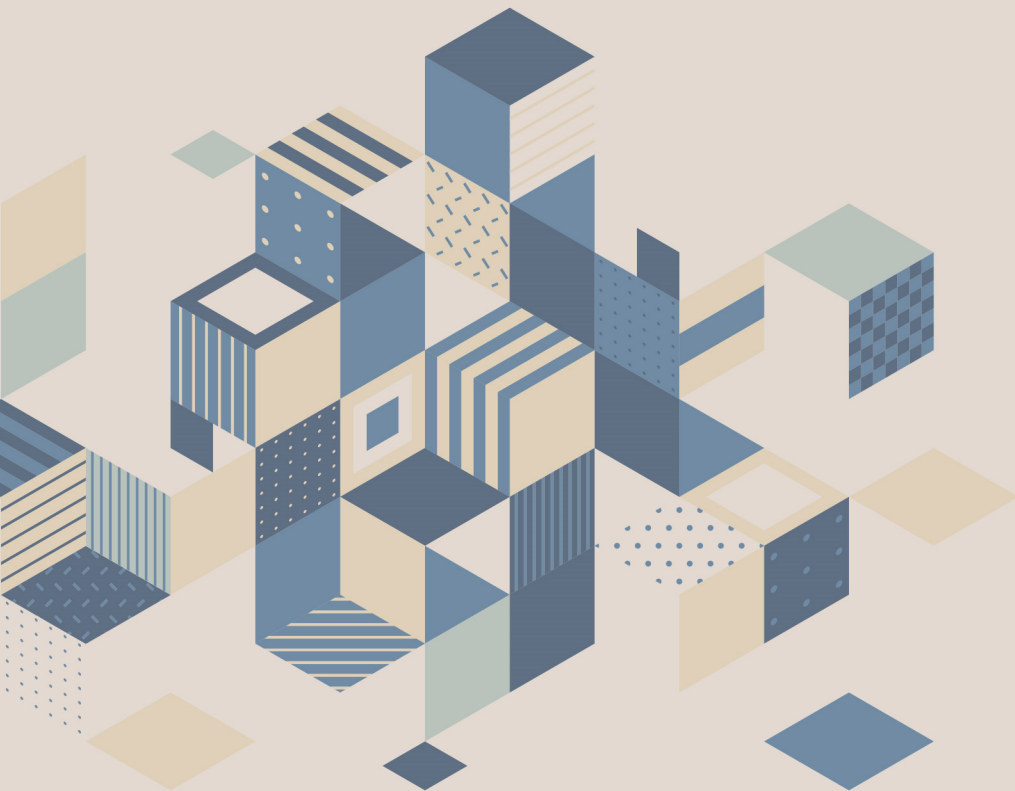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대안 1: 이용실태		대안 2: 설문조사 결과	
	봉안당	자연장	봉안당	자연장
2023	5,153	867	10,243	1,721
2024	10,507	1,769	20,888	3,509
2025	16,084	2,707	31,974	5,371
2026	21,902	3,687	43,541	7,314
2027	27,986	4,710	55,634	9,345
2028	34,250	5,765	68,088	11,437
2029	40,786	6,865	81,081	13,619
2030	47,504	7,996	94,436	15,862
2031	54,403	9,157	108,150	18,166
2032	61,483	10,349	122,225	20,530
2033	68,832	11,586	136,836	22,984
2034	76,362	12,853	151,805	25,498
2035	84,159	14,165	167,305	28,102
2036	92,221	15,522	183,333	30,794
2037	100,456	16,908	199,703	33,544
2038	109,037	18,353	216,762	36,409
2039	117,871	19,840	234,323	39,359
2040	126,953	21,368	252,377	42,392
2041	136,366	22,953	271,091	45,535
2042	146,106	24,592	290,453	48,787
2043	156,076	26,270	310,274	52,116



## 제6장 인천시 공영장려 기본계획

1. 추진 배경
2. 인천시 추진 현황
3. 타 시도 사례
4. 인천시 공영장려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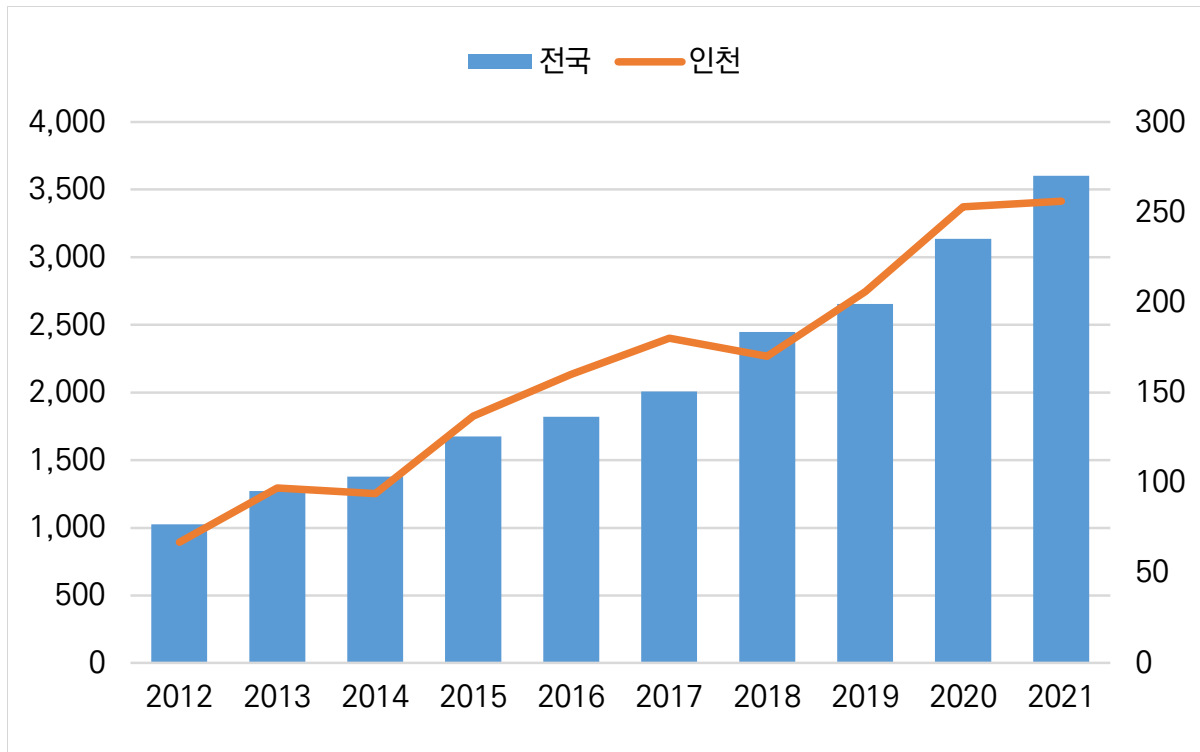
## 제6장 인천시 공영장례 기본계획

### 1. 추진 배경

#### 1) 무연고 사망자 증가

- 가족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함
- [그림 6-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전국 및 인천시의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수가 증가추세를 보임
-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으며, 통계청(2022) 추계 결과 2050년에는 인천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53.5%) 고령자 1인 가구로 예측되어 향후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1] 전국 및 인천시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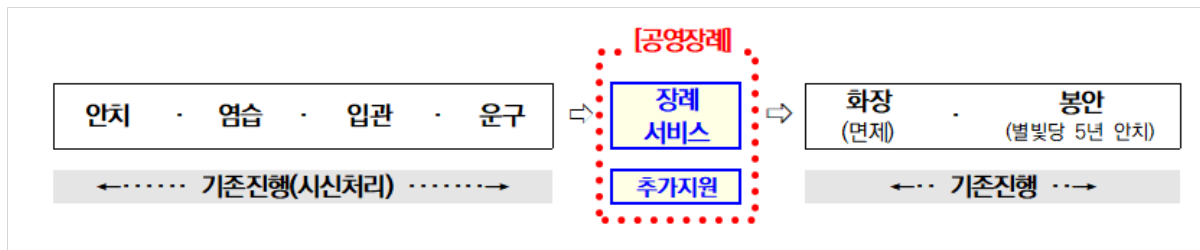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23a)

## 2)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존엄성과 애도

-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직장(直葬) 방식)했으나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그림6-2]와 같이 공영장례는 시신 처리와 화장 사이에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 수 있도록 함

[그림 6-2] 공영장례 개념



자료: 인천광역시(2023c)

## 3) 추진 근거: 법령 개정

- 장사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자체의 장례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장사법에서는 제12조에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장례의식을 행할 것과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인천시는 2020년 3월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인천시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

## 2. 인천시 추진 현황

### 1) 추진 내용

#### ◆ 지원 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 ◆ 지원 내용

- 현금지급 원칙, 필요시 현물(인력, 물품, 장소, 서비스 등)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기존 시신처리에 장례서비스 추가 지원하는 것이며, 장례서비스(추모의식)은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 세부적인 지원항목은 다음 표와 같으며 1인 800천원 이내로 실비 지원함

[표 6-1]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항목

지원항목	세부내용
사용료	빈소사용료
근조바구니	1~2개
향초,국화 등	필요량 제공
영정사진(위패)	액자(사진편집포함) 또는 위패
제물, 식사	제사상 및 식사비(고인과의 한끼)

### 2) 추진체계 및 절차

- 동주민센터, 군·구, 장례식장이 추진체계이며, 추진 절차는 다음 [표 6-2]와 같음
  - 인천시 공영장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구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함
  - 대상자로 결정되면 무연고자는 장례식장에 통보를 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은 연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함
  - 장례서비스가 끝난 후 무연고자는 장례식장에서 군·구로 비용 청구하여 정산하며, 저소득층은 신청인이 군·구 담당자에게 청구함

[표 6-2] 인천시 공영장례 추진 절차

단 계	역 할 수 행	주 요 업 무 사 항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포함)	동 주 민 센 터 (기초수급자 등 급여 지 급 담 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 군·구 직권결정(선정사유서 작성)</li> <li>○ (저소득층) 자치구·동주민센터 급여지급 담당 등은 장제급여 대상 확인 신청접수 등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증명서(가족유무 파악) 및 행복e음 시스템(수급자 선정 초기상담내용 등)을 통한 대상선정 적정성 확인</li> </ul> </li> </ul> ※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
지원대상자 결정	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 군·구 직권결정</li> <li>○ (저소득층) 장제급여대상이고,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의 경우 지원 결정(1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구 직권결정 가능</li> </ul> </li> </ul>
↓	↓	↓
결 정 통 보	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 군·구 → 장례식장</li> <li>○ (저소득층) 신청인에 결정 즉시 통보</li> </ul>
↓	↓	↓
예약등 장 례 준 비	신청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 군·구-장례식장에 공영장례 진행 요청</li> <li>○ (저소득층) 연고자 등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례의식 시간·빈소, 화장 일시·장소</li> <li>- 고인에 대한 정보(종교 등)</li> </ul> </li> </ul>
↓	↓	↓
장 례 서 비 스 행 거	장례식장 신청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 빈소마련, 제례상차림, 추모의식 등</li> <li>○ (저소득층) 빈소마련, 제례상차림, 추모의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등이 장례의식 수행 불가시 장례지도사 등을 통해 수행</li> </ul> </li> </ul>
↓	↓	↓
비 용 청 구	군·구 무 연 고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 장례식장 → 군·구 무연고담당자</li> <li>○ (저소득층) 연고자 등 → 군·구 무연고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소사용료, 제례상차림, 식사비 등</li> </ul> </li> </ul>
↓	↓	↓
정 산	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구 → 市(다음년도 1월까지)</li> </ul>

자료: 인천광역시(2023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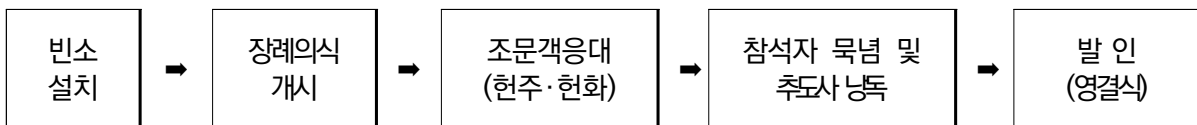
## ◆ 빈소 마련

- 군구 담당자 및 유가족이 빈소 사용을 신청하면 군구에서 장례식장과 일정 등에 협의를 진행함
  - 지인 및 일반인 추모 거절 장례식장은 공영장례 장례식장에서 배제함
- 2021년 7월부터는 인천가족공원 공영장례실(별빛당 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군·구에서 공문을 요청하면 인천가족공원에서 접수한 후 빈소실 마련

## ◆ 장례의식

- 장례의식 준비(빈소설치, 상차림 등)
  - 연고자, 지인 및 시민 참여 가능하도록하며, 장례서비스업체 요청시 11시에 이후 화장  
을 예약하도록 협조함
- 장례의식 시행 및 조문객 응대(2~4시간 이내)
  - 동일 일자 무연고 사망자가 다수 건일때 공동추모 방식으로 진행함
  - 고인 종교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각 종교별 장례방식에 따른 진행 가능함
  - 형식적인 장례의식이 되지 않도록 군·구 담당자 가능한 입회함
    - 위패(영정)는 장례절차(봉안 등)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운구, 화장 후 안치까지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주의함
- 공영장례가 끝난 후 화장한 후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에 5년 동안 안치되고, 5년이 지나면  
합동으로 안장됨

[표 6-3] 공영장례 장례의식 절차



## 3) 추진 실적(2021~2023)

### ◆ 지원 인원 및 금액

-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개월간 99명,  
2022년에는 281명, 2023년 4개월간 134명으로, 1년 기준으로 보면<sup>3)</sup>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198명 → 2022년 281명 → 2023년 402명
- 1인당 평균 지원액은 551천원에서 591천원 사이로 큰 변화는 없었음

3) 2021년 실적(6개월)×2, 2023년 실적(4개월)×3

[표 6-4] 인천시 공영장레 실적(2021-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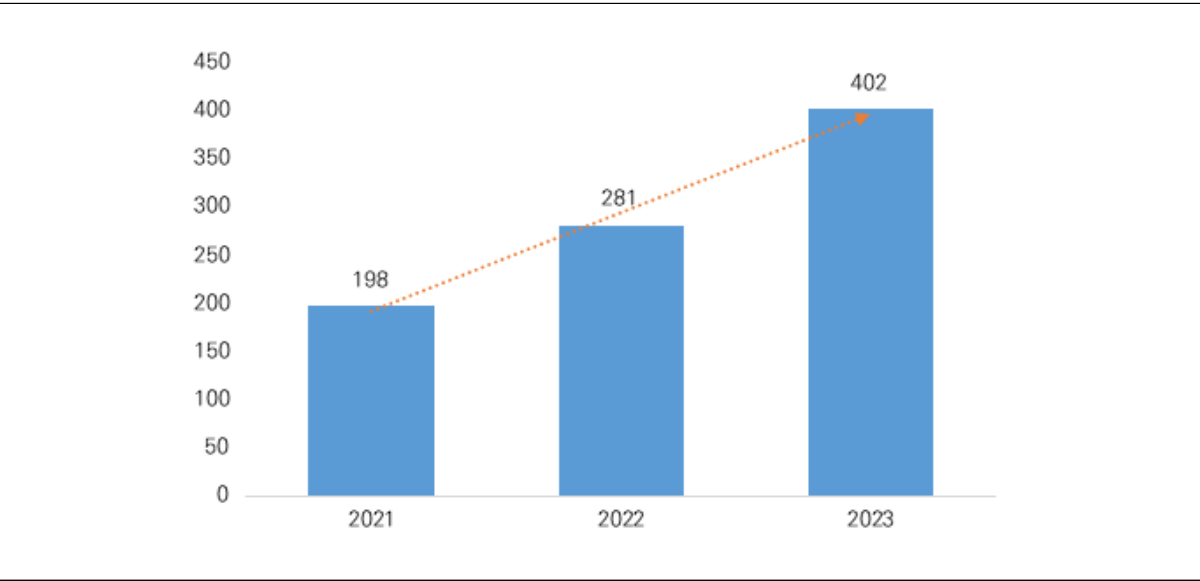
(단위: 명, 천원)

군·구	2021.7~12		2022		2023.1~4	
	지원(명)	지원액	지원(명)	지원액	지원(명)	지원액
중구	8	4,264	37	25,791	17	11,818
동구	5	3,171	15	9,254	5	3,535
미추홀구	17	13,150	56	41,799	30	17,702
연수구	8	4,978	13	8,384	4	2,295
남동구	28	11,300	57	19,950	19	6,650
부평구	8	2,400	30	9,975	19	6,232
계양구	12	8,727	29	23,200	15	11,490
서구	11	5,083	40	24,894	24	17,632
강화군	2	1,530	3	2,256	-	-
옹진군	-	-	1	800	1	800
총 계	99	54,603	281	166,303	134	78,154
	551.5		591.8		583.2	

자료: 인천광역시(2023c)

[그림 6-3] 인천시 공영장레 지원 인원수(2021-202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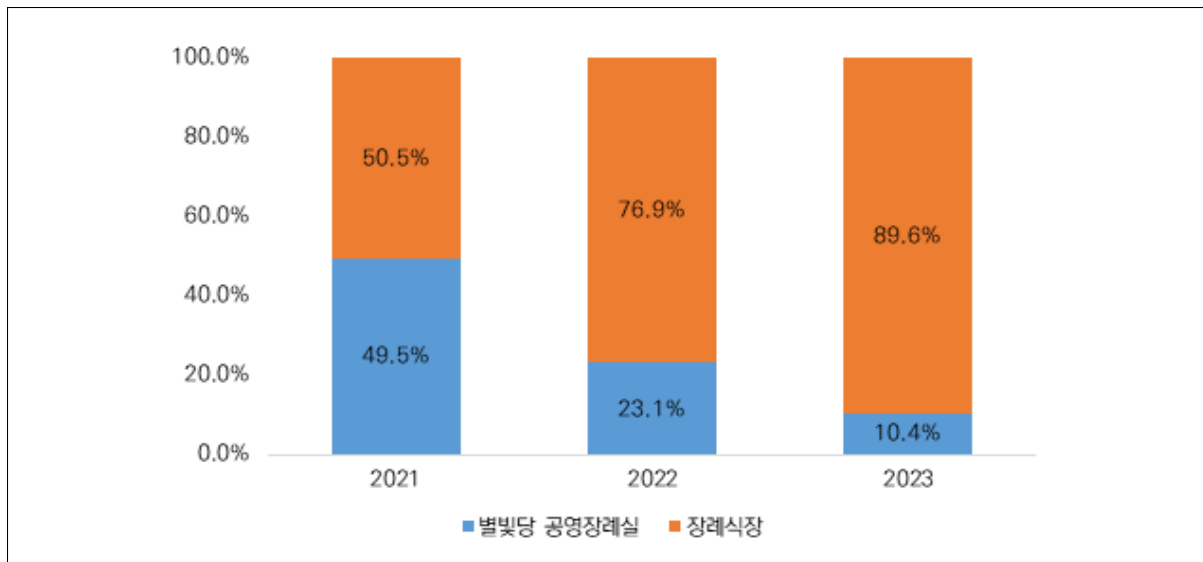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2023c)

○ 예산: 시비 50%, 군·구비 50%

## ◆ 공영장례 장소

- 2021년 7월부터 인천가족공원 내 별빛당에 제례실을 설치하여 공영장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였음
- 3년간 공영장례 장소 비중을 살펴본 결과([그림 6-4 참조]), 2021년에는 절반 정도는 공영제례실을 이용하였으나 갈수록 감소하여 2023년에는 약 10%의 이용률을 보임

[그림 6-4] 인천시 공영장례 장소 비중(2021-2023)



자료: 인천광역시(2023c)

## 4) 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군·구에서 공영장례 추진시 어려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조사 대상: 인천시 10개 군·구 공영장례 담당자
- 조사 방법: 서면 조사
- 조사 기간: 2023년 5월

### (2) 조사 결과

-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류한 결과([표 6-5] 참조), 현재 공영장례의 문제점으로 매뉴얼 부재, 복잡한 절차,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입회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인천시 공영장례지원센터 등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대상자 증대 및 충실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예산 및 1인당 예산 확대를 제안함

[표 6-5] 공영장례 군·구 담당자 의견

항 목		세부 내용
문제점	매뉴얼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 수행 매뉴얼 부재로 구/장례식장마다 공영장례식 절차 다름</li> <li>무연고사망자 연고자 확정절차(우편발송, 공고 14일) 등 안치기간에 대한 상세 지침 필요</li> </ul>
	절차의 복잡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빛당 공영장례실 이용 전화예약(통화) 어려움</li> <li>지급절차 간소화할 필요: 실비 아닌 정액 지급</li> </ul>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차림 음식물 상태불량, 군담당과 협의없이 장례진행</li> </ul>
	담당자 입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공영장례로 담당자 입회·참관 어려움</li> </ul>
개선방안	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공영장례지원센터 운영 요청(안정적 공영장례 지원)</li> <li>인천가족공원 내 공영장례 상담센터 설치</li> <li>시 장례지원통합서비스 홈페이지 구축(공영장례 일정 게시 등)</li> </ul>
	예산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연고사망자 증가로 예산 증액 필요</li> <li>대상자 중 시신인수 포기 대상자(수급자 약 80%)가 늘고 있어 예산 증액 필요</li> <li>충실한 공영장례(빈소사용시간, 음식제공, 장례물품)를 위해선 1인당 지원예산 증액(1인 100만원 이상) 필요</li> <li>지인 및 주민참석을 위한 빈소시간(1일)을 늘리기 위해 1인당 공영장례비(100만원 이상) 증액 요청</li> </ul>

자료: 인천광역시(2023c)

### 3. 타 시도 사례

#### (1)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표 6-6]과 같으며, 2018년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함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현재 1개 특별시, 4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 2개 특별자치도, 4개 도에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함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2023년 5월에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으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음
    - 강원도는 2022년 12월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6-6]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시·도명	조례명	제정 일자
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2018. 03. 22.
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0. 03. 3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2. 02. 2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2021. 09. 2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2021. 12. 29.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4. 15.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2. 12.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19. 12. 31.
도	경기도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0. 03. 16.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4. 01.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18. 10. 04.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021. 08. 05.

주: 조례 일자는 조례 최초 제정 일자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 각 시·도는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음([표 6-7] 참조)
-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해당 시·도 내에서 사망한 자 혹은 사망 당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등 중 ① 무연고 사망자 ②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연고자의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부족 등) ③ 고독사 ④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임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대부분 시·도는 사망 당시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무연고자, 연고자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등까지 공영장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

[표 6-7]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의 지원대상

시·도명 (조례명)	지원대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갖춘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시 내에서 사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근거)</li> </ul>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li> <li>•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근거)</li> </ul>
	※ 기타 추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li> <li>•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li> <li>•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근거)</li> <li>• 본 조례 제2조제3호(“무연고자”)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li> <li>• 그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본 조례 제2조제2호 근거)</li> <li>•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제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본 조례 제2조제3호 근거)</li> <li>• 그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li> </ul>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류정리 지원 조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사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근거)</li> <li>• 고독사로서 구청장·군수 등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3호 근거)</li> <li>• 그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시 내에서 사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본 조례 제2조제2호 근거)</li> <li>•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본 조례 제2조제3호 근거)</li> <li>• 그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근거)</li> <li>•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제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li> <li>•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li> </ul>
	※ 기타 추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ul>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자</li> <li>•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의 사람인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li> <li>• 그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ul>

시·도명 (조례명)	지원대상	
	필수조건	필수조건 갖춘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근거)</li> <li>•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li> <li>• 그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경기도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고독사로서 시장·군수·마을공동체·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경기도 독거·취약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2조제3호 근거)</li> <li>• 그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li> </ul>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li> <li>• 그밖에 시장·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근거)</li> <li>• 고독사로서 시장·군수·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전라남도 독거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사회적 가족 구현 조례」 제2조제3호 근거)</li> <li>• 그밖에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li> </ul>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연고사망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근거)</li> <li>•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사망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li> <li>• 고독사로서 시장·군수·마을공동체·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근거)</li> <li>• 그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 각 시·도는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통해 공영장례 지원방법 및 내용 또한 규정하고 있음
- 공영장례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함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 현금지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연성 있는 공영장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모든 시·도의 공영장례 관련 조례에서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을 밝힘
- 지원한도의 경우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로 공영장례 지원한도를 정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

[표 6-8]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의 지원방법

시·도명 (조례명)	지원방법			
	지원원칙			지원한도
	현물지원	현금지원	명시X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 예산범위 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			• 예산범위 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 예산범위 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경기도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 예산범위 내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예산범위 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 시·도별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표 6-9]와 같이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원하거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공영장례 지원이 이루어짐
- 기타 지원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의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공영장례 지원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가능’, 울산광역시의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능’ 등이 있음

[표 6-9] 시·도별 공영장례 관련 조례의 지원내용

시·도명 (조례명)	지원내용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인력, 물품, 장소, 차량, 서비스 등)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 지원	기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장례 지원 시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 가능</li> <li>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 개방가능</li> </ul>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li> </ul>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	
경기도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경상남도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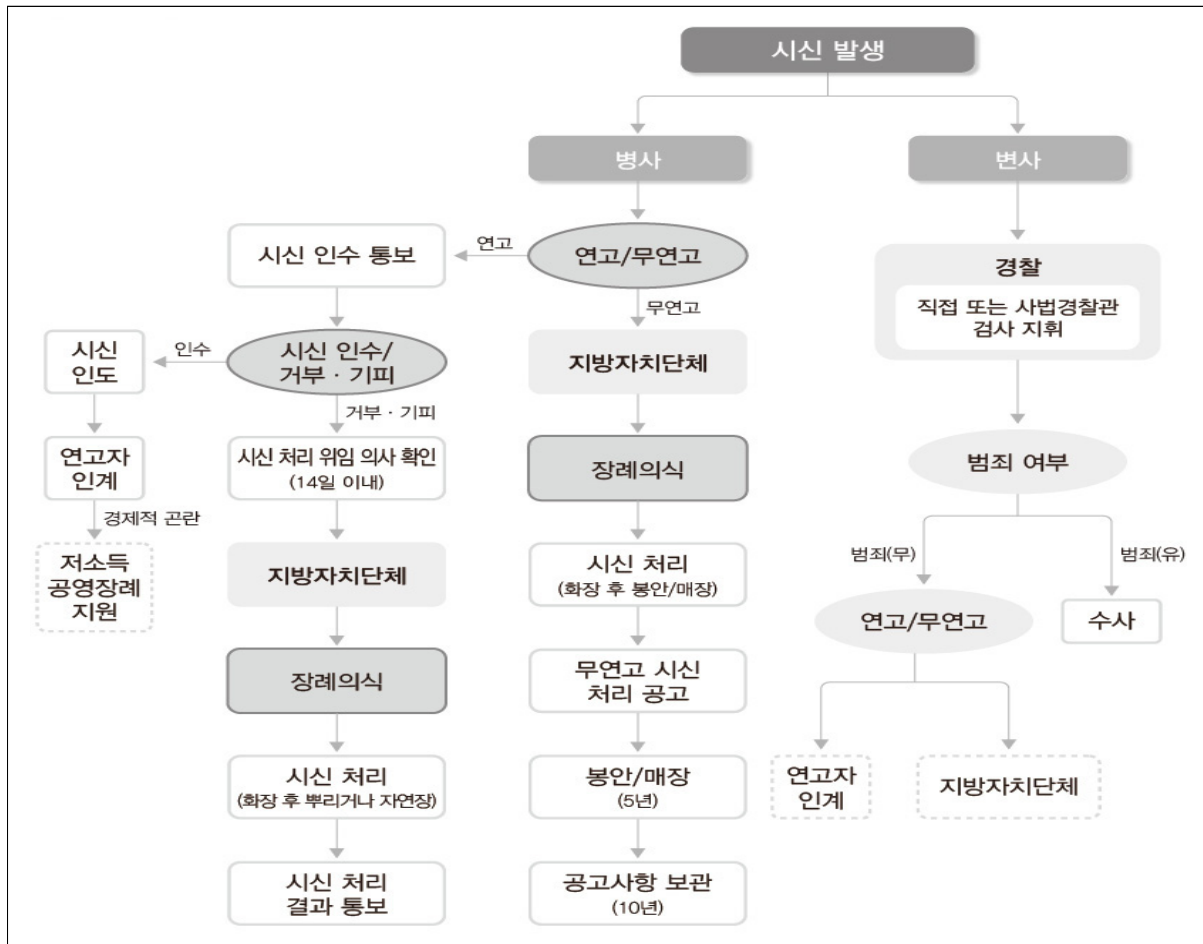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 1) 보건복지부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 (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 보건복지부는 「2022 장사(葬事)업무안내」를 통해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을 제시함
- 이를 통해 무연고 시신 혹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에 대해 시장 등은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장례서비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의미하며, 각 지자체가 관내 장사시설, 자원 등을 활용해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제시함

[그림 6-5] 시신 발생 시 업무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22a)

- 보건복지부가 「2022 장사(葬事)업무안내」를 통해 제시한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 수행 방식,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 ◆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 혹은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함

## ◆ 지원 내용(예시)

- 장례식장 빈소 또는 제례실의 마련
  - 공설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
  - 공설 장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 및 관내 장례식장 등과의 협약추진
- 장례의식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역할별 확보
  - 인적 자원은 추모의식 주관자, 상주, 행사인력 등을 의미
  - 역할은 장례의식 준비, 시신 운구, 장례의식 시행, 조문객 응대, 현장 정리 등을 의미
  - 관내 종교기관, 복지기관, (노인)자원봉사, 지역 내 주민자치협의회, 통반장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당번제 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적 자원(근조바구니, 위패, 제사상, 병풍, 향·초·국화 등)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기부 및 민간자원 등과 연계
- 장례 일수 및 장례 진행 세부 절차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지자체별로 유형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원

##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지정

- 보건복지부는 「2022 장사(葬事)업무안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지정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음
-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지정은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의 장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장례주관자는 장례의식 진행, 장사방법 및 장사시설 결정, 사후 장례결과 지자체 보고 등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자임
-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주관자를 지정하거나, 개인적 친분 또는 사회적 연대활동 등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장례주관자가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림 6-6]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처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비 고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작성·관계증빙 서류 제출 - 방문, 메일, 우편 등</li> </ul>	서식 5
↓		
심의 및 결정(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및 관계 증빙서류 등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li> <li>심의 등을 통해 장례주관자 결정 통보</li> </ul>	
↓		
장례 수행(신청자) 및 장례 지원(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망자의 생전 의사 존중하여 장례절차 진행</li> <li>사망신고 등 행정적 지원,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 예산 범위 내 장례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음</li> </ul>	
↓		
사후 보고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화장 및 안치 증빙서류 등 구비)</li> <li>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 사용내역 제출</li> </ul>	
↓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대장에 신고내용 기재하고, 10년 보관</li> </ul>	서식 6

자료: 보건복지부(2022a)

## (2) 별빛버스 운영사업

-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을 위해 ‘별빛버스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추모버스로서, 조문객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할 수 있는 저온 안치공간, 간이빈소를 갖춘 버스임
- 별빛버스 운영사업의 추진목적, 추진 경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 추진목적

-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 따라서 별빛버스 운영사업을 통한 무연고 사망자의 지자체별 편차 없는 존엄한 장례의식 지원으로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공영장례 지원사업 준비에 착수함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위탁사업의 형태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인 ‘별빛버스 운영사업’을 시작함(2022. 0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
  -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이 기증한 별빛버스를 활용하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수행함

##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 발생 빈도가 낮고, 추모예식 없이 곧바로 시신을 화장 후 봉안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우선 지원
- 발생 빈도와 자체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및 도서지역인 제주를 제외

##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낮고, 사업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순회하며 장례지원을 수행
- 공영장례 모델 및 표준안 제공
-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제공
- 화장시설 이동부터 유골 보관 단계까지의 장례예식 지원
-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 예식은 공설화장시설 분향실에서 진행하되, 분향실 이용이 어려울 시 추모버스(별빛버스) 내에 간이빈소 활용

## 신청절차

- 무연고 사망자(추정) 발생 → 연고자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확정 → 공영장례 상담 (02-6930-9343) → 공영장례 지원요청(공문신청) → 공영장례 지원(장사지원센터)

[그림 6-7] 별빛버스 외부 및 내부모습



자료: 보건복지부(2022).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기념식 개최(9.14)

## 2)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는 2018. 03. 2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9. 03. 06. ‘(사)나눔과나눔’과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시작함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2018. 03. 22.)
- 저소득시민 장례지원 2018년 실행계획 수립(2018. 05. 17.)

-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비스 운영 개선 19년 계획(2018. 12. 14.)
- ‘(사)나눔과나눔’과 원스톱 통합 콜상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차)  
(2019. 03. 06.)
  - 기간 : 2019. 03. 01. ~ 2022. 02. 28. (3년)
- 공영장례 상담을 위한 전용 대표 전화번호 “1668-3412” 개설(2019. 03. 11.)
  - “3412” 의미 : “삶과 죽음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라는 고인(故人)에 대한 존엄성 제고 의미
- 2020년 무연고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2020. 02. 17.)
- 2020년 공영장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2020. 09. 11.)
- 2021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수립 (2021. 02. 01.)
- ‘(사)나눔과나눔’과 공영장례 지원 상담센터 업무협약(MOU) 연장 체결(2차)
  - 기간: 2022. 03. 01. ~ 2027. 02. 28. (5년)

##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
- 저소득 시민(연고자 있음)
  - 사망자가 장제급여 대상자이며,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
-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장례식장 빈소 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등
  - 전용 빈소(시립승화원 2층 유족대기실 옆 별도 제례실) 제공
  - 일반 장례식장 빈소 대여비 지원(저소득 시민의 경우)
    - 고인모심 처리가 사전 협의된 민간 장례식장의 빈소 예약 및 1인 최대 923,000원 비용 지원

- 제물상 마련 등 장례의식 지원
    - 장례식 프로그램 개발 및 제물상차림 등 지원, 민·관협력으로 진행
  - 공영장례 인력을 통한 고인모심(염습 및 입관) 지원
-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 최대 15일, 1일 60,000원(시·구 각 50%씩 지원)

[표 6-10]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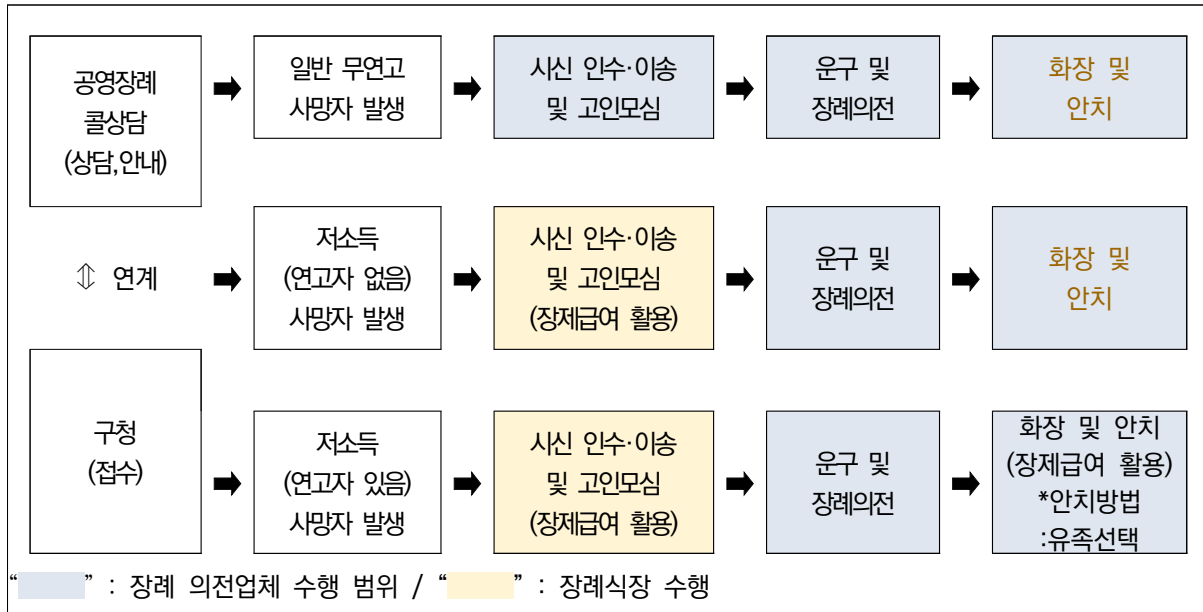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수행방법(대행업체)
무연고 사망자 (일반 및 저소득)	시신처리(고인모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무연고) 서울시설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에서 실시</li> <li>• (저소득 무연고) 장제급여 통해 장례식장에서 실시 ※ 장례식장 거부 시, 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에서 실시</li> </ul>
	장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례 의전업체 + (사)나눔과나눔(서울시 업무협약기관) 공동수행</li> <li>• 승화원 전용 빈소에서 장례의식 수행</li> </ul>
	안치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무연고) 장제급여 비대상자로, 협약 장례식장 여부 관계없이 서울시 관내·관외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가능</li> <li>• (저소득 무연고) 장제급여 대상자로, 서울시 관내·관외 협약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li> </ul>
저소득 시민 (연고자 있음)	시신처리(고인모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제급여 통해 장례식장에서 실시 ※ 장례식장 거부 시, 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에서 실시</li> </ul>
	장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례 의전업체 + (사)나눔과나눔(서울시 업무협약기관) 공동수행</li> <li>• 유족의 선택에 따라 일반장례식장 또는 승화원 전용 빈소에서 장례의식</li> </ul>
	안치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제급여 대상자로, 협약 장례식장 여부 관계없이 서울시 관내·관외 장례식장 안치료 지급 가능</li> </ul>

자료: 서울특별시(2023)

## 수행 및 업무흐름도

-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그림 6-8]과 같이 공영장례 콜상담 및 구청의 접수로 파악된 사망자에 대해 시신 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의 순서로 공영장례를 진행함
- 장례 의전업체 및 협약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공영장례를 수행하며, 장례 의전업체는 일반경쟁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을 위탁함
  - 장례 의전업체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인수·이송 및 고인모심,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를 비롯하여, 저소득 사망자(연고자 없음·있음 모두 포함)에 대한 운구 및 장례의전, 화장 및 안치를 수행함
  - 장례식장은 저소득 사망자(연고자 없음·있음 모두 포함)에 대한 시신 인수·이송 및 고인모심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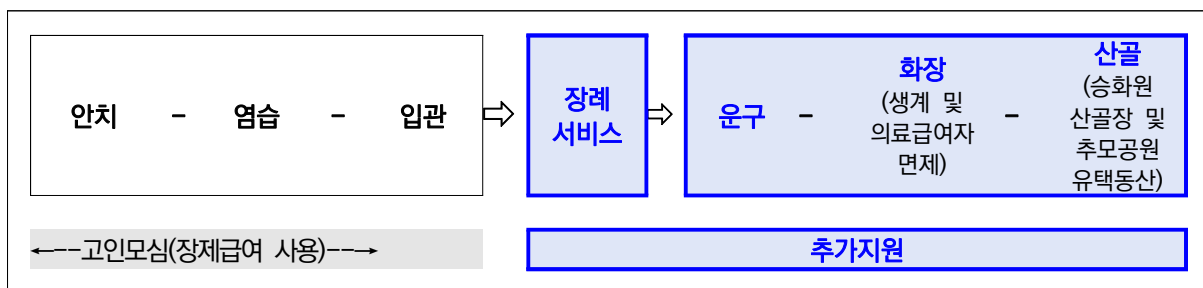
[그림 6-8]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수행 흐름도



자료: 서울특별시(2023)

- 장제급여 대상자인 저소득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시행함
  - 시신 인수·이송, 안치, 염습, 입관 시 장제급여를 활용함
  - 장제급여 등을 활용하여 장례를 진행하되,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방식임
  -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장례식장의 빈소사용 시간(3시간 또는 24시간 중 택일) 및 안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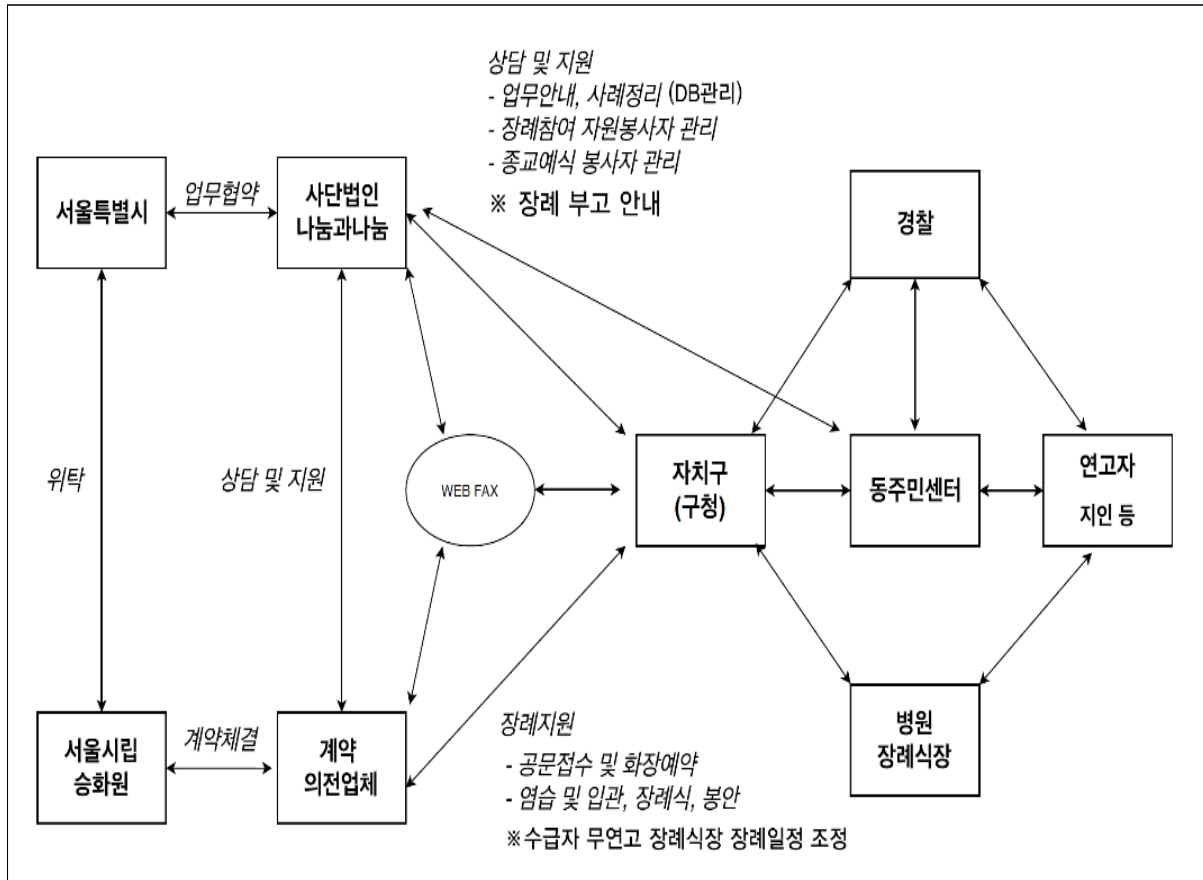
[그림 6-9]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과 장제급여와의 연계



자료: 서울특별시(2022)

-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은 서울시립승화원, (사)나눔과나눔, 장례 의전업체(계약 의전업체), 협약 장례식장 등이며 기관별 업무흐름도를 살펴보면 [그림 6-10]과 같음

[그림 6-10] 서울특별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기관별 업무흐름도



자료: 서울특별시(2023)

### 3) 부산광역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또한 2021. 12. 29.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추진경과,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 추진경과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2021. 12. 29.)
- 부산 영락공원에 공영장례 전용빈소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 마련(2022. 06. 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과가 가족장의서비스(장의업체)와 연계하여 사하구에 거주 하던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A씨(87세)를 부산 1호 공영장례 대상자로 선정 및 장례 진행, 영락공원 내에 빈소 마련(2022. 07. 29.)

[그림 6-11]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 전경 및 공영장례 모습



자료: 부산광역시(2022)

## ◆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만으로 구성된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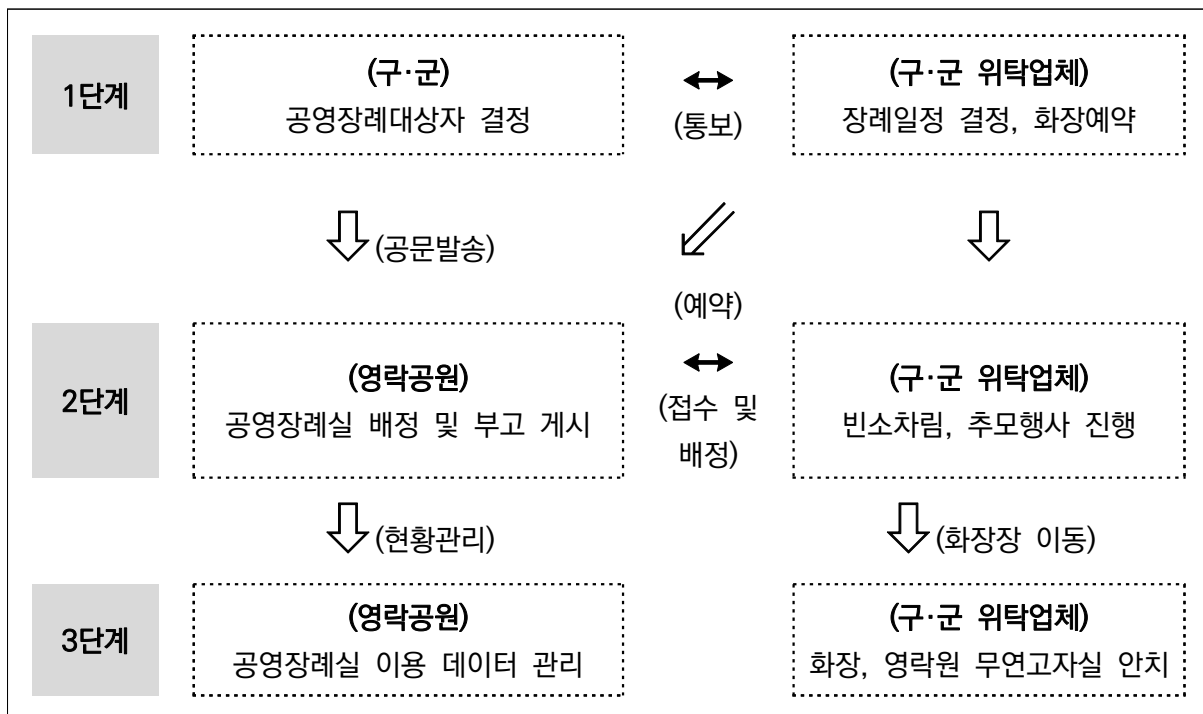
## ◆ 지원 내용

- 구·군별 장제처리 위탁업체 등을 통해 염습 및 운구 등 시신처리 업무 수행
  - 장제급여 또는 무연고 시신처리비 80만 원 예산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군에서 담당
- 무연고자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는 장례식장, 화장, 봉안 비용을 의미함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 수행 흐름도

- 부산광역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그림 6-12]와 같이 3단계의 공영장례 수행과정을 거침
- 1단계(공영장례 대상자 발생)
  - (구·군) 영락공원에 공영장례 협조 공문 발송
  - (구·군 위탁업체) 화장예약(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후 공영장례실 유선 신청
- 2단계(공영장례실 이용)
  -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배정 등 일정 조율, 홈페이지 등 부고 게시
  - (구·군 위탁업체) 화장 일정에 맞춘 공영장례실 이용
    - 화장 일자별 오전(7시~12시), 오후(12시~16시)로 구분 운영
    - 다수 이용 시 공동추모 또는 사용 시간 구·군 위탁업체 간 자체 조율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일반 빈소 사용 가능
    - 제단조화장식은 장례비용 예산지원 전까지 비치
- 3단계(공영장례 화장, 봉안)
  - (구·군 위탁업체) 고인 화장장 운구 및 화장, 무연고자실 안치
  - (영락공원) 증명서 발급, 공영장례 이용자 데이터 관리

[그림 6-12] 부산광역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 수행 흐름도



자료: 부산광역시(2022)

#### 4) 요약 및 시사점

- 서울시가 장례의전업체와 계약하여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인천시와 부산시는 군·구에서 장례업체와 위탁하여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 인천시는 공영장례 지원 금액이 80만 원으로 타 시도의 조례분석 결과 ‘장제급여 200% 범위 내’로 지정한 가장 많았으므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수행하여 초기 단계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으며, 군·구 계약업체 수행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함

### 4. 인천시 공영장례 발전 방안

#### 1) 공영장례 매뉴얼 마련 필요

- 인천시 군·구 공영장례 담당자 의견으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확정절차, 안치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서울시 사례처럼, 시신 발생→연고자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확정→장례의식→시신처리 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군·구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음

#### 2) 공영장례 상담센터 운영

- 군·구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현재 공영장례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 공영장례 상담센터를 통해서 군·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공영장례-그리다’ 통합 콜 상담(1668-3412)을 개설하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장례 관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례처리 절차나 무연고 사망자 접수 등의 업무를 통합·운영함
- 인천시도 공영장례관련 절차 안내 및 접수 담당할 수 있는 기관 필요하며, 미추홀콜센터 활용 및 인천가족공원 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3) 절차 개선 방안

#### (1) 빈소사용 시간 확대

- 현재 인천시에서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모두에게 장례의식 시행 및 조문객 응대를 2~4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고인을 위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되기 어려움
- 특히 연고자가 시신을 거부해서 수행하게 되는 저소득층 공영장례는 유족이 충분히 애도하고 방문객을 맞이할 기간이 필요함
- 서울시는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빈소사용 시간을 “3시간 또는 24시간”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뜻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저소득층 공영장례에 대해서는 유족의 선택사항으로 최대 하루까지 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2) 공영장례 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인천시는 군·구 위탁업체에서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장점도 있지만, 장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
  - 군·구 담당자의 의견 조사 결과 상차림 음식물 상태불량, 군담당과 협의없이 장례진행 되는 경우가 있음이 보고됨
  - 또한, 일부 업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을 장례식장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기도 함(변민철, 2023)
- 공영장례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천시 공영장례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통해서 수행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서 인천시 공영장례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영장례 서비스 중에 문제가 생긴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를 통해서 향후 공영장례 장례식장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4) 지원 금액의 현실화 및 재원의 다각화

- 인천시는 공영장례 금액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군·구 담당자들은 금액에 대한 부족 의견을 제시함. 선행연구에서도 공영장례 급여수준이 평균 장례비용보다 현저히 낮음이 지적됨(윤강인 외, 2021)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5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가구당 평균 장례 비용으로 화장의 경우 1,328만원, 매장은 1,558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공영장례 비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정엽, 2017)
- 또한, 서울시에서 장례비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례용품 거품과 허례허식 관행을 제거한 실속형 장례서비스로 제시한 “서울시 착한장례서비스”는 600만원으로 공영 장례 비용과도 큰 차이가 있음(최민아, 2015)
  - 조문객 식사비용은 200명 기준으로 240만원, 장의용품 대여료 173만원, 장례식장 사용료 91만원, 봉안비용은 자연장 기준으로 60만원, 장례차량 이용료 30만원 등이며 선택사항에 따라 이용료는 달라짐
- 따라서 공영장례 비용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시비 및 군·구비 뿐만 아니라 기부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후원금과 함께 자원봉사 등과 같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 5) 사전 예방 및 준비 필요

### (1) 고독사 예방

-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의 무연고사망자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시원·쪽방·여관 등 비주거지에서 생활했던 노숙인이 약 45% 정도로 나타나 주거문제 해결이 무연고 사망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박진옥, 2019)
- 인천시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독거노인 중 소득·건강·주거 등에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욕구별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 내의 자원(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등)을 활용하여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윤강인 외, 2021)

### (2) 고독사 위험 계층에 대한 죽음 준비 안내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도 언급된 ‘사전장례의향서’를 공영장례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대상자가 생존해있을 때 자신의 사후문제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및 사후 고립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윤강인 외, 2018)

- 또한,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일정이 불필요하게 연기되거나 장례의식이 지나치게 간소화되는 등 사망자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윤강인 외, 2021)
- 따라서 고독사 위험 계층에 대해서 사전장례의향서를 통해서 사후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사망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의를 갖추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

## 6) 사회적인 애도

- 공영장례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장례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써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애도가 필요함
  - 사회적 애도란, “사회적 죽음에 대해 사회가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함께 슬퍼하며 사회적 상실로 인정하는 의례를 포함한 공식적 행위를 의미함”(김석, 2014)
- 하지만, 현재 공영장례는 사회적인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혈연의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증언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례의 절차를 통해 죽은 이에게 충실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와 실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비대면 추모기능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두어 장례지원 소요 발생 시 장례추진위원회를 관할 읍면동 지역단체 소속 구성원들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사회 단체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에게는 공영장례 조례를 알리고, 행정기관에는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함

### 비대면 추모기능 활용

- 장례식장이 갖고 있는 추모의 기능을 IT 기술을 접목하여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장례식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망자가 이용하던 복지관 등에서 온라인 추모서비스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추모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웃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추모할 수 있을 것임(윤강인 외, 2021)

## 제7장 인천시 장사시설 발전 방안

1. 비전 및 정책 목표
2. 인천시 장사정책 과제
3. 인천시 장사시설 발전을 위한 제언
4. 인천시 주요 장사정책 로드맵





# 제7장 인천시 장사시설 발전 방안

## 1. 비전 및 정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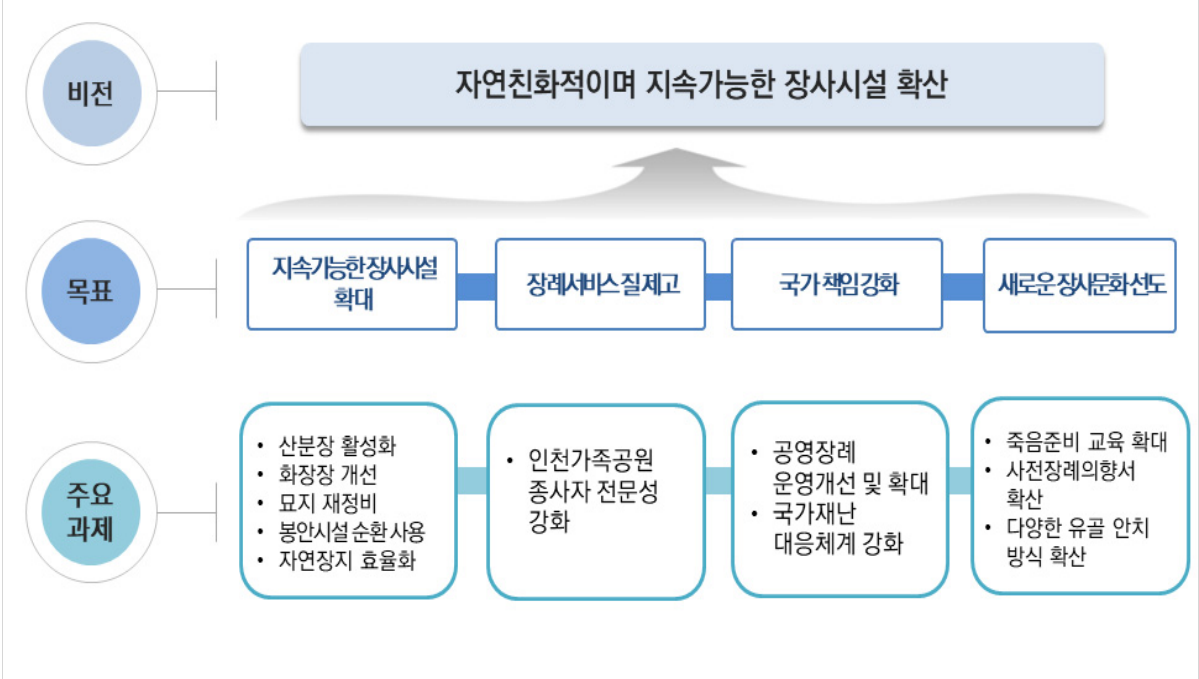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비전 및 목표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계획의 비전은 ‘장사정책 공적 책임 강화,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장사시설 공급 및 관리’ ‘재난 대응 등 국가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함
- 주요 과제로는 1) 지속 가능한 장사시설, 2) 장사서비스 질 제고, 3) 국가 책임 강화, 4)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를 제시함

### 인천시 장사정책 비전 및 목표(2023-2023)

- 인천시 장사정책은 중앙정부의 장사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천시 장사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국가의 장사정책 방향과 일치해야 함
- 따라서 아래 [그림7-1]과 같이 비전과 목표를 보건복지부 제3차 수급계획과 유사한 맥락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과제는 인천시의 특성에 맞게 제시함. 다음 절에서 과제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그림 7-1] 인천시 장사정책 비전 및 목표(2023-2027)



## 2. 인천시 장사정책 과제

### 1)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대

#### (1) 산분장 활성화

##### 필요성 및 여건

##### ① 산분장에 대한 인천시민 인식

- 인천시민 대상 화장 후 유골 안치 방법으로 산분장에 대한 선호가 2013년, 2018년 대비 증가하였고, 산분장 중에서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분장에 대한 선호 10.8%(2013년)→14.8%(2018년)→28.3%(2023년)로 증가 추세
  - 선호하는 산분 장소로 바다가 46%로 가장 높으며, 산림(28%), 강(14%) 순이었음
- 또한, 인천시 장사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에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형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산분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② 산분장의 친환경·지속가능성

- 산분장은 유족 및 장사시설 관계자 등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유골 안치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장사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김윤영 외, 2018)
- 특히, 해양장은 자연장과 함께 유골을 자연으로 환원하는 ‘친자연적 장사방법’이며, 시설 건립과정 상 자연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봉안시설 등과 달리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③ 인천시의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

- 인천시는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장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양장이 시행되고 있어 해양장 해역, 해양장 방법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김윤영 외, 2018)

##### 추진 현황

##### ① 인천가족공원 내 산골장소(유택동산) 현황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옆에 유택동산이 마련되어 있으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소규모 공간에 마련되어 있어 인천가족공원 이용객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 않음

- 주로 화장 후 유골 안치방법 중 하나인 산분장소보다는 무연고 유골이나 관리가 어려운 유골을 뿌리는 유골 ‘처리’장소로서의 기능이 강함
- 따라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단지형 유택동산에서 벗어나 고인에 대한 예의를 표할 수 있는 품격있는 산분장소로의 전환이 필요함

## ② 인천 해양장 현황

- 인천은 전국 해양장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강준완, 2021)
  - 수도권에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례 전용 선박을 보유한 해양장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임
  - 인천은 연안부두 인근 앞바다에서 드론과 선박을 이용해 이뤄짐(이지용, 2021)
    - 고인의 골분을 부표가 있는 바다의 특정 영역에 뿌림
- 인천 앞 바다의 해양장 수요는 지난 2019년 3천여 건, 2020년 4천 건에 이어 2021년에는 5천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이지용, 2021)

## 산분장 활성화 방안

### ① 산분장의 제도화

-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자연장 등은 규정돼 있지만 바다나 산, 강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합법도 불법이 아닌 상태임
- 따라서 산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분 수목장림, 해양장 등 산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산분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법률 개정예 따라 산분장소 설치 및 산분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

### ② 인천가족공원 기존 시설을 활용한 산분 방식 대안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에서 화장시설·봉안시설 내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일명 유택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친자연적 공유형 산분섹터 조성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 인천가족공원에서는 봉안시설 활용 방식과 유택동산 고품격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 대안 1: 봉안당 중정에 고품격 유택동산 설치

- 아래 [그림 7-2]와 같이 만월당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고품격 유택동산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하에 설치하는 공간의 바닥은 토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하며, 지하 광중에 골분이 차면 지상 시설물을 폐쇄하고 보존하도록 함
- 또한, 조각품을 갖추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이 추모할 수 있는 품격있는 산분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료로 고인 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그림 7-2]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활용한 산분섹터 조성(안)



## ■ 대안 2: 산골 전용 구역 조성

- 인천가족공원 내에 있는 잔디 및 능선 등을 활용하여 산골 전용 구역을 다양하게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용기 없이 흙 속에 산골하고 바로 복구하여 지면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매골(埋骨)’ 방식을 통해서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아래 [그림 7-3]과 같이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비아스 묘지 화장장 사례처럼 흙 속에 산골하는 방식이 있음

[그림 7-3] 산분장 매골 방식 사례: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비아스 묘지 화장장



자료: 한국장례문화진흥원(2021)

## ■ 대안 3: 유택동산의 고품격화

- 인천가족공원의 유택동산을 높은 수준의 공동추모비 혹은 조형물을 세워 품격을 높일 수 있음
- 스웨덴의 미네스룬드라는 산골장소는 인공 숲을 조성하거나 품위 있는 추모비를 중심으로 조각품, 수경시설, 수목, 잔디정원등을 갖춘
- 이를 참고하여 인천가족공원도 유택동산에 높은 수준의 추모비, 조형물, 추모 공간 등을 조성하여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산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분장 비용을 현실화하여 공간 조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산분에 대한 인식 역시 ‘버리는 것’이 아닌 ‘모시는 것’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인천가족공원의 유택동산의 관내 주민 이용료는 10,000원으로 울산시, 경기도(성남시, 용인시)와 유사한 수준임
  -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유택동산의 공간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그림 7-4] 스웨덴 미네스룬드 산골장소 사례



자료: 다비코(2018)

## ② 시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산분장 활성화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조사 결과 산분장 자신의 희망 장례 방법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산분장을 선택하는 이유로 ‘문화적 낯설음’의 응답 비율이 높아서 산분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송화원 이용객 조사 결과 산분장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문화적 낯설음’이 30.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산골장소 등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장, 산분 장소에 대한 견학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문화홍보관 및 장례문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세계의 장사 문화 변천, 진화하는 장사산업 소개, 우수한 산분장 홍보, 장례용품 및 다양한 장례서비스 소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골장소 등의 고품격화를 통해 산골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음

## ◆ 해양장 활성화 방안

### ①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2012년 유권해석을 통해 해양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투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해양장의 대중화에 기여함(김충현, 2021)

- 하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양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장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운영·관리방안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함(김윤영 외, 2018)
- 해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 「2018-2022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산분장 제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7년에 산분장 이용률 30% 목표로 세움

## ② 인천시 해양장 관련 기반 마련

-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며 인천시 차원에서 해양장의 양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추진해야 함
  - 예를 들어 해양장 관련 인천시 조례안 내용 검토, 해양장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문제점 및 발전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인천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해양장의 위치, 가격, 시설, 유의사항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해양장 활성화 사례: 홍콩

### ① 해양장에 대한 인식 개선

- 홍콩 앞바다에 산골을 한 유명한 사례로 전 중국의 최고지도였던 덩샤오핑의 사례가 있음. 1997년 3월 19일 사망한 덩샤오핑의 유언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홍콩 앞바다에 비행기로 뿌렸고 이는 해양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
- 또한, 해양장을 ‘Returning to Nature at the End of Life's Journey,’ ‘Returning to Nature What Nature Creates,’ ‘Burial at Sea a Loving Farewell,’ ‘A Final Act for the Environment’라는 슬로건으로 해양장을 적극 장려함

### ② 해양장 절차 간소화

- 해양장을 위해 장소 협의, 허가 신청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았으나, 2007년 7월부터 3곳의 산골 가능 해역을 미리 지정해두고 간단한 신청 절차를 밟아 산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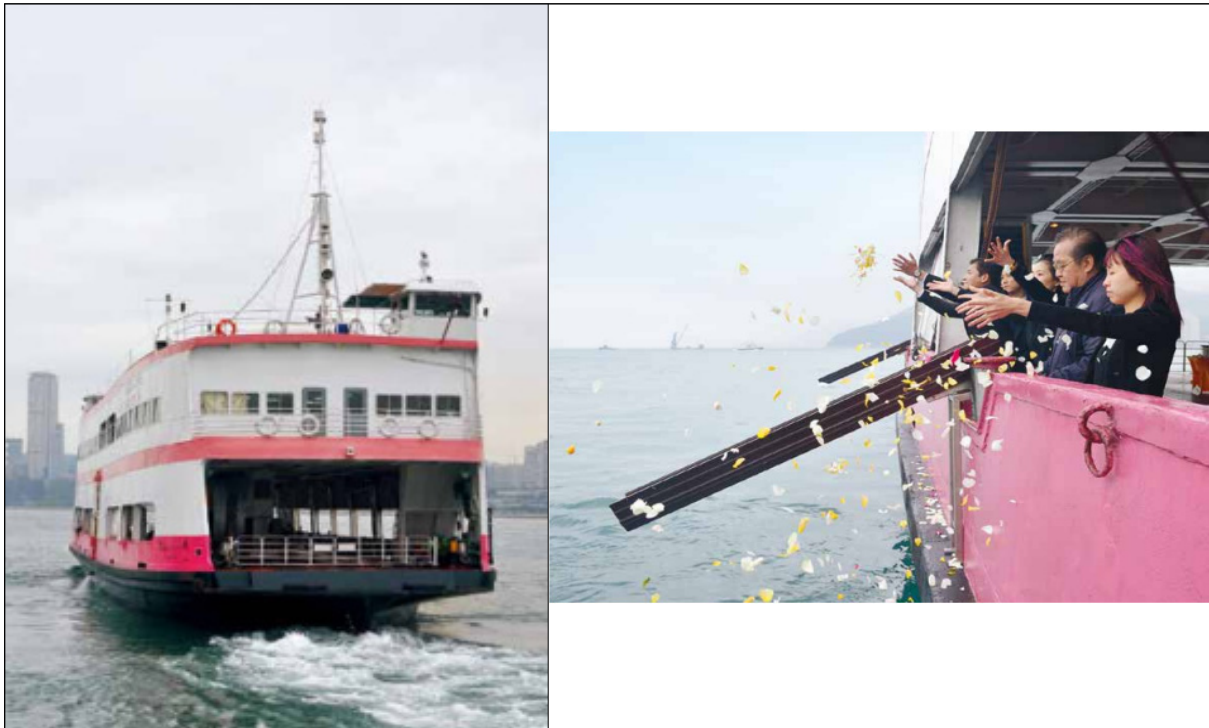
### ③ 무료 페리서비스 제공

- FEHD<sup>4)</sup>는 홍콩의 장사를 지원·관리하는 핵심 정부기관으로 2010년 1월 2일부터 바다에 산골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페리서비스를 시작함

4) 홍콩의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衛生署, th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 기존에는 NGO 및 민간 기업이 유료 페리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이에 해양장 장려를 위해 홍콩 행정당국에서 무료로 산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페리는 25명의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가족, 친척 및 친구 등을 포함하여 최대 10명과 함께 배를 탈 수 있음([그림 7-5] 참조)

[그림 7-5] 홍콩 해양장 페리



자료: Hong Kong FEHD(2023)

###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시 여건과 현황을 토대로 산분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5년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7-1]과 같음
- 인천가족공원 내 산분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2023 하반기에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에 산분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10월에 착공, 2026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택동산 고품격화를 위해 2026년에 인천가족공원 3-3단계에 기존 공간 리모델링 및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시민대상 산분장 교육은 2024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신청한 후에 2025년에 교육 및 콘텐츠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7-1] 인천시 산분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산분장 설치 활성화	• 3-2단계 조성 사업 설계 반영	• 산분장 조성공사 착공 ('24.10.~)		• 산분장 조성공사 준공(~'26. 4.)	
유택동산 고품격화 (기존공간 활용)				• 3-3단계 조성사업 반영('26.~'30.)	
시민대상 산분장 교육		• 사업계획 수립 ( '24 상반기) • 예산 신청('24. 하 반기)	•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사업 시행 ( '25 상반기) • 유관기관 협력 ( '25 하반기)		
			• 협약서 체결, 교육 시행 ('25 하반기~)		

## (2) 화장장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① 화장로 높은 가동률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의 1일 화장 건수 72건으로 화장로 1로 당 1일 3.6건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적정 수준(1로 당 1일 3.5구 내외) 범위 내임
- 하지만 일본의 화장장 설계기준은 화장로 1로당 1일 2구 이내의 화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비하면 화장로의 가동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화장시설의 높은 가동률은 유족들이 화장시설에서 고인과 고별의례를 충분히 가질 기회가 부족하며, 유족들 간의 동선이 겹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음

#### ② 화장 수용 능력 감소

- 5장에서 실시한 화장로 수급 전망 분석 결과, 2024~2027년에는 화장로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사망자와 개장유골 화장 수요를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사망자 화장능력은 2024년에 초과함
  - 사망자와 개장유골 화장 수의 총합으로 살펴본 결과 화장능력은 2027년에 초과함

### ③ 유족들을 위한 공간 부족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은 최초 중규모의 화장장으로 시작한 다음 여러 번의 증·개축을 거치면서, 의례 공간은 부족함
- 선진국 화장장은 고인의 육신과 마지막 이별하는 의례의 장에 걸맞게 추모 분위기 속에 평온, 온화,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자연 채광 및 환기 그리고 녹색의 자연을 장내로 끌어들이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고 있음
- 화장장 내의 기본적인 동선은 고인과의 고별, 화장 및 수골, 봉안이라는 고인 동선과 고별, 추모 및 대기, 유골 인수, 귀가라는 유족 및 조문객 동선이 있으며, 고인은 고인대로 유족은 각각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함
- 하지만,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에서 화장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의례 및 추모 기능 상당 부분이 생략 단축되어 버리고 시신 소각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인과 유족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기 어려움 구조임
  - 유족대기실이 TV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석이 일렬 배치된 공동 휴게실 형태로 다른 유족과의 분리가 어려움
- 실제로 본 연구에서 인천시민 중 승화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승화원 이용 중 불편한 점 1위는 ‘다른 유족들과 동선이 겹침’이었음

### ◆ 화장로 개선 방안

- 높은 화장로 가동률은 유족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동률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사망자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화장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 외에도 화장로 개선, 유족들을 위한 공간 확보,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을 제시함

#### ① 화장시설 확대

##### ■ 대안 1: 제2의 화장장 설치

- 인천 시내 다른 곳에 화장로 25기 이상의 대형 화장시설을 건립하고 현 승화원은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
- 부지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시간 및 예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대규모 부지 확보로 인한 유족의 동선 분산이 가능하고, 현대화된 화장로로 공해방지 와 1일 화장구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대안 2: 승화원 재건립

- 새로운 화장장을 현 위치에 다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2단계로 나눠 공사 진행할 수 있음
  - 1단계로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로를 이전하여 인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숫자만큼 남겨(최소 50% 정도)두고 사용함
  - 2단계로 기존 승화원 부지를 재설계하여 새로운 화장장으로 재건립함

## ■ 대안 3: 승화원 화장로 증축

- 현 승화원 남동쪽 경사지(묘지)에 화장장을 신축하고, 공사 준공 이후 현 승화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음
- 화장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대안보다는 비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묘지를 정비할 위한 유가족과의 보상 협의에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음

### ② 수요 조절: 관외 수요 조절

- 인천가족공원 화장 수요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관외 수요 조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외 주민 화장시설 사용료 인상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현재 인천가족공원 화장비용을 관내주민은 16만 원, 관외 10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관외주민 비용은 서울, 경기(90만원인 용인시 제외)와 같은 수준임
- 인천가족공원 화장비용을 100만 원보다 높인다면 서울시 및 경기도로 화장수요가 이전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서울 및 경기에서의 화장장 설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③ 화장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치식 화장로’의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은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치식 화장로는’ 매 화장 시 화장로가 가열과 냉각·수골을 반복하며, 냉각 종료 후 다음 차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음
  - 반면에 ‘캐비닛(유럽)식 화장로’는 화장 종료 후 즉시 다음 차수가 진행 가능하므로 1일 8회까지 운영 가능함
- 아래 [표 7-2]와 같이 캐비닛식 화장로는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높으므로 화장시설 신축 시에 캐비닛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넓은 설치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

[표 7-2] 화장로 방식 비교

	대차식 화장로	캐비닛(유럽)식 화장로
운영 방식	매 화장 시 가열과 냉각 반복	화장로 예열 후 가열
연료 효율	화장로 가열과 냉각에 따라 연료 소모 많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 사용
내구성	1일 수차례의 가열·냉각 반복에 따라 내화 부품 등 내구성 저하	1회 가열 후 인위적인 냉각과정 없어 내구성 양호
화장 능력	1일 8시간 기준 5회 운영 (화장 1시간, 냉각 30분 기준)	1일 8시간 기준 8회 운영 (화장 1시간 기준)
장점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관 입로 수골이 가능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비 감소
단점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 증가	관 입로 및 수골 시 유족 입회 불가 대차식 화장로에 비해 넓은 설치공간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2023)

#### ④ 유족 친화적인 공간 구성

##### ■ 유족 프라이버시 보장 방안

- 유족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서 승화원 내 좌석 재배치 혹은 칸막이 설치를 통해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울산하늘공원 유족대기실처럼([그림 7-6] 참조)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좌석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유족들이 편하게 이동하고 또 다른 유족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그림 7-6] 울산하늘공원 유족대기실



자료: 김윤영 외(2018)

#### ❖ 유족을 위한 추모 공간 마련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봉안시설 등의 옥상, 복도에 식물들을 심고 산책로를 마련하거나,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경사면에 화초, 수목을 심음으로써 유족들이 야외로 나가지 않아도 공간 내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승화원과 봉안당 등에 추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추모공간은 기도나무 설치와 같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춘천 부활성당추모관과 같이 복도, 계단의 벽면 등 빈 곳을 활용하여 추모 기도문, 게시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그림 7-7]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기도문



[그림 7-8] 춘천 부활성당추모관 추모 게시판



자료: 김윤영 외(2018)

#### ⑤ 화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장사법과 인천시 조례에 기금을 통한 주민 지원 근거가 마련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정사시설 등의 운영권 지역 주민 우선 지원, 필요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지원이 명시됨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7년 4월에 시행되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
  - 2021년 조례 개정으로 “주변 지역”이 남동구 간석3동, 만수3동, 부평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으로 명시됨

## 화장주변 지역 설정 근거

- 이용갑(2015)의 연구에서 화장시설 주변 지역 설정 기준으로 ‘교통혼잡(대안 1)’과 ‘화장시설 반경 2km(대안 2)’를 제시하였으며([표 7-3 참조]), 장·단점 비교 후 ‘교통 혼잡’ 대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교통 혼잡’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주변 지역을 설정하는 대안 1 방식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안 2 방식보다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 설정이 용이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음을 제시함
  - 또한, 인천가족공원 특성상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각적 불편함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화장시설의 현대화로 오염원도 기준치 이하임
  - 승화원 및 인천가족공원은 출입구 쪽을 제외하면 주변의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어서 시각적 침입 등 외부의 간섭과는 유리되어 있음. 이에 따라 화장장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는 시설현대화로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각적인 혐오감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이용갑, 2015)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승화원 배출가스 측정’ 검사 결과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나타남(인천가족공원, 2021, 2022b, 2023c)

[표 7-3] 화장장 주변지역 설정 방안 대안 비교

	대안 1(교통 혼잡 지역)	대안 2(화장시설 반경 2km 지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승화원의 특성을 고려한 주변지역 설정 가능</li> <li>• 교통혼잡지역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주변 지역 설정</li> <li>• 특정화된 사업의 종류·범위 설정이 상대적으로 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혼잡, 대기오염, 시각적 불편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광범위한 지역설정으로 화장시설로 인한 민원제기 가능성 최소화</li> <li>• 주변지역 설정을 둘러싼 갈등 및 불만·민원제기 가능성이 낮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혼잡이 시작되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지 지역의 배제로 인한 문제 제기</li> <li>• 제외되는 지역의 불만·민원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승화원 및 인천가족공원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주변지역 설정</li> <li>• 인천승화장 및 인천가족공원 출입구 쪽 지역의 교통체증이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주변지역 설정</li> <li>• 특정화된 사업의 종류·범위 설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움</li> </ul>
해당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구 3개 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li> <li>• 남동구 1개 동: 간석3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동구 7개 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구월2동, 만수2동, 만수3동</li> <li>• 부평구 5개 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부개1동</li> </ul>

자료: 이용갑(2015)

- ‘교통 혼잡’을 주변 지역 설정의 근거로 삼을 때, 인천가족공원 출입구 주변 동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한식과 같은 특정한 날에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 지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상시 교통 혼잡 지역(인천가족공원 출입구 주변 동): 화장·장례를 위한 차량 행렬로 상시로 교통 혼잡 지역인 4개 동(부평2·3동, 십정2동, 간석3동)
- 명절 교통 혼잡 지역: 대표적인 인천가족공원 방문일인 추석에는 장애인 차량과 화장을 위한 승화원 출입차량을 제외한 일반 성묘차량을 통제함에 따라 교통혼잡지역(부평삼거리역~부평사거리)을 우회(남동구에서 부평구로 넘어가는 통로)하게 되므로 만월산 터널 입구와 출구 지역인 만수3동과 부평6동 2개 동의 교통이 혼잡하게 됨(이용갑, 2015)([그림 7-9 참조])
- 결론적으로 화장장 주변 지역 설정을 ‘교통 혼잡’을 기준으로 상시 교통 혼잡 구역(4개 동)과 명절 교통 혼잡 구역(2개 동) 총 6개 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그림 7-9] 화장장 주변지역 명절 교통 혼잡 지역: 만월산터널 입·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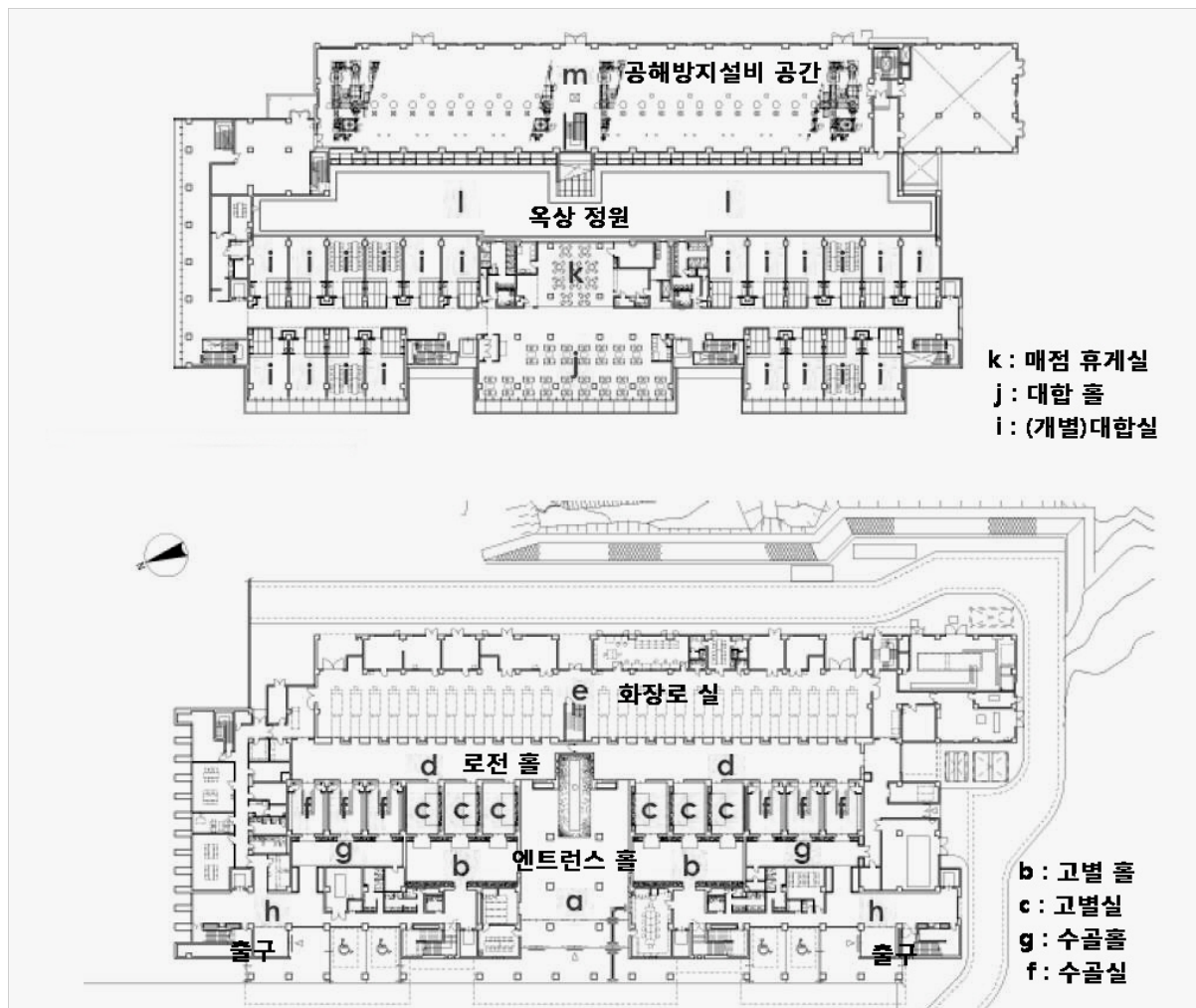


자료: 카카오맵

◆ 화장장 참고 사례: 일본 후쿠오카시 장제장 '도키노모리(刻の森)'

- 소재 : 후쿠오카시 미나미구 히바라(福岡市南区桧原) 六丁目 1 - 1
- 부지 면적: 82,287.58㎡(건축면적, 5,740.40㎡)
- 화장로: 26기
- 건물 및 회차 공간 바닥 크기: 폭 87m, 길이 148m
- 아래 그림과 같이 1층에는 고별, 화장, 수골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두 개 층은 대기 및 휴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족을 위한 공간으로 유족별로 분리된 공간(개별 대합실)과 옥상 정원이 있음

[그림 7-10] 도키노모리 시설 평면도



주: 아래 1개 층 - 고별, 화장, 수골 공간, 위 2개 층 - 대기 및 휴게 공간으로 구성됨  
 자료: 저자가 취득한 자료를 가공함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시 화장로 수급 전망 결과, 2027년에 화장로 능력 초과에 따른 화장로 증설이 시급한 과제이며 인천시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표 7-4]와 같음
- 2023-2024년에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과의 화장로 증설 및 시설 신축 등에 대해 세부 계획을 논의하여 계획과 예산을 신청하고, 2025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함
- 2026년에는 화장로 증설 착공과 2027년에는 준공하여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표 7-4] 인천시 화장로 증설을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화장로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시설관리공단과 세부 계획 논의 - 화장로 증설, 시설 신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수립, 예산 신청(국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확보(국비)</li> <li>사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착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준공</li> </ul>

## (3) 묘지 재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① 묘지 현황

- 2023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공설묘지는 81개소, 그 외 사설묘지는 304개소임
  - 공설묘지는 향후 77,192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설묘지는 34,458기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음
- 사설묘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인묘지는 6개소, 개인묘지는 153개소, 가족묘지는 18개소, 종중·문중묘지는 106개소, 종교 및 단체묘지는 3개소임

#### ② 문제점

- 묘지 내에 다수의 무연분묘가 방치되고 있으며, 관리비 미납에 따른 묘지관리시설의 운영 문제를 일으키거나, 묘지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여 묘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도 지역 환경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공설·공동묘지, 무연분묘 등 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함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 설문조사에서 인천시 장사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중 ‘버려진 묘지 관리 체계화’에 10.4%의 응답으로 인천시민 역시 인천시의 묘지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

## 개선 방안

### ① 묘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묘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인천시 내 묘지에 대한 실태를 추진함으로써 불법묘지, 무연분묘로 방치되어 있는 묘지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체) 묘지실태 조사의 주체는 인천시와 각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공동으로 실시되어야 함
  - 인천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묘지의 분포범위가 넓으며, 기초 지자체의 지역성,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대상) 묘지실태조사는 공설묘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사설묘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사설묘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할 경우 사설묘지 관리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득·검토하여 효과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정 수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내용) 묘지실태조사 시 사진, 면적, 지목, 총 분묘수 및 무연고 여부 등을 포함한 서식이 아래 표와 같이 제안되었음(이용갑 외, 2013)
  - 실태 조사를 추진하기 전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시 필요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표 7-5] 묘지 실태조사 서식

ID		행정구역코드			
토지소재지					
사진 첨부 원경		사진 첨부 근경			
일반 사항					
총면적(㎡)	공부상		토지 소유자	공부상	
	조사결과			조사결과	
지목	공부상		최종취득일		
	조사결과				
총 분묘 수			무연고 여부	무연분묘 수	
				유연분묘 수	
공설묘지 이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①만장되어 사용안함 <input type="checkbox"/> ②현재 매장가능 (매장가능기수 :    ) <input type="checkbox"/> ③타용도 사용(    ) <input type="checkbox"/> ④기타				
주변 지역 토지 이용용도			묘지설치 연도		
묘지진입시설			구역경계표시		
부대시설 설치현황			관리 주체		
기타 사항					

자료: 이용갑 외(2013)

②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도입

- 무연분묘 및 집단묘지의 재개발을 위해서는 개장 화장장려금 등 개장유골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45개 지자체에서 개장유골 장려금을 화장장려금을 지급(1구당 5만 원~화장비용 전액)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23),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및 경기도는 [표 7-6]과 같이 20만 원~40만 원 지급함
- 인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장려금으로 기존 묘지정비를 통해 지역환경 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표 7-6] 서울시 및 경기도 개장화장 장려금 내용

구분		내용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대상: 용미1·2, 벽제, 내곡리묘지 분묘 사용자</li> <li>• 지원 금액: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li> <li>• 지급 방법: 화장 후 60일 이내로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li> <li>•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급(2022년부터 시행)</li> </ul>
경기도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 신고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li> <li>• 지원 금액: 개장 유골 1구당 20만원</li> <li>• 지급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li> <li>•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li> </ul>
	연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관내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와 장사법 제정 이전 묘지설치로 인해 현행법에 저촉되나 분묘기지원 부여 및 과태료 처분 시효 소멸로 실질적 행정처분이 불가한 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li> <li>• 내용: 2022년부터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기존 분묘를 정리할 경우 화장비용 40만원을 지원</li> </ul>

자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2023)  
민상기(2014)  
박종국(2021)

## ◆ 검단 묘지공원 재정비 방안

### ① 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현재 검단묘지공원은 복잡한 소유관계로 인한 협의지연,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택지개발 사업편입 불가로 사업추진 원동력을 상실한 상태임
  - 사업초기부터 복잡한 소유관계(7개 단체, 5개 문중 - 종교단체, 문중, 향우회, 일반개인)로 인한 사업이 진행 어려움
  - 검단묘지공원 사업화 방안수립용역(이왕기 외, 2013)을 통해 환지방식(토지주 동의필요)을 통한 사업 진행을 제안함
  -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공원)이 해제됨
    - 검단지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1998)되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
    - 2020년 3월 인천가족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급시설 충족. 이에 재정사업 투입으로 인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불가 판정 및(인천광역시 고시 2020-96호)
  - 2020년 6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검단묘지 편입개발(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회의 결정,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 참여)

### ② 재정비 방안

- 검단묘지공원 재정비 방안으로 (1) 토지소유권자 및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2) 체계적인 묘지공원 재정비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3)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분담 및 재원확보를 제시하고자 함

#### ■ 대안 1: 토지소유권자의 동의 확보 및 지역주민들과 합의 도출

- 검단묘지공원 사업대상지에는 일반개인을 비롯하여 종교단체, 문중, 향우회 등의 소유한 토지 및 묘지가 혼재되어 있어 소유 관계가 복잡함. 이에 검단묘지공원의 원활한 재정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임
- 인천시와 서구를 포함하는 유관기관은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검단묘지공원 재정비 사업수립을 통한 체계적·장기적인 운영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더욱이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권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새로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기반조성이 필요함
- 검단묘지공원 재정비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논의 및 합의를 하고, 지역사회로의 의제로 공론화하여 재정비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해야 함

#### ■ 대안 2: 체계적인 묘지공원 재정비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023년 현재 민원 해결 중심의 산발적인 묘지공원 재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재정비 사업추진의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불명확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 현재 인천교구 천주교회 민원사항에 따라, 진입도로개설(23.06 공사 착공, 12.12 완공 예정), 검단묘지 입구 보행로 및 버스정류장 설치, 묘지축소비용(1기 당 365만원) 및 봉안당 건축허가 준비 중 요구 등의 관련 사업이 진행 중임
  - 검단신도시 개발주체인 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IH)는 묘지축소비용 및 봉안당 건축을 위한 재원마련에 지원 불가를 통보함
- 산발적인 민원중심의 묘지재정비 지양하고, 체계적인 검단묘지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마련이 필요함
  - 첫째로, 검단신도시 내 묘지공원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시각적인 차폐 및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인근에 있는 신도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둘째로, 공공의 주도 및 계획하에 토지주 참여를 통한 묘지의 일괄정비가 필요함. 인천시 시설계획과와 서구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검단묘지 묘지공원 재지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과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재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인천교구가 진행 중인 묘지정리 및 봉안당 건설 사업을 재정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사업 주체(인천시,

서구, LH, IH 등)들과 재정비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묘지공원 활용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이 필요함. 진출입 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 및 정비하고, 묘지 입구에 보행로를 설치하도록 함. 더욱이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시설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종합적 차원에서 묘지공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 대안 3: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및 동력확보

- 검단묘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택지개발 사업 불가로 사업추진 원동력 상실된 상태임. 인천시와 유관기관의 장기적인 방향설정에 따른 사업화 방안 재구상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인천시, 서구, LH, IH 등의 유관기관이 재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당위성 및 원동력 발굴 및 차후 사업화 방안을 재논의해야 함
- 이와 함께 검단묘지공원 수립계획 및 사업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를 제안함. 기존 계획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계획 방향과 함께 사업 주체를 지정하고, 역할분담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마련하도록 함

## ◆ 서구 왕길묘지 재정비

### ① 기본 현황<sup>5)</sup>

- 왕길 도시개발구역은 왕길동 산136번지 일대 4만2,896㎡를 사업비 약 605억9800여만원 을 투입해 670세대 공동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업임

### ②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 소유해 1971년부터 운영한 묘지는 2005년 허가 면적을 초과 운영한 사실을 구가 적발하고 시설 이전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7년 폐쇄됨(장호영, 2021)
- 하지만 묘지 1,450여 기 중 280~300여 기가 이용자들과 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존치하고 있으며, 10년 넘게 훼손된 채 방치돼있어 인근 주민들이 서구에 정비라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장호영, 2021)
  - 왕길동 산136번지에 위치한 공동묘지구역은 묘지가 파헤쳐지거나 비석이 버려지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음

5) 인천광역시(2023). 도시개발 사업현황

- 도시계획위는 해당 부지가 묘지만 1,450기에 달하던 공동묘지구역으로 조속한 장사시설 이전 요구가 많았던 만큼 사업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함
- 2023년 기준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서 전체 묘지 중 1,383기가 이장을 완료하였고, 사업 시행자는 현재 남은 67기에 대한 이장 협의를 진행 중임
- 2023년 6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이 심의에서 보류됨(박해운, 2023)
  - 당초 개발계획안에 있는 670세대 아파트 건립이 면적 대비 고밀도로 판단이 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려가 있었음

### ③ 추진 방향

#### ■ 대안: 지적사항 반영한 왕길동 도시개발계획 재추진

- 밀도 조정이나 공동주택 층수 조정 등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보류된 왕길동 도시개발계획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후 열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기존의 버려진 묘지에서 주거지로 활용 가능할 것임

#### ◆ 인천시 추진 방안

- 묘지 재정비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개장유골 화장장려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5개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7-7]과 같음
- 인천시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도입을 위해 2023-2024년에 금액 및 대상에 대한 논의와 조례 입법 추진을 통해 2025년 계획 수립과 예산 신청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7-7] 인천시 묘지 재정비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 방안 논의 - 금액 및 대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입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25 상 반기)</li> <li>• 예산 신청('25 하 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li> </ul>	

#### (4) 봉안시설 순환 사용

##### 현황 및 문제점

- 인천가족공원은 현재 5개 봉안당이 설치되어있으며, 이 중에서 추모의 집을 포함하여 총 4곳은 만장되었음. 2019년에 완공된 별빛당은 2025년 초에 만장될 예정이며, 이후에 3-2단계 사업으로 봉안당(2만기)이 2026년에 추가 설립될 예정임
- 따라서 2025년 초 별빛당 만장 이후와 새로운 봉안당 준공 사이 기간에 유골을 안치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한정된 공간에 계속해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기존 봉안당 활용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표 7-8]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현황

(단위: 기)

	설치년도	총 봉안능력	만장일	최대 안치 기간 만료 시기
추모의 집	2003	19,320	2007.12.29	2043
금마총	2007	16,675	2010.5.23	2047
만월당	2010	29,184	2015.2.24	2050
평온당	2016	36,656	2020. 7. 15	2047~2056
별빛당	2019	35,104	2025년 초 만장 예정	2049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b)

##### 추진 방안

###### ① 봉안당 만장 이후 대안: 봉안당 수요 분산

- 봉안당 만장 이후를 대비하여 별빛당 만장 이전부터 봉안당 수요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다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봉안당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음

###### 대안 1: 봉안당 이용료 낮춤으로써 봉안당의 수요를 봉안담으로 유도하는 방안

- 봉안당 만장 이전부터 봉안담 이용료를 낮춤으로써 인천시민의 봉안당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가족공원의 봉안담 현황은 [표 7-9]와 같이 2023년 5월 기준으로 잔여기수는 총 17만 294기임
  - 다문화묘역은 사용 실적이 없으며, 화교 봉안담은 사용 실적이 저조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외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 이는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의 취지와 맞지 않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천가족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봉안담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임

[표 7-9]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현황

(단위: 기)

구분		안치규모	사용기수	잔여기수
일반형	회랑형(1인)	3,990	2,034	1,956
	부부봉안당 I	1,140	160	980
	가족봉안당 II	1,696	126	1,570
	소계	6,826	2,320	4,506
특화형	호국봉안당 III	4,144	396	3,748
	화교봉안당	5,220	290	4,930
	다문화묘역	4,110	-	4,110
	소계	13,474	686	12,788
총계		20,300	3,006	17,294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b)

## ■ 대안 2: 봉안당 공급 조절

- 봉안당 기간별 할당 방식으로 일정량이 채워지면 봉안당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이를 통해 단계별로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수요가 민간 봉안당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 대안 3: 산분장 유도

- 산분시설 확대 및 인식 확산을 통해 산분 수요로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는 기존 유택동산의 고품격화, 산분 섹터 조성, 인천시민 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② 기존 봉안당 활용 방안 모색

- 최초로 설립된 추모의 집은 최대 안치 기간이 40년이므로<sup>6)</sup> 2043년부터 최대 안치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시설을 정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다만, 현재 가족공원에서 기존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반환한 빈자리에 새로운 사용자를 선정하는 공안치단 활용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안치 만료 기간이 사용자별로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제로 금마총 건물이 노후화되고 지하에 있는 봉안당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지만, 기존에 봉안된 안치시설에 영향을 주면 안 되므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프트 설치 등 대공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봉안당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6)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최대 안치기간이 40년이었다가 2017년에 30년으로 축소함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순환 사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정리하면 [표 7-10]과 같음
- 인천가족공원 기존 봉안당(별빛당) 2025년 초 만장과 신규 봉안당 2026년 말 개장 사이의 봉안당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한 계획을 2023년 하반기에 수립하고 관련 조례 입법 및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봉안당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에 공안치단 폐지, 재사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하반기에 예산 신청 후에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7-10] 인천가족공원 봉안당 순환 사용을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봉안당 안치기수 수요·공급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23. 하반기)</li> <li>- 타시설 안치 유도</li> <li>- 안치 기간 조율·축소</li> <li>- 공급 조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 1. 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봉안당 ('26. 4. 완공, '26. 8. 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입법 및 개정 추진('23. 하반기~)</li> </ul>				
기존 봉안당 리모델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수립('24. 상반기)</li> <li>- 공안치단 폐지</li> <li>- 재사용 방안 등</li> <li>• 예산 신청('24.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 리모델링 실시</li> </ul>		

## (5) 자연장지 효율화

- 인천시민조사 결과, 화장 후 유골안치 방법으로 자연장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높았음. 자연장 중에서는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음
- 하지만 현재 인천시가족공원에는 5개의 자연장지가 만장되었고, 향후에는 2027년~2030년에 만장될 예정임

## 인천가족공원 현황

- 2007년 자연장을 제도화하는 장사법이 개정된 후에 가족공원 내 (국유)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 이에 2008년도 하반기에 인천가족공원 수목장림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합법적인 수목장림이 탄생함(이정선 외, 2022)
- 수목장림의 면적은 23,500㎡에 사색의 숲, 영생의 숲 총 418주 1,366기를 찬장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 6월 29일에 만장됨
  - 부대시설로 합동분향 제례단, 안내실 등을 마련함

- 이후에 아래 표와 같이 자연장 8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구역마다 부대시설로 합동헌화대, 장자, 연못, 벤치, 휴게시설 등을 갖춘

[표 7-11] 인천가족공원 자연장 현황

	면적(m <sup>2</sup> )	규모	이용 현황
늘푸른 잔디장	712	1,321기	2015. 2. 1 만장
솔향기 수목장	1,669	71주 557기	2017. 4. 26 만장
하늘정원 잔디장	2,475	2,604기	2018. 11. 15. 만장
별마루 잔디장	1,514	2,063기	2020. 8. 31. 만장
바람들녘 잔디장	3,030	2,600기	2023. 6. 3. 만장
바람정원 수목장	5,399	1,869기	2020. 9. 1. 안치 시작
별빛정원 잔디장	7,714	3,500기	2023. 6. 3. 안치 시작
어린이정원 별하원	2,000	8,000위(산분장) 1,300기(잔디장)	
가족정원장	920	56개소, 366기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

자료: 인천가족공원(2023b)

## ❖ 문제점

### ①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

- 서울시 및 울산시 자연장지와 비교했을 때,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은 면적 대비 안치 능력이 적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함
- 인천가족공원은 수목장은 한 그루당 12구를 모시는 반면에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수목장은 한 그루당 30구 이상 모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함

### ② 개인 표식 허용

- 자연장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상과 합치되고 자연 친화적이지만 고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표식은 국토를 훼손하게 되며, 묘지와 차별성이 없어짐
  - 조화(造花)와 장식품의 소재는 화학섬유 또는 플라스틱류가 대부분으로 자연에 두어도 쉽게 분해되지 않음
- 묘지화 방지 및 국토훼손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는 장지에 생화 외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공구조물을 거의 설치하지 않음(이정선 외, 2022)
  - 목재로 된 안내판과 벤치, 목조 안내센터, 옥외 고별식장(채플)도 목조 건물임

- 인천가족공원의 자연장은 일렬로 구획된 지정구역에 안치한 후 개인별 표식을 부여하였으며, 이는 공동 표식 방식을 활용하는 서울시와 울산시 사례와 대비됨
  -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수목장은 공동 추모비에 안치된 고인의 이름을 한 번에 기재함
  - 울산하늘공원의 잔디장은 한 공간의 다수의 유골을 안치하고 추모비에 안치된 고인의 이름을 한 번에 기재함. 수목장은 나무 둘레에 안치된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음

### 참고 사례: 서울시 능선형 자연장지, 일본 합장묘

#### ① 서울시립 자연장지

-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능선형 자연장지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구성함
- 자연장은 면적 1㎡당 약 36명의 고인을 모실 수 있으며, 이는 묘지 1기 면적 약 8.25㎡(서울시립 장사시설 기준)을 자연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고인 약 300명을 안정할 수 있는 공간임(서울시설관리공단, 2022)
- 또한, 구역별로 공동 비석을 설치하여 개인별 표식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함

[그림 7-11] 서울시립 자연장지



능선형 자연장지 모습

구역별 공동 비석

자료: 서울시설공단(2022)

#### ② 일본 요코하마시립 메모리얼그린 묘지(横浜市立メモリアルグリーン -)

- 요코하마시립 메모리얼그린묘지는 기존의 요코하마 드림랜드가 있던 자리로 산자가 이용하는 야구장이 있는 종합공원과 죽은자가 이용하는 녹지가 풍부한 묘역을 함께 마련함

- 화장 유골을 봉안하는 형태인 일본식 묘역에는 잔디플레이트형태(芝生型)를 비롯하여 3종류의 묘역을 마련하여, 현대 도시인들의 다양한 묘지 선택을 충족시킴
  - 잔디식플레이트(芝生型) 묘지 7,500기
  - 수목형합장식묘지 3 개소, 3,000위 가능
  - 위령비형합장식묘지 1 개소, 12,000위 가능
- 이 중에서 수목형합장식 묘지는 겉모습은 중심부에 큰 상징나무(シンボルツリ, Symbol tree)를 마련하고 둘레에 키 작은 나무, 잔디, 꽃 등을 식재한 모습임([그림 7-12] 참조)
- 땅 밑에 유골항아리를 빼곡하게 매장하고, 참배를 하고자 할 때는 한쪽에 마련된 현화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참배하도록 되어있음
- 독일 등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이 묘지에서는 나무 한 그루를 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임

[그림 7-12] 일본 요코하마 메모리얼그린 수목형 합장식



자료: IGNITION INT.(2015)

## 시사점 및 발전 방안

### ① 공간의 효율적 사용

- 인천시민의 자연장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일본 사례 및 서울시 능선형 자연장처럼 인천가족공원의 능선을 활용하여 한 그루에 다수의 유골을 함께 모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공동 표식 사용

-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개별 표식을 위한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동 표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개인 표식을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부지를 유족들이 개인 부지로 인식하여 후속 세대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른 유골의 안치를 꺼릴 수 있으며, 해당 부지를 봉분 혹은 헌화로 장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동 비석 등 공동 표식 설치로 고인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고, 공동 헌화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 효율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5개년 계획을 정리하면 [표 7-12]와 같음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 효율화를 위하여 능선형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2024년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 계획 수립과 예산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단계별로 자연장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 공동표식 사용 확산을 위하여 현재 개인 표식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공동 표식 안내를 실시하고, 이용객 및 시민 대상 공동표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7-12] 인천가족공원 자연장지 효율화를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자연장지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공원 내 능선형 자연장지 구역 사전 조사</li><li>- 구역 마련</li><li>- 조성사업과의 연계 방안 검토</li><li>- 조례 개정 추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계획 수립(25 상반기)</li><li>• 예산 신청(25 하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능선형 자연장지 조성</li></ul>	
자연장지 공동표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천가족공원 내의 자연장 개인 표식 실태 파악 및 안내</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용객 대상 공동 표식 안내 및 홍보</li></ul>				

## 2) 장례서비스 질 제고

### (1) 인천가족공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

#### ◆ 인천가족공원 현황

- 인천가족공원은 인천시설공단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장사시설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장사 관련 법률, 정책, 사업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전문 영역의 업무임
  - 인천가족공원 내 20년,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부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장사시설 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가족공원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숙련된 직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 인천가족공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① 종사자 역량 강화

- 인천가족공원 종사자 대상으로 선진 장사시설 사례지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장사시설의 담당자 및 기관과 협약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견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가족공원 종사자 대상 장사시설·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이 필요함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강연부터 장사시설의 실례 및 구체적 사업내용 공유 강연 등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강연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② 자문위원회 운영

- 인천가족공원 운영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거나, 인천가족공원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가족공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 [표 7-13]과 같음
-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에는 교육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2024년부터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3-2024년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정기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표 7-13] 인천가족공원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종사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수요 조사</li> <li>• 교육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교육 실시</li> <li>• (상시) 교육 수요 조사</li> </ul>			
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li> <li>• 세부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위원회 운영</li> </ul>		

## 3) 국가 책임 강화

### (1) 공영장례 운영 개선 및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가족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함
- 지난 10년간 전국 및 인천시의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수가 증가 추세를 보임
  - 인천시 2012년 67건에서 2021년 256건으로 약 3.8배 증가함
-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으며, 통계청(2022) 추계 결과 2050년에는 인천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53.5%) 고령자 1인 가구로 예측됨. 이에 따라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비율을 2021년 42%에서 27년 7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 ◆ 인천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① 조례 제정

- 장사법에서는 제12조에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장례의식을 행할 것과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 인천시는 2020년 3월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인천시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

### ② 추진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 80만원 이내 현금지급 원칙으로 함
  - 필요시 현물(인력, 물품, 장소, 서비스 등) 지원
-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개월간 99명, 2022년에는 281명, 2023년 4개월간 134명으로, 1년 기준으로 보면<sup>7)</sup>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1년 198명 → 2022년 281명 → 2023년 402명

### ③ 문제점

- 인천시 군·구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현재 공영장례의 문제점으로 매뉴얼 부재, 복잡한 절차,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입회가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영장례 개선 방안으로 인천시 공영장례지원센터 등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대상자 증대 및 충실한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총 예산 및 1인당 예산을 확대를 제안함

## ◆ 발전 방안

### ①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인천시 군·구 공영장례 담당자 의견으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확정절차, 안치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7) 2021년 실적(6개월)×2, 2023년 실적(4개월)×3

- 서울시 사례처럼, 시신 발생→연고자 확인 및 무연고 사망자 확정→장례의식→시신처리 전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군·구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도울 필요가 있음

## ② 공영장례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군·구 담당자 의견조사 결과, 현재 공영장례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서 군·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서는 ‘공영장례 - 그리다’ 통합 콜 상담(1668-3412) 개설하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장례 관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례처리절차나 무연고 사망자 접수 등의 업무를 통합·운영함
  - 비영리 자원봉사단체 ‘나눔과 나눔’에서 운영하며, 서울시의 별도 수행비 지원 없이 자체 후원금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
- 향후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장례지원 확대를 고려하여, 인천시도 공영장례 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영장례 대상 및 절차 안내 뿐만 아니라 접수도 함께 담당한다면 군·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기존 미추홀콜센터를 활용하는 방식 및 인천가족공원 내 전담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③ 공영장례 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인천시는 군·구 위탁업체에서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는 장점도 있지만, 장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관리가 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
- 공영장례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수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천시 공영장례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통해서 수행업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서 인천시 공영장례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영장례 서비스 중에 문제가 생긴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를 통해서 향후 공영장례 장례식장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함

## ④ 저소득 사망자 빈소사용 시간 확대

- 현재 인천시에서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모두에게 장례의식 시행 및 조문객 응대를 2~4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고인을 위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되기 어려움

- 특히 연고자가 시신을 거부해서 수행하게 되는 저소득층 공영장례는 유족의 충분히 애도하고 방문객을 맞이할 기간이 필요함
- 서울시는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빈소사용 시간을 “3시간 또는 24시간”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뜻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인천시에서도 저소득층 공영장례에 대해서는 유족의 선택사항으로 최대 하루까지 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⑤ 지원 금액의 현실화 및 재원의 다각화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5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가구당 평균 장례 비용으로 화장의 경우 1,328만원, 매장은 1,558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공영장례 비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정엽, 2017)
- 따라서 공영장례 비용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시비 및 군·구비 뿐만 아니라 기부 및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시 공영장례 운영 개선 및 확대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2개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 [표 7-14]와 같음
- 2023년에 공영장례 매뉴얼을 제작하여, 2024년에 군·구 담당자에게 보급하고 이후에는 조례 및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공영장례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2023년에 센터 운영 방식(운영 주체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후에 2024년에 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을 통해서 2025년에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표 7-14] 인천시 공영장례 운영 개선 및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매뉴얼 제작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구 담당자 매뉴얼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수정 및 보급</li> </ul>		
공영장례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장례 상담센터 운영 방식 논의</li> <li>- 운영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장례 상담센터 계획 수립('24 상반기)</li> <li>• 예산 신청('24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장례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li> </ul>		

## (2)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

### ◆ 재난 대응 현황

- 코로나 사망자가 늘면서 3일 장례에 맞춰 화장하지 못하고 4일이나 5일 만에 화장하여 인천시민의 불편이 가중됨
  - 2022년 3월 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코로나 사망자는 404명에 달하며, 3월 21일 99건 중 55건이 사망 5일 만에 화장함(박재하, 2022)
- 이에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은 하루 화장 건수를 늘리고 이용시간도 확대함(박재하, 2022)
  - 하루 화장 건수를 72건에서 99건으로 늘리고, 화장 마감 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함
- 또한, 인천가족공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화장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화장 운영 비상대응 계획안을 수립하고 매월 일반 직원들을 교육해 화장관리 업무 예비인력으로 확보하는 등 화장관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인천시설공단, 2022)
  - 이외에도 화장 수요 실시간 통계 및 모니터링 전산 프로그램 개발 구축, 단계별 화장 진행 건수 확대 운영, 임시 안치공간 확충, 화장로 개·보수 추진 등 화장 운영 비상대응 체계 등을 준비함

### ◆ 국가재난 대응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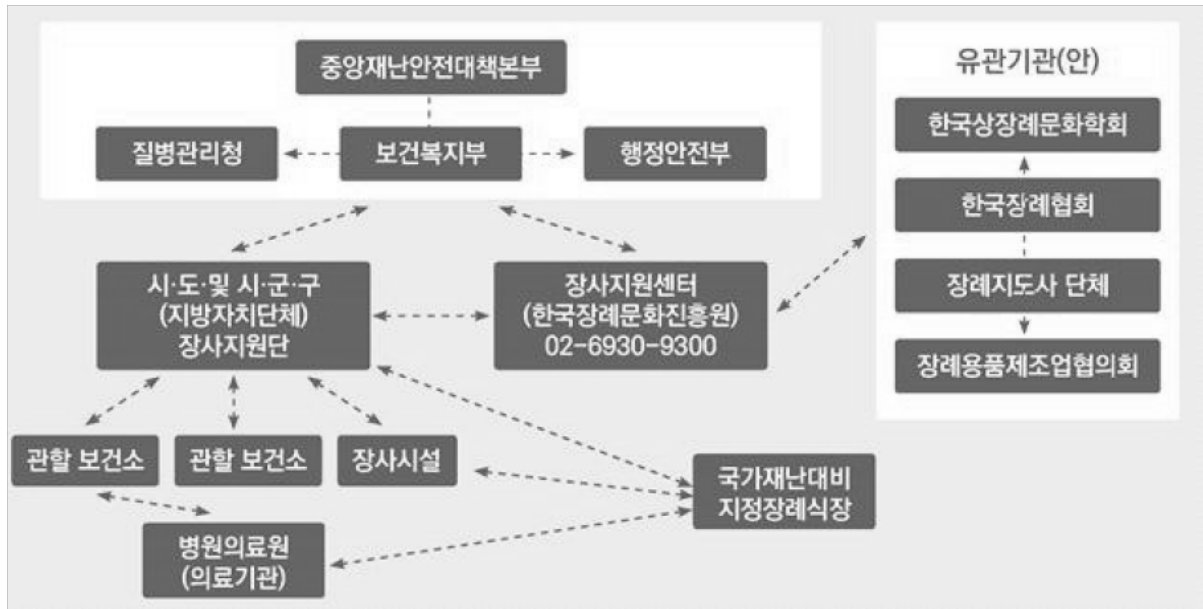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 설문조사에서 인천시 장사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 중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대응 체계 마련’에 10.6%의 응답으로 인천시민 역시 장사정책으로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사망자 증가에 대한 비상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인천가족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상단계별 화장수용능력 극대화 외에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비상운영체계, 비상안치 공간 확보를 제안하고자 함

#### ①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비상운영 체계 마련

-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장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인천시, 군·구, 의료기관, 장례식장 등 다양한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며([그림 7-13] 참조),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지정 등을 통해서 재해·재난 시 장례지원이 가능할 것임

- 인천시에는 남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하고 8개 군·구에 각 1곳씩 총 8곳이 지정되어 있어 모든 군·구에 최소 1개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임
- 또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림 7-13]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비상운영체계(안)



자료: 보건복지부(2023)

## ② 비상 안치공간 확보

-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화장 혹은 매장의 수요를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에 시신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는 실내 저온 안치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는 감염병 재유행 대비를 위해 인천가족공원에 실내 저온 안치실 42구와 민간 장례식장에 안치 냉장고 15개를 설치하였으며(고상규, 2022), 장례식장의 안치냉장고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군·구별로 살펴보면, 장례식장이 없는 옹진군은 안치냉장고가 없으며, 연수구는 인구수가 다섯 번째로 많음에도 안치 냉장고가 20구로 인구대비 적어 불균형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장례식장에 안치 냉장고 추가 설치를 통해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안치공간 확보가 필요함
  - 기존 창고 및 회의실 등 유휴공간에 단열시공 후 냉장컴프레서 및 선반을 설치하여 재난 등 사망자 급증 시 시신 안치실로 전환·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2023)

[표 7-15] 인천시 장례식장 안치냉장고 현황(2022년 12월 기준)

(단위: 구)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안치냉장고	422	37	38	60	20	62	40	65	62	38

자료: 인천광역시(2023b)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시에서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5개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계획을 제시하면 [표 7-16]과 같음
- 2023년에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대한 군·구별 개소 수 및 지정 기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비상 안치공간 확보를 위해서 2023년에 군·구별 안치 공간 면적 및 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024년에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과 예산 신청을 통해 2025년에 비상 안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표 7-16] 인천시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비상 운영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실태 파악</li> <li>군구별 개소 수 및 지정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추가 지정</li> </ul>			
비상 안치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구별 비상 안치 공간 실태 파악</li> <li>비상 안치 공간 마련 방식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 안치 공간 계획 수립('24 상반기)</li> <li>예산 신청('24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 안치 공간 설치</li> </ul>		

## 4)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 (1) 죽음 준비 교육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 설문조사 결과, 약 6명 중 1명만 죽음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장년층의 경험률이 가장 낮았음
  - 20대의 경험률이 27.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60대 이상(16.7%)순이었음. 반면에, 40대는 10.6%로 가장 낮았음

- 응답자 중 76.1%가 죽음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민대상 죽음준비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는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 기반 마련과 관련됨

## **추진 방향**

- 인천시민 설문조사 결과,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으로 ‘유산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64.4%)’, ‘장례 방식 및 절차(64.0%)’ 순으로 높았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40대까지는 ‘장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50대, 60대 이상은 ‘죽음에 대한 불안 줄이는 법’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표 7-17] 참조)
- 따라서 유산 상속과 관련한 법정 상속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중·장년층에게는 장례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노년층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법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인천시 내 평생교육기관, 복지관, 고령사회대응센터, 경로당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음

[표 7-17] 필요한 죽음 준비 교육 내용: 연령대별

(단위: %)

구분	유산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장례 방식 및 절차	죽음에 대한 불안 줄이는 법	사별 후 슬픔 치유법	유언장 작성	살아온 인생 돌아보기	장기 기증	연명 치료
19~29세	65.7	75.8	37.4	63.6	52.5	40.4	39.4	22.2
30대	71.9	81.3	52.1	57.3	59.4	43.8	50.0	36.5
40대	68.8	69.7	55.0	56.0	51.4	51.4	41.3	26.6
50대	64.2	60.0	75.8	58.3	53.3	56.7	48.3	42.5
60대 이상	57.3	48.1	63.8	51.4	61.1	55.1	59.5	42.2

## **인천시 추진 방안**

- 죽음 준비 교육 확대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5년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표 7-18]과 같음
- 2023년에 현재 인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에 죽음 준비 교육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을 신청함.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및 콘텐츠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대상 죽음 준비 교육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표 7-18] 인천시 죽음 준비 교육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시민대상 죽음 준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죽음 준비 교육 실태 파악</li> <li>교육기관, 교육 내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상반기')</li> <li>예산 신청 ('24.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사업 시행('25 상반기)</li> <li>유관기관 협력('25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서 체결, 교육 시행 ('25 하반기~)</li> </ul>		

## (2) 사전장례의향서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 장례의향서')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새로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보건복지부, 2023)
  -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스스로 장사 방식, 빈소 유무, 부고 범위, 장례 규모, 장례 장소 및 안치방식 등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 설문조사 결과, 사전 장례의향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찬성+적극 찬성)'라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인천시민의 인식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음

### 추진 방향

- '사전 장례의향서'가 생소한 개념이므로 시민들에게 기본 내용 및 취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원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기관 및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음
- 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 장례가 유족 중심이 아닌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존엄한 장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시에서 사전장례 의향서 확산을 위해서 5년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7-19]와 같음
- 2023년에 현재 인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웰다잉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과 실태를 파악한 후에 2024년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신청이 필요함. 2025년부터 사전장례의향서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시민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7-19] 인천시 사전장례의향서 확산을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전장례의향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웰다잉 관련 현황 파악</li> <li>- 우수사례 발굴 및 실태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수립('상반기)</li> <li>• 예산 신청('24.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사업 시행('25 상반기)</li> <li>• 유관기관 협력('25 하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서 체결, 교육 및 홍보 시행 ('25 하반기~)</li> </ul>		

### (3) 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화장 후 안치방식으로 봉안당 및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한정된 국토와 봉안시설의 초기 건립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다양한 안치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산분장 외에도 다양하게 발굴하고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확산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방향

- [표 7-20]과 같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안치, 퇴비장, 유골 보석 방식은 토지를 이용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유골 안치 방식임
- 국내에는 각 방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다양한 봉안 방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나라별로 장례문화가 다르므로 수용 및 확산 정도는 다를 수 있음

[표 7-20] 해외 유골 안치 방식

대안	추진 국가	내용
가정 내 안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로 인한 성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집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택묘, 가택봉안'</li> </ul> 

대안	추진 국가	내용
퇴비장	미국 5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신을 철제용기에 담아 풀, 꽃, 나무조각, 짚 등 생분해 원료를 더한 뒤 6주~8주 바람을 통해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자연분해</li> </ul> 
유골 보석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골을 가공하여 '보석반지,' '보석목걸이'로 만들어 지니고 다님</li> </ul> 

자료: 인천가족공원(2022a)

### 인천시 추진 방안

- 인천시에서 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 확산을 위하여 5년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표 7-21]과 같음
- 2023-2024년에 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에 대한 조사와 유관기관 협약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시민대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표 7-21] 인천시 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 확산을 위한 5개년 계획

	2023	2024	2025	2026	2027
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유골 안치 방식에 대한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 협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 및 홍보 시행</li> </ul>		

### 3. 인천시 장사시설 발전을 위한 제언

#### 1) 장사시설 이미지 개선

##### (1)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 조사에서 인천시 장사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분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장사시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크게 장사시설 환경 개선과 신기술을 활용 방식으로 추진해볼 수 있음

##### (2) 추진 방향

###### ◆ 장사시설 환경 개선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뒤, 봉안당 뒤, 만장된 수목장지로 이어지는 길 등은 정비가 필요함
  - 인천가족공원 수목장지 길의 경우 잡초, 수목으로 우거진 상황이라 유족 등이 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인천가족공원 외에 인천시 전역에 분포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대한 환경정비도 필요함
  - 특히 섬에 마련되어 있는 장사시설의 경우 접근성, 관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공설묘지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함

###### ◆ 신기술을 활용한 장례문화 홍보

- 신기술을 활용하여 죽음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삶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례문화를 홍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고인의 생전 모습을 조각상으로 남기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했을 때 고인이 미리 촬영해둔 영상이 증강현실(AR)로 재생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또한, 살아생전 건강한 본인, 부모님, 가족 등의 모습을 AI 휴먼(AI Human)으로 구현해 사후에도 고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AI 추모 서비스도 가능함(김유경, 2022)
  - 인터뷰와 촬영, 딥러닝 학습과정 등을 거쳐 외모, 표정, 말투까지 본인과 닮은 AI 제작 가능함

## 2) 합리적인 장례 비용 유도

### (1) 필요성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적당한 장례비용으로 ‘5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14년에 조사한 평균 비용 1,443만원(화장 시 1,328만 원, 매장 시 1,558만 원)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인천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장례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장례 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 방안

- 서울시는 장례비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례용품 거품과 허례허식 관행을 제거한 ‘서울시 착한장례서비스’를 2015년에 도입함(최민아, 2015)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추모시설(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연계해 시민들이 기존 장례식장 비용의 절반 정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임
  - 기존의 통상 장례비용이 1,200만 원대인 것에 비해 착한 장례서비스 이용료는 약 600만 원으로 절반 정도임
    - 조문객 식사비 240만 원(200명 기준), 장의용품 대여비 173만 원, 장례식장 사용비 91만 원, 봉안비 60만원(자연장 기준), 장례 차량 이용비 30만 원 등임
- 인천시도 공공 장례식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장례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3) 후속 연구 제언

- 인천가족공원 내 가족묘 4,065기가 중심부에 위치함. 묘지 현황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가족묘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함

#### 4. 인천시 주요 장사정책 로드맵

- 본 연구 추진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인천시청 및 인천가족공원 담당자, 장사분야 전문가와 인천시 장사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최종보고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인천시 장사 정책에 과제에 대한 연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7-22]와 같음

[표 7-22] 인천시 주요 장사정책 추진 로드맵(2023-2028)

연도별 추진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2023. 8.~	2024	연도별 추진 방안		
				2025	2026	2027
복합단	인치기수 수요·공급 조절 *시간적 범위 : 약 18개월 (25년 초 만장~26년 말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계획 수립('23. 하반기)</li><li>- 타시설 안치 유도</li><li>- 안치 기간 조율·축소</li><li>- 공급 조절</li><li>조례 입법 추진('23. 하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계획 수립('24. 상반기)</li><li>- 공안치단 폐지</li><li>- 재사용 방안 등</li><li>예산 신청('24. 하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5. 1. 민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26. 4. 완공 '26. 8 개장)</li></ul>	
	리모델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단계적 리모델링 실시</li></ul>			
화장로	화장로 공급 확대 *27년 말 화장로를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부 계획 논의(↔공단)</li><li>- 화장로 증설 시설 신축 등</li><li>계획 수립, 예산 신청(국비)</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예산 확보(국비)</li><li>사업 시행</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사 착공</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사 준공</li></ul>
	산분장 설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3-2단계 조성사업 설계 반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산분장 조성공사 착공 ('24.10.~)</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산분장 조성공사 준공 (~'26. 4.)</li></ul>	
산분장	유택동산 고품격화 *기준공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3-3단계 조성사업 반영('26.~'30.)</li></ul>	
	시민 교육 *죽음 준비(산분장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업계획 수립('24. 상반기)</li><li>예산 신청('24. 하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사업 시행('25. 상반기)</li><li>유관기관 협력('25. 상반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협약서 체결, 교육 시행('25. 하반기~)</li></ul>		

## ● 단행본/연구보고서

- 김동영·최민애. (2015).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 경기연구원.
- 김승희·이원학. (2014).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2014~2018). 강원도청, 강원발전연구원
- 김윤영·최태림·이창문·박태호·김아진. (2018).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인천: 인천연구원.
- 이왕기·이종현·이용갑·권전오·석종수·지남석·조종렬·최현중·강평희·송영현·이현승·김재현·신대섭·양훈민. (2013). 검단묘지공원 사업화 방안연구 용역. 인천: 인천도시공사·인천발전연구원.
- 이용갑·조승현·박태호·윤성복·최동국. (2013).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이용갑. (2015). 인천승화원 인근지역 주민 치유를 위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이재호. (2022). 울산 장사시설 수요전망과 적정 공급 규모 결정 연구. 울산: 울산연구원.
- 이정선·오유마·이필도·박태호·차성수·고묘성·황윤지. (2022). 국립수목장립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경기: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 학술지/학위논문

- 김석. (2014). 진정한 애도가 필요한 때.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102-103.
- 박진옥. (2019). 무연고사망자 장례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10(2), 1099-1114.
- 윤강인·황윤성·박미정. (2018).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의 심리적 복지감 예측요인. 지역사회연구. 26(1), 171-202.
- 윤강인·김종일·황예음·임시현. (2021). 공영장례 조례 분석 및 향후 과제 고찰. 지역사회연구. 29(4), 137-166.

## ● 관련 법

-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규칙 제3184호). 2020.12.14. [제정]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838호). 2019.2.20.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838호). 2021.2.23.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838호). 2021.4.21. [일부개정]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6920호). 2022.12.30.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108호). 2015.1.28. [일부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624호). 2019.4.23.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624호). 2020.4.7.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8624호). 2021.7.21. [일부개정]

## ● 행정자료

보건복지부. (2013). 2012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18). 2017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20). 2019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화장통계.

보건복지부. (2022a). 2022 장사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2022b).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3). 2023-2027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공영장례 운영(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2023). 2023년 공영장례 운영 계획.

인천광역시. (2009). 202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인천광역시. (2021a). 검단묘지공원 재정비 사업[내부자료].

인천광역시. (2021b). 영종 봉안당 건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내부자료].

인천가족공원. (2021). 화장시설(승화원) 대기환경 측정결과[내부자료].

인천가족공원. (2022a). 유골 안치방법 개선으로 장례 문화 혁신[내부자료].

인천가족공원. (2022b). 인천가족공원 대기측정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인천가족공원. (2023a).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현황(23년 5월 기준)[내부자료].

인천가족공원. (2023b). 인천가족공원 시설현황 및 안치현황[내부자료].

인천가족공원. (2023c). 인천가족공원 대기측정 결과보고서[내부자료].

인천광역시. (2023a). 인천시 장사시설 현황[내부자료].

인천광역시. (2023b).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현황[내부자료].

인천광역시. (2023c). 인천시 공영장례 현황[내부자료].

통계청. (2022). 장례가구추계(시도편).

통계청. (2023). 인천광역시 군구별장래인구추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3a). 전국 및 인천시 무연고 시신 처리현황(2012-202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3b). 전국 장사시설 현황.

## ● 홈페이지

경인일보. (2019). “집앞에 파헤쳐진 무덤…구청은 뭐하길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9853128&memberNo=24167781>(검색일: 2023년 7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https://www.law.go.kr/>(검색일: 2023년 6월 15일)

다비코. (2018). 공동추모의 시대. 엔딩연구소. <https://ending.co.kr/entry/%EA%B3%B5%EB%8F%99%EC%B6%94%EB%AA%A8%EC%9D%98-%EC%8B%9C%EB%8C%80>(검색일: 2023년 7월 13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2023). 2023년 시립묘지 개장. 화장 비용 절반 지원 안내. [https://sisul.or.kr/open\\_content/memorial/bbs/bbsMsgDetail.do?msg\\_seq=7507&bcd=notice](https://sisul.or.kr/open_content/memorial/bbs/bbsMsgDetail.do?msg_seq=7507&bcd=notice)(검색일: 2023년 7월 15일)

서울시설공단. (2022).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 ‘자연장’을 이용하세요. 서울시설공단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eoulsisul/222968204156>(검색일: 2023년 7월 13일)

영락공원. (2023). 공영장례 안내. <https://www.bisco.or.kr/>(검색일: 2023년 6월 21일)

인천가족공원. (2023). <https://www.insiseol.or.kr/life/family/>

인천광역시. (2023). 도시사업 개별현황. <https://www.incheon.go.kr/build/BU040201>(검색일: 2023년 7월 5일)

인천시설공단. (2022). 인천가족공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관리 예비인력 교육 실시. [https://www.insiseol.or.kr/publicity/bbs/bbsMsgDetail.do?bcd=pub\\_report&msg\\_seq=110](https://www.insiseol.or.kr/publicity/bbs/bbsMsgDetail.do?bcd=pub_report&msg_seq=110)(검색일: 2023년 7월 15일)

인천시설공단. (2023). <https://www.insiseol.or.kr/>

카카오맵. (2023). <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3년 8월 7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1.7.25). [박태호의 세계 화장문화#13] 지중해변 라틴 장묘문화, 포르투갈 리스본 올리바이스 묘지 및 화장장[비디오 파일].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ExPPlzgSyE>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23). 무연고장례지원: 별빛버스사업 소개. <https://www.kfcpi.or.kr/>(검색일: 2023년 6월 19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3). <https://15774129.go.kr/intro.do>

Hong Kong FEHD. (2023). A Guide to After-Death Arrangements. [https://www.fehd.gov.hk/english/cc/die\\_todo\\_e.pdf](https://www.fehd.gov.hk/english/cc/die_todo_e.pdf)(검색일: 2023년 7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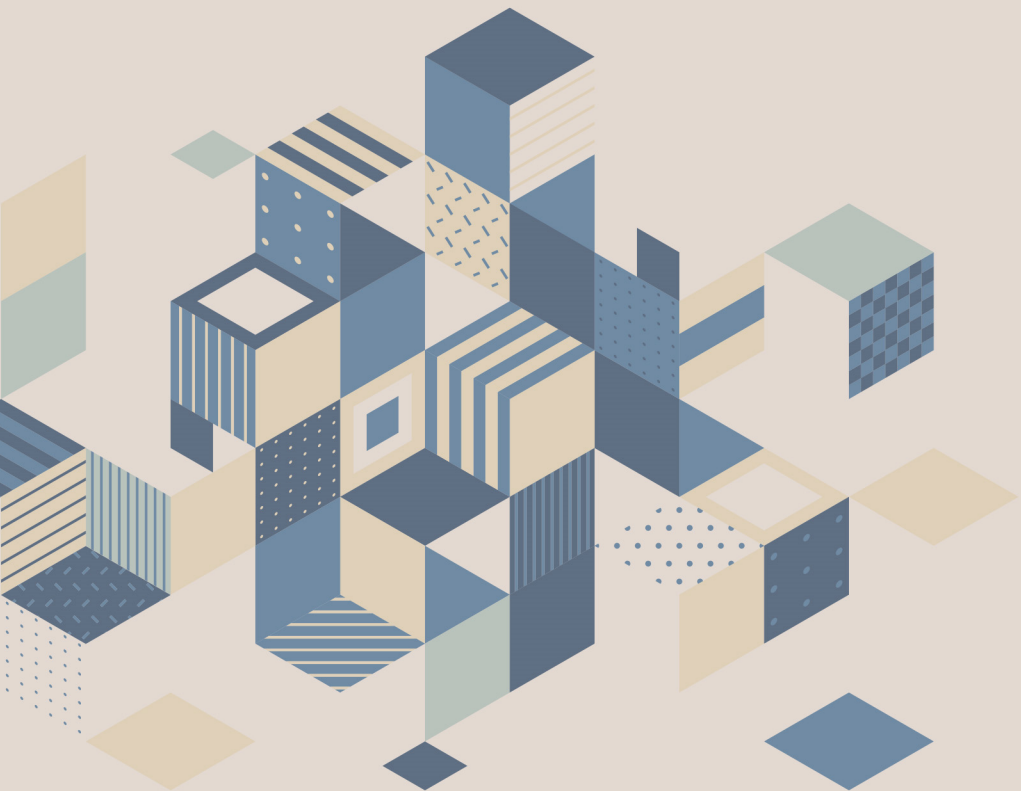
IGNITION INT. (2015). Are “Tree Burials” the Graves of Japan’s Dreams? <https://medium.com/ignition-int/are-tree-burials-the-graves-of-japan-s-dreams-4649b88096ac>(검색일: 2023년 7월 13일)

## ● 보도자료/신문기사

- 강준완. (2021. 8. 20.). 슬금슬금 늘어나는 바다葬.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2081341>(검색일: 2023년 7월 10일)
- 고상규. (2022. 7. 6.). 감염병 재유행 대비...인천가족공원에 저온 안치실 설치. 미디어인천신문. <https://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32>(검색일: 2023년 7월 16일)
- 김유경. (2022. 9. 10.). 디지털로 환생한 어머니와 만났다...장례문화 바꾸는 첨단기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0810252189622> (검색일: 2023년 7월 16일)
- 김정엽. (2017.01.19.). 세대문구 작은 장례로 사회적 비용 낮춘다. 서울엔. [https://www.seoulent.com/article/society/society\\_general/1476.html](https://www.seoulent.com/article/society/society_general/1476.html)(검색일: 2023년 7월 2일)
- 김충현. (2021.10.25.). 해양장, 정식 장례법으로 인정받게 되나?. STV.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62324>(검색일: 2023년 7월 10일)
- 민상기. (2014. 9. 16.). 안산시, 분묘 개장 시 화장장려금 지급. 중부뉴스. <http://www.joongboonews.com/news/149812>(검색일: 2023년 7월 20일)
- 박재하. (2022. 3. 22.). 코로나 사망자 급증, 인천승화원 화장장 확대 운영.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04>(검색일: 2023년 7월 15일)
- 박종국. (2021. 12. 7.). 연천군, 2022년부터 관내 분묘 개장시 유골 화장비용 지원. 경기북부탐뉴스. <https://www.gbto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2710>(검색일: 2023년 7월 20일)
- 박해운. (2023. 6. 28.). 제동 걸린 서구 왕길동 도시개발계획.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410>(검색일: 2023년 7월 21일)
- 변민철. (2023. 5. 23.). [인터뷰·공감] 2019년부터 봉사 힘쓴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523010004400>(검색일: 2023년 6월 30일)
- 보건복지부. (2022. 9. 14.). 별빛버스가 홀로 떠나는 이의 마지막을 배웅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기념식 개최(9.14)[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2022. 7. 31.). 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의 존엄한 죽음과 애도 기회 제공: 부산시, 무연고자 첫 ‘공영장례’ 지원[보도자료]
- 이지용. (2021. 6. 20.). 인천 앞바다 해양장 급증.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2365501> (검색일: 2023년 7월 10일)
- 장호영. (2021. 4. 13.). “인천 서구 왕길동 훼손 방치된 묘지, 정비라도.”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99>(검색일: 2023년 7월 16일)
- 전민영. (2022. 10. 19.). 인천가족공원 자연 장지 조성, 해 넘길 전망.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913>(검색일: 2023년 7월 10일)
- 최민아. (2015. 4. 30.). 서울시 ‘착한 장례서비스’ 장례비용 거품 뺀다. 시사포커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07> W(검색일: 2023년 7월 17일)

## 부록

1.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지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지





## 1.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지


##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지역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인천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인천시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서 향후 인천시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및 장사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소중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주관기관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조사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	---	---------	-------

##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 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① 중구   | ⑤ 남동구 | ⑨ 강화군 |
| ② 동구   | ⑥ 부평구 | ⑩ 옹진군 |
| ③ 미추홀구 | ⑦ 계양구 |       |
| ④ 연수구  | ⑧ 서구  |       |

##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

## 3. 귀하의 연령대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19~29세 | ④ 50대    |
| ② 30대    | ⑤ 60대    |
| ③ 40대    | ⑥ 70대 이상 |

## II. 죽음 및 장례 준비에 관한 의식

4. 귀하께서는 현재까지 죽음 혹은 장례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4-1번으로)                      ② 없음 (→ 5번으로)

4-1. (받아봤다면) 죽음 혹은 장례관련 교육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 ① 초·중·고등학교                      ④ 복지관  
② 대학교·대학원                      ⑤ 평생교육원  
③ 종교시설                      ⑥ 기타( )

5. 귀하께서는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 6번으로)  
② 불필요 (→ 6번으로)  
③ 보통 (→ 6번으로)  
④ 필요 (→ 5-1번으로)  
⑤ 매우 필요 (→ 5-1번으로)

5-1. (필요하다고 한다면) 죽음 준비 교육은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 ① 장례 방식 및 절차                      ⑥ 사별 후 슬픔 치유법  
② 살아온 인생 돌아보기                      ⑦ 장기기증  
③ 유언장 작성                      ⑧ 연명치료  
④ 유산상속에 대한 법정 상속                      ⑨ 기타( )  
⑤ 죽음에 대한 불안 줄이는 법

6. 귀하께서는 생전에 가족들과 죽음 및 장례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  
②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7. 귀하께서는 사전장례의향서(생전에 장례방식, 장례서비스, 장례용품 등에 대한 결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② 반대
- ③ 보통
- ④ 찬성
- ⑤ 적극 찬성

8. 귀하께서는 장례비용(장례식장, 화장 및 봉안 관련 비용 등)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00만 원 미만
- ② 500만 원~1천만 원 미만
- ③ 1천만 원~1천 500만 원 미만
- ④ 1천 500만 원~2천만 원 미만
- ⑤ 2천만 원 이상

### Ⅲ. 산분장 및 가정 내 안치 관련 의식

9. 보건복지부는 국토 훼손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안으로 화장한 유골을 산, 바다, 강에 뿌리는 산분장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산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10번으로)
- ② 반대 (→ 10번으로)
- ③ 보통 (→ 10번으로)
- ④ 찬성 (→ 9-1번으로)
- ⑤ 적극 찬성 (→ 9-1번으로)

9-1. (산분장에 대해 찬성한다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어느 장소에 뿌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화장시설 내 유족동산(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치르는 장소)
- ② 산림
- ③ 강
- ④ 바다

10.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산분 장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② 반대
- ③ 보통
- ④ 찬성
- ⑤ 적극 찬성

11. 귀하께서는 봉안시설 부족을 해결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장 후 유골을 가정 내 안치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② 반대
- ③ 보통
- ④ 찬성
- ⑤ 적극 찬성

#### Ⅳ. 희망 장사방법 관련

(※ 향후 희망하는 ‘본인의’ 장사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 12.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본인의 장례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 ① 자택
- ② 병원 장례식장
- ③ 전문장례식장
- ④ 사찰 및 교회 등 종교시설
- ⑤ 기타(                    )
- ⑥ 잘 모르겠음(생각해본 적 없음)

##### 13.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본인의 장사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매장 (13-1로 이동)
- ② 화장 (☞ 13-3으로 이동)

#### [매장을 희망하시는 경우]

##### 13-1.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본인의 묘지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개인 묘지
- ② 가족 묘지
- ③ 선산, 종중, 문중 묘지
- ④ 종교단체 묘지
- ⑤ 사설법인 묘지
- ⑥ 공설(공원) 묘지
- ⑦ 기타 묘지

##### 13-2. 귀하께서는 매장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후손들이 성묘할 수 있어서
- ②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 ③ 전통적 관습 및 선례를 존중하기 때문에
- ④ 종교적 이유 때문에
- ⑤ 이미 묘지가 확보되어 있어서
- ⑥ 기타(                    )



**13-6 귀하께서는 다음의 자연장 중 어떤 형태의 자연장을 선호하십니까?**

- ① 잔디형 자연장(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 ② 화초형 자연장(화초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 ③ 수목형 자연장(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
- ④ 수목장림(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잔디형 자연장	화초형 자연장	수목형 자연장	수목장림
			

**13-7. 귀하께서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어떤 장소에 뿌리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 ①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화장한 유골을 집단으로 뿌려 장례를 모시는 장소)
- ② 산림
- ③ 강
- ④ 바다

## V.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의견

14. 귀하께서는 인천시립 화장장 ‘승화원’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조문 포함)

- ① 있다 (→14-1로 이동)
- ② 없다 (→15로 이동)

14-1. (있다면) 승화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화장 진행 속도가 느림
- ② 편의시설 부족
- ③ 의례장소의 부족
- ④ 담당 직원의 불친절한 서비스
- ⑤ 다른 유족들과 동선이 겹침
- ⑥ 주차장 부족
- ⑦ 특별히 불편한 점 없음
- ⑧ 기타( )

15. 귀하께서는 후세대를 고려할 때 인천가족공원 봉안(납골)당의 적정한 안치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년 이하
- ② 20년 이하
- ③ 30년 이하
- ④ 40년 이하
- ⑤ 기타( )

16. 귀하께서는 인천가족공원 봉안(납골)당의 최대 안치기간 30년 이후에는 유골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산, 강에 뿌리는 산분장으로 변경
- ② 사설(민간) 봉안(납골)당으로 이전
- ③ 사설(민간) 자연장(화초형, 잔디형, 수목형, 수목장림)으로 변경
- ④ 가정 내 안치
- ⑤ 기타( )

## VI. 인천시 장사정책에 관한 의견

17. 귀하께서는 인천시가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화장한 유골을 산,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의 활성화
- ② 자연장 시설 확충
- ③ 봉안(납골)당 시설 확충
- ④ 기존 공설 묘지를 재개발하여 봉안(납골)당, 자연장, 산분장소를 갖춘 공원으로 조성
- ⑤ 기타( )

18. 귀하께서는 인천시 장사시설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순위, 2순위)

- 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대비 대응 체계 마련
- ② 지속가능한 형태인 산분장 확대
- ③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 장례 지원
- ④ 비대면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
- ⑤ 웰다잉 교육 등 미리 준비하는 장례교육 제공
- ⑥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 ⑦ 장사시설의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
- ⑧ 화장로 증설
- ⑨ 버려진 묘지 관리 체계화
- ⑩ 기타( )

19. 귀하께서는 지역사회 내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에서 정책의 모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
- ② 갈등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갈등 조정
- ③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 ④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 ⑤ 기타( )

## Ⅶ. 자료분류용 설문

### 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 ② 중학교 졸업
- ③ 고등학교 졸업
- ④ 전문대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졸업 이상

### 2.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 ② 개신교(기독교)
- ③ 천주교
- ④ 무교(종교 없음)
- ⑤ 기타( )

### 3. 귀하의 인천시에서의 거주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 ~ 20년 미만
- ④ 20년 이상 ~ 30년 미만
- ⑤ 30년 이상

### 4. 귀하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③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600만원 미만
- ⑥ 600만원~700만원 미만
- ⑦ 700만원~800만원 미만
- ⑧ 800만원~900만원 미만
- ⑨ 900만원~1,000만원 미만

## 2.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지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조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의 의뢰를 받아 “인천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천시민들의 장사문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상중(喪中)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인천시의 중장기 장사정책 개발과 발전을 위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 Q1. 돌아가신 분의 화장 유형은 무엇이셨습니까?

1. 일반 화장(시신 화장) ☞ Q2
2. 개장 유골 화장(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하여 수습한 유골을 화장함) ☞ Q3

#### Q2. 돌아가신 분의 생전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1. 인천시 ☞ Q3
2. 서울시 ☞ Q2-1
3. 경기도 ☞ Q2-1
4. 기타 ( ) ☞ Q2-1

**Q2-1. 고인의 생전 거주지가 아닌 인천시 승화원을 이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1. 장례식장과 거리가 가까워서
2. 이용료가 저렴해서
3. 이용 가능해서
4. 기타 ( )

**Q3. 화장한 유골(골분)은 어떻게 모실 예정입니까?**

1. 공설 봉안(납골)당 또는 봉안당 안치
2. 민간 봉안(납골)당 또는 봉안(납골)묘 안치
3. 공설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
4. 민간 자연장(잔디장, 수목장, 화초장 등)
5. 가정 내 안치
6. 유택동산에 모심 ☞ 설문 종료
7. 산, 강, 바다에 부림(산분장) ☞ 설문 종료
8. 기타 ( )

**Q3-1. 산분장(산, 강, 바다에 유골을 부림)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문화적 낯설음
2. 고인의 유지(유언 또는 평소의 생각 등)
3. 유족들간의 합의의 어려움
4. 잘 몰라서
5. 기타 (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